

2003년도

사업보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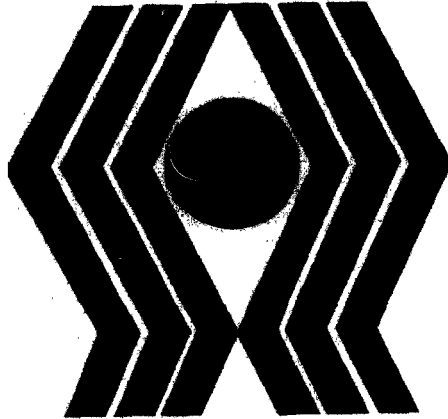
2003년도

사 업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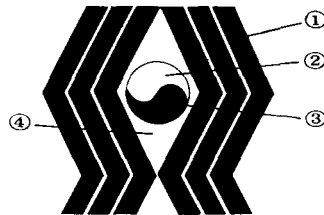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조연맹기에 대한 설명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됨으로써 금속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조선, 비철금속의 업종별, 분파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한국의 금속노동조합을 뜻함.
 3. 원 : 뜻과 목적과 공존공영의 번영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를 나타내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⑤의 바탕은 남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속노련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고 힘차게)



떠 오 르 는 태 -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땀 기 림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용 - 광 로 흐 른 용 액 불 꽃 튀 기 듯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뭉 친 우 리 - 들
하 - 늘 과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우 - 리 의 핏 줄 속 은 불 고 뜨 거 - 워



거 - 칠 은 가 시 밭 길 꺾 어 넓 히 며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껌 맥 박 이 뻗 다
잘 - 사 는 평 생 터 전 우 리 손 으 로



나 가 자 금 속 깃 발 강 - 철 의 대 오
" " "



손 모 - 은 여 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 하 며 교 류 하 는 국 제 유 대 로
뜻 모 - 은 투 혼 속 에 내 일 은 밝 다



정 의 의 사 회 퍼 갈 금 속 노 — 련
인 류 의 평 화 지 킬 금 속 노 — 련
복 지 를 다 저 가 는 금 속 노 — 련

목 차

1. 화보	7
2. 머리말	19
3. 선언.강령	21
4. 연혁	23
5. 총론	35
6. 기획연구활동	59
7. 총무활동	97
8. 조직활동	121
9. 국제활동	155
10. 노사대책활동	237
11. 법규활동	251
12. 조사통계활동	285
13. 산업안전활동	321
14. 교육활동	349
15. 홍보활동	365
16. 여성.문화활동	453
17. 대외협력활동	479

임 원



위원장 이 병 군

지 도 위 원



최 웅 길(상임)



유 재 섭(상임)



박 인 상



김 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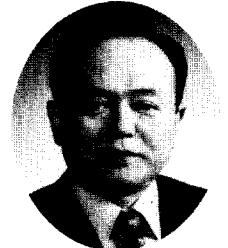
강 영 섭



김 장 선



김 문 수



엄 중 국

부 위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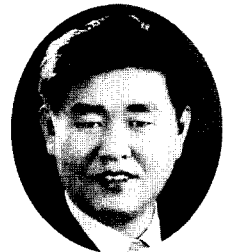
정 창영(수석-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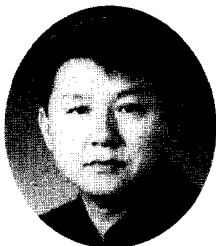
문 광 주(상임)



정 일 진(상임)



김만재(사무처장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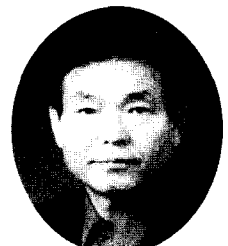
장 석 춘



서 갑 순



최 경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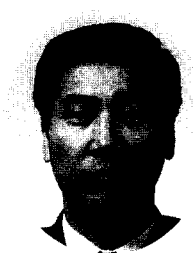


김 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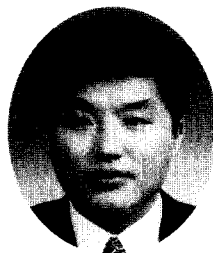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허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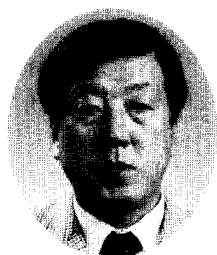
지 수 식



도 정 복



정 상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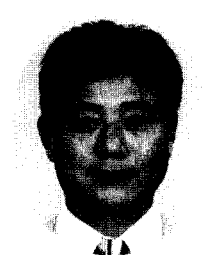
조 병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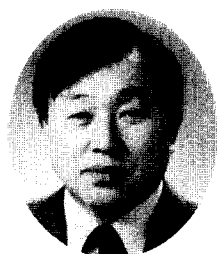
김 한 모



황 창 배



손 종 홍



이 병 옥



김 광 호



김 두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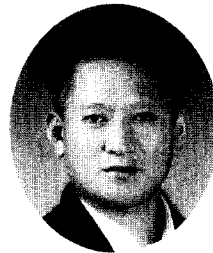
강 한 우



강 창 영



김 한 성



김 준 수



이 문 호



최 해 경



강 진 호



권 동 재



신 택 기

부 위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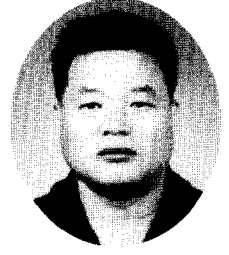
손 은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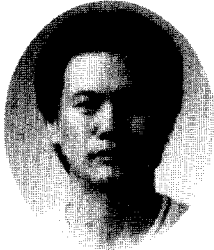
김 경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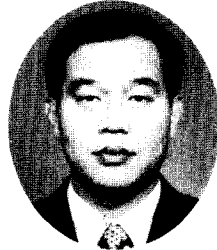
김 무 호



변 재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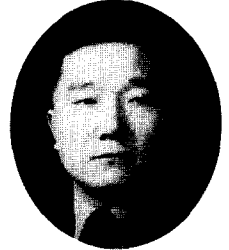
강 영 철



김 인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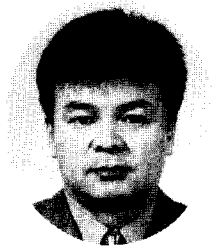


강 학 중



김 길 주

회 계 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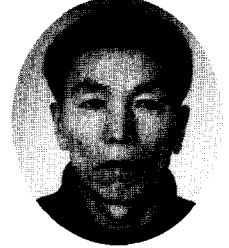
이 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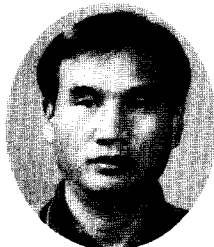
왕 용 호



장 준 영



황 대 선



조 한 제



노 승 표



김 응 표



김 병 수

사진으로 보는 2003년 금속노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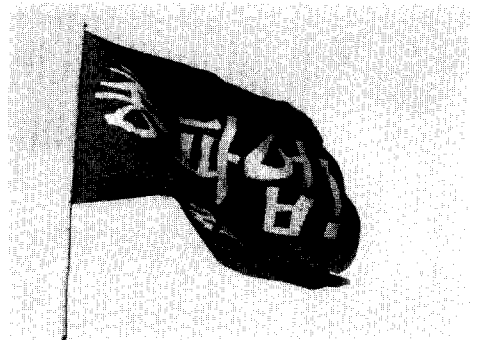
노무현 정권 개혁후퇴 규탄 및 2003 임단투 승리를 위한

6.30 총파업 진군대회



2003. 6. 30. 서울중요공원 14시

'노무현정권 개혁후퇴규탄 및
임단투승리를 위한 총파업투쟁 진군대회'



노동조건 저하없는 40시간 · 주5일제, 금속노동자 선봉투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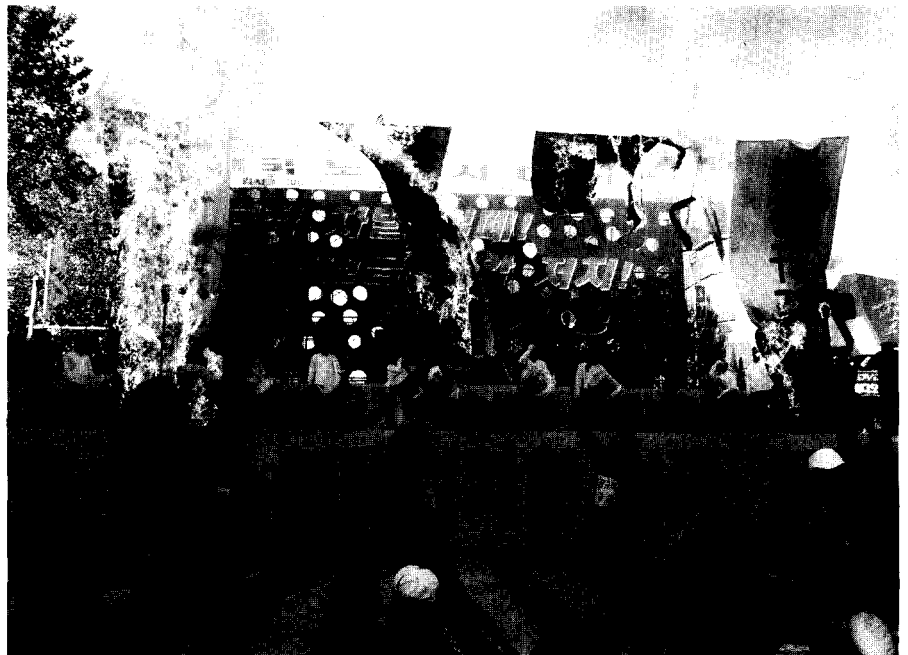


2003. 8. 28. 한국노총민주노총 근기법개악 중력투쟁 결의대회



2003. 8. 29.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기 까지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노총은 폭우가 몰아치는 악천우와 뜨겁게 내리쬐는 땀악별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근로기준법개악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속노련은 항상 그 최선두에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제 쟁취를 위해 투쟁했다.

2003. 11. 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03. 11. 23. 한국노총은 대학로에 100만 조합원의 힘을 응집시켜, 전국노동자대회를 성화리에 치렀다. 금속노동자의 힘을 모아 연맹은 조합원 3000여명과 힘있게 전국노동자대회를 굳건히 사수했다.

금속-화학 제조대통합으로 제조노동자의 시대를 열자!



**제조산업별 통합추진 노조대표자
권역별 세미나(2003. 10월)**

- 1차 : 10월 14~15일 충청권
- 2차 : 10월 16~17일 수도권, 강원도
- 3차 : 10월 28~29일 영남권
- 4차 : 10월 30~31일 호남권



**제조통합연맹 추진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 (2003.12)**

- 8일 : 서울/경기남·중·서부
- 9일 : 전북/광주·전남
- 10일 : 부산/경남
- 11일 : 울산/포함
- 12일 : 대구·경북/구미
- 15일 : 인천/경기서부
- 16일 : 경기동·북부/충북
- 17일 : 충남/대전
- 18일 : 강원

2007. 1. 1. 전임자임금지금 금지, 복수노조의 결성등 노동법의 개정과 제조공동화비정규직노동자의 확산 등 노동조합운동은 위기의 기로에 서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극복과 조직혁신을 위해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은 그간 제조연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대통합을 선언하고, 우선 금속-화학의 대통합을 추진하였다.

2001년부터 제조연대의 활동을 통해 연대인식을 발전시켜, 2003년 상반기 각 연맹의 의견을 모아 통합추진을 결하고, 2003년 하반기에 금속-화학연맹 합동으로 노조대표자 지역순회세미나와 전국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제 1 회 위원장기 금속노련 전국 노조대표자 체육대회

금속대표자! 여주벌을 달리다



2003년 10월 9~10일 한국노총 여주교육원에서 제 1 회 위원장기 전국노조 대표자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지애와 연대감을 느낄수 있는 자리 였다는 평가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 속에서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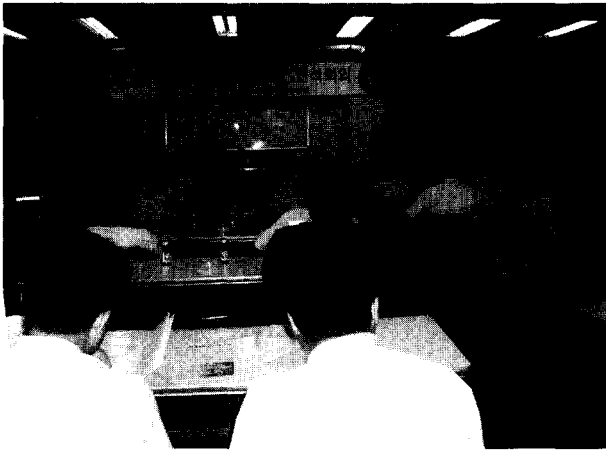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 녹색사민당 건설로 시도!!



한국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2004년 녹색사민당의 건설로 그 기발을 올렸다. 하지만, 4.15총선에서 미비 한 성과로 녹색사민당이 해산되고, 정치세력화를 포함한 노총의 전반적인 개혁과 방향수립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금속노련, 일상을 넘어 운동으로...



2003.7.24. 중집실국부서부장 연석회의



2003.7.25.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안 시간단축
재교섭 촉구 결의대회



2003.8.29. 비정규직·영세·여성노동자 결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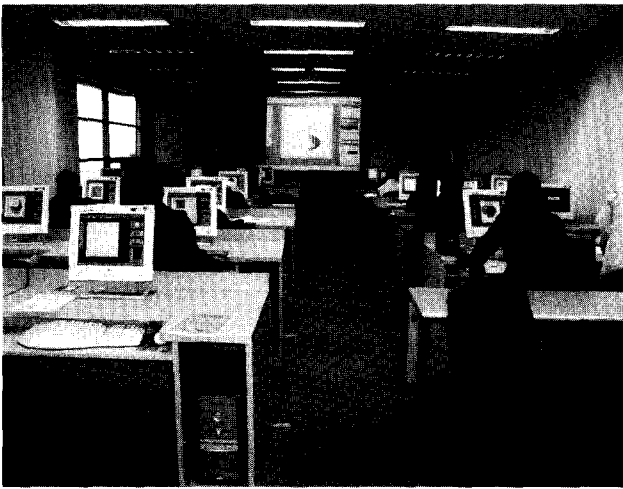
2003.11.26. 제조연대 여성간부교육



2003.11.27. 지역통신원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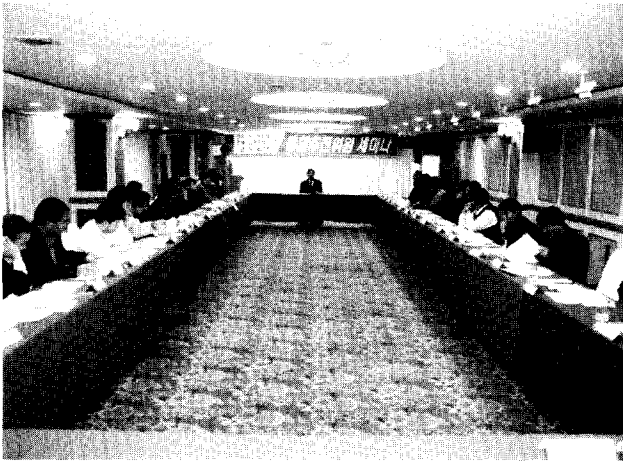
2003.12.4. 금속·화학 주40시간제대비 노조간부교육



2003.12.10/19. 금속-화학 홈페이지 운영자교육



2004.1.6. 금속-화학 “2004 노동운동을 말한다”
좌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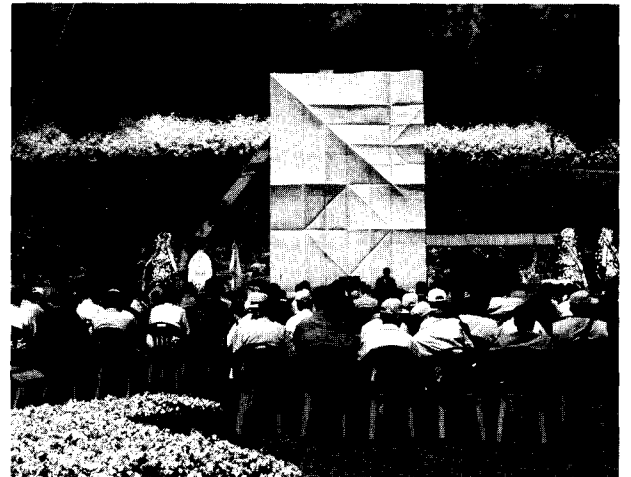
2004.1.8. 통합추진위원회세미나



2004.2.11~13. 금속-화학 법률학교



2004.3.9. 기아특수강노조 상경집회



2004.4.28.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머 리 말

한해, 한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우리 금속노련의 한 해 사업을 평가하는 이맘때쯤이면 매년 드는 생각이지만, 이번 회기는 더욱 더 분주한 해였다는 생각에 많은 감회가 듭니다. 특히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개악저지 투쟁, 4·15 총선과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우리 노동자의 일상에 매우 소중하며,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투쟁에 온 몸 내던져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에, 결과가 비록 성공적이지 못하여 허탈하기는 합니다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선 지난 겨울 우리 제노동지들을 싸늘한 아스팔트 위에서 분노에 떨게 했던 주5일제 관련 근기법이 자본의 요구대로 썩어빠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근기법 개악을 제노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듯이 그 싸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해를 넘겨서 2004년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흐르는 빗물에 눈물을 감추며, 여의도의 거대한 철밥통인 국회에 우리 노동자를 당당히 진입시키고 노동자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사민당'의 깃발아래 한국노총 58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가열차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 선거 때마다 겪었던 조직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전 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조직의 역량을 점검하였습니다. 애석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저조한 득표율로 인해 녹색사민당이 해산되고, 그 책임을 지고 노총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는 등 사상 초유의 조직적 위기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독자정치세력화라는 너무나 값진 경험을 통해 '변화와 개혁에 뒤쳐지는 조직은 냉정하게 버림받는다'는 엄정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아픈 뒤에 성숙해 진다고, 우리는 총선결과의 아픔을 조직 혁신과 발전이라는 성숙함으로 일궈나가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이며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주5일제 관련 근기법 개악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동지들이 투쟁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엄호·지원하여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만들어 내었듯이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는 한번 시도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만큼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운동방식과 조직풍토에 대한 전면적 평가와 반성을 통해 조직이 환골탈태함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고, 현장에서 정치세력화의 지혜와 힘을 모아 올해,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의 거듭남의 방안으로, ‘제조통합과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쉽없이 달려온 제조통합이 다소 소강상태임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속도조절이며, 대의원과 조합원들과 보다 풍부히 소통하고 그 의견 하나 하나에 귀기울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조직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조직의 풍토를 만들어나가자는 중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추진력으로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에 힘을 씀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임단투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가 느껴집니다.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쟁취를 통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현장 동지들 못지 않게 저를 포함한 사무처에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총력지원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현장으로, 조합원 곁으로 내달려 가겠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지나간 지난 한해 사업을 차분하게 평가했습니다. 실천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 회기 사업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있는 활동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평가해 주시고, 계획서에 있는 사업들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라도 소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이라도 경청하겠습니다. 노동해방의 그 장대한 길에 저와 사무처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병 균

선 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평등·복지·평화 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강 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평화.민족 대 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모성보호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이룩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연 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중 서기 1960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 2 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제는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3 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 672 호에 의하여 단일산업별 체제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 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 일람표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59. 3.	유 익 배	한승용, 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60. 10	임 한 식		김 사 옥	
전국철강노동조합	60. 10.		준비위원회: 임한식 준비부위원회:송영준,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 성 대 회 제 2차대의원대회	61. 8.25 62. 7. 2	지 연 일 (인천 중공업)	김재범(대한중기),이수영(삼양 산업),이령(금천철공)	박 종 현 (삼성기계)	609
제3차 대의원대회 (임시대회)(선출)	63. 4.12	박 종 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이수영(삼양산업),권종오(한국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 박세천 (한국기계)	김 득 성 (기아산업)	5,034
제4차 대의원대회	64. 4.30			“	8,455
제5차 대의원대회	65. 4.30			이 건 성 (인천중공업)	9,110
제6차 대의원대회 (임기)	66. 1. 8	박 세 천 (한국기계)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 업),박종선(한국공업)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 업),이의용(인천중공업) “	허 만 성 (인천중공업)	9,984
제7차 대의원대회	67. 4.27			홍 순 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 대의원대회	68. 4.30			“	15,223
임시대의원대회 (보선)	68. 9.20	김 병 용 (기아산업)	최종규(금성사),이성학(조선기 업),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 신주철),강준석(한국베아링)	이 택 용 (인천중공업)	17,947
제 9차대의원대회	69. 4.29	“	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신 주물),강준모(한국베아링),허재 업(조선공사)(보선),강기태(금 성사)보선	이 현 구 (한국기계) - 보선	23,960
제10차대의원대회 (임기)	70. 4.30	김 병 용 (기아산업)	강기태(금성사),정남수(조선),하 준(조선기업),이우년(한국기계)	최 종 규 (금성사)	25,217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11차대의원대회	71.1.16	김 병 용 (기아산업)	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문 익모(이천전기)(보선)	최 종 규 (금성사)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4.28	“	“	“	
제13차대의원대회 (임기)	73. 4.25	김 병 용 (기아산업)	문익모(이천전기),강준석(한국 베아링),정부경(금성사),한달수 (대한전선),팽종출(조선공사), 김정배(대한중기)	최 종 규 (금성사)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30	“	“	“	43,856
제15차대의원대회	75. 4.23	“	“	“	53,293
제16차대의원대회 (임기)	76. 4.21	“	강준석(한국베아링),정부경(금 성사),하준(승리기계),한달수(대 한전선)	“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27	“	“	“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20	“	“	“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 (임기)	79. 5.11	김 병 용 (기아산업)	하준(경북지부),정남수(부산지 부),이현구(대우중공업),팽종출 (조선공사),이중석(남서울지부 ,)정낙균(금성전선)	최 종 규 (금성사)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17	“	“	“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 임시대의 원대회,정기대의원 대회 같음)(보선)	81. 2.23	팽 종 출 (조선공사) -보선	최종규(금성사),민정식(금성사 ,)박인상(조기),이준(화천),한창 석(인천제철),김장선(대한전선 ,)이상숙(금성통신),권수태(대 림자동차)	김 성 문 (대한전선)	108,846
제22차대의원대회 (임기) (1983,1984년은 중 앙위원회로 같음)	82. 5. 7	팽 종 출 (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 기),민정식(금성사),김장선(대 우전자),한창석(인천제철),조태 식(효성중공업),최정원(대선조 선),이성균(새한자동차),허성원 (금성전선)	김 성 문 (대한전선)	99,594
제23차대의원대회 (임기)	85. 5.30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 기),김세민(기아산업),김장	한 창 석 (인천제철)	19,636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선(대우전자),최경환(금성알프스),강창령(동부제강),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크랏치)		
제24차대의원대회	86. 5.23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령(동부제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크랏치)	한 창 석 (인천제철)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22	“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유철규(평화크랏치)	“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 (임기)	88. 5.27	박 인 상 (조기)	강영섭(금성사),임창기(대한중기),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이영복(현대자동차),이금수(크라운전자),양동생(대우조선),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26	“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이영복(현대자동차),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	356,900
제28차대의원대회	90. 5.11	박 인 상 (조 기)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389,060
제29차대의원대회 (임기)	91. 5.15	박 인 상 (조 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 응 길 (동양강철)	272,078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30차대의원대회	92. 5.13	박 인 상 (조 기)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피희중(동해전장), 염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럭키금속), 전덕진(현대전자), 허관무(기아자동차)	최 용 길 (동양강철)	262,078
제31차대의원대회	93. 5.20	박 인 상 (조 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피희중(동해전장), 염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럭키금속), 전덕진(현대전자), 허관무(기아자동차), 김영철(현대전자), 김관태(기아자동차)	정 창 영 (금성전선)	
제32차대의원대회 (임기)	94. 5.17	박 인 상 (조 기)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용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박천석(기아서비스), 전재환(대우중공업), 정기춘(화천),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정 창 영 (금성전선)	243,271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		
제33차대의원대회	95. 5.12	박 인 상 (조 기)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서비스),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 창 영 (금성전선)	183,200
제34차대의원대회 (보선)	96. 5.15	유 재 섭 (LG전자) -보선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정기춘(화천),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LG전선),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 창 영 (LG전선)	160,327
제35차대의원대회 (임기)	97. 5.16	유 재 섭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이 병 균 (대우전자)	169,628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정기춘(화천),김경조(쌍용중공업),나찬경(LG전자),김영철(현대전자),하영일(LG전선),강익화(대한전선),강창영(동부제강),백종부(세아제강),황창배(대우전자),김복천(정일공업),강석수(창원공업),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강한우(삼신),김윤주(범양냉방),강진호(연합철강),김상수(동아건설),지수식(삼영전자),이정석(기아특수강),박영구(LG금속)		
제36차대의원대회	98. 5.20	유 재 섭 (LG전자)	상임: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김경조(쌍용중공업),김영철(현대전자),하영일(LG전선),강익화(대한전선),강창영(동부제강),백종부(세아제강),황창배(대우전자),김복천(정일공업),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강한우(삼신),강진호(연합철강),김상수(동아건설),지수식(삼영전자),이정석(기아특수강),김만재(현대전자),이병균(대우전자),박병용(대창단조),김수도(대우전자)	이 병 균 (대우전자)	138,858
제37차대의원대회	99. 5.20	유 재 섭 (LG전자)	상임: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장석춘(LG전자),허원(칩팩코리아),도정복(LG전선),김두형(대성공업),신성균(한화구로),박병도(LG정밀),신향철(대한전선),문광주(세진전자),강영철(현대반도체),변재한(LG필립스)	이 병 균 (대우전자)	124,097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38차대의원대회 (임기)	2000. 5. 24	유 재 섭 (LG전자)	상임: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파견), 문광주(세진전자), 김만재(현대전자) 장석춘(LG전자),강창영(동부제강), 김상수(동아건설),김수도(대우전자), 서갑순(한국특수공구),하영일(LG전선), 김영철(현대전자),지수식(삼영전자), 도정복(LG전선),허원(칩팩코리아), 황창배(대우전자),손종홍(대한제당), 이병욱(태양금속),강한우(삼신),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김경조(쌍용중공업대구), 김두형(대성공업),강진호(연합철강)박병용(대창단조), LG필립스(변재환),강영철(현대반도체), 박병도(LG이노텍),배동한(한국철강),이정석(기아특수강)	이 병 균 (대우전자)	106,126
제39차대의원대회	2001. 5. 25	유 재 섭 (LG전자)	보선-정상영(하이닉스반도체), 조병철(대한전선), 김인배(LG PhilipsDisplays)	이 병 균 (대우전자)	102,770
제40차대의원대회 (보선)	2002. 5. 10	이 병 균 (대우전자)	보선-김한모(칩팩코리아),김준수(하이닉스반도체청주), 김한성(충북본부),신태기(울산본부), 정일진(LG전자),김길주(기아특수강), 김광호(안산시흥본부),이문호(경남본부), 김도론(포항본부)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101,985
제40차대의원대회 (임기)	2002. 5. 22	이 병 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정창영.문광주.정일진.김만재. 장석춘서갑순.최경호.김순호.하영일. 지수식도정복.정상영.조병철.김한모. 황창배.손종홍.이병욱.김광호.김두형. 강한우.강창영.김한성.김준수.이문호. 최해경.강진호.권동재.신태기.손은진. 김경조.김무호.변재환.강영철.김인배. 강학중.김길주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 임 원

직 책	성 명	소속 조합명	직 책	성 명	소속 조합명
위 원 장	이 병 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부위원장	정 창 영	LG 전선
상임부위원장	문 광 주	세 진 전 자	상임부위원장	정 일 진	LG 전자
상임부위원장	김 만 재	하이닉스반도체-이천	부위원장	장 석 춘	LG 전자
부위원장	서 갑 순	한국특수공구	“	최 경 호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	김 순 호	삼양중기	“	하 영 일	LG 전선
“	지 수 식	삼영전자	“	도 정 복	LG 전선
“	정 상 영	하이닉스반도체-이천	“	조 병 철	대한전선
“	김 한 모	칩팩코리아	“	황 창 배	대우일렉트로닉스
“	손 중 홍	대한제당	“	이 병 옥	태양금속
“	김 광 호	대덕GDS	“	김 두 형	대한주택종합
“	강 한 우	삼신	“	강 창 영	동부제강
“	김 한 성	대성셀텍	“	김 준 수	하이닉스반도체-청주
“	이 문 호	효성기계	“	최 해 경	한국중천
“	강 진 호	연합철강	“	권 동 재	오리엔탈정공
“	신 택 기	LG Nikko 동제련	“	손 은 진	풍산
“	김 경 조	쌍용텍스텍	“	김 무 호	한국과워트레인
“	변 재 환	LG Philips LCD	“	강 영 철	하이닉스반도체-청주
“	김 인 배	LGP hilips Displays	“	강 학 중	그린산업
“	김 길 주	기아특수강			

● 지도위원

최용길(상임)	박 인 상	유 재 섭	김 문 수	김 윤 주	강 영 섭	김 장 선	엄 종 국
---------	-------	-------	-------	-------	-------	-------	-------

● 회계감사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 대 영	DENSO 풍성	왕 용 호	한국야금	장 준 영	FAG한화베어링
황 대 선	대선조선	조 한 제	고려아연	노 승 표	LG마이크론
김 용 표	LG 이노텍	김 병 수	세아특수강		

● 지역본부 의장

2004. 3. 31 기준

지 역 본 부	의 장	지 역 본 부	의 장
서 울	서 갑 순	경 기	허 원
안산 . 시흥	김 광 호	인 천	손 중 홍
대 전	김 두 형	충 남	강 한 우
충 북	김 한 성	부 산	강 진 호
울 산	신 택 기	경 남	이 문 호
대구 . 경북	김 무 호	포 향	김 병 수
구 미	노 승 표	전남 . 광주	김 용 표
전 북		강 원	윤 용 민

● 중앙위원

2004. 3. 31 기준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L G 전 자	이 영 호	동 양 강 철	오 기 순	경 창 산 업	장 지 태
대우일렉트로닉스	김 정 근	로움코리아	최 회 섭	삼 립 산 업	이 복 교
한 국 음 향	김 종 화	LG산전장항	설 광 섭	페 타 시 스	이 기 남
롯데알미늄	서 학 수	MEMC코리아	배 춘 식	평화발레오	김 동 준
삼 화 전 자	김 영 식	경 신 전 선	강 흥 진	평 화 산 업	신 석 곤
서 진 산 업	문 성 동	윤 영	고 석 회	화 신	이 석 기
성 신	유 진 화	삼 화 전 기	이 철 주	동 해 전 장	정 한 근
신한일전기	유 병 유	국제종합기계	김 선 종	평 화 정 공	김 순 창
하이닉스반도체	허 정 우	넥상스코리아	최 경 천	남 양 금 속	김 종 오
하 이 디 스	이 식 재	Y K Steel	류 해 출	하이닉스반도체구미	박 광 호
현대에너지셀	강 장 규	연 합 철 강	주 해 식	LG정보통신	권 용 석
현대엘리베이터	성 용 주	고려용접봉	김 회 근	LG마이크론	김 동 의
현대오토넷	이 승 현	티와이벨브	지 재 훈	LG Philips LCD	석 호 진
팬택-큐리텔	박 덕 규	한국오르강침	정 운 국	알 칸 대 한	박 풍 우
대 원 전 선	배 승 천	대 창 단 조	박 병 용	LG 이노텍	원 중 도
엔 젤 약 기	홍 제 자	영 신 정 공	장 복 이	포스텍정비부문	송 만 현
대광다이캐스트	김 수 룡	삼 주 기 계	문 성 일	그 린 산 업	안 진 수
코 리 아 휠	이 쌍 봉	대 동 기 어	전 종 환	조 선 선 재	이 창 호
대 덕 전 자	이 선 오	두원중공업	정 진 용	화 천 기 공	송 응 규
대 경 화 성	김 형 기	한 일 제 관	이 동 호	로케트전기	남 규 현
대 한 제 당	백 동 선	DENSO풍성창원	육 근 조	파 츠 닉	이 중 찬
린나이코리아	한 기 성	LG Philips Displays	김 종 철	쌍용동해산업기계	김 홍 배
동 국 제 강	김 재 업	L G 전 자	박 준 수	KEP 전 자	이 병 원
휴 스 틸	박 창 옥	세 방 전 지	정 권 호		

● 중앙 집행 위원

2004. 3.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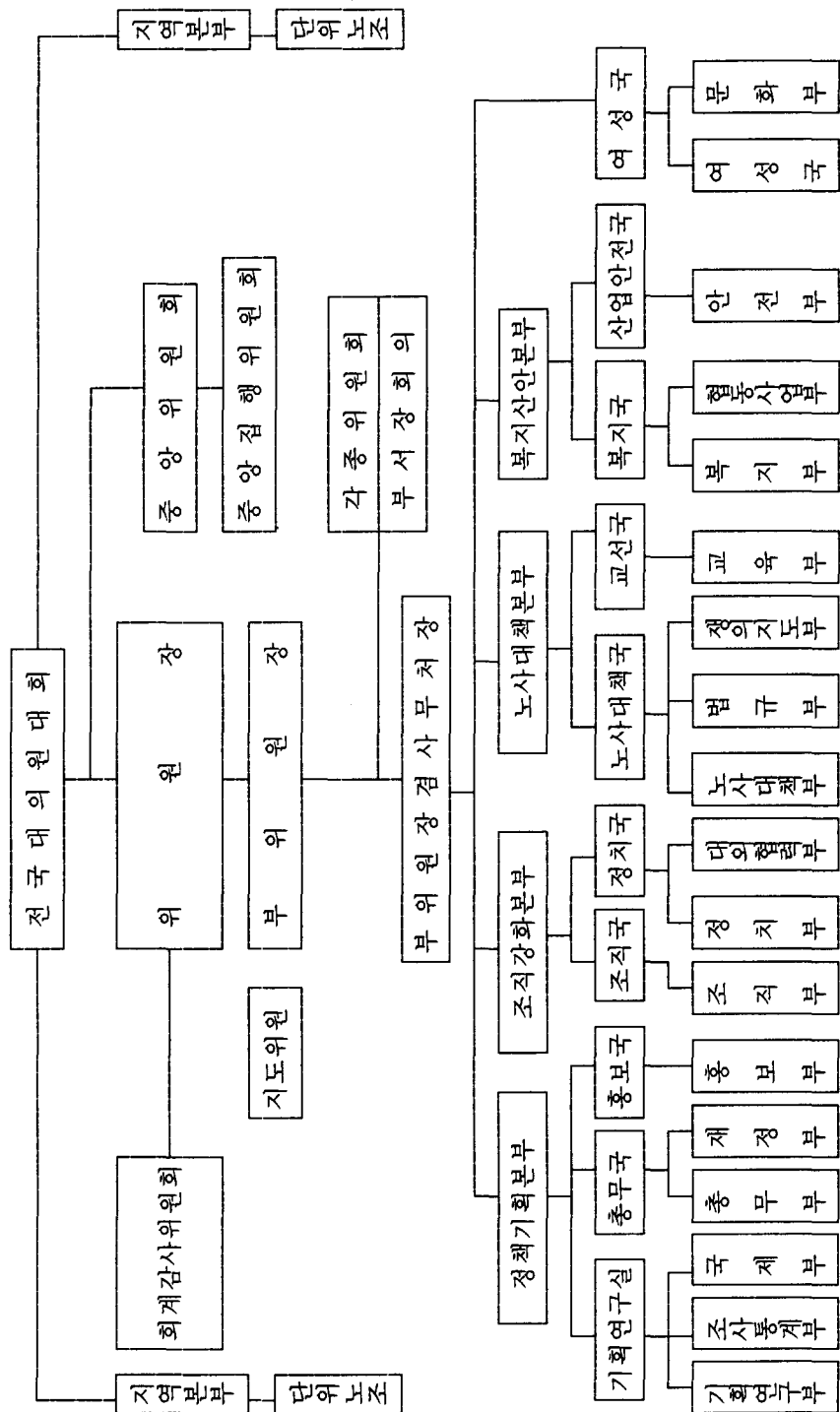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OTIS-LG엘리베이터	오 용 환	동원금속아산	김 영 호	삼 성 공 조	박 한 봉
대 철	황 성 원	L G 산 전	김 세 하	미 주 금 속	김 춘 종
LG전자평택지부	김 길 섭	에 넥 스	이 상 재	한국파워트레인	김 연 국
하이닉스반도체이천	이 명 근	하이닉스반도체청주	문 채 호	평화오일셀	유 길 호
일 진 전 기	전 덕 동	강 남 정 공	윤 정 원	태평양금속	김 수 문
동 서 기 공	김 종 춘	한국주철관	박 종 근	LG전자구미지부	이 화 철
그로웰메탈	강 영 석	다 스	홍 정 표	제일테크노스	김 성 운
한 국 샤 프	현 용 섭	대 일 공 업	허 문 근	홍 화 공 업	손 제 형
희 성 금 속	유 태 경	세 신	이 진 회	동 일 기 업	장 문 식
동 양 철 관	양 시 준	한 국 철 강	김 회 봉	성 신	이 종 진

● 본부장. 실. 국장. 부장. 차장

2004. 3. 31 기준

직 책	성 명	소속 조합명	직 책	성 명	소속 조합명
조직강화본부장	이 진 우	본 노련	재정부장	강 용 석	그로웰메탈
정책기획본부장	윤 창 열	“	조직부장	홍 전 화	정문정보
노사대책본부장	김 홍 룡	“	정치부장	양 시 준	동양철관
복지산안본부장	권 석 정	한 샘	대외협력부장	김 연 국	한국파워트레인
기획연구실장	오 태 곤	대우전자서비스	통일사업부장	이 운 길	도투락-인천
총 무 국 장	조 재 천	오양공조기	노사대책부장	전 덕 동	일진전기
조 직 국 장	김 덕 수	본 노련	법규부장	유 태 경	희성금속
정 치 국 장	김 정 완	본 노련	쟁의지도부장	홍 정 표	다 스
노사대책국장	이 성 찬	두 산	교육부장	황 성 원	대 철
교육국장			홍보부장		
홍보국장	나 영 섭	일지테크	복지부장	허 문 근	대일공업
산업안전국장	김 영 국	머큐리	협동사업부장	이 명 근	하이닉스-이천
여성국장	이 장 옥	동양사	안전부장	김 성 운	제일테크노스
기획연구부장	한 동 균	본 노련	여성부장	김 영 미	본 노련
조사통계부장	문 채 호	하이닉스-청주	문화부장	임 은 숙	신우전자
국제부장	현 용 섭	한국샤프	재정부차장	박 선 자	본 노련
총무부장	유 길 호	평화오일셀	홍보부차장	정 길 채	본 노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조직기구조표



총론

1장 2004년 국내외 정세와 전망

1. 서론

2. 2004년 정세전망

- 1) 국제정세
- 2) 동북아정세
- 3) 노정·노사관계
- 4) 노동시장의 분단
- 5) 노동자 정치세력화
- 6) 세계화의 문제

3. 2004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전망

- 1) 2004년 세계경제 전망
- 2) 2004년 국내경제 전망
- 3) 2004년 주요산업 전망
- 4) 2004년 노동시장 전망
- 5)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2004-2008년)
- 6) 2004년 노사관계 전망

1장. 2004년 국내외 정세와 전망

1. 서론

2003년 한해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출범이라는 기대를 갖고 출발한 한 해였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배달호 조합원을 시작으로 한 노동자들의 자살은 2003년의 출발을 암울하게 하는 한 전조였다. 손해배상 가압류로 대표되는 자본의 노동조합 옥죄기는 1년 내내 계속되었고 많은 노동형제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스스로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을 대변하는 정권임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정권에 대한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한해였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라는 기치를 걸고 출발하였지만 스스로 가진 본질을 년초부터 드러냈으며 그 본질은 다름아닌 친자본 정권이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모든 정책, 특히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에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근로기준법 개악, 노사관계로드맵,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노무현정권은 모든 정책을 친자본의 자세에서 실시하였고 경제위기론을 필두로 한 자본과 언론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조합이기주의로 매도하여 노동운동을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앞장을 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진영은 자본의 공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수세적 자세를 보였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불안,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계층갈등 고조 등 사회적으로 노동운동이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노동계급에만 국한되는 문제에 매몰되었으며 이마저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반적으로 2003년은 정부, 자본, 언론 등 모든 지배세력들이 노동진영을 향해 총공세를 펼친 한해였으며,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임금인상 투쟁에서만 살펴보면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2003년도 임금인상은 제조연대 평균 12.0±1.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8%를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였다.

물론 전체 평균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일부 경영상태가 양호하거나 교섭력이 강한 기업의 인상률이 그렇지 못한 기업의 인상률을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일정정도의 인상률을 거둔 것은 제조업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소중한 교훈이 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임금인상과 여타 다른 부분과의 연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안정

협약, 경영참여, 노동시간 단축, 산업안전, 비정규직 문제, 조직률 확대(조합원 범위 확대) 등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부문에서는 많은 부문이 임금인상 투쟁과 연계되지 않고 단지 개별적 임금인상만 요구하고 획득되어진 부분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투쟁의 부문에서는 그 성과가 더욱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인상 시기와 투쟁동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연계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였고 결국 근로기준법 개악이 이루어져 노동자에게는 더욱 커다란 목표인 사회개혁 투쟁으로의 전진과 근로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2004년 임·단협 투쟁은 우리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먼저 고용안정의 확보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60%를 상회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안정 협약 등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는 조합원은 물론 현재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선도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한다.

다음은 생활임금 확보이다. 생활향상을 위한 실질임금의 향상은 현재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을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근로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도가 개악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다가선다.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과 동시에 현재 문제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밖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전임자 임금 확보 및 전임자 활동 보장, 경영참가, 복지향상 및 산업안전 확보 등도 노동조합에서 쟁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조합은 단지 기업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이 가지는 사회개혁세력으로서의 임무는 노동운동을 임금인상과 단위노조에 국한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2004년은 총선의 해이다.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우리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사회가 개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정치적 역할을 고양하고 부패와 부정을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 총선은 임·단투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끌어 내고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즉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해 근로기준법 개악을 보면서 국회의원 중 노동자의 진정한 대변자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았다. 즉 자본을 대변하고, 자본의 논리를 앞장서서 피력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노동운동이 가지는 한계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2. 2004년 정세전망

1) 국제정세

올 2004에도 마찬가지로 냉정 이후 유일초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의없이 진행되어지는 미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UN 등 국제사회의 역할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한 국가간 또는 지역간 충돌에서 무력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프칸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연이은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 다수 분포하는 아랍·회교권 국민들의 민족적, 종교적 반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그 결과로 자신의 몸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진행되어온 소위 '자살테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라크 전쟁 1주기를 맞이하여 3월 20일 대규모 국제반전대회가 전세계 반전평화세력들에 의해 준비되어지는 등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부시의 대국회 연설에서 '악의 축'으로 이라크, 이란과 함께 지목되었던 북한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는 지난 해내내 요동치며 불안정성을 띄었었다. 다행히도 6자회담으로 일촉직발의 위기상황은 일단 모면하였으나 그 앞날은 여전히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참가국의 인식을 통해서 올해의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다면 미국의 대북한 인식과 강경기조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올해말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현재의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북미간 상호인정 가능성과 한반도정세 해빙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은 실리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현 체제유지를 원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주변상황의 안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무장에도 반대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핵과 미사일, 남북일본인 등 북한문제를 심분 활용하여 대북고립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9. 11 이후 각국이 견고하고 있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방어인 자위'의 개념을 넘어서 군국주의를 통한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남북중단철도의 연결 등 경제적 이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질서 유지를 원하고 있다. 이에 남북한간 그리고 북미간 긴장완화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듯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들 속에서 2004년의 동북아한반도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미간의 팽팽한 협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3) 노정·노사관계

연초에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신임 위원장 취임으로 인해 노정관계에 변화가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노정관계는 워낙 역동적이어서 선부른 예상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기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일정정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크고 올 해에 상당 수 개선되어 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올 한해를 관통할 사회적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선언한 바 있으나 그 실효 확보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이행과제들을 놓고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되어 진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올 7월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주40시간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어진다. 물론 대규모사업장은 이미 주40시간제가 도입되어 정착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진통이 없겠으나 그 외의 사업장들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올 임단투의 최대 요구사항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어진다. 특히 각 노사의 상급단체들간에 근기법의 해석과 지침을 놓고 큰폭의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올해가 시행 첫 해 인만큼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노동계에서는 개정법률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처리된 것인 만큼 개악된 법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없는 완전 주 40시간제'를 요구하며 협상에 임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단협조항을 고수'하라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서 이러한 노사갈등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고용관련 노사간의 충돌도 예상되어진다. 특히 기존의 연공급임금체계를 변형하여 생애임금 중 생산성 초과분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임금대신에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 적용에서 대폭적인 임금의 삭감만을 초래하며 고용의 유연성을 도입하는 '변형임금피크제'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기존의 고임금 고령정규직 노동자를 낮은 임금을 받는 고령비정규직 노동자화 한다는 것이다. 경총에서는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고 각 기업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사간 마찰이 예상되어진다.

작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위축과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공장의 해외이전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한 구조조정과 공장 이전 관련 갈등이 있을 것이다.

4) 노동시장의 분단

IMF 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핵심이슈로 부각된 정규-비정규직간의 임금노동조건 격차 문제는 올해에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설령 법안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내에 고착화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노동조건의 격차를 일거에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은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하청기업에의 비용 전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노동자간 임금격차 역시도 노동시장 분단의 주요원인이다. 이러한 뿌리깊게 구조화된 원·하청간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정부는 원론수준의 이야기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특히 최근 들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경영전망이 좋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들 소수 기업들과 저성장 및 침체에 시달리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격차에 따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간 계층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규·비정규 노동자, 원·하청 노동자,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심화는 노동계 내부에도 불평등현상을 초래하여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전략과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5)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난 해의 주40시간제 입법처리와 올초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노동자와 농민 등 생산계층의 이해와 민감한 사안들이 이들 생산계층에 대한 배려없이 처리되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왔다. 또한 이들 생산계층의 요구를 대변할 계급정치의 필요성이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최근의 비자금 공방에서 보여지듯이 기존 보수정당의 이미지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신진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4. 15 총선에서 노동계는 민주노동당과 녹색사민당을 통해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시도하였다. 이 중 민주노동당은 지역 당선자 2명과 비례대표 당선자 8명 등 총 10여명의 당선자를 국회의원내에 진입시키며 대약진을 일궈냈다. 한편 한국노총이 주축이된 녹색사민당은 기존의 정치방침인 정책연합 전술을 전면수정하며 보수정치권에 도전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원내진입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6) 세계화의 문제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자본의 영역이 전세계를 무대로 확장된지 오래되었으며 이러한 자본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국가영역에서 다자간 또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세계무역기구(WTO) 역시도 재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내 또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역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필두로 하여, 한·일, 또는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국가 까지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국내자본의 해외이전은 물론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시설의 매각 등 우리 노동자들에게 올 해에도 큰 영향을 키칠 것으로 보인다.

2. 2004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전망

1) 2004년 세계경제 전망¹⁾

■ 2004년 세계경제는 선진권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3년동안 조정을 보였던 IT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확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0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6%로 작년에 비해 0.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가 3%대 성장세를 회복하는 한편 중국경제도 8% 내외의 고성장을 유지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세계경제	3.0	3.1	3.6
선진국	1.8	1.7	2.3
미국	2.4	2.5	3.0
일본	0.1	2.4	1.2
EU	0.8	0.8	1.9
개도국	4.6	4.9	5.5
중국	8.0	7.9	7.8
동남아	4.5	4.1	4.8
인도	4.9	5.9	6.2
중남미	-0.1	1.5	3.2
중동	4.5	5.1	4.7
아프리카	3.4	3.9	4.5
러시아·동구	3.7	3.9	4.0

자료 : IMF, Global Insight

1) 「2004년 경제전망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2. 9를 요약 정리한 것임.

① 선진권

(가) 미국경제

미국경제는 이라크전 이후의 소비심리 회복, 저금리와 감세정책, IT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2004년 경제성장률은 3.0%의 건실한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나)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기업수익의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의 완만한 확대, 수출에 힘입어 2003년에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2%대를 넘는 건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에는 1%대 초반 수준으로 다시 둔화될 전망이다.

(다) EU경제

EU경제는 2003년 성장률이 2002년에 이어 0%대에 그치는 부진을 보인 후 2004년에는 2%에 근접하는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② 개도권

(가)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투자 및 수출 붐에 힘입어 2004년에는 8% 내외의 고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동남아경제

동남아경제는 4~5%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나 외환위기 전의 고성장 기조로는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중남미경제

중남미경제는 미국경기 회복, 원자재 가격 호조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경제성장률은 3%대에 이를 전망이다.

(라) 러시아·동구경제

러시아경제는 유가 강세에 힘입어 2004년에도 3.5%의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편 동구 경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EU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경상적자 심화 등으로 인해 2003년에도 3%대 성장에 머물다가 2004년에는 4%대 성장회복이 예상된다.

③ 국제환율

올들어 엔화에 대해 보합세를 보여왔던 달러화는 9월 하순 들어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의 약세가 진전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다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④ 국제금리

최근들어 미국, 일본 등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이 낮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⑤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와 이라크 석유수출 체제복구 부진으로 내년에도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 2004년 국내경제 전망²⁾

① 2004년도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가) 세계경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등 개도국 경제도 2004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04년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을 전제한다.

(나)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4년에 연평균으로 배럴당 2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현재의 수준(256MB DDR 기준 4.5달러 내외)RHK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다)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3년 평균에 비해 2004년에 연평균 3~5%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② 국내경제 전망

(가) 성장 및 총수요

㉠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 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2004년에는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신용의 조정속도가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

2) 「2003년 4/4분기 KDI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를 요약 정리한 것임.

상되나, 2004년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하는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㉔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2003년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수출 증가 및 가동률 상승,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의 긍정적 요인들이 작용함에 따라 2004년에 9~10% 수준의 증가율로 상승할 전망이다.

㉕ 수출(물량기준)

수출은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2004년에도 12% 초반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㉖ 수입(물량기준)

수입은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기인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5%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㉗ 실업률

실업률은 2003년과 비슷한 3.4% 내외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나) 경상수지

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2004년에 70~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3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㉙ 상품수지

상품수지는 2004년에 23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으로 2003년보다 다소 낮은 15%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수입(달러금액)은 수출수요를 위한 수입의 증가율이 낮아지는 효과와 내수회복에 따른 증가요인이 혼재되면서 2003년과 비슷한 16~17%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 소비자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에 2.9%를 기록하여 2003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라) 전망의 불확실성

㉠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나,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또는 중국의 경기과열에 대한 부작용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부분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 가계신용의 급격한 조정 지속

신용카드회사와 관련된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가계신용의 급격한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총선 등 정치적 일정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국내경제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2003년	2004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2.7	5.3	5.3	5.3
총소비	-0.6	3.2	5.0	4.2
(민간)	-1.1	3.4	5.6	4.5
총고정투자	3.1	3.3	7.4	5.4
(설비)	-1.3	4.9	15.2	9.8
(건설)	6.7	1.9	2.3	2.1
총수출(물량)	14.8	14.3	9.6	11.8
(상품)	16.7	15.1	9.8	12.3
총수입(물량)	12.5	14.9	15.5	15.2
(상품)	12.7	14.8	16.4	15.6
경상수지(억불)	112	44	29	74
상품수지	225	129	100	229
수출(금액)	1,967	1,090	1,172	2,262
(%)	(21.0)	(19.8)	(10.8)	(15.0)
수입(금액)	1,742	961	1,072	2,033
(%)	(17.4)	(14.3)	(19.0)	(16.7)
서비스·소득·경상이 전수지	-113	-85	-70	-155
소비자물가	3.5	2.8	2.9	2.9
실업률	3.4	3.7	3.2	3.4

3) 2004년 주요산업 전망³⁾

3) 「2004년 주요산업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03. 11을 요약 정리한 것임.

주요산업별 특징

2004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

	내수	수출	생산	비고
자동차				· 세계 경기 회복 · 내수 경기 둔화 지속
	-5.7→1.8	10.8→9.3	1.8→2.5	· 가격 경쟁력 여건 악화
반도체				· 세계 반도체 회복 지속 · PC 교체 본격화
	22.4→18.7	15.5→17.9	19.5→20.5	· D램 부문 급신장
정보통신				· 세계 IT 시장 재상승기 진입 · M-biz 등 신규 수요 지속
	15.5→18.5	19.5→20.8	17.5→19.7	·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 필요
조선				· 해운 물동량 등 수주 여건 개선으로 경쟁력 신장
	62.2→18.0	23.4→15.0	7.0→5.0	· 고부가가치船 수주 증가로 수익 구조 개선
철강				· 내수 경기 둔화 · 중국의 공급 증가와 통상 마찰 심화 에 대한 대비책 필요
	1.3→1.8	4.7→3.5	2.2→3.2	
석유화학				· 세계 경제 회복 기대 · 대만, 중동 등의 급신장으로 중국시 장 점유율 급속 위축
	-1.2→2.0	9.5→7.0	4.3→3.2	
건설			-	· 민간 건축 수주 급감 · 모기지론 도입
	7.0→2.1	-24.3→18.6	-	· 해외 시장 수주 경쟁 치열

주 : 1) ※는 증가율 10% 이상, ☁※는 5~10%, ☁는 5% 미만의 증가율을 의미함.

단, 조선 산업의 내수는 증가율 기준으로 ☁이어야 하나, 2004년 전망치의 감소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03년 실적에 대비한 상대적 감소로, 2003년 수주 물량을 제외하면 여전히 사상 최대 수주량이므로 ☁※로 표시함.

2) 조선의 내수는 수주 기준임. → 좌우 수치는 2003년 추정 및 2004년 전망치임.

주요 산업별 전망

① 자동차

(가) 2003년 현황

상반기 - 국내 경기 위축으로 내수는 감소,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국산 차 판매 호조로 수출은 증가

하반기 - 국내 경기 회복 지연으로 내수 감소 지속, 수출은 증가세 둔화 예상

(나) 2004년 전망

2004년 자동차 경기는 세계 경기의 동반 상승세에 의한 수출 증가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 내수 부진의 지속 등에 의해 전체적인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신차 출시 등에 의한 구매 심리 회복이 예상되나 가계 부실 등
에 의한 내수 침체 지속, 정치 혼란 등의 사회 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보여 내수
증가율은 소폭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 수출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예상 등에 의한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율 절상에 따른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된다.

㉢ 수입

고소득층의 수입차 선호,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한국 영업 확대 전략 추진 등
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입 규모는 2004년에도 30%대의 높은 신장세가 유지될 전
망이다.

자동차 산업 전망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f)	연간(f)	연간(f)
내 수	1,622	727	803	1,530	1,558
(천 대)	(11.8)	(-10.4)	(-1.0)	(-5.7)	(1.8)
수 출	1,510	843	830	1,673	1,829
(천 대)	(0.6)	(23.9)	(0.1)	(10.8)	(9.3)
생 산	3,148	1,647	1,556	3,203	3,285
(천 대)	(6.8)	(9.6)	(-5.3)	(1.8)	(2.5)
수 입	17.1	9.9	13.2	23.1	31.0
(천 대)	(75.0)	(20.0)	(49.1)	(35.0)	(34.2)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f)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② 반도체

(가) 2003년 현황

상반기 - 생산은 16.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02년의 회복세가 이어짐

하반기 - 생산과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21%와 22% 내외를 기록하며,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나) 2004년 전망

세계 반도체 시장 회복에 따르는 수출 호조와 이에 의한 생산 증대가 예상된다.

㉠ 반도체 수출 호조

IT경기 회복에 따르는 대외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은 연간 17.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방 산업 생산 증가에 따른 후방 효과

국내의 PC, 디지털 가전, 무선통신기기 부문의 수출 호조세가 반도체 산업에 후방효과를 유발하면서 반도체 생산도 20% 내외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 수입

수입 역시 이러한 국내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비메모리, 반제품 수입 수요 증대로 약 16%의 수입 증가율이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 전망

	2002(p)	2003			2004
		상반기(p)	하반기(f)	연간(f)	연간(f)
생 산 (조 원)	30.7 (25.3)	16.9 (17.8)	19.8 (20.9)	36.7 (19.5)	44.2 (20.5)
내 수 (조 원)	32.0 (21.9)	19.0 (31.9)	20.1 (14.5)	39.2 (22.4)	46.5 (18.7)
수 출 (억 달러)	167.8 (17.2)	84.4 (8.2)	109.4 (21.9)	194.8 (15.5)	228.4 (17.9)
수 입 (억 달러)	178.6 (13.9)	101.9 (29.9)	113.0 (12.8)	214.9 (20.3)	249.8 (16.2)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 :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p)는 잠정치이며, (f)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3) 2003년부터 반도체 및 부분품의 세부 품목의 분류가 조정되어, 이전(구) 분

류의 수출, 수입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③ 정보통신기기

(가) 2003년 현황

상반기 - 세계 IT 경기의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 호조로 성장세 기록함
하반기 - 수출과 내수 증가에 힘입어 상승 국면 지속함.

(나) 2004년 전망

2002년 이후 지속된 국내 IT 산업의 호황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모바일 비즈니스 확산에 따르는 제3세대 단말기와 기존 PC에 대한 교체 수요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다.

㉡ 수출

미국 경제, 세계 IT 투자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국내 IT 제품들의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03년 3/4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3.6% 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IT 제품 수출이 선전한 것은 한국 IT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국내 IT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에도 국내 IT 산업의 호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 생산 및 수입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생산과 수입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기 산업 전망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f)	연간(f)	연간(f)
내 수 (십억 원)	67,878 (25.4)	39,186 (15.7)	39,186 (15.2)	78,372 (15.5)	92,861 (18.5)
수 출 (백만 달러)	29,208 (22.1)	16,362 (22.8)	18,553 (16.8)	34,918 (19.5)	42,181 (20.8)
생 산 (십억 원)	88,828 (26.9)	51,163 (17.5)	53,210 (17.5)	104,373 (17.5)	124,982 (19.7)
수 입 (백만 달러)	12,077 (3.9)	6,427 (15.8)	6,891 (7.4)	13,318 (10.3)	14,579 (9.5)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기기 중 반도체 제외.

주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f)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④ 조 선

(가) 2003년 현황

상반기 - 수주 대폭 증가, 생산 및 수출도 증가

하반기 - 수주 및 생산 증가세 지속

(나) 2004년 전망

수주량, 기술적 조정, 생산 및 수출 증가세 지속 등 호황의 지속

㉠ 수주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해운 운임 상승, 경쟁 관계에 있는 유로화 및 엔화의 상대적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주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1~2002년의 수주 물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저가 수주 영향으로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되었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생산 능력은 제한된 가운데 건조 물량은 계속 누적되고 있어 저가 수주는 가급적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주 물량은 2003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나, 2003년의 수주 물량을 제외할 경우 사상 최대의 수주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 생산 및 수출

건조 물량이 계속 누적되는 가운데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생산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량 대비 선가가 높은 LNG선의 인도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조선 산업 전망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f)	연간(f)	연간(f)
수 주 (만 CGT) ¹⁾	759 (18.4) ²⁾	781 (192.5)	500 (1.7)	1,281 (62.2)	1,050 (-18.0)
수 출 (억 달러)	106.7 (10.0)	61.7 (22.8)	70.0 (23.9)	131.7 (23.4)	151.5 (15.0)
생 산 (만 CGT)	682 (5.7)	380 (-2.1)	350 (18.6)	730 (7.0)	766.5 (5.0)

자료 : Lloyd's Register,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주 : 1)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선박을 건조하는 데 소요되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GT를 환산한 것임.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f)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⑤ 철 강

(가) 2003년 현황

상반기 - 대중 수출 호조 속에 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하반기 - 세계 경제 회복과 달러화 약세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소비 증가세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는 소폭의 증가에 그칠 전망

(나) 2004년 전망

㉠ 내수

국내 건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철강 내수 규모는 2003년 대비 1.8%의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수출

세계 경제 회복의 본격화로 세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달러화 약세로 인해 소폭(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 및 수입

총수요의 완만한 증대로 철강 생산도 소폭 증가세를 지속하지만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 산업 전망

(강제 기

준)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f)	연간(f)	연간(f)
내 수 (천 톤)	43,720 (14.2)	22,024 (0.6)	22,276 (2.1)	44,299 (1.3)	45,095 (1.8)
수 출 (천 톤)	12,855 (-8.4)	6,805 (5.2)	6,651 (4.2)	13,456 (4.7)	13,927 (3.5)
생 산 (천 톤)	51,676 (5.3)	26,275 (4.1)	26,562 (0.5)	52,837 (2.2)	54,528 (3.2)
수 입 (천 톤)	4,899 (51.4)	2,554 (3.2)	2,364 (-2.5)	4,919 (0.4)	4,848 (-1.4)

자료 : 한국철강협회.

주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f)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⑥ 석유화학

(가) 2003년 현황

상반기 - 미국-이라크 전쟁과 중국내 SARS 발생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

하반기 - 내수 부진 속에 對중국 수출이 급증할 전망

(나) 2004년 전망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와 중국 등의 수요 증대로 2004년 석유화학 산업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내수

경기 회복의 미흡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대 성장이 예상된다.

㉡ 수출

중국 시장 등에 대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증가로 7%대 증가할 전망이다.

㉢ 생산 및 수입

수출과 내수의 증가세 유지로 3.2%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석유화학 산업 전망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f)	연간(f)	연간(f)
내 수 (천 톤)	10,343 (8.1)	5,088 (0.2)	5,134 (-2.5)	10,222 (-1.2)	10,426 (2.0)
수 출 (천 톤)	7,052 (4.6)	3,630 (3.0)	4,100 (15.9)	7,730 (9.5)	8,271 (7.0)
생 산 (천 톤)	16,028 (6.2)	8,195 (3.7)	8,530 (5.0)	16,725 (4.3)	17,268 (3.2)
수 입 (천 톤)	1,373 (30)	600 (-14.3)	603 (-16.7)	1,203 (-12.4)	1,245 (3.4)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주 :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 3대 부문 기준임.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f)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⑦ 건 설

(가) 2003년 현황

상반기 - 국내 수주는 전년 동기비 30.4% 증가한 49.1조 원을 기록하였고, 해외 수주는 14.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비 -56.0%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임

하반기 - 국내 수주는 민간 수주의 감소세로 전년 동기비 -12.4%인 39.8조 원이 예상되고, 해외 수주는 중동 지역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비 10.6% 증가한 32.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나) 2004년 전망

국내 수주는 민간 건축 수주의 급감으로 인해 전년비 -2.1%인 87.1조 원에 달하고, 해외 수주는 중동의 수주 활황으로 전년비 18.6% 증가한 5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국내 수주

공공 수주가 임대주택 건설과 SOC 투자에 힘입어 전년비 29.2% 증가한 41.1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민간 수주는 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에 의한 주택 경기 하락으로 전년비 -19.5%인 46조 원이 예상된다.

㉡ 해외 수주

2004년 국제유가가 23-25달러/배럴을 유지할 전망임에 따라 중동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어 발주 물량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해외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와 자국 업체의 참여 확대 요구 등은 해외 수주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 산업 수주 전망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f)	연간(f)	연간(f)
국내 수주 (조원)	민간	52.3(38.0)	36.3(37.2)	20.8(-19.5)	57.1(9.3)	46.0(-19.5)
	건축	45.6(39.9)	32.0(31.0)	18.0(-14.9)	50.0(9.7)	38.0(-24.1)
	토목	6.7(23.9)	4.3(111.0)	4.8(2.8)	9.1(35.5)	8.0(-11.7)
	공공	30.9(3.2)	12.8(14.5)	19.0(-3.4)	31.8(3.1)	41.1(29.2)
	건축	8.6(-6.1)	3.6(6.8)	5.0(-5.8)	8.6(-0.9)	12.0(40.2)
	토목	22.2(7.3)	9.2(17.7)	14.0(-12.7)	23.2(4.6)	29.1(25.2)
	합계	83.2(22.6)	49.1(30.4)	39.8(-12.4)	88.9(7.0)	87.1(-2.1)
해외 수주 (억 달러)		61.3(40.7)	14.1(-56.0)	32.2(10.6)	46.4(-24.3)	55.0(18.6)

자료 :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주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f)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4) 2004년 노동시장 전망⁴⁾

① 고용전망

2004년 고용사정은 약간 개선될 전망이다.

2004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출호조와 설비투자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5.2~5.3%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고용사정은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수부문의 경기회복 정도에 크게 의존할 것인데, 내수부분은 하반기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고용사정은 하반기 이후 약간 개선될 전망이다.

2004년 실업률은 3.2%로 전망된다.

2004년도에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 취업자 증가율은 약 2.1%로 전망된다. 특히 취업자 증가율의 크기는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수부문의 회복정도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회복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분만큼 실업자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2004년 실업률은 2003년도의 3.4%보다 0.2% 낮은 3.2%로 전망된다.

최근 고용사정 동향 및 전망

(단위 : 천명, %)

	2000	2001	2002	2003p	2004p
경제성장률	9.3	3.1	6.3	2.7~2.9	5.2~5.3
생산가능인구	36,186(1.2)	36,579(1.1)	36,963(1.0)	37,339(1.0)	37,692(0.9)
경제활동인구	22,069(1.9)	22,417(1.6)	22,877(2.1)	22,918(0.2)	23,340(1.8)
참가율	61.0	61.3	61.9	61.4	61.9
취업자	21,156(4.3)	21,572(2.0)	22,169(2.8)	22,139(-0.1)	22,600(2.1)
실업자	913	845	708	779	740
실업률	4.1	3.8	3.1	3.4	3.2
비경제활동인구	14,118(0.2)	14,162(0.3)	14,086(-0.5)	14,421(2.4)	14,352(-0.5)

주 : 1) 2003년 및 2004년의 수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망치임.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4) 정진호·강승복, 「최근 노동시장동향과 2004년 전망」 『매월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12월 부분 발췌 요약한 것임.

② 임금전망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와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존 요구 등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은 2003년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2004-2008년)⁵⁾

① 노동력 수요

경제발전단계의 성숙 등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8%(실제 GDP성장률 8.3%), 1990년대 6.3%(실제 성장률 6.0%)로 감소 추세이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고용창출 능력은 저하되고, 반면에 지식집약적 산업의 발전으로 고용흡수력은 감속할 것으로 보인다.

② 노동력 공급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층(15~29세) 인구비중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00년 이후 10년간 7.3% 감소, 고령자(55~64세) 인구비중은 10년간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1995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현 추세시 2010년에는 6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③ 정책과제

일자리 창출 - 고용수요 창출 환경조성, 특히 취업취약계층의 구직 지원

인력수급 원활화 -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원활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체계 확립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유인, 고령노동자의 경제활동 문제, 비정규·장애노동자 보호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사회학습망 구축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 비정규·고령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와 확충이 필요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 실업없는 노동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

5) 보도자료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 2003. 10, 노동부 참조, 요약한 것임.

6) 2004년 노사관계 전망⁶⁾

① 정치경제적 배경

4월 총선과 연초의 노사단체의 선거 등의 영향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추진력과 2004년 노사관계 전개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② 법·제도개선관련 쟁점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

정부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최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입법추진 예정이나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또한 노동계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은 강력한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 비정규직 보호방안

2003년 합의에 실패한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2004년 계속될 것이나 노사간의 의견차가 매우 커서 원만한 합의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 손배 및 가압류제도 개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최저임금(또는 최저생계비) 및 조합비 수입의 일정부분을 임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 산별교섭

민주노총 금속노조

2003년도 중앙교섭 미합의 사업장에 대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참여요구가 집중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이 주요 교섭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산별협약은 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보충협약은 지부별 복지후생 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지부별 임금수준 편차 극복방안을 대두되고 있

6) 이주희 「노사관계 2003년 평가와 2004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매월노동동향』 2003. 12월 부분발행 요약한 것임. 단,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4. 15 총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함.

다. 2003년도에 합의가 안 된 정년연장, 조합재정자립기금마련, 비정규직 문제 등이 2004년도에도 단체협약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체 병원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별 집단교섭요구와 병원협회에 대한 보조적 교섭요구를 병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교섭방식과 더불어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단협개정이 산별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임단협전망

임금은 대체로 2003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주5일제 법제화와 관련된 단체협약에서의 조율을 둘러싸고 사업장 단위 노사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임단협을 통해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올 해에도 지속될 것이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 원내진입과 국회의원 10명 당선이라는 대약진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전체적으로는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녹색사민당의 해산으로 인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안에 관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기획연구활동

- 평가 및 개선방향

1. 제조대통합 관련 활동

2. 국내외 노조통합 주요사례 보고서 발간

평가 및 개선방향

2000년 8월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공동연대활동 선언을 필두로 하여 고무노련, 섬유노련, 출판노련 등 총 5개 한국노총 제조산업노동조합들이 2001년 1월 16일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제조연대)를 출범시키게 되고 정책·교육·홍보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해나가면서 통합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그 3년여의 성과물로 그 중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양연맹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 경과로 금속노련에서는 작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리고 화학노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각기 연맹 산별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힘 있게 통합추진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조통합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시기로 설정한 3월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의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는 많은 변화를 수반하기에 이러한 조직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했다고 본다. 아울러 소소한 이해를 뛰어넘어 통크게 단결함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는 전략적 판단과 결의를 실천해내는 풍토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으로써 유사산별 통합과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명제는 계속유효하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해내고 달성할 과제라는 당위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중한 시도와 경험이라고 본다.

1장. 제조대통합 관련 활동

1. 금속·화학 통합 추진 경과 및 경로

제조대통합이 선언이나 구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어 가는 현시점까지의 과정을 분류하면 3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 ▲ 1단계 : 제조연대 발족과 활동기(2000.8.18~),
- ▲ 2단계 : 금속-화학연맹의 추진결의기(2003.3월~),
- ▲ 3단계 : 추진준비기(2003.6월~)이다.

① 제조연대의 기간활동 내역

▲ 각종 교육활동 : 총 28차례 전개 → 2000년 2차례, 2001년: 9차례, 2002년: 10차례, 2003년: 7차례

※ 산별노조 추진지역순회교육, 상집간부교육, 교섭위원교육, 경영분석교육, 행정실무교육, 여성간부교육, 교육선전담당자교육, 노동교실,

노조활동가양성교육, 노조대의원교육, 외투노조워크샵, 선전선동학교, 주40시간 대비 노조간부 특별교육 등

▲ 임단투 지침 공동 발간 : 2001, 2002년, 2003년

▲ 노동시간단축투쟁 전개 : 제조연대 입장 개진 및 협상감시, 제조공투본 구성 및 각종 대응활동(공동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공동안마련 등) 전개

▲ 책자발간사업 : 노동관계법 책자 발간(2001년), 단협분석 및 실질노동조건 조사보고서 발간 (2002년)

▲ 한국노총 혁신을 위한 제안 및 3대비리 의혹 제기 및 개선요구

▲ 기타활동 : 제조연대 핵심간부 워크샵(2001년), 상근임직원 수련회개최(2001, 2002년),

② 지역 제조연대 구성 - 지역제조연대 구성 및 사무실 통합운영 현황

- ▲ 지역제조연대 구성지역 : 인천 (2001. 2월) : 금속, 섬유유통, 화학
 충남 (2001. 4월) : 금속, 섬유유통, 화학
 부산 (2002.7.10) : 고무, 금속, 섬유유통, 화학

- ▲ 사무실 통합운영 지역 : 안산 (금속,화학 / 2000년), 충북 (금속,화학 / 2002. 5월)

- ▲ 공동연대활동 추진 지역 : 서울 (2002임투 출정식 등),
 부산 (2002. 7.11 고무,금속,섬유,화학 대표자 50여명 부산제조연대 구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③ 시기별 활동 내역

■ 제조연대 활동기

2000. 8. 18 금속,화학 공동연대활동 선언

2001. 1. 16 제조연대 출범

※ 3년동안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통해 동질성 확보 및 연대의식 발전

■ 제조통합연맹 추진 결의기

금속노련	화학노련
2003. 3.25~26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정책세미나 (통합논의 및 의견집약)	2003. 2.18 임시대의원대회 (제조산별간 통합 결의)
4.10 중앙집행위원회 (통합 필요성 및 당위성 논의)	4. 8 임원·중집·업종분과 합동세미나 (산별통합 추진논의)
4중~5초 지역본부 순회간담회 (통합 및 주40시간제 투쟁전략 토의)	5.13 중앙집행위원회 (연맹 산별통합추진위원회 구성)
5.15 중앙위원회 (화학노련과의 통합추진 결의)	5.29 중앙위원회 (화학·금속 산별통합 추진결의)
5.22 정기대의원대회 (화학노련과 통합추진 결의)	~5.30 산별통합추진위원·중앙위원세미나
	9.17~10.10 지방본부별 순회간담회 (산별통합 추진 및 주40시간제 후속대책)

■ 제조통합연맹 추진기

2003. 6.17	금속·화학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1차 회의
7. 7	금속·화학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2차 회의
8.14	금속·화학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3차 회의
9.5-6	금속·화학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워크샵 (4차 회의)
9.29	금속·화학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5차 회의
10월	양연맹 합동 노조대표자 세미나 총4회 (1박2일) : 권역별 실시
11.4	금속·화학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6차 회의
11.7	금속·화학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7차 회의
12.8~18	양연맹 합동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 (전국 17개 지역)

■ 제조통합연맹 준비기

2004. 1~2월초	제조대통합 기자회견 (예정), 양연맹 합동 통합추진위원 세미나, 중앙위원회
2월	통합이행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각 연맹별로)

※ 통합추진 전국순회 간담회 참가현황

1. 순회 기간 : 2003. 12. 8(월) - 12. 18(목)
2. 순회 팀 : 금속, 화학연맹 위원장 및 사무처장 외 각 2인씩
3. 지역별 참가 현황

일자	지역별	금속	화학	계
12. 8	서울	7	9	16
12. 8	경기남부, 중부, 중서부	9	12	21
12. 9	전북	7	26	33
12. 9	광주, 전남	14	14	28
12. 10	부산	11	8	19
12. 10	경남	19	11	30
12. 11	울산	15	10	25
12. 11	포항	22	14	36
12. 12	대구, 경북	22	9	31
12. 12	구미	12	13	25
12. 15	인천	18	20	38
12. 15	경기서부(안산, 시흥)	20	8	28
12. 16	경기동북부(성남, 광주, 이천, 여주)	12	10	22
12. 16	충북	14	24	38
12. 17	충남	11	18	29
12. 17	대전	5	15	20
12. 18	강원	3	22	25
총인원 (조직수)	(17개 지역별)	221명(205개 조직)	243명(220개 조직)	464명(425개 조직)

2.. 통합 추진 기본계획안 (쟁점중심)

금속·화학 2조직은 통합추진준비기인 2003. 6월부터 통합추진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약을 비롯한 제도 통일을 위한 준비와 통합연맹의 상 등 주요 논의과제를 정하면서 현재 까지 총 7차례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거쳐 통합에 수반되는 14가지 정리사항에 대해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통합추진실무위원회가 제안하는 총 14가지 정리사항에 대해 금속·화학 2조직이 일치되는 안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선언,강령,규약,규정,규칙 등 제반 제도의 통일화작업과 2004. 2월 각 연맹별 임시대의원대회, 3월 통합대의원대회 그리고 2004임단투를 비롯한 주5일제 대응투쟁 등 통합준비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명칭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연맹 (2조직 명칭은 선언,강령에 반영)
사무소	제3의 장소 물색, 통합직후 입주 목표
상징물	조합원 공모방식,
통합대회	2004. 3월 초중순경
지역본부	17개 편제, 활동가 파견 등
재정의무금	의무금 통합징수 후 지역본부 교부금 지급, 의무금수준은 상향평준화, 양조직 재정의 투명한 공개
업종분과	총 13개(금속6, 화학6, 기타1) 편제, 고무출판 통합 합류시 추가하여 15개
사무처 직제	5실 : 실-국-부체계
임원	초대임원 : 단일체계 바람직, 선출방식과 기타임원의 수는 현재 수준 유지 규약상 : 출마방식(런닝메이트 또는 현재방식), 임기(3년), 선출방식(대의원대회 또는 선거인단)
대의원	창립대회 : 총수를 1000명이상 또는 500-600명선 규약상 : 배정기준(금속방식,화학방식,기타), 총수(650명,1000명,500명)
청사진	법률원 설립, 제조대통합(2차,3차), 산별노조 전환, 노동계 통일 등 중장기 비전
기타	선전홍보활동(소식지, 무크지, 홈페이지 등) 등

1) 통합연맹의 명칭

실무위원회에서는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연맹 (약칭 ‘제조연맹’)”을 통합추진위원회에 제안함

※ ‘금속’, ‘화학’이라는 현재 2조직의 명칭은 통합연맹의 선언, 강령에 2조직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

단, 통합조직의 명칭에 금속·화학 등 기존명칭을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통추위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함

영문표기 및 약칭은 통합조직 명칭을 결정한 후에 마련함 (직접 발음이 가능하거나, 한국 제조산업의 통합노조를 상징하는 영문 등을 마련함)

통합조직 명칭결정의 절차 : 가안(통추실무위) 마련 → 조합원 실태조사 의견수렴 → 통추위에서 심의, 결정 → 통합대의원대회 확정

보충자료1 : 설문조사 결과

1) 통합연맹의 명칭

	전체	서울경기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강원
제조연맹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연맹)	60.5	58.7	60.8	57.1	64.0
금속화학연맹 또는 화학금속연맹	29.0	30.3	26.8	32.7	29.2
제조일반연맹 (전국제조일반노동조합연맹)	5.5	8.3	5.9	4.1	2.2
잘 모르겠다	5.0	2.8	6.5	6.1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통합연맹의 조직 대상

	전체	서울 경기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 강원
금속 화학산업 종사자	28.4	35.2	20.8	32.7	31.1
제조부문 종사자	31.9	27.8	40.3	24.5	26.7
제조부문 및 관련산업 종사자	36.4	35.2	35.1	40.8	37.8
잘 모르겠다	3.2	1.9	3.9	2.0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충자료2 : 세부해설

금속,화학연맹은 40년 이상된 역사와 전통, 한국노총 내에서의 대표적인 역할수행과 개혁적 활동을 추진해온 조직으로서 구성원은 물론 역대선배노동자들이 기존 명칭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산별 노동조합연맹의 명칭은 조직의 성격과 대상 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두 조직의 공통점을 대표하고 발전지향적인 것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신산별 명칭은 공통점을 대표하는 제조부문의 성격과 조직대상 확대를 염두한 제조관련부문의 성격을 섞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 명칭 결정의 준거

- 신산별 조직의 출범을 상징하는 명칭
- 금속, 화학연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공통된 명칭
- 금속,화학 2조직은 물론 전체 제조 및 관련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발전적 명칭

나. 명칭을 결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조직 대상에 맞춰 정할 것인가?, 조직성격 규정을 통해 정할 것인가?

※ 조직 성격 규정은 현재 금속,화학 2연맹이라는 통합조직 대상과 달리 향후 통합연맹의 조직대상을 규정한다

보충자료3 : 국내외사례

일본 기간노련

- 조합원 응모사업 (30만엔 상금)을 통해 4400건 응모했고 통준위에서 심사함, 당시 통준위에서는 기존조직명칭 사용을 배제할 것과 새로운 명칭 응모를 주문함
- ※ 기간노련 : 일본 기간산업의 노조가 대동단결함에 걸맞는 명칭
- 조직명칭 변화대한 조직적 반발은 없었으나 명칭 변화에 따른 아쉬움 정도 피력

금속산업연맹

민주금속, 자동차, 현충련 3조직 모두 금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속산업연맹이라는 명칭으로 모아졌으며, 기존 조직 명칭 변화에 따른 조직내 반발은 없었음

민주화학연맹

화학과 섬유라는 두 조직을 포괄하고, 명칭에 대한 양 조직 간에 논쟁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 민주화학연맹에서는 구 “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의 기존 명칭 사용을 동의함

2) 통합사무소

- 통합사무소를 2조직의 통합이행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2004. 2월) 이전에 물색하여 이행대회에서 필요한 결의를 득함.

- 통합대회 직전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함.

- 이를 위하여 양조직의 자산·부채현황 파악과 더불어 통합사무소 추진, 재정 및 의무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

보충자료 : 세부해설

- 금속,화학 두 조직의 유기적인 결합력 확보와 통합연맹 추진사업의 원활한 집행, 통합 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대회 이전에 두 연맹의 사무소를 한 장소(합동사무실)로 이전』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이행결의 대의원대회가 열릴 예정인 2004년 2월까지 물색하여 이행 대의원대회에서 필요한 결의를 득하고, 통합대회 직전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한다.』

- 사무실은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과 통합연맹의 효과적인 재정부운을 고려하여 『구매를 검토하며 필요坪수(실坪수)는 최소 120坪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합동사무실 평수 산정기준

사무처 금속11명, 화학9명 / 임원 금속6명, 화학2명 = 총 28명을 기준으로 함

사무처 1인당 2坪 (34坪), 위원장실 10坪, 임원실 20坪, 소회의실 7坪×2개, 회의실 20坪, 자료실 10坪, 복도와 탕비실 등 공유면적 10坪 등으로 총 120坪 산정

- 공동사무실 구매(또는 임대) 비용은 총구매(임대)자금과 양 연맹이 지출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여 결정함

따라서 양 조직은 각 연맹의 자산 및 부채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사무소 추진, 재정, 의무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3) 로고 및 마크

- 조합원 응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응모결과가 만족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함

- 복수의 작품을 통추위에서 심의하여 결론을 내림

보충자료 : 국내외사례

일본 기간노련 : 조합원 응모→ 포스터 제작,현장배부→ 총 2000건 응모→ 통준위 심사
금속산업연맹 : - 조합원 공모사업 (상품 50만원) → 사용가능한 제출작품이 없었음 → 통추위에서 채택

- 통합대회 전에 준비하여 마련함 → 97.11.9 전국노동자대회때 맞춰 통합 조직 깃발을 제작, 전체 단조에 배부

민주화섬연맹 : 조합원 공모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작품응모가 저조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정함

4) 통합대회 및 회계년도

- 통합대회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 개최
-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함.
- 각 산별 통합결의 및 필요한 부대결의는 2004년 2월중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5) 지역본부의 편제

- 금속(16), 화학(17+1)의 지역조직을 통합하여 17+1(제주직할지부)로 재편방향.
- 양연맹의 지역조직 편제가 불일치하는 경기도와 대구경북지역은 계속논의
- 지역본부에는 중앙연맹에서 파견하는 1인의 채용직 간부를 배치함.
- 지역조직 명칭은 00지역본부로 하고 중앙연맹과 같은 집행부서체계를 두도록 하며
- 지역조직의 통합은 3월 통합대회 이후 1개월내에 완료 토록하는 방향
- 통합지역본부의 조직통일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정비계획안을 통해 임원선출, 사무소, 기구 등의 문제를 대처할수 있도록 마련함

보충자료1 : 설문조사 결과

<표1> 두 연맹 산하 지역본부의 통합시기

	전체	서울 경기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 강원
연맹통합 이전	10.3	13.0	3.3	4.1	22.5
연맹통합후 1개월 이내	22.8	9.3	22.9	26.5	37.1
연맹통합 이후 3개월 이내	54.4	64.8	58.8	57.1	32.6
연맹통합이후 3개월 이상	9.3	7.4	12.4	12.2	4.5
잘 모르겠다	3.3	5.6	2.6	-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2> 통합연맹과 지역본부의 유기적 결합방식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잘모름
중앙에서 1인의 조직활동가를 지역에 파견하는 방안	33.4	53.6	8.1	-	5.0
지역본부장의 단일체제 원칙	16.8	48.5	20.8	5.9	8.0
의무금을 연맹에서 통합징수후 지역본부에 교부하는 방안	14.9	57.4	19.2	0.2	8.3
지역본부의 부서체계를 중앙과 일치시키는 방안	36.4	52.6	4.3	1.9	4.8

보충자료2 : 금속산업연맹 사례

- 지역본부 결성은 통합(98.2.15)이후 1개월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금속산업연맹의 지역본부 결성 추진현황

지역	본부결성 일정	선거활동	비고
서울	3/19 결성대회(기아차 노조 회의장 소하리)	강인희 본부장 선출	완료
경기	3/19 결성대회(안산 근로복지회관)	김상완 본부장 선출	완료
인부천	3/16 결성대회(부평구청 7층 강당)	전재환 본부장 선출	완료
충청	3/24 결성대회	황성근 본부장 선출	
전북	3/19 결성대회(만도기계노조 익산지부)	조성훈 본부장 선출	완료
광주전남	3/19 결성대회	조홍영 본부장 선출	조합원수 관련 논란
대구경북	3/18 결성대회(민주노총 지역본부-연대와 전진을 위한 회관)	김동수 본부장 선출	완료
울산	3/20 결성대회	안현호 본부장 선출	
경남	3/17 결성대회(카톨릭사회교육회관)	이승필 본부장 선출	완료
부양	3/19 결성대회(전교조 부산지부)	최용국 본부장 선출	완료

통합후 지역본부의 변화

3조직중 유일하게 지역본부를 갖고 있던 민주금속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연맹 지역본부체

계가 만들어졌고 지역본부 상근자가 과거와 비교할 때 대폭 늘어남 (연맹중앙에서 지역본부로 38명 파견, 인건비를 연맹중앙이 부담하고 사무처 직원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음)

지방본부 임원 선출

중앙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하였고, 일부지역에서만 경선이 진행됨.

※상기 지역본부 현황<표> 참조

보충자료3 : 세부설명자료

1. 통합전후 지역본부 편제비교 검토(안)

금속	화학		제조연맹
16개 본부	17개본부 1개특별지부	➡	17개본부 1개특별지부

1) 변화내용 및 검토사항

①양 연맹산하 지역본부편제 중에서 차이가 있는 경기, 대구경북지역의 편제를 재정리함

- 대구경북 지역

금속	화학		제조통합연맹
대구경북 구미 포항	대구경북	➡	대구경북 구미 포항

- 경기지역

금속	화학		제조통합연맹
경기 안산시흥	경기남부 경기중부 경기중서부 경기동북부 경기서부	➡	경기남중부 : 동북부,서부의 지역 경기동북부 : 여주,이천,성남,광주,의정부 경기서부 : 안산시흥

②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본부로 편제하기에는 소규모조직으로 연맹직할 특별지부로 편제함

2) 지역본부 조직정비 시기와 방법

① 지역본부 조직정비의 목표 시점

통합연맹의 발족 목표를 2004년 3월로 볼 때 지역본부 조직체계를 완료짓는 시점은 늦어도 통합후 1개월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② 지역본부 조직정비 일정

양 연맹은 합병결의를 위한 사전 조직정비활동을 2003년도 하반기 중점사업(▲2003년 10월 권역별 세미나 ▲12월 전 지방조직 순회토론회)으로 배치하고, 양 연맹산하 지역본부들은 2004년 2월 각 연맹별 이행결의 대의원대회 직후부터 2004년 3월 통합대의원대회까지는 지역본부 통합(조건부 통합)을 위한 지역내 금속,화학 2조직 간에 접촉활동을 강화하고, 통합대의원대회 직후부터 2004년 4월까지 지역본부 통합을 마무리 짓도록 함

③ 방법

－ 양 연맹산하 각 지역본부는 두 조직 지역본부 간에 제반 주요사항(지역본부 임원, 대의원, 부서부장 선출 및 통합본부 사무실 등)을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각 지역본부 의사결정기구 심의한 뒤 (2004. 1월 ~ 2004. 2월)

－ 통합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의함 (2004. 3월 통합대회 직후부터 4월 초까지)

－ 지역본부 정비 주요내용

▲ 임원선출 :

지역본부장은 단일체제를 목표로 함. 단, 불가피할 경우 연맹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 하에 일정기간을 공동대표체제로 갈수 있음

▲ 부서부장 임명:

새로 정비된 통합지역본부는 연맹, 단위노조와의 유기적 결합과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부서부장을 반드시 임명해야 함 (사무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 교선국장, 산안국장, 총무국장)

▲ 대의원선출, 통합사무소 및 기타

지역본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 구성을 위하여 이후 마련될 “통합연맹의 지역본부운영규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본부 대의원을 선출함. 또한 세부준비를 통해 통합사무소를 마련하고 기타 통합관련 사항을 준비, 추진하도록 함

금속 지역본부 (2003.3월 기준)			화학 지방본부 (2002.12말 기준)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조직 수	지역본부(16)	지방본부(17)	조직 수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12,770	19	서울	서울	28	7,415
31,578	67	경기	경기남부	49	4,547
			경기중부	18	1,440
			경기중서부	27	5,951
			경기동북부	22	2,081
4,676	44	안산·시흥	경기서부	39	3,214
927	7	대전	대전	20	1,755
6,607	22	충북	충북	30	4,654
4,357	12	울산	울산	41	7,884
7,671	57	대구·경북	대구·경북	44	966
8,436	18	구미	산하 중부지부 (11)		2243
2,281	21	포항	산하 동해지부 (15)		1043
1,355	7	전북	전북	31	2,543
4,165	33	인천	인천	39	5,655
3,415	25	충남	충남	31	4,010
4,082	31	부산	부산	12	1,365
5,722	40	경남	경남	26	1,877
706	14	광주·전남	광주·전남	32	2,604
378	6	강원	강원	10	2,728
			제주(직할지부)	6	126
99,626	423	계		505	64,101



제조연맹 지역본부		
지역본부	조직수	조합원수
서울	47	20,185
경기남중부 (동북부, 서부외지역)	141 금47+화94	31,080
경기동북부 (여주, 이천, 성남, 광주, 의정부)	42 금20+화22	11,553
경기서부	83	7,890
대전	27	2,682
충북	52	11,261
울산	53	12,241
대구경북	75	8667
구미	29	10679
포항	36	3324
전북	38	3,898
인천	72	9,820
충남	56	7,425
부산	43	5,447
경남	66	7,599
광주전남	46	3,310
강원	16	3,606
제주직할지부	6	126
계	928	163,727

2. 지역본부의 각종 명칭

① 지역본부의 명칭 : 현재 : 금속(지역본부), 화학(지방본부) →
통합후 : 제조연맹 (지역본부)

② 지역본부 임원 명칭 : 현재 : 금속(의장, 부의장), 화학(본부장, 부분부장)
통합후 : 제조연맹 (본부장, 부분부장) 및 제주지부장

3. 지역본부의 현장지원활동 강화방안

연맹 현장활동가 파견

- 단위노조의 근거리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의 조직 및 일상활동의 안정성 도모, 연맹과 지역본부 간의 유기적 결합력 확보 차원에서 연맹은 전문인력(활동가)을 지역본부로 파견하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함
- 이에 따라서 통합연맹에서는 각 지역본부별도 1명씩의 활동가를 파견하고 지역본부의 OO국장으로 임명함
- 또한 통합연맹은 격월간으로 지역본부 파견활동가를 소집하여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본부의 조직운영 및 활동 상황을 총화함

조직파견 활동가 활동비 지급

통합연맹은 지역본부의 조직파견자(단위노조에서 파견하여 활동하는 간부)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대비용(활동비, 식대 등)을 지역본부 운영금 교부기준에 반영함

※ 지역본부 여사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지역본부 예산에서 지출함

단, 여사무원의 이직현상이 높은바 추후 결원시 추가로 활동가를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재정 및 의무금

- 재정은 통합하여 운용, 단 사전에 투명한 재정현황 공유
- 통합조직의 맴비는 '의무금'이라 칭하고

기존의 본부의무금과 지역본부 의무금을 일원화하여 징수하고 지역본부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

- 의무금 수준은 지역본부가 교부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을 구체적 계산을 통해 산출함
- 지역본부에 배치할 전임자 1인(총17명)의 인건비는 연맹 중앙에서 지급함,
- 지역본부 교부금의 지급 기준은 조직수, 조합원수 등 다양한 기준 등을 마련키로 함.

보충자료1 : 설문조사 결과

통합연맹의 기구체계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잘 모름
중앙인 1인의 채용직 간부를 지역본부에 파견	43.1	49.9	2.8	0.9	3.3
의무금은 중앙에서 통합하여 지역으로 교부	25.4	59.9	5.4	-	9.4

통합연맹의 역량강화 방안

	매우찬성	비교적찬성	비교적반대	매우반대	잘 모름
조직활동가를 1인 이상 지역본부로 배치해야 한다	16.6	64.0	7.8	0.5	10.2
필요하다면 연맹의무금을 인상해야 한다	26.4	56.9	7.5	0.7	8.5
지역조직의 통합결의가 시급하다	49.9	29.7	13.7	2.4	4.2

보충자료2 : 국내외사례

- 1) 일본 기간노련 : 중앙연맹의 지역본부 교부금 기준은 월단위 기준으로 현본부는 기본 경비+ (조합원수×13엔) + (조직수×7200엔)

※ 교부금의 지급기준

	활동교부금	사무관리비	직원응원보조비		
			구분	조합수	교부금액
현(縣)본부	· 일률분 50,000円/월 · 조합수 구성조합 비례부분 1단위당 7,200円/월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비례부분 13円/월	20,000円/월	A	30이상	8만円/月
			B	16~29	4만円/月
			C	6~15	2만円/月
			D	5~ 2	1만円/月
			1현 1조합의 현본부는 지급 없음		
현(縣)센터	· 일률분 연간 10만円 · 조합수 구성조합 비례부분 1단위당 7,200円/월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비례부분 13円/월	지급 없음	지급 없음		

〈비고〉 직원 응원(職員應援)보조비의 구分的 등급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행한다

- 2) 일본 비젠센 : 도도부현지부(=지역본부)의 교부금 교부기준 (월액) ⇒ 양조직 교부금의 합계액을 상회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함.

- | | | |
|------------------|-------------|----------|
| 1. 기초교부금 | 각 도도부현지부 일률 | 105,000엔 |
| 2. 도도부현지부 전임자 인원 | 전임자 일명 당 | 20,000엔 |
| 3. 지구사무소 | 지구사무소 1개소 당 | 10,000엔 |
| 4. 조합수 | 1조합 당 | 3,000엔 |

5. 노련구성 조합수	1구성 조합 당	1,000엔
6. 지부·분회	1지부·분회 당	200명 이상 400엔, 199명 이하 200엔

소속조합원수에 대한 교부금

조 합 원 수 및 계 수				
~5,000명 미만	2.0	/	5,000~ 10,000 미만	1.7
10,000~ 30,000 미만	1.5	/	30,000~ 50,000 미만	1.2
50,000~100,000 미만	1.0	/	100,000~150,000 미만	0.9
150,000~200,000 미만	0.8	/	200,000~	0.7

특별가산금·광역지방조직 60,000엔 : 상기 기준에서 산출한 결과에 대하여 천엔 이하를 절상하여 1만엔 단위로 한다. 또한, 최저보상은 25만엔으로 한다.

3) 금속산업연맹 :

통합전후 의무금 수준 변화

의무금		→	의무금	
			금속산업연맹	
민주금속	조합원 1인당 700원		조합원 1인당 1,000원	
자 동 차	조합원 1인당 500원		※ 민주노총 의무금 300원 별도	
현 총 련	조합원 1인당 300원			

※ 3조직의 의무금 수준 각기 차이가 있었으며 98년2월 통합연맹 의무금은 인상하여 1천원으로 결정

현재(2003년도) 금속산업연맹 의무금은 2,000원(민주노총 800원 포함)이며 2004년 2500원으로 인상할 계획

납부방식 변화 여부 (통합전 의무금 납부 방식과 통합후 의무금 납부방식)

납부방식		→	납부방식	
			금속산업연맹	
민주금속	중앙 납부하여 지역에 교부		중앙 납부하여 지역에 교부	
자 동 차	지역본부 존재하지 않았음		※ 총 의무금중 약100원 정도를 지역본부, 업종분과 예산에 편성함	
현 총 련	지역본부 존재하지 않았음			

4) 민주화섬연맹

통합전후 의무금 수준 변화

	의무금		의무금
화학	조합원 1인당 1,000원	→	통합 화학섬유연맹
섬유	조합원 1인당 1,000원		조합원 1인당 1,500원 * 민주노총 의무금 제외한 금액

※ 통합 추진과정에서 의무금을 조합원 1인당 1,500원으로 상향시켜 결정, 현재(2003년도) 민주화화학섬유연맹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2,300원임

납부방식 변화 여부 (통합전 의무금 납부 방식과 통합후 의무금 납부방식)

	납부방식		납부방식
화학	중앙과 지역 2원화 체계	→	화학섬유연맹
섬유	연맹 거출 (지역본부 미조직) ※ 업종분과별로 회비 거출		중앙과 지역 2원화 체계 ※ 지역본부별로 300~500원 거출

보충자료3 : 세부설명자료

1. 의무금 납부(징수) 방식

① 현실태 및 문제점 :

- 양 연맹의 의무금 징수체계는 단위노조에서 연맹과 지역본부로 의무금을 2원화하여 납부하고 있는 시스템임.
- 이로 인하여 단위노조는 의무금 납부의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연맹 역시 조직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본부를 적극적으로 지도·지원하지 못한채 자치 운영에 맡기는 문제를 놓고 있음

② 개선방안

- 통합연맹은 연맹, 지역본부에서 각자 징수하고 있는 의무금 납부방식을 일원화시켜 연맹으로 통합 징수하고, 연맹은 지역본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교부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단위노조의 근거리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의 조직 및 일상활동의 안정성도모 및 연맹과 지역본부 간의 유기적 결합력 확보 차원에서 연맹은 전문인력(활동가)을 지역본부로 파견하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통합연맹의 의무금 규모는 현재의 연맹 의무금 + 지역본부 의무금 + 지역본부 활동가 인건비 등을 산출한 금액으로 함

2. 의무금 수준

양언맹 지역본부별 의무금 납부현황

금속노련 지역본부			화학노련 지방본부		
의무금	납부조 작수	지역본부 (16)	지방본부 (17)	납부조 작수	의무금
조합원1인당350원 + 100명이상15000원 100명미만10000원	15(18)	서울	서울	22	50명이하 20,000 / 51-300명 45,000 301-500명 60,000 / 501명이상 70,000
조합원1인당200원 + 노조15000원	55	경기	경기남부	53	1-99명 25,000원+1인당 300원 100명이상 30,000+1인당 300원
			경기중부	19	10,000+1인당 50원
			경기중서 부	25	100명미만 10,000원+1인당500원, 100명이상 15,000원+1인당500원
			경기동북 부	16	1-99명 20,000원 / 199-149명 30,000원 150-199명 40,000원 / 200-249명 50,000원 250-299명 60,000원 / 300-399명 70,000원 400-499명 80,000원 / 500-599명 90,000원 600-699명 100,000원 / 700-799명 110,000원 800-899명 120,000원 / 900명이상 130,000원
조합원1인당400원+노조1만원	52	안산·시 흥	경기서부	36	1-49명 25,000원 50명이상 30,000+1인당50원
-	10	대전	대전	22	1인당 950원
조합원1인당350원 + 30인이하 1만 원 31~300인미만 2 만원 300인이상 3만원	28	충북	충북	33	50인미만 20,000+1인당 150원 50인이상 30,000+1인당 150원
조합원1인당350원	20	울산	울산	43	-
조합원1인당1350원 (연맹800원, 지역본부400원,노총본부150원)	56	대구·경 북	대구·경 북	50	1인당 600원
조합원1인당 80원	22	구미	산하중부 지부	(11)	
조합원1인당800원 *단, 40명미만 32000원	28	포항	산하동해 지부	(15)	

금속노련 지역본부				화학노련 지방본부			
의무금	납부조 직수	지역본부 (16)	지방본부 (17)	납부조 직수	의무금		
조합원 1인당 300원	10	전북	전북	35	2-20명 40,000원 / 21-50명 50,000원 51-70명 60,000원 / 71-100명 70,000원 101-120명 75,000원 / 121-150명 80,000원 151-170명 85,000원 / 171-200명 90,000원 201명이상 1인당 500원		
조합원1인당250원+노조2만원 ※100명미만45000원	36(38)	인천	인천	39	1-49명 36,000원 / 50-99명 42,000원 100-149명 54,000원 / 150-199명 66,000원 200-249명 78,000원 / 250-299명 90,000원 300-349명 102,000원 / 350-399명 114,000원		
-	25	충남	충남	30	1인당 400원		
조합원1인당1450원 (연맹800원, 지역본부450원노총본부200원)	34	부산	부산	13	조직당35,000원+1인 300원		
조합원1인당300원+ 노조당 5000원	48	경남	경남	34	20,000원+1인당 200원		
조합원1인당500원	19	광주·전 남	광주·전 남	31	1-30명 10,000원 / 31-60명 17,000원 61-100명 24,000원 / 101명 1인당 250원		
-	6	강원	강원	20	1-100명 10,000원 / 101-150명 15,000원 151명이상 20,000원		
			제주(직 합자부)	6	10명 미만 20,000원 / 10명 이상 30,000원		
	423	계		505			

- 현재 자료를 토대로 통합 의무금을 산출해보면,

현재

개선된 통합연맹의 의무금

금속	연맹 1000원*
	지역본부 약 500원
화학	연맹 1000원
	지역본부 약 500원



통합연맹

연맹 의무금 + 지역본부 의무금 + 지역본부 활동가 인건비
1000원 + 약 500원 + 200원 = 약 1700원
∴ 통합연맹 의무금은 최소한 1700원 이상이 필요!

*: 금속연맹 2004. 1월부터 1000원

- 통합연맹의 지역본부를 17곳으로 가정하고, 각 지역본부마다 1명의 활동가 파견을 목표로 할 때 3억4천만원의 활동가 인건비가 필요함

(1명당 인건비 연간 2000만원 × 17개본부)

- 통합연맹의 의무금 납부 예상 조합원수는 현재 양 연맹에 실제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의 합계 인원을 최소 15만명으로 예상하면 조합원 1인당 매월 200원의 지역본부 활동가 인건비가 산출됨

(3억4천만원 ÷ 15만명) ÷ 12개월 = 조합원 1인당 매월 189원 = 십단위이하 절상하면 = 200원

3. 지역본부 운영금 기준

① 지역본부 통합의무금 수준 결정방식

▲하향평준화, ▲산술 평균, ▲상향평준화하는 방안이 있음.

통합연맹은 지역본부 통합의무금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 이유는 통합전 지역본부 의무금 규모보다 증가한 예산을 규모를 배정하기 위한 것임

② 지역본부 운영금 교부 예산 규모 : 통합연맹 의무금 총예산 중에서 현재 양 연맹 지역본부 의무금 예산규모+a하여 운영금 교부예산을 산정함 = 조합원 1인당 500원+a

③ 지역본부 운영금 교부기준

- 통합연맹의 17개 본부별 운영금 교부기준은

기본경비 + 본부별 사업계획 + 통합전 지역본부의 운영비를 참조
기본경비 + 조합원수 + 조직수

상기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정한후 통합연맹의 회계규정 또는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반영함
※ 인건비는 통합연맹에서 지출하고, 지역본부 운영금은 조직 및 제반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함

4. 기타 거출금

현재 노총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의무금은 단위노조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역본부에서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통합연맹은 해당지역 노총본부 및 지부 의무금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의 자율

결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

또한, 통합연맹의 의무금 외에 추가되는 거출금을 지역본부에서 해당 단위노조에 징수하고자 할 경우 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하에 지역본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음

5. 연맹 회계연도

- 두 조직의 회계연도가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정하고 있는바 통합연맹 역시 이에 맞추도록 함
- 단, 통합대회가 2004. 3월로 논의되고 있는바 두 연맹의 회계연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이듬해(200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4월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대로 정해질 경우 통합연맹의 1차 회계연도는 2004. 3월부터 2005년 3월말로 함

7) 업종분과 위원회

- 업종분과는 금속의 6개, 화학의 17개를 전체적으로 12개 전후로 재편하되, 필요시 소분과를 두어 운영함.
- 업종분과의 활동은 연맹중앙에서 지원형식을 취하되 업종분과의 재정은 자율적인 분담금 방식으로 해 나감.
- 고무, 출판이 통합에 합류시 임원에 대한 배려 외에도 고무, 출판 분과를 추가함.

보충자료1 : 설문조사 결과

통합연맹의 기구체계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잘 모름
업종분과를 단순화하며 필요에 따라 소분과 설치	18.6	58.2	9.4	0.5	13.3

보충자료2 : 세부해설

1. 업종분과 현황

- 현재 금속은 6개업종분과, 화학은 17개의 업종분과를 설치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화학은 업종분과 활동이 활발하며 편차는 크지만 결속력과 활동력 측면에서 의약화장품, 제지분과 등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것임.

- 그렇지만 양조직 통합시 총23개 업종분과를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12개 정도로 중분류하여 업종분과를 균형있게 설치하고 규모를 갖추어 통합연맹이 이를 지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여전히 좁은 범위의 업종분과 활동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소분과 설치를 가능토록 함.

- 양조직 업종분과 현황

금속노련 업종분과 (2003. 7월 기준)			화학노련 업종분과 (2002.12말 기준)		
조합원수	조직수	업종분과(7)	업종분과(17)	조직수	조합원수
10,496	97	기계금속	시멘트	19	3,962
15,586	113	자동차	콘크·레미콘	21	1,295
30,399	95	전기전자	PVC	49	4,453
7,774	46	철강	석유화학	24	3,210
7,744	33	비철금속	석유정제	4	4,281
923	7	조선	석유가스	20	1,297
1,365	15	기타	의약·화장품	62	6,747
			유 리	20	2,785
			요 업	20	1,779
			제혁화	13	2,090
			화 공	30	3,264
			페인트	9	1,324
			농약 제조	11	1,468
			식 품	82	15,359
			제 지	60	6,295
			문 구	8	690
			일반화학	53	3,802
				505	64,101

2. 업종분과 재편방안

- 통합과 동시에 모든 조직은 가장 적절한 업종분과에 편제되며 업종분과는 연맹의 규약, 규정 범위내에서 연맹의 지도, 지원하에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함.
- 업종분과위원회의 대표는 '분과회장'으로, 소분과의 대표는 '분과장'으로 지칭함
- 업종분과 재편방안(검토안)

업종분과	재편 범위
석유화학가스분과(3)	석유화학, 석유정제, 석유가스 (48개조직, 8,800명)
의약화학제품분과(1)	의약화학제품 (62개조직, 6,747명)
식품분과(1)	식품(82개조직, 15,359명)
제지문구분과(2)	제지, 문구 (68개조직, 6,900명)
시멘트건설분과(4)	시멘트, 콘크리트, 유리, 요업 (80개조직, 9,700명)
화학분과(5)	페인트, 농약제조, PVC, 화학, 일반화학 (152개조직, 14,300명)
기계금속	97개조직, 10,496명
자동차	113개조직, 15,586명
전기전자	95개조직, 30,399명
철강	46개조직, 7,774명
비철금속	22개조직, 7,744명
조선	7개조직 923명
일반분과	제철화(13개조직, 2,090명), 금속기타(15개조직, 1,365명)
고무	(고무가 통합에 합류하는 경우 설치)
출판	(출판이 통합에 합류하는 경우 설치)

3. **특별분과위원회**는 업종 외에도 현실적 유용성이 큰 단위로서 외투기업특위, 구조조정(법정관리, 화의 등)기업특위 등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도, 지원 및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

8) 사무처

- 적정 TO를 산출하되 현재의 상근 임직원은 승계를 원칙으로 함
- 사무처는 실 → 국 → 부서체제로 함
- 5실 : 조직실(문화), 정책실, 노사대책실, 교육홍보실(편집, 전산), 복지산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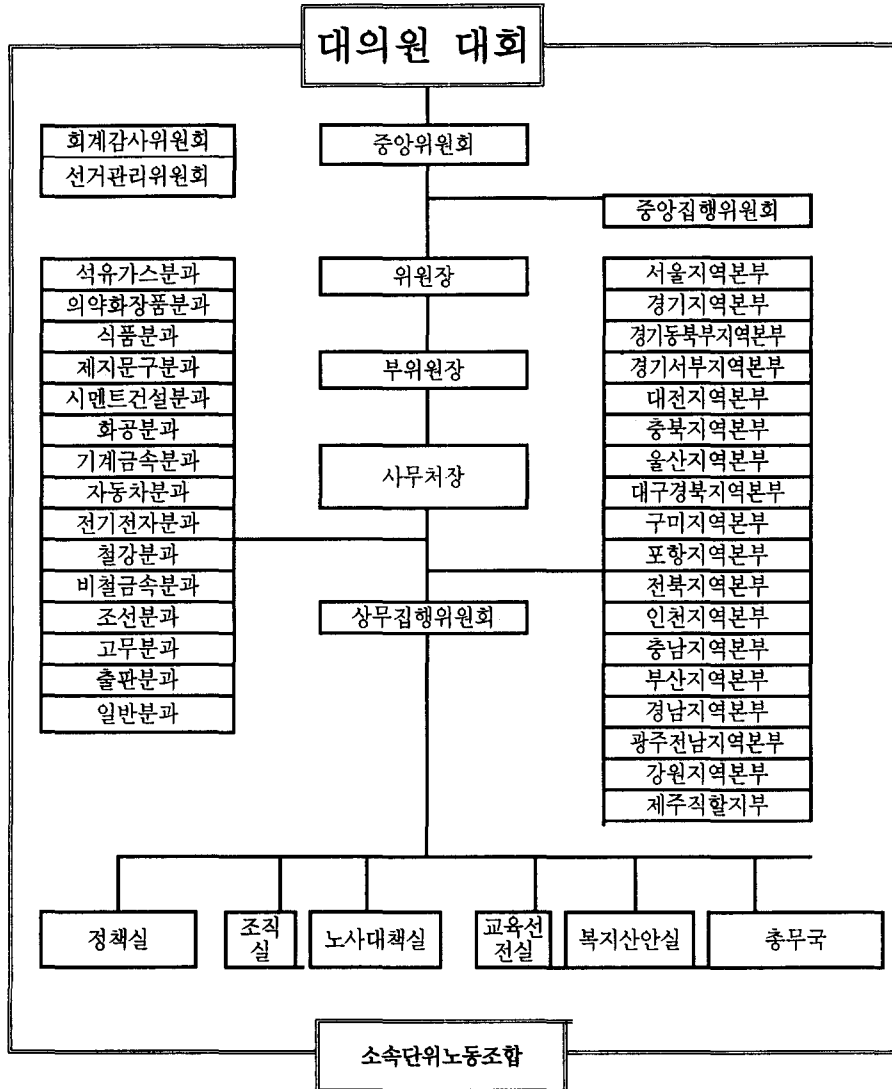
보충자료 : 세부해설

1) 현재의 인원을 승계

- 현재 금속, 화학의 상근인원은 각각 17명, 13명으로 총 30명임.
이들은 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통합조직에서는 그 인원을 승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직원의 경우 양조직의 인사, 처우규정이 달라 통합조직에서는 통일적인 인사, 처우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처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경우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필요한 인원은 새롭게 충원함.
- 공공연맹의 경우 통일적 인사, 처우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통합전에 각각의 연맹에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음.

2) 사무처의 직제

- 실 → 국 → 부서 체계로 하되 5실(1국)은 규약에 명시하고 실 산하 국, 부서는 사무처 운영규정에 명시하는 방안 또는 아예 실, 국, 부서 모두를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변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할 것임.
- 5실 : 조직실(문화), 정책실, 노사대책실, 교육홍보실(편집, 전산), 복지산안실,



9) 임원

통합조직 (1기) 임원 - 국내외 사례 예시, 설문조사, 향후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되 통합 정신에 부합되는 방식이 바람직 함

- 단일체제를 모색하되 공동대표체제를 배제하지는 않음

- 임원 수는 1기 경우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 회계감사 수는 10명 이내로 조정할 필요성.

통합조직 (2기부터) 임원 선출 및 임기 : ▲위원장·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이 동반 출마하는 방식(러닝메이트제)과 ▲현재 방식(위원장 선출후 전형위원회 일괄 전형한후 찬반선출방식)에 대해 검토함, 임기는 3년

보충자료1 : 설문조사결과

통합연맹의 초대 위원장 결정방식

	전체	서울 경기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 강원
공동위원장체제가 바람직	15.9	22.4	11.8	26.5	9.0
단일위원장체제가 바람직	42.3	48.6	41.4	28.6	43.8
단일위원장이 어려울 경우 공동위원장 체제	41.3	28.0	46.7	44.9	46.1
잘 모르겠다	0.5	0.9	-	-	1.1

통합연맹의 2기 이후 임원출마방식

	전체	서울 경기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 강원
현행대로 (위원장 선출후 임원 일괄선출)	40.9	35.2	37.9	40.8	52.8
위원장-사무처장의 동반출마방식	14.9	18.1	11.1	16.3	16.9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의 동반출마방식	41.7	42.9	49.7	40.8	27.0
잘 모르겠다	2.5	3.8	1.3	2.0	3.4

보충자료2 : 국내외 사례

1) 금속산업연맹

① 통합연맹의 임원 선출 및체계 : 러닝메이트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공동출마방식이며, 부위원장은 약간 명 두도록 함(부위원장 역시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해야 인정됨)

통합연맹 1기 임원은 총 10명으로 위-수-사 3인에 부위원장 7인

현재 임원수는 5인으로 위-수-사 3인 + 부위원장 2인

② 통합연맹의 임원 선출 방식

통합연맹 지도부는 각 조직간 합의를 원칙으로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함 → 논의과정에서는 공동대표제도 검토하였으나 단일지도체제로 조직간 합의 추대 → 위원장: 단병호/민주금속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조준호/자동차연맹 위원장, 사무처장: 이홍우, 부위원장: 문성현, 정갑득, 이석행 등

2) 민주화섬연맹 : 공동대표, 런닝메이트

- 1기 위원장 : 공동대표
- 임원 임기 : 1기(1년), 규약에 정한 임기 2년
- 선출방식 : 런닝메이트 (위-수-사) * 부위원장은 별도로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할 경우 인정
- 과도기(1기) 동안에 2조직의 융화와 조직안정화를 위하여 화학출신 위원장은 섬유조직을 섬유출신 위원장은 화학조직의 행사에 참석해 옴. 그러나 섬유출신 위원장의 연맹 상근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고 목표로 두었던 조직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일본기간노련 : 임원의 수는 통합이후 1년간만 3조직의 기존 임원수의 합인 21명 수준을 유지함

1) 통합연맹의 임원 선출 및 체계

※ 전반적으로 기간노련 경우 임원선출에 대해서는 무리함이 없이 진행됨

- 사무국, 통준위에서는 통합조직 대표자 건에 대해 3개 조직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함

- 2002. 8월 통준위에서 임원 선출에 대한 결론 발표 :

역할분담에 대한 원칙 제시(위원장, 위원장대행, 사무처장을 각기 다른 조직에서 맡는 것으로) → 위원장대행은 예우차원에서 마련한 것(우리나라의 수석부위원장 정도의 직책), 통합조직 1기에 한해서 과도기적 체계를 인정(임기 1년, 200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2년으로)

※ 위원장 대행은 1년 후에도 존속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없애기로 함

- 2002. 9월 통준위 산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 총 7차례 회의 개최, 10명으로 구성(9명 위원: 대공장노조 대표자, 1명 간사: 사무국장)
- 3개 조직별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 2003. 7월 통일준비위원회 결정 (위원장 : 철강노련 위원장, 위원장대행: 조선중기 위원장, 상근 부위원장 : 각 조직별로, 서기장: 조선중기)

보충자료3 : 세부해설

1. 통합정신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임원 선출

- 국내외 통합조직의 사례를 살펴볼 때 예외없이 초대임원(특히 대표자)의 선출은 조직적 융화와 단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 통합연맹의 조직안정화와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조직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임

2. 단일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제를 배제하지 않음.

- 통합연맹이 빠른 시간내 명실상부한 단일조직으로 화학적 융합을 이뤄내고 조직적 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일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또한 단일체제의 성립을 통해 대내외적으로도 양조직 대표자들부터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을 이뤄내는데 앞장섰다는 점이 인식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조직의 과도기적 인상을 불식할 수 있는 등 공동위원장제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할 것임.
- 그렇지만 양조직 대표자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표적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1기 임원을 단일체제로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을 갖는 점 이외에는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의 협력적 단일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조직적 융화와 양조직 대표자의 활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단일체제 방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1기에 한해 공동위원장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임.

3. 기타 임원의 경우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되 회계감사의 경우 10명 미만으로 조정함.

- 현재 금속의 부위원장수는 35명, 화학은 18명, 총53명임. (상근 부위원장 수도 금속 4명, 화학 1명) 회계감사는 금속 9명, 화학이 6명으로 총15명임.
- 이들은 2004년 3월 통합시점에서 모두 일정한 임기를 남기고 있으며, 굳이 1기 부위원장을 대거 교체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현재의 부위원장 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회계감사 15명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나친 인원임으로 적절히 10명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동시에 상근 임원의 편차와 기타임원의 수에 있어 꽤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1기 임원의 임기

- 정상적으로 3년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과도기리는 측면에서 초대 임원의 임기는 3년미

만으로 조정하자는 복수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후자 의견을 제시하는 주장으로는 통합연맹 출범시점은 양 조직 임원의 임기가 일정하게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과 통합조직의 융화와 안정을 위해 1기 임원의 최소한 임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2004년 3월에 창립대회를 통해 1기 임원이 선출되지만 정기대회 개최 월이 4월이 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5. 2기부터의 임원 선출

- － 1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와 상관없이 2기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처장 1인, 회계감사 약간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 이 경우 ▲위원장·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이 동반 출마하는 방식(러닝메이트제)과 ▲현재 방식으로 2가지 의견이 복수로 제기되고 있음
- － 임기는 3년, 연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상근부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중 하나씩을 책임지는 것으로 함.

10) 대의원

- － 일정규모 이하 조직에 최소 1명씩을 배정하는 방안과 일정규모 이하 조직을 통합하여 대의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복수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 － 또한, 조합원수 몇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할 것인지 논의
- － 통합대의원대회 및 이후 대의원대회의 대의원기준 복수(안)으로 검토 중

보충자료1 : 설문조사 결과

대의원 배정의 적정기준(지역별)

	전체	서울 경기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 강원
200명당 1명	49.1	48.6	48.7	48.9	50.6
250명당 1명	30.2	32.1	26.3	36.2	31.5
300명당 1명	13.9	9.2	17.1	10.6	15.7
350명당 1명	2.5	3.7	3.3	-	1.1
400명당 1명	4.3	6.4	4.6	4.3	1.1

대의원 배정의 적정기준(연맹별)

	전체	화학	금속
200명당 1명	50.0	51.9	48.1
250명당 1명	29.7	27.9	31.5
300명당 1명	13.7	12.5	14.8
350명당 1명	2.4	3.8	0.9
400명당 1명	4.2	3.8	4.6

대의원수 배정의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의 대의원 배정방법

	전체	서울 경기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 강원
소규모 사업장에도 1명배정	51.9	56.0	49.3	55.1	49.4
적정기준에 미치도록 지방본부를 통합해서 1명 배정	45.4	42.2	46.1	42.9	49.4
잘 모르겠다	2.8	1.8	4.6	2.0	1.1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의 대의원 배정방법(연맹별)

전체	화학	금속
50.2	59.2	41.4
46.9	37.9	55.8
2.8	2.8	2.8

약 20만명 규모의 통합연맹의 적정 대의원수(지역별)

	전체	서울 경기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 강원
500명	22.3	23.1	27.5	20.4	13.3
600명	13.8	9.3	17.6	14.3	12.2
700명	11.5	13.9	7.8	16.3	12.2
800명	19.5	21.3	13.1	26.5	24.4
900명	6.5	1.9	9.2	6.1	7.8
1000명이상	26.5	30.6	24.8	16.3	30.0

약 20만명 규모의 통합연맹의 적정 대의원수(연맹별)

	전체	화학	금속
500명	22.7	20.9	24.5
600명	13.3	10.0	16.7
700명	11.2	11.8	10.6
800명	19.4	20.4	18.5
900명	6.1	5.7	6.5
1000명이상	27.2	31.3	23.1

보충자료2 : 국내외 사례

금속산업연맹

98년 2월 금속산업연맹 창립대의원 배정은 100명당 1명씩으로 했으나, 규약 상(차기 대의원대회부터)에는 조합원수 500명당 1명 배정, 조합원수 250인이하 노조는 지역별로 250명당 1명 배정, 1만 명이상 노조는 1001명부터 750명당 1명 배정하는 역누진제 방식

을 취함

보충자료3 : 세부해설

1. 양 연맹의 조직현황

1) 금속·화학연맹의 규모별 조직현황

의무금 납부 노조 및 조합원수 현황 (금속노련 03년 6월 기준, 화학노련 02년 12월 기준)

규모	전체 노조수 . 금속 노조수 화학노조수		
10명 미만	21개 : 금4 화17		
10-19명	61개 : 금28 화(33)		
20-29	72개 : 금29 화43		
30-39	70개 : 금26 화44		
40-49	73개 : 금33 화40		
50-59	92개 : 금33 화59		
60-69	57개 : 금28 화29		
70-79	49개 : 금26 화23		
80-89	41개 : 금19 화22		
90-99	29개 : 금20 화9		
100-149	109개 : 금52 화57		
150-199	82개 : 금35 화47		
200-249	35개 : 금19 화16		
250-499	82개 : 금47 화35		
500-725	26개 : 금13 화13		
726-999	5개 : 금3 화2		
1천명이상	18개 : 금10 화 8		
합 계	922개	금속 425개노조 조합원수 86784명	화학 497개노조 조합원수 61,685명

금속·화학연맹 산하 1000명이상 노조 현황

연맹명	노 동 조 합 명	계	비중
금속 노련	LG전자 7200 / 하이닉스반도체 청주 4123 / 하이닉스반도체이천 3089 / LG필립스LCD 2846 / LG필립스디스플레이 2592 / 대우일렉트로닉스 2203 / LG전선 1963 / 풍산 1900 / 칩팩코리아 1258 / 기아특수강 1100	10개 노조 2827 4명	총조합원수 (86784명) 대비 32.6%
화학 노련	SK 2400 / 농심 2010 / 롯데제과 1280 / 한화 1188 / 한국전기초자 1100 / 금강 1100 / 서울우유 1050 / S-OIL 1001	8개 노 조 1112 9명	총조합원수 (61685명) 대비 18%
제조 연맹	18개노조 39403명		총조합원수 (148469명) 대비 26.5%

양 연맹 노조 및 조합원 규모별 현황

	금속노련				화학노련				제조연맹	
	노조수	비중	조합원수	비중	노조수	비중	조합원수	비중	노조수	조합원수
50명미만	121	28.5%	4316	5%	177	35.6%	13677	21.3%	298	27953
50-99명	126	29.6%	9960	11.5%	142	28.6%			268	
100-199명	87	20.5%	13036	15.1%	104	20.9%	13491	21.0%	191	26527
200-249명	19	4.5%	4890	5.7%	16	3.2%	3311	5.2%	35	8201
250-499명	47	11.1%	15792	18.3%	35	7%	22493	35.1%	82	48328
500-999명	15	3.5%	10043	11.6%	15	3%			30	
1000-1999명	4	0.9%	6221	7.2%	6	1.2%	6719	10.5%	10	12940
2000명이상	6	1.4%	22053	25.6%	2	0.4%	4410	6.9%	8	26463
총 계	425	100%	86311	100%	497	100%	64101	100%	922	150412

양연맹 대의원 배정기준(200명·250명)에 따른 노조 및 조합원 비중 현황

	금속노련				화학노련			
	노조수	비중	조합원수	비중	노조수	비중	조합원수	비중
200명미만	334	78.6%	27312	31.6%	423	85.1%	27168	42.4%
200명이상	91	21.4%	58999	68.4%	74	14.9%	36933	57.6%
250명미만	353	83.1%	32202	37.3%	439	88.3%	30479	47.5%
250명이상	72	16.9%	54109	62.7%	58	11.7%	33622	42.5%
총 계	425	100%	86311	100%	497	100%	64101	100%

2) 대의원배정 기준 및 총수 현황

	금속	화학
대의원 배정기준	• 250명당 1명 (단수 126명당 1명 추가) • 250명 미만 노조는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하여 200명당 1명 배정, 산출 (단수 101명당 1명 추가)	• 250명당 1명 (단수 126명당 1명 추가) • 250명 미만 노조에도 1명 배정
대의원수	344명 (2003. 5월대의원대회 기준)	429명 (2003. 1월 대의원대회 기준)

2. 통합연맹의 대의원배정 기준 검토(안)

1) 통합대회(2004.3월) 대의원 배정기준

- 통합대의원대회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제조노동자의 시발점이자 제조대산별 및 산별 노조를 대중적으로 결의하고 자축하는 축제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대회가 일반 대의원대회와는 다른 성격에서 치러지는 만큼 통합 대회의 대의원 수를 확대하여 연맹의 구성단위가 되는 단위노동조합의 대참여의 장을 만들어 대중적 결의를 이끌어내고, 강고한 제조노동자의 대오를 대내외 과시할 필요가 있다.

2) 2005년도 또는 2기 대의원배정

- ① 배정기준
- 1안 : 화학노련 방식 ➡ 대의원총수 1000명선
 - 2안 : 금속노련 방식 ➡ 대의원총수 650명선
 - 3안 : 화학노련 방식 + 규모별 누진제 ➡ 대의원총수 1300명선
 - 4안 : 대의원총수 500명선에 맞춰 배정기준을 상향 조정 (예: 350명 당 1명)
 - 5안 : 규모별 역누진제 ➡ 대의원총수 600명내외
- ② 적용시기
- 1안 : 2005년도 정기대의원대회부터
 - 2안 : 2기 임원선출 대의원대회부터

11) 청사진

- 1년내 법률원 설립 (변호사 채용)
- 통합후 제조산별로 조직확대
- 회관 건립 (2-3년내)
- 중장기 비전 제시

12) 기타사항

통합 홈페이지

- 통합과 함께 통합홈페이지 정식 개설 완벽하게 준비
- 통합홈페이지 서버 이용은 현재의 매일노동뉴스에서 한국노총 서버로 이전 검토 (구체적 계획은 양조직 홈페이지 담당자가 모여 계획 입안 및 준비)
- 통합 이전이라도 화학-금속 홈페이지 공동접속 페이지를 만들어 통합의 기운 고조

기타

- 노총 지역조직(지역본부, 지역지부) 의무금 납부방식은 현행대로 자율적으로 함.

- 양조직의 임원·지역본부장 연석회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지역본부 통합, 의무금 납부방식 개선, 지역본부 강화방안 등 협의)

- 지역본부 파견 활동가 채용 시기를 통합연맹 발족직후인 3월말 경으로 의견을 집약함.

2장. 국내외 노조통합 주요사례보고서 발간

1. 보고서 발간 목적

지난 20여년간 국제 금융계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한 초국적 자본은 세계 경제의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바꿔 세계의 지배구조를 자체를 뒤흔들었고 이러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노동조합들은 노동 조건의 악화와 조합원 감소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노동운동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각 나라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혹은 변경하는가 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 변화는 노동조합 운동의 전략 선택, 노동조합 조직구축 및 재편등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노동조합 운동이 돌파구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노조간 통합이다. 1990년대 이후 노동조합들간의 통합은 당사자들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조직를 감소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조통합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외국 노동조합의 통합 사례를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통합 노조의 방향과 통합 논의 과정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외국노동조합의 통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노조 통합의 목적과 의의, 통합에 대한 평가를 찾고자 함이 이 보고서 발간목적이다.

2.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일자

작성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간일자 : 2003년 12월

3. 보고서 목차

머리말	2
1. 해외노조 통합의 사례와 시사점	3
1) 서론	4
2) 노조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① 노조통합의 동기	
② 노조통합의 유형	
③ 통합에 대한 평가	
3) 독일 노동조합의 통합 사례	10
① 조직재 편과 그 원인	
② 독일광산·화학·에너지간별노조(IG-BEC)의 통합사례	
③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의 통합 사례	
4) 영국 노동조합의 통합	18
① 유니슨(UNISON)통합 사례	
② 유니슨(UNISON)통합 사례	
③ 유니피(UNIFI)의 통합 사례	
5) 호주 노동조합의 통합	20
① 호주 노동운동의 역사	
② 호주 노조 통합의 특징	
③ 건설임업광산에너지 노조의 통합 사례	
6) 국제노동조합조직의 통합	26
① 국제노동조합조직의 통합 경향	
②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의 통합사례	
③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의 통합사례	
VII. 결론: 노조통합이 주는 시사점	31
2. 일본 기간노련 통합사례	34
1) 기간노련 출범 배경	
2) 2001년 신산별 통합결의 이전 공동연대활동 내역	
3) 통합과정에서 IMF-JC와 령고의 역할	
4) 통합조직 대상 결정	

- 5) 3개 산별(비철,조선중기,철강)의 조직규모와 통합방식
- 6) 통합 준비과정 주요활동
- 7) 통합연맹 명칭 결정의 기본방침
- 8) 재정관련 사항
- 9)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지역본부
- 11) 대의원 및 중앙위원
- 12) 임원의 수, 선출 및 체제
- 13) 조직통합의 의의와 운동이념과 목표
- 14) 향후 통합조직의 추가적인 통합계획
- 15) 기타

3. 일본 니젠센 통합사례 49

4. 금속산업연맹 통합사례 63

- 1) 금속3조직 통합 배경과 3개 연맹의 공동연대활동 내역
- 2) 3조직의 통합 추진 경과
- 3) 추진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역할
- 4) 3개 조직(민주금속,현충련,자동차)의 조직규모와 통합방식
- 5) 통합 추진 주요활동
- 6) 통합연맹 명칭
- 7) 재정관련 사항
- 8) 조직 및 운영
- 9) 지역본부
- 10) 대의원 및 중앙위원, 임원
- 11) 통합조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주가적 조치
- 12) 이념과 주요 정책
- 13) 기타

5. 민주화학섬유연맹 통합사례 72

- 1) 산별통합 배경과 2조직의 공동연대활동 내역
- 2) 2조직의 통합 추진 경과

- 3) 추진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역할
- 4) 2개 조직(민주화학,민주화섬)의 조직규모와 통합방식
- 5) 통합연맹 명칭
- 6) 재정관련 사항
- 7) 조직 및 운영
- 8) 지역본부
- 9) 대의원 및 중앙위원
- 10) 임원의 수, 선출, 체계
- 11) 이념과 주요 정책
- 12) 기타

총 무 활 동

1장 회의활동

1. 2003년도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2. 중앙위원회개최
3. 중앙집행위원회개최
4. 기타회의 개최
5. 회계감사 수검

2장 회계처리 실무교육실시

3장 노총 장학재단 장학금 배정 지급

4장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제 1 장 회의활동

1. 2003년도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 1) 일 시 : 2003년 5월 22일(목) 14시
- 2) 장 소 : 구미시민복지회관 (구미시 공단동 256-17 번지)
- 3) 참석자 : 재적 344 명중 317 명 참석
- 4) 결의사항

안 건	결 의 사 항
1. 2002년도 사업보고	- 원안통과
2. 2002년도 결산보고	- 원안통과
3. 규약개정	- 총투표자 276표 찬성275표로 규약개정안을 개정결의하다
4. 위원장 선출	- 총투표자 297표 이병균후보 찬성276표 반대 21표로 이병균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되다
임원선출. 중앙위원선출. 노총파견대의원 선출	- 총투표자 268표 찬성 262표로 선출하다
5. 2003년도 사업계획수립	- 원안통과
6. 매회비인상 요구안심의 및 2003년도 예산수립	- 노련매회비를 2004년 1월 1일부터 200원 (800원⇒1,000원)인상하기로 결의하다.
7.제조 산별간 통합추진의 건	- 원안통과
8. 대구경북지역본부회관명의 이전 등기의 건	- 원안통과
7. 결의문 채택	- 회의자료 44쪽의 결의문을 낭독 채택하다.

● 위원장

소 속	성 명
대우일렉트로닉스	이 병 균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소 속	성 명
하이닉스반도체-이천	김 만 재

● 부위원장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LG 전선	정 창 영	세진전자	문 광 주
LG 전자	정 일 진	하이닉스반도체이천	김 만 재
LG 전자	장 석 춘	한국특수공구	서 갑 순
Otis-LG엘리베이터	최 경 호	삼양중기	김 순 호
LG 전선	하 영 일	삼영전자	지 수 식
LG 전선	도 정 복	하이닉스반도체이천	정 상 영
대한전선	조 병 철	칩팩코리아	김 한 모
대우일렉트로닉스	황 창 배	대한제당	손 종 홍
태양금속	이 병 욱	대덕GDS	김 광 호
대한주택종합	김 두 형	삼신	강 한 우
동부제강	강 창 영	대성셀텍	김 한 성
하이닉스반도체청주	김 준 수	효성기계	이 문 호
한국중천	최 해 경	연합철강	강 진 호
오리엔탈정공	권 동 재	LG Nikko 동제련	신 택 기
풍산	손 은 진	쌍용텍스텍	김 경 조
한국파워트레인	김 무 호	LG Philips LCD	변 재 환
하이닉스반도체청주	강 영 철	LG Philips Displays	김 인 배
그린산업	강 학 중	기아특수강	김 길 주

● 회계감사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DENSO 풍성	이 대 영	한국야금	왕 용 호
FAG 한화베어링	장 준 영	대선조선	황 대 선
고려아연	조 한 제	LG 마이크론	노 승 표
LG 이노텍	김 응 표	세아특수강	김 병 수

● 중앙집행위원

노 조 명	성 명	노 조 명	성 명
Otis-LG엘리베이터	오 용 환	한국주철관	박 종 근
대 철	황 성 원	다 스	홍 정 표
LG전자평택지부	김 길 섭	대 일 공 업	허 문 근
하이닉스반도체	이 명 근	세 신	이 진 회
일 진 전 기	전 덕 동	한 국 철 강	김 회 봉
동 서 기 공	김 종 춘	삼 성 공 조	박 한 봉
그로웰메탈	강 영 석	미 주 금 속	김 춘 종
한 국 샤 프	현 용 섭	한국파워트레인	김 연 국
희 성 금 속	유 태 경	평화오일셀	유 길 호
동 양 철 관	양 시 준	태평양금속	김 수 문
동원금속아산	김 영 호	LG전자구미지부	이 화 철
L G 산 전	김 세 하	제일테크노스	김 성 운
에 넥 스	이 상 재	홍 화 공 업	손 제 형
하이닉스반도체청주	문 채 호	동 일 기 업	장 문 식
강 남 정 공	윤 정 원	성 신	이 종 진

● 중앙 위원

노 조 명	성 명	노 조 명	성 명
L G 전 자	이 영 호	대 한 제 당	백 동 선
대우일렉트로닉스	김 정 근	린나이코리아	한 기 성
한 국 음 향	김 종 화	동 국 제 강	김 재 업
롯데알미늄	서 학 수	휴 스 틸	박 창 옥
삼 화 전 자	김 영 식	동 양 강 철	오 기 순
서 진 산 업	문 성 동	로옴코리아	최 회 섭
성 신	유 진 화	LG산전장항	설 광 섭
신한일전기	유 병 유	MEMC코리아	배 춘 식
하이닉스반도체	허 정 우	경 신 전 선	강 홍 진
하 이 디 스	이 식 재	윤 영	고 석 회
현대에너지셀	강 장 규	삼 화 전 기	이 철 주
현대엘리베이터	성 용 주	국제종합기계	김 선 종
현대오토넷	이 승 현	넥상스코리아	최 경 천
팬 택	박 덕 규	Y K Steel	류 해 출
대 원 전 선	배 승 천	연 합 철 강	주 해 식
엔 젤 약 기	홍 제 자	고려용접봉	김 회 근
대광다이캐스트	김 수 룡	티와이벨브	지 채 훈
코 리 아 휠	이 쌍 봉	한국오르강침	정 운 국
대 덕 전 자	이 선 오	대 창 단 조	박 병 용
대 경 화 성	김 형 기	영 신 정 공	장 복 이
삼 주 기 계	문 성 일	평 화 정 공	김 순 창
대 동 기 어	전 종 환	남 양 금 속	김 종 오
두원중공업	정 진 용	하이닉스반도체구미	박 광 호
한 일 제 관	이 동 호	LG정보통신	권 용 석
DENSO풍성창원	육 근 조	LG마이크론	김 동 의
LG Philips Displays	김 종 철	LG Philips LCD	석 호 진
L G 전 자	박 준 수	알 칸 대 한	박 풍 우
세 방 전 지	정 권 호	LG 이노텍	원 종 도
경 창 산 업	장 지 태	포스렉정비부문	송 만 현
삼 립 산 업	이 복 교	그 린 산 업	안 진 수
페 타 시 스	이 기 남	조 선 선 재	이 창 호
평화발레오	김 동 준	화 천 기 공	송 웅 규
평 화 산 업	신 석 곤	로케트전기	남 규 현
화 신	이 석 기	파 츠 닉	이 중 찬
동 해 전 장	정 한 근	쌍용동해산업기계	김 홍 배
KEP 전 자	이 병 원		

● 노총파견 대의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이 병 균	이 식 재	배 춘 식	정 권 호
정 창 영	박 덕 규	강 홍 진	이 진 회
문 광 주	정 상 영	고 석 회	최 해 경
정 일 진	허 정 우	설 광 섭	김 병 수
김 만 재	이 명 근	김 한 성	강 학 중
유 재 섭	김 영 철	왕 용 호	송 만 현
최 경 호	성 용 주	김 선 종	안 진 수
장 석 춘	김 수 룡	최 경 천	김 무 호
김 만 경	배 승 천	김 준 수	김 경 조
김 길 섭	강 장 규	박 광 호	이 복 교
배 상 호	유 진 화	강 영 철	신 석 곤
이 화 철	유 병 유	박 정 민	이 석 기
한 상 대	문 성 동	문 채 호	김 춘 종
박 준 수	이 병 옥	신 택 기	김 순 창
김 태 현	김 광 호	조 한 제	김 동 준
김 정 근	조 재 천	문 성 일	정 한 근
최 정 열	김 종 춘	손 은 진	장 지 태
김 만 용	이 쌍 봉	이 상 협	노 승 표
조 병 철	이 장 옥	장 복 이	원 종 도
서 갑 순	이 선 오	강 진 호	권 용 석
서 학 수	손 종 홍	주 해 식	김 인 배
이 대 영	황 창 배	류 해 출	김 종 철
오 태 곤	김 재 업	권 동 재	권 용 발
김 순 호	박 창 옥	황 대 선	변 재 환
하 영 일	김 현 섭	김 희 근	석 호 진
도 정 복	김 영 국	이 문 호	박 운 길
지 수 식	김 두 형	장 준 영	김 갑 수
김 영 식	최 희 섭	이 동 호	김 용 표
김 한 모	강 한 우	육 근 조	김 길 주
이 승 현	강 창 영	정 진 용	윤 용 민

● 결 의 문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3개월 여가 지났으나, 주40시간 노동제, 공무원노조 허용, 고용허가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말만 무성했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애초에 참여정부가 노동계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으면서 출범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진정으로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그동안 지나치게 자본에 편향되어 있던 노동관련 정책의 중심을 균형 있게 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그 단초로써 우리 금속노련은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의 도입',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권익보호, 공무원노조의 즉각 허용,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즉각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자본진영은 예나 지금이나 노동을 유연화 하고 결국에는 대다수 민중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할 신자유주의 음모를 산업현장에서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 지고, 소위 핵심과 주변부로 나뉘어져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우리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 정부, 대자본과의 교섭과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 혁신적인 조직발전과 강화를 꾀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련은 12만 금속노동자가 당당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자본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를 투쟁으로 쟁취한다.
1.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조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제조연대의 활동 강화와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산업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산별 노조로의 전환을 힘있게 추진한다.
1. 우리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제반 사회보장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투쟁으로 쟁취한다.
1. 우리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며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권의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여론을 호도하며,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지면을 도배질하는 보수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힘의 논리가 판치는 패권주의 사회와 빈익빈부익부 사회를 분쇄하고 평화평등사회를 구현한다.

2003년 5월 22일

200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2-1. 133차 중앙위원회 및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1) **개최일시** : 2003년 5월 15일 14시

2) **개최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3) **참 석 자** : 재적 153명중 58명 참석 결의위임 40명

4) **결의사항**

① 2003년도 정기대회 회순 -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

② 200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가, 2002년도 사업보고 -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

나, 2002년도 결산보고 -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

다, 제 규정 개정안 심의 - 심의 후 제 규정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며 규약을 제외한 규정은 5월 22일 정기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됨과 동시에 제 규정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부 결의하고 처무규정 내용에 징계부분을 추가하여 규약과 함께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라,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 -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

마, 노련맹비 인상요구안 심의 및 2003년도 예산수립 -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

바, 부의 안전 토의

가) 제조산별 통합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

나) 대구.경북 지역본부 회관 명의이전 등기의건 -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

다) 가맹노조 제출의안 토의 - 지역본부마다 규모와 여건이 다르므로 현행대로 지역본부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라) 결의문(안) 심의 -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

③ **대의원 자격심사** - 맹비납부 실적에 따라 200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대의원 344명을 배정하였으며 344명 전원이 등록하여 200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을 344명으로 확정 결의하다

④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강한우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경위를 요약보고하다**

2-2. 제134차 중앙위원회 및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04년도 2월 10일(화) 14시

2)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3) 참 석 : 재적 154명 참석 111명(결의위임 53명 포함)

4) 결의사항

① 2003회계년도 4/4분기 사업계획과 신규조직 현황을 보고하다

② 2004년도 임금정책 수립의견

- 표준생계비의 92%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급 대비 12%(110,50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업종별 기업별 실정반영 차원에서 12%를 기준으로 $\pm 1.5\%$ 를 주어 10.5~13.5%를 제시하기로 결의하다

③ 4, 15총선 대책 활동의 건

- 사회민주당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 노총 유재섭 부위원장이 노총의 정치 세력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 4, 15총선에 우리노련 소속 출마자의 지원을 위하여 조합 규모별로 모금 액 을 정해 모금하기로 결의하다

④ 제조산별 통합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수립의 건

- 회의자료의 관련내용을 보고하고
- 금속-화학간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합의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결정하기로 결의하다

⑤ 모든 가맹노조의 전산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⑥ 2003년도 예산중 조직활동비, 제조연대 활동비, 행사비 항목이 부족하여 예산항목의 전용을 결의하다

⑦ 2004회계년도 4-5월분의 가예산을 승인 결의하다

⑧ 결의문을 낭독 채택하다(결의문-붙임)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정치의 해, 2004년 총선을 맞이하면서 비참한 심경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개혁을 다투어 부르짖는 보수정당과 부패한 정치권은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정쟁만을 일삼으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

노사불이 상생의 노사관계를 외치며 2만달러 시대를 향해 허리띠 조여 매자던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은폐하고 보수정치권에 헌납하는 정경유착을 통해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희망을 잃은 채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위기의 공포시대로 향하고 있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세상을 움직이고 사회를 지탱해온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흠치고 속이는 낡고 부패한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가진 자를 위한 가진 자와 결탁한 더러운 정치를 통해 배불리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보수정치권에 준엄한 심판을 시작하자!

이에 우리는 4.15총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따라서 금속노동자는 노동자 서민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주체로 자리잡는 새날 창조를 위하여 한국노총과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선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우리 금속노동자는 강력한 당원배가운동을 통해 조합원과 노동가족의 사회민주당 당원화에 앞장선다.
1. 우리 금속노동자는 4.15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의 원내진출과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총력 매진하며 노동자 진보세력의 당선운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거둡하는 낡은 정치의 장본인 보수정당에 심판을 가하기 위하여 4월 총선에서 전 조직역량을 동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2004. 2. 10

제134차 중앙위원회 및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1)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 일 시 : 2003년 4월 10일(목) 11시

-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 참 석 자 : 재적 76명 참석 61명(참석 39명 결의위임 22명)

- 결의사항 :

- ① 보고사항 - 지난 3월25일~26일에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개최한 2003년도 정책세미나 결과를 보고하고 토론된 주요내용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키로하다
- 한국노총 장학재단 2003학년도 장학생 배정결과 우리노련에 65,860,000원이 배정되었으며 이금액을 지난 회계년도 맹비 납부 실적에 따라 가맹노조에 배정하였음을 보고하다
- ② 노동시간단축 동향 및 투쟁계획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국장이 설명 설명보고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의결하다
- ③ 2003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2003년 5월 22일 14시에 구미시 공단동소재 근로청소년복지 회관에서 개최하며 대의원대회에 상정될 모든 안건은 5월 15일경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토의를 거친 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며 수상자의 배정은 예년도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 ④ 위원장 선거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충남본부 강한우의장, 위원에 대구.경북본부 김무호 의장, 태양금속 이병욱 위원장, 충북본부 김한성 의장, 그리고 사무국장에 인천본부 손종홍 의장으로 구성하며 간사에 노련 조직강화본부 이진우본부장을 임명하다
- ⑤ 제규정 개정안의 심의 과정을 규약개정심의회소위원회 강한우 위원장이 설명보고하고 개정내용이 방대하므로 각 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 ⑥ 기타토의-,정책세미나의 결과 중 산별추진과 제조연대 통합추진 일정계획을 사업계획에 제시해 주기 바란다
- ,한국 사회민주당의 당헌, 당규, 정당이념 등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하므로 홍보의 기회를 갖도록 사민당에 요청해 주기 바란다

2)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 개최일시 : 2003년 5월 15일 14시

- 개최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 참 석 자 : 제133차 중앙위원회와 연석으로 개최

- 결의사항 : 제133차 중앙위원회와 연석으로 개최

2)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 개최일시 : 2003년 7월 24일(화) 11시
- 개최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 참석자 : 재적49명 참석 31명
- 결의사항 : 임명장 수여

3)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 개최일시 : 2004년 2월 10일(화) 14시
- 개최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 참석자 : 제134차 중앙위원회와 연석으로 개최
- 결의사항 : 제134차 중앙위원회와 연석으로 개최

4)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 개최일시 : 2004년 3월 25일(목) 13시
- 개최장소 : 한국노총 이천여주지부 회의실
- 참석자 : 재적85명 52명 참석 결의위임 15명
- 결의사항 :
 - ① 주요업무보고
가, 로켓트전기 조합원 해고 건
나, 기아특수강 해고자 고용농성의 건
다, 2004학년도 노총 장학생 배정내용 보고-한국노총 장학재단 67,820,000원을 배정받아 고교생 64명 2년제 대학생 1명 4년제 대학생 1명에게 배정하였음을 보고하다
라, 맹비 장기체납 노동조합 권리제한조치 결과보고
노련 맹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대림통상 외 10개 노동조합을 권리제한 조치하였음을 보고하다
 - ②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가,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2004년 5월 20일 14시에 개최하며
나, 장소는 지역본부에서 신청하는 장소를 검토하여 선정하되 신청지역이 없거나 신청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시 사무처에서 선정한다

다, 대의원 배정을 위한 맵비납부 마감일 은 2004년 4월 17일(토)13시까지로 한다

라, 대회상장안전은 대회 1주일 전에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마, 대회 시상자는

- 단위 노조는 2004년 3월 말일 기준 맵비납부 조합원이1,000명 이상인 조합에 1명 배정하고 3,000명 이상인 조합에 1명을 추가 배정한다
- 지역본부는 기본 1명을 배정하고 위 5)항을 제외하고 10,000명 이상인 지역본부에 1명을 추가 배정한다
- 노련과 지역본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지역본부를 선정 표창할수 있다 (위의 기준으로 배정할 경우 약 30명 임)

③ 4, 15 총선 대책 활동의 건

가, 노련의 총선관련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나, 노총의 총선 관련 활동내용을 유재섭 부위원장이 설명하다

다,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녹색사민당 장상원 실장이 설명하다

라, 녹색사민당 특별당비와 입후보자지원 모금내역을 보고하고 실제 집행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하기로 의결하다

4. 기타회의 개최

1)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개최

① 일 시 : 2003년 7월 3일 14시

②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③ 참 석 자 : 재적 46명중 25명 참석

④ 결의사항

- 보고사항

가. 2003년도 임투진행 상황을 보고하다

나.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결정내용을 보고하다

다. 한일금속, 철강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라. 금속-화학노련의 조직통합 진행 경과를 보고하다

마. 각종 투쟁활동 내용을 보고하다

- 토의 사항

가. 중앙집행위원, 부서부장 임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교육사업 집행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가맹노조 정보화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 기타토의

중앙단위의 각종 집회 개최시 보다 구체적인 진행계획에 따라 집회가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이탈한 후에 마무리 집회를 개최
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건의 해 주기 바란다

2)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① 일 시 : 2003년 8월 25일 10:30시

②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③ 참 석 자 : 재적 46명중 27명 참석

④ 결의사항

가.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투쟁경과를 보고하고 8월28일 14시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양 노총 공동집회에 최대한의 조합원이 참가하도록 독려하기로 의결하다

나. 2003년도 임금교섭 결과 8월 20일 현재 평균요구율 11.96%에 평균타결율이
8.11% 임을 보고하다

다. 회의자료의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계획을 보고하고 빠른 시간내에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라. 금속-화학 통합 추진경과를 보고하다

마. 회의 후 노련창립 제4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다

3)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① 일 시 : 2003년 11월 11일(화) 11시

②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③ 참석자 : 재적 46명중 24명 참석

④ 의결사항

- 주요업무 보고

- 가.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다
- 나. 금속-화학 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하다
- 다.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 및 집행내역을 보고하다
- 라. 신규조직(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내역을 보고하다
- 마. 노사관계 선진화 이정표(로드맵)내역을 보고하다

- 토의 안건

- 가. 금속-화학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은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한다
- 나. 통합될 조직의 명칭은 향후 세미나를 개최하여 토의 결정한다
- 다. 11월 23일에 개최하는 전국 노동자대회에 최대한의 인원이 참석하도록 독려한다
- 라. 금년 말까지 주40시간제 요구지침을 작성하고, 1,000명이상 사업장을 집중지도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마. 사회민주당의 진성당원 가입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 바. 가맹노조의 전산화를 위하여 적극 독려한다.

5. 회계감사수검

1) 2003회계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 ① 일시 : 2003년 11월 11일 14시
- ② 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 ③ 내용 : 2003회계년도 상반기(2003. 4. 1-9. 30) 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2) 2003회계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검

- ① 일시 : 2004년 4월 29일 14시
- ② 장소 : 본노련 회의실
- ③ 내용 : 2003회계년도 하반기(2003. 9. 30-2003. 3. 31) 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2장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

1. 취지

단위 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처리 담당자 및 회계감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 일정

지 역	교 육 일 정	장 소
서울, 경기, 강원	10월 20일(월)13-17시	노총경기중부지부(031-442-3666)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77 -전철 1호선 금정역하차 도보5분
대전, 충남, 충북	10월 21일(화)13-17시	노총충남본부(041-553-5988) -천안시 두정동 163-4
대구경북,구미,포항	10월 22일(수)13-17시	노총대구본부(053-626-0304)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부산, 경남, 울산	10월 23일(목)13-17시	노총부산본부(051-861-4613) -부산연제구연산2동844-14 (근로자종합복지관)
광주, 전남, 전북	10월 24일(금)13-17시	노총광주본부강당(062-524-8581) -광주시 북구 유동 40
안산, 인천	10월 27일(목)13-17시	노총안산지부(031-499-8601) -안산시 성곡동4라 601 (노동복지회관)

3장 노총장학재단 장학금 배정지급

1. 취지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우리노련에 배정된 2003학년도 장학금66,30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노조의 맹비납부 실적에 따라 배정하였다

2. 년도별 장학금 수혜내역

년도별	중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 계	지 급 총 액
1977	16	12			28	1,520,000
1978	91	68			159	9,765,000
1979	118	86			204	13,960,000
1980	165	120			285	21,525,000
1981	130	42			172	30,980,000
1982	127	49			176	37,980,000
1983	140	37		2	179	41,680,000
1984	68	9			77	16,480,000
1985	84	8			92	19,000,000
1986	84	8			92	19,000,000
1987	71	12			83	19,650,000
1988	149	64			213	90,990,000
1989	128	58		1	187	59,210,000
1990	199	51		1	251	80,900,000
1991	261	47		1	309	114,770,000
1992	231	58	1	3	292	116,960,000
1993	165	72		2	240	117,860,000
1994	61	87	1-방통	1	150	96,390,000
1995	56	103	1-방통		160	115,910,000
1996	61	104			165	133,990,000
1997	57	99	4		160	138,460,000
1998	97	107	3	1	208	169,340,000
1999	56	118	5	1	180	160,480,000
2000	66	82	2		150	101,400,000
2001	51	86	5	2	144	105,300,000
2002	30	72	4	2	107	80,200,000
2003	35	45	1	1	82	66,300,000
계	2,797	1,704	27	18	4,545	1,980,000,000

4장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1. 취지

규모·지역·업종에 관계없이 금속연맹의 각 단위노조 대표자가 모두 모이는 대 참여의 장을 형성하고, 그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을 선도해온 금속노동자로서의 자긍심과 금속연맹 500여 노조와 12만 조합원으로서의 주체 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각 조직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 유대강화의 장을 통해 단결력과 연대의식 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노동조합운동의 강화발전을 결의 하므로써 강고한 금속대오를 대내외 과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목표

- 금속연맹 각 단위노조 대표자 대 참여의 장 마련
- 금속노동자로서의 자긍심 및 소속의식 함양
- 각 조직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 유대강화를 통한 단결력과 연대감 증진
- 노동조합운동의 강화발전 결의
- 금속연맹의 위상 강화 및 단결력 과시

3. 대회 명칭 및 일정

- 가. 대회명칭;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 나. 개최일시; 2003년 10월 9일(목)13시부터 - 10일(금)16시(1박2일)
- 다. 개최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3)
- 라. 참석 대상; 가맹노조 위원장, 지부장
노련 임원, 지역본부 의장 및 지역본부 상근 임직원
- 마. 경기종목;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 명랑 운동회
- 바. 참가비; 50,000원

4.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 대회장; 위원장-이 병 균
- 부대회장; 수석부위원장-정창영 상임부위원장-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석춘 서갑순
최경호 김순호 하영일 지수식 도정복 정상영 조병철 김한모 황창배 손종홍 이병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강창영 김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강진호 권동재 신태기

손은진 김경조 김무호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중 김길주 이대영 왕용호 장준영
황대선 조한제 노승표 김용표 김병수 윤용민

집행위원장; 사무처장-김 만 재

집행위원; 노련 본부장-이진우 윤창열 김홍룡 국장-김정완 정문주 정용영

지역본부 사무국장 -김종화 김덕수 김현섭 조재천 오기순 고석희 전병준

정운국 문성일 윤삼원 김순창 강영철 김성운 김수복 정한수 김홍배

- 경기진행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후선정 한다

5. 팀 구성

16개 지역본부를 권역별로 묶어 6개 팀으로 구성

- ①팀-경기.강원 ②팀-인천.안산시흥 ③팀-경남.부산
④팀-서울.대전.충남.충북 ⑤팀-대구경북. 전북 ⑥팀-구미.포항.울산.광주전남

6. 시상

종합 우승; 우승기. 우승컵. 부상(상금 1,000,000원)

종합 준우승; 컵. 부상(상금 700,000원)

종합 3 위; 컵. 부상(상금 4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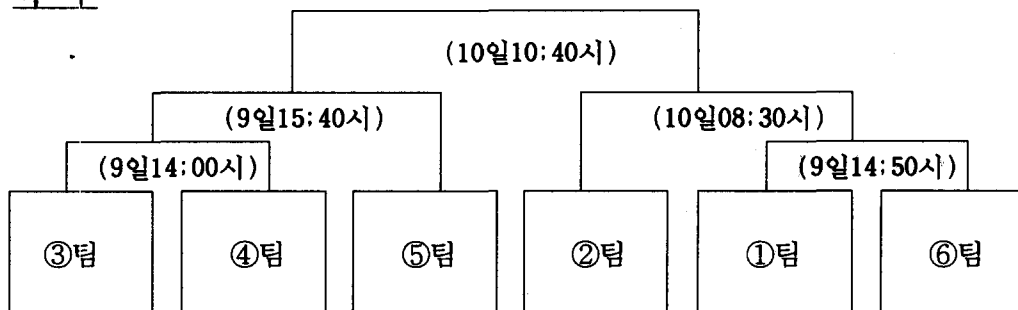
응원상; 300,000원

단결상; 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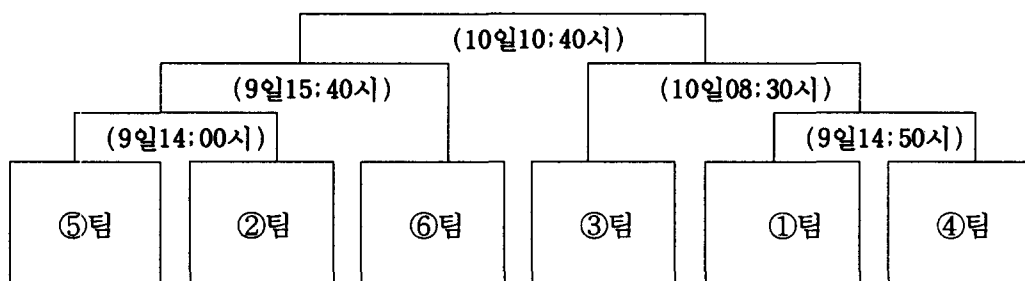
화합상; 200,000원

7. 경기 대진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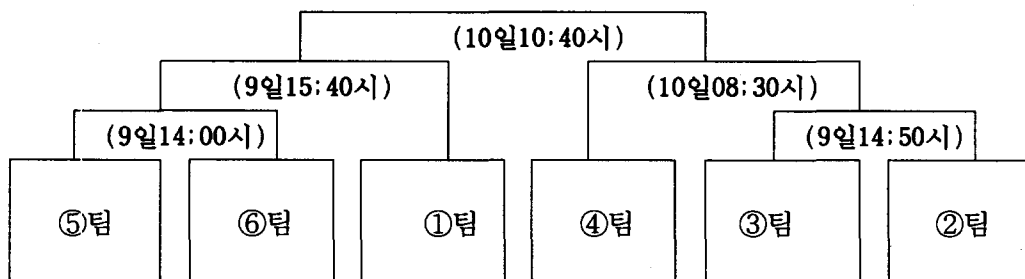
축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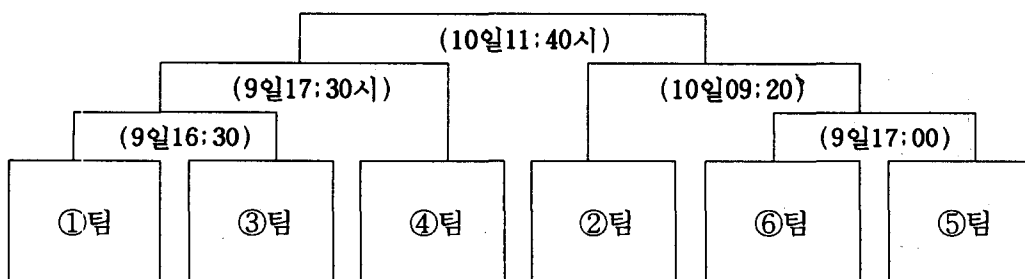
배 구



족 구



줄다리기



※ 계주는 트랙내선부터 ④.②.③.⑥.⑤.①팀 순으로 출발 대기선에 배치한다

①팀- 경기.강원

②팀- 인천.안산시흥

③팀- 경남.부산

④팀- 서울.대전.충남.충북

⑤팀- 대구경북.전북

⑥팀- 구미.포항.울산.광주전남

8. 대회 운영 규칙

제1조(명칭) 본 대회는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

제2조(참가 자격) 본 대회에 참가자는 우리노련에 가맹하고 소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는 단사 위원장및 지부장, 노련 부위원장과 지역본부의장및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제3조(팀 구성)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6개 팀으로 구성 한다

①팀- 경기. 강원

②팀- 인천. 안산시흥

③팀- 경남. 부산

④팀- 서울. 대전. 충남.충북

⑤팀- 대구경북. 전북

⑥팀- 구미.포항.울산.광주전남

(지부는 본조 소재지가 아닌 지부소재 지역본부 팀에 소속한다)

제4조(경기종목) 경기종목은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로 한다

제5조(예산) 대회개최의 소요예산은 참가비와 노련사업예산 및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조직위원회 구성) 본 대회의 대회장은 노련 위원장으로 하고, 부대회장은 노련 부

위원장, 집행위원장은 사무처장, 집행위원은 노련본부장, 국장, 지역본부 사무국장으
로 구성한다

제7조(집행위원 임무)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경기가 지나친 승부 욕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여야한다

③부상자 발생을 최대한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부상자 발생시 신속히 응급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심판 위촉 배정) 집행위원장은 경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각 종목별로 심판자
격증 소지자와 광역단체급 이상의 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
심을 위촉하여 경기에 배정하며, 부심은 해당 종목에 상당한 경륜이 있는 사람 중에
서 위촉 배정한다

제9조(판정) 경기결과는 심판의 판정에 의하며 이의가 접수되면 집행위원장은 종목심판
과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선수처리) 위 제2조의 참가 자격자 이외의 자는 출전 할 수 없다

제11조(신분확인) 매 경기마다 출전선수의 신분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에 의하여 확인하며 상대팀 감독 및 주장의 확인 후 경기를 시작한다

제11조(경기진행규칙) 각 경기는 별표1 의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12조(경기 배점) 각 경기의 배점은 별표2 의 배점 표에 의한다

제13조(해석) 이 규칙의 해석 권한은 대회장에게 있다

별표·1- 경기진행 규칙

축구;(1) 출전선수 등록은 15명으로 한다 (출전선수 11명 후보선수 4명)

(2) 전 후반전 각 15분 휴식 10분으로 하며 결승전은 각 20분으로 한다

(3) 동점일 경우 각팀 5명씩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리며 승부차기에서
동점일 경우 각팀 1명씩 승부차기로 결정한다

(4) 선수교체는 경기 전 후반 중 후보선수마다 1회씩으로 한정한다

(5) 정강기 보호대(아대) 미착용자와 반지 착용자의 출전을 금한다

(6) 심판의 경고가 2회 이상이면 퇴장한다

(7) 판정은 관례에 따른 심판의 결정에 의한다

배구;(1) 출전선수 등록은 12명으로 한다 (출전선수 9명 후보선수 3명)

(2) 경기는 15점 3전 2승으로 한다

(3) 결승전은 21점 3전 2승으로 한다

(4) 매 경기마다 코트를 바꾸며 3세트의 경기는 준결승까지는 8포인트, 결승은
11포인트에서 코트를 바꾼다

(5) 서브는 순차 서브로 한다

(6) 넷터치, 오버넷은 실점으로 하며 기타의 판정은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7) 선수교체는 경기 중 후보선수마다 1회씩으로 한정한다

족구;(1) 출전선수 등록은 8명으로 한다 (출전선수 5명 후보선수 3명)

(2) 경기는 15점 3전 2승으로 한다

(3) 결승전은 21점 3전 2승으로 한다

(4) 매 경기마다 코트를 바꾸며 3세트의 경기는 준결승까지는 8포인트, 결승은
11포인트에서 코트를 바꾼다

(5) 서브는 순차 서브로 한다

(6) 넷터치, 오버넷은 실점으로 하며 기타의 판정은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7) 선수교체는 경기 중 후보선수마다 1회씩으로 한정한다

줄다리기;(1) 출전선수는 30명으로 한다

(2) 3전 2승으로 한다

(3) 경기는 기준점 에서 100cm를 받아 나거나, 20초후에 기준점에서
이동된 결과로 판정한다

(4) 경기 위치를 바꾸어 경기를 진행한다

계주; (1) 팀당 6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여성선수1명(여성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본부 여사무원)이 포함되어야한다

(2) 경기장 트랙을 2분의1 바퀴씩 이어 달린다

- 각 종목 경기시작 10분전까지 출전준비에 따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한다
- 경기방식은 계주를 제외하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경기 배점표

각 경기의 배점은 아래 표에 의한다

종 목	우 승	준우승	3 위	4 위	5 위	6 위
축 구	100	90	80	80	60	60
배 구	100	90	80	80	60	60
족 구	100	90	80	80	60	60
줄다리기	100	90	80	80	60	60
계 주	100	90	80	70	60	50

부정선수의 출전 등으로 게임 몰수 시와 출전 기권 시는 배점을 0점으로 한다
종합 순위 결정 시 동점은 종목별 우승 준우승의 승수로 결정한다

9. 대회 결과

순 위	팀	지 역	시 상 내 역
종합우승	⑥팀	구미.포항.울산.광주전남	우승기, 트로피, 부상100만원
종합준우승	②팀	인천. 안산시흥	트로피, 부상70만원
종합3위	④팀	서울. 대전. 충남.충북	트로피, 부상40만원
종합4위	⑤팀	대구경북. 전북	부상30만원
종합5위	③팀	경남. 부산	부상20만원
종합6위	①팀	경기. 강원	부상20만원

경품 협찬 - LG전자의 외 34개사 137개 품목 접수

협찬금 및 보조금 : 25,350,000원(협찬금: 22,150,000원+부조금: 3,200,000원)

개최비용 결산 - 지출 총계 : 58,437,390 원

조 직 활 동

- 평가 및 개선방안
-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지역본부 임원명단
 - 단위노동조합 현황
- 2. 지부현황
- 3. 신규조직현황
- 4.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 5. 해산 및 이탈노동조합 현황
- 6. 년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 7. 기타 활동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9. 12. 28.
 ②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57
 ③ 전화 번호 : 2676 - 4823 FAX : 2676 - 4824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서 갑 순	한국특수공구	2001. 12. 21
지도위원	강 창 영	동 부 제 강	"
부 의 장	김 형 식	KTC	"
부 의 장	이 대 영	DENSO풍성	"
부 의 장	서 학 수	롯데알미늄	"
사무국장	장 세 종	불보건설기계코리아	"
회계감사	김 형 식	KTC	"
정책실장	도 대 곤	한국 TDK	"

⑤ 서울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DENSO풍성노동조합	680228 이 대 영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1동 656 - 335	
LG전자노동조합	630530 장 석 춘	영등포구 문래동 6 가 36 LG강서빌딩	
OTIS-LG엘리베이터노동조합	871027 최 경 호	서울시 강서구 동촌동 680-2 동우빌딩 10층	
경보전기노동조합	910412 송 제 관	서울시 성동구 성수 2 가 3동 284-5	
대우일렉트로닉스노동조합	830414 이 병 균	영등포구 신길7동 820번지 2층	
대우전자서비스노동조합	981229 오 태 곤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104-4 우암빌딩303	
대한전선노동조합	720615 조 병 철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104	
롯데알미늄노동조합	760407 서 학 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	
롯데전자노동조합	870821 김 현 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	
불보건설기계코리아노동조합	000803 장 세 종	용산구 한남동 726-173 불보빌딩 6층	
불보트럭코리아노동조합	001107 이 장 화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73 불보빌딩8층	
삼흥사노동조합	020502 박 태 형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32	
샤프전자노동조합	900508 차 윤 용	강서구 동촌3동 661-10 샤프빌딩 3 층	
엘코코리아노동조합	940417 김 진 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44	
한국TDK노동조합	960226 도 대 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70 번지	
한국음향노동조합	850425 노 윤 철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 41	
한국코트렐노동조합	990609 이 종 영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1 옥도빌딩	
한국특수공구노동조합	620331 서 갑 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1	

2) 경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2. 9. 27.
 ②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 8 동 377
 ③ 전화 번호 : (031) 442 - 3666 FAX : (031) 445 - 2816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허 원	칩팩코리아	2003, 11, 17
부 의 장	이 종 진	성 신	"
부 의 장	정 상 영	하이닉스반도체	"
부 의 장	조 병 철	대 한 전 선	"
부 의 장	강 장 규	현대ENERCELL	"
부 의 장	김 길 섭	LG전자(평택)	"
부 의 장	장 현 국	퍼시픽콘트롤즈	"
부 의 장	이 식 재	비오이하이디스	"
회계감사	유 진 화	성 신	"
회계감사	김 한 모	칩팩코리아	"
사무국장	안 재 식	쉐프네커 풍정	"

⑤ 경기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BOE하이디스노동조합	010702	이 식 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LG전선노동조합	670512	유 은 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
경동산업노동조합	881213	신 동 성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509
국제전기노동조합	890919	김 종 화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164-1 다보빌딩3층
남일전지노동조합	771204	오 병 덕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99-4
대광다이캐스트노동조합	880307	김 수 룡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25
대기오토모티브노동조합	890221	민 한 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9-6
도루코노동조합	750520	신 은 환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931
동아정기노동조합	870817	이 재 권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4
동일제강노동조합	850614	이 종 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446-2
동화프라임노동조합	870814	이 봉 기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26 - 10
동화ACS노동조합	000619	김 금 수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창곡리 1030-2
두산노동조합	880404	이 성 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8 - 1
보원무역노동조합	870814	하 병 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 - 6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880706	김 준 영	부천 원미구 중동 1093-1근로자복지회관3층
비벤디위터코리아노동조합	010611	노 용 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사이사이천노동조합	990906	노 태 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1-1
삼아알미늄노동조합	890208	김 종 덕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11 - 2
삼양중기노동조합	840708	이 성 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4

삼영전자노동조합	880828	지 수 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1
삼화전자노동조합	941121	김 영 식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211
서진산업노동조합	760226	최 현 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5
서진캠노동조합	030705	이 의 형	경기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884
성문전자노동조합	910103	김 정 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1-6
성신노동조합	870728	유 진 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6 - 5
세진전자노동조합	770123	문 광 주	경기 오산시 가장동 157-1
수산서비스노동조합	970702	이 철 호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송리 457
세프네커피노동조합	871112	윤 석 환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6 - 1
신명전기노동조합	850522	반 필 현	경기 평택시 청북면 토진3리 417-6
신한일전기노동조합	740518	정 한 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
써미텍노동조합	921019	김 대 훈	경기도 안양시 안양 7 동 191-4
에스케이텍노동조합		노 형 선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에프와이디노동조합	030414	이 영 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0-8
엔젤악기노동조합	011129	홍 재 자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35-139
엠텍노동조합	011203	김 수 열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418
오리엔트시계노동조합	870820	박 연 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3-1
유니온코팅노동조합	031107	김 철 회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833-7번지
이큐베스텍노동조합	011207	김 대 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이트로닉스노동조합	870919	하 재 범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정2리 461
이화다이하몬드노동조합	880312	최 진 용	경기도 오산시 원동 520 - 2
일진금속노동조합	870829	이 웅 재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쾌량리 산 446-1
일진전기노동조합	870816	전 덕 동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12 - 83
정문정보노동조합	970118	홍 전 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122-5
젠텍노동조합	870907	김 병 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527-4
침팩코리아노동조합	980701	김 한 모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케이티씨노동조합	020103	김 형 식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160 5
코모스노동조합	020308	최 상 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6-2
큐엔텍코리아노동조합	870902	원 철 식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4 - 5
파이런텍노동조합	020223	전 오 상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팬텍노동조합	010502	박 덕 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웅정리 110-1번지
퍼시픽콘트롤즈노동조합	910207	장 현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288
필코전자노동조합	870826	안 용 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81
하나모듈노동조합	020216	허 연 석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 487-9
하이닉스반도체이천노동조합	870814	정 상 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한국가구노동조합	680904	기 상 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9-15
한국반디노동조합	870719	양 봉 광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206 - 1
한국케인노동조합	870826	최 상 봉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177
한국키스톤발브노동조합	880709	박 명 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록리 270-4
현대네트웍스노동조합	010509	이 창 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현대시스콤노동조합	010702	서 보 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현대아스텍노동조합	010618	김 남 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현대에너지셀노동조합	870817	강 장 규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34 - 3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870814	성 용 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현대엘씨디노동조합	020110	김 상 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현대오토넷노동조합	000401 이 승 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현대제이콤노동조합	010706 김 우 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254-1
협진정밀공업노동조합	021111 최 용 응	경기 김포시 감정동 626-18
희성전선노동조합	680503 전 병 찬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66

3) 안산.시흥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7. 12. 16.
 ② 소 재 지 : 안산시 시화공단 4 라 601 노동복지회관
 ③ 전화 번호 : (031) 499 - 8601 FAX : (031) 497 - 1049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광 호	대덕GDS	2004.1.30
수석부의장	조 재 천	오양공조기	"
부 의 장	송 두 영	경 용 기 계	"
부 의 장	김 형 기	대 경 화 성	"
부 의 장	이 정 한	홍 진 정 공	"
부 의 장	이 홍 복	위 스 코	"
부 의 장	강 영 석	경 방 기 계	"
회계감사	정 교 태	대 한 전 선	"
회계감사	이 선 오	대 덕 전 자	"
사무국장	이 병 원	포 스 닉	"

⑤ 안산.시흥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KEP전자노동조합	890330	이 병 원	안산시 성곡동 673-19 시화공단5라 401-6
T.R.W 노동조합	950817	김 경 수	안산시 원시동 780-3 10-14블럭
경용기계노동조합	840527	송 두 영	안산시 성곡동 646 - 5 반월공단 B 602- 7
광명전기노동조합	870815	윤 석 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89번지 2-15
그로켈메탈노동조합	880629	강 영 석	안산시 성곡동 644 - 2
기린산업노동조합	900714	차 상 목	안산시 목내동 403번지 16브럭28호
남성기계노동조합	890410	이 철 수	안산시 신길동 1054-1
남양공업노동조합	950328	류 승 택	안산시 목내동 390
대경화성노동조합	890113	김 형 기	안산시 성곡동 636-2
대기포레스아노동조합	030619	김 현 식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64번지
대덕GDS노동조합	871212	김 광 호	안산시 목내동 475
대덕전자노동조합	871228	이 선 오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0-1

대동도벨시스템노동조합	020426 윤 성 진	시흥시 정왕동 1294-4 시화공단 4나-305
대동공업노동조합	780223 나 만 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9-3
도루코엔지니어링노동조합	970320 박 용 필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62-3
동서기공노동조합	890424 김 종 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2-5 4나 507호
동희산기노동조합	910523 설 한 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9 번지 3나 301호
두레에어메탈노동조합	880622 이 순 규	안산시 목내동 393-1
배명금속노동조합	981202 강 우 남	안산시 초지동 654-2
비츠로테크노동조합	900828 최 치 영	안산시 성곡동 605-2번지
삼기기공노동조합	781013 김 용 태	경기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1217
삼목공업노동조합	880418 박 용 국	안산시 초지동 654 - 3 반월공단 9-71-2
삼영기공노동조합	890328 구 인 수	안산시 성곡동 647-4 (B 602 - 18)
서구산업노동조합	880324 김 삼 두	안산시 신길동 1061
서봉테크노동조합	020125 김 용 희	경기 시흥시 정왕동1267-7시화공단2다508호
서진클러치노동조합	910125 김 영 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0 - 9
성안기계노동조합	890515 최 관 섭	안산시 성곡동 646 - 4 (602B)
세광노동조합	900423 임 지 병	안산시 성곡동 638 - 4
세광알미늄노동조합	860831 장 영 기	안산시 초지동 651번지 9B-61호
시그네틱스노동조합	030705 이 윤 순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9-5
신일산업노동조합	770425 신 철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9-1
신일정밀노동조합	890904 박 정 호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23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노동조합	870822 김 영 운	안산시 목내동 398 - 14
오양공조기노동조합	870817 조 재 천	안산시 원시동 817 B 1 - 89
우진공업노동조합	890513 김 영 철	안산시 원시동 770 - 1, 11 B 17 L
위스코노동조합	881018 이 흥 복	시흥시 정왕동 1277-5 시화공단 3나 706B
이나베어링노동조합	950513 임 승 철	안산시 신길동 1054-2 603-2B
일진노동조합	870822 한 명 송	안산시 목내동 472 - 1(B14-14)
지씨아이노동조합	870903 김 순 영	안산시 목내동 406번지
창흥정밀노동조합	870919 이 연 재	시흥시 정왕동 1265-8 시화공단 2라 207
코리아휠노동조합	671001 김 진 국	안산시 신길동 1125 13-14BL
태양금속노동조합	760526 이 병 옥	안산시 성곡동 595
한샘노동조합	800401 탁 재 송	안산시 성곡동 665 시화공단 5라 201
홍진정공노동조합	881118 이 정 한	안산시 원시동 780 - 1, 10 - 8 B

4) 인천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1. 2.
- ②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1089 - 3 근로자복지회관 3 층
- ③ 전화 번호 : (032) 437 - 8505 FAX : (032) 437 - 8504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손 종 홍	대 한 제 당	2004.4.7
부 의 장	이 원 식	로 알 동 도	"
부 의 장	손 창 두	미 주 제 강	"
부 의 장	김 재 업	동 국 제 강	"
부 의 장	김 만 용	대우일렉/인천	"
부 의 장	오 인 상	삼 성 공 업	"
부 의 장	백 승 택	동부제강/인천	"
회계감사	이 장 옥	동 양 사	"
회계감사	백 동 선	대 한 제 당	"
회계감사	김 영 천	후지테크코리아	"
사무국장	현 용 섭	한 국 샤 프	"
정책기획실장	이 윤 길	태 화 금 속	"

⑤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경신공업인천공장노동조합	880810	전 재 한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38-3
대동시스템노동조합	890711	강 부 종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07-2 남동공단 3B3L
대동하이텍노동조합	030806	류 성 용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2-5 151B-5L
대한제당노동조합	690602	백 동 선	인천시 중구 북성동 1 가 6 - 14
동국제강노동조합	890220	김 재 업	인천시 동구 송현3동 1
동보노동조합	870910	최 화 영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06 - 1 2B-2L
동양사노동조합	890216	이 장 옥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30-11번지
로알동도노동조합	870727	이 원 식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14-3
루보노동조합		문 봉 인	인천 남동 고잔동 640-12 남동공단71B-13L
린나이코리아노동조합	890316	한 기 성	인천시 부평구 십정1동 560 - 2
머큐리노동조합	001117	김 영 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6
미주제강노동조합	870809	손 창 두	인천시 남구 도화동 696
삼성공업노동조합	870810	오 인 상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18
삼성정밀공업노동조합	890414	윤 상 택	남동구 남촌동 629-3 남동공단 42B 4L
삼양감속기노동조합	020715	최 인 석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6-2남동공단22B/3L
성원디앤텍노동조합	030128	이 명 호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12-4
심팩노동조합	870818	최 만 호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4
영풍산업인천공장노동조합	870820	박 일 우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57 - 3
우일정밀노동조합	870824	조 양 래	인천시 남구 도화3동 694 - 1
우진기계공업노동조합	010917	심 정 권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8-3
청우하이드로노동조합	880510	이 명 선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2-14
탐금속노동조합	880806	김 종 명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3-6 96-7
태화금속노동조합	880705	이 윤 길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7 - 3
한국샤프노동조합	880601	현 용 섭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18
한영알미늄노동조합	761027	김 윤 식	경기 안산시 성곡동 670-1 시화공단4라402
한일튜브노동조합	930517	이 현 옥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9 - 3

후지테크코리아노동조합	870827 김 영 철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2-2 98B 3L
휴스틸노동조합	800508 박 창 옥	인천시 남구 학익1동 468
희성금속노동조합	870823 유 태 경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48 - 1

5) 대전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30.
 ②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4 번지
 ③ 전화 번호 : (042) 488 - 9057 FAX : (042) 488 - 9058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김 두 형	대한주택종합관리	2003.12.22
부 의 장	이 남 철	진 합	"
회계감사	윤 익 병	남 선 기 공	"
회계감사	김 순 환	세아티이씨	"
사무국장	오 기 순	동 양 강 철	"

⑤ 대전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남선기공노동조합	740221	윤 익 병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50 - 10
대한주택종합관리노동조합	001108	김 두 형	대전시 서구 괴정동 128-9
동양강철노동조합	670306	오 기 순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75-2 3공장
동양정공노동조합	010223	구 자 관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63-15
동양정밀노동조합		류 경 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75-2
로움코리아노동조합	780627	최 희 섭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42-2
세아특수강(대전공장)노동조합	870107	김 순 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8-1
진합정공노동조합	880126	이 남 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57

6) 충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6. 5. 10.
 ②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0 - 1 중앙빌딩 4층
 ③ 전화 번호 : (041) 541 - 6970 FAX : (041) 541 - 6970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강 한 우	삼 신	2001.6.20.
수석부의장	설 광 섭	LG산전장항	"
부 의 장	배 승 천	대원전선	2003.7.10
부 의 장	박 종 윤	서 봉 산 업	2004.2.21
회계감사	정 덕 순	두 원 공 조	2001.6.20
회계감사	최 황 호	동일알루미늄	"
사무국장	고 석 회	윤 영	2002.6.5

⑤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산전장항노동조합	551015	설 광 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
경신전선노동조합	890910	강 흥 진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463-5
대원전선노동조합	870731	배 승 천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134-7
동부제강노동조합	660429	강 창 영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2리 47
동양철관노동조합	870826	양 시 준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7
동원금속아산공장노동조합	970409	김 영 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23-6
동원정공노동조합	970414	전 재 용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23-3
동일알루미늄노동조합	950727	최 황 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78-1
두원공조노동조합	901217	정 덕 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산 16 - 12
삼신노동조합	870729	박 광 규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 - 6
새론오토모티브노동조합	951016	장 재 성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6-1
서봉산업노동조합	990429	박 종 윤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50-8
수산정밀노동조합	930709	김 관 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산 94
수산특장노동조합	950508	지 흥 종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산3-1
신우전자노동조합	981029	임 은 숙	충남 천안시 성성동 159-12
신원 노동조합	010903	전 성 복	충남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542-4
쌍신전자통신노동조합	760426	정 명 식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 - 1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	960329	배 춘 식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
윤영노동조합	970123	고 석 회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462-1
존슨콘트롤노동조합	950925	이 창 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61번지
진로산업노동조합	870826	방 웅 식	충남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569
한국에프엠노동조합	710513	남 기 수	충남 연기군 동면 웅암리 산 666 - 8
한국하니웰노동조합	890601	김 상 규	충남 천안시 차암동 56번지
화승공조노동조합	950821	최 종 석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5
환영철강노동조합	950117	홍 성 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7

7) 충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8. 12. 31.
 ②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 - 15 번지
 ③ 전화 번호 : (043) 267 - 1418 FAX : (043) 266 - 5088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한 성	대 성 켈 틱	2003.12.29
부의장	이 철 주	삼 화 전 기	"
부의장	왕 용 호	한 국 야 금	"
부의장	김 선 중	국제조합기계	"
사무국장	전 병 준	삼 화 전 기	"
회계감사	손 관 수	백 조 썩 크	"
회계감사	김 준 수	하이닉스반도체	"
노사대책부장	이 관 회	대농중공업	"
교육홍보부장	최 경 천	대 성 전 선	"
조직부장	이 재 석	한 국 알 미 늄	"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 조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D.N.S노동조합	941231	이 관 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5
LG산전노동조합	870727	이 창 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번지
SRC 노동조합	030204	강 병 철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1번지
국제종합기계노동조합	740201	김 선 중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 - 1
극동전선노동조합	870822	정 석 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넥상스코리아노동조합	780219	최 경 천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165
대성켈틱노동조합	890419	김 한 성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3 - 69
대일오지노동조합	890107	최 광 준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308-1
대진대창산업노동조합	021207	남 상 무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148-2
동성금속노동조합	910309	박 회 동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
맥스텔레콤노동조합	820511	김 홍 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55
백조썩크노동조합	850218	손 관 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572-1
범양냉방노동조합	770804	정 해 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24
삼천리자전거공업노동조합	601024	고 선 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308-1
삼화전기노동조합	900131	이 철 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2
선일다이파스노동조합	880618	이 원 섭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67-3
성우오토모티브충주공장노동조합	03	오 상 진	충북 충주시 용탄동 626-1
에넥스노동조합	870810	이 상 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55
에이치앤티노동조합	001101	홍 신 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5
하이닉스반도체청주노동조합	990528	김 준 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1번지

한국가로수보호노동조합	010904 김 은 식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170
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동조합	010521 서 락 범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5-4
한국알미늄노동조합	890826 이 재 석	충북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457
한국아금노동조합	910204 왕 용 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53 - 16
한국캠브리지필터노동조합	900216 최 성 돈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654-6번지

8) 부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29.
 ②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 - 240
 ③ 전화 번호 : (051) 644 - 4613 FAX : (051) 647 - 8770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지도위원	박 병 용	대 창 단 조	2003.01.27
의 장	강 진 호	연 합 철 강	“
부 의 장	류 해 출	Y K Steel	“
“	박 종 근	한국 주철관	“
“	김 회 근	고 려 용 접 봉	“
“	권 동 재	오리엔탈정공	“
“	변 진 섭	대 성 사	“
“	황 대 선	대 선 조 선	“
“	윤 정 원	강 남	“
“	조 용 석	성 광 밴 드	“
“	주 해 식	연 합 철 강	“
“	지 재 훈	동 영 공 업	“
“	서 종 태	제 일 전 기	“
회계감사	이 규 대	대 창 중 기	“
회계감사	김 병 옥	부 산 링 구	“
회계감사	추 진 호	동 승 기 업	“

⑤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Y K Steel노동조합	800226	류 해 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90
강남노동조합	780319	윤 정 원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
고려용접봉노동조합	840617	김 회 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1 - 3
대선조선노동조합	681203	황 대 선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 가 12
대창중기노동조합	900410	이 규 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8-5
대한제강노동조합	890420	윤 각 열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370 - 16

동아금속노동조합	871017 정 현 규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9 - 7
동아엔텍노동조합	870910 김 재 술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75-7
동희정공노동조합	870901 추 진 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1 동 791 - 1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노동조합	030208 조 범 진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78-1
부산링구노동조합	780430 김 병 옥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3-1
부산선박목의장노동조합	030711 이 종 용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1가 51-1
부산정기노동조합	790301 황 경 연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21 - 3
부산주공노동조합	880420 안 병 철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5
삼공사노동조합	870213 류 국 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64-2
삼천리열처리부산공장노동조합	870824 서 정 룰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53 - 5
성광밴드노동조합	751119 조 용 석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20번지
성우하이텍노동조합	880707 김 근 수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48-12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	900217 권 동 재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14-1
유니온스틸노동조합	770212 주 해 식	부산시 남구 감만1동 588 - 1
제일전기노동조합	770319 서 종 태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370 - 31
철성기계금형노동조합	010724 이 순 호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29-9
태광노동조합	760602 양 재 권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99-1
태양금속노동조합	960523 한 외 돌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 1089-5
태원S&G노동조합	890406 정 운 국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60 - 1
티와이벨브노동조합	871018 지 재 훈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48 - 9
풍산기계노동조합	031116 임 윤 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52번지
한국선재노동조합	890508 강 대 후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370-34
한국주철관노동조합	800419 박 종 근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370 - 19
형진공업노동조합	890716 이 종 동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8 - 6

9) 경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9.
- ②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번지
- ③ 전화 번호 : (055) 284 - 4021 FAX : (055) 287 - 5052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이 문 호	효 성 기 계	2002.3.19
부 의 장	장 준 영	F A G한화베아링	“
부 의 장	이 동 호	한 일 제 관	“
부 의 장	최 해 경	한 국 중 천	“
부 의 장	전 중 환	대 동 기 어	“
부 의 장	김 성 천	한 국 스 핀 들	“
부 의 장	박 준 수	L G전자창원1지부	“
부 의 장	이 진 회	세 신	“
부 의 장	박 한 봉	삼 성 공 조	“
사무국장	윤 삼 원	삼 한	“
회계감사	박 성 호	태 주 실 업	“
회계감사	이 선 중	한 국 카 시 오	2003.3.6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 조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DENSO풍성전자노동조합	800515 최 연 호	경남 창원시 외동 853 - 11
DENSO풍성창원노동조합	890308 육 근 조	경남 창원시 성산동 47
FAG베어링코리아노동조합	630225 장 준 영	경남 창원시 내동 452-9
고려상사노동조합	870321 임 춘 한	경남 양산시 유산동 131-11
대동기어노동조합	830424 유 해 목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71
대동정비노동조합	891004 백 운 효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 - 121
대명공업노동조합	881124 이 신 호	경남 창원시 팔용동 24 - 1
대성사노동조합	760330 변 진 섭	경남 양산시 어곡동 859-3 어곡지방산업단
대신금속노동조합	961126 이 덕 세	경남 창원시 팔용동 24 - 11
대창단조노동조합	750510 박 병 용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72-1
두원중공업노동조합	800114 정 진 용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650
부국정공노동조합	000728 조 현 봉	경남 창원시 팔용동 20 - 3
삼성공조노동조합	850404 박 한 봉	경남 창원시 내동 456 - 4
삼우금속노동조합	800610 조 옥 래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17
삼한노동조합	870813 윤 삼 원	경남 창원시 웅남동 40 - 2
상농전선노동조합	780828 김 상 직	경남 양산시 유산동 476 - 68
세방전지노동조합	760728 정 권 호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2
세신노동조합	751120 이 진 회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4-14
세원E&T노동조합	881102 육 충 석	경남 창원시 신촌동 72
세일공업노동조합	880414 조 경 옥	경남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139
신동방산업노동조합	751109 문 춘 회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상리 260-18
알코아코리아노동조합	020325 신 택 하	경남 창원시 성주동 54
위스코노동조합	870907 이 동 수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4
유니크노동조합	880716 허 영 복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0-1

케이피이아이노동조합	000322	황 병 경	경남 창원시 동읍 봉산리 288
태양코팅노동조합	890902	석 민 호	경남 창원시 성산동 43
태주실업노동조합	880909	김 명 현	경남 창원시 성주동 48 - 5
태화기계노동조합	790706	최 중 틀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5
테크원노동조합	000718	최 민 호	경남 양산시 산막동 328
한국GMB노동조합	881115	김 은 겹	경남 창원시 성산동 48
한국NOK이글노동조합	960325	장 원 혁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방 산업단지 4-5
한국동양유전노동조합	870820	박 현 주	경남 통영시 도남동 468
한국산본노동조합	880425	이 행 철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 - 3
한국스핀들노동조합	880718	김 성 천	경남 김해시 안동 161 - 12
한국일선노동조합	880705	조 덕 용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17
한국정상화성노동조합	880704	심 문 보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한국중천노동조합	870811	최 해 경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 - 17
한국철강노동조합	870810	김 회 봉	경남 창원시 신촌동 70
한국카시오노동조합	890203	이 선 중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 - 4
한국코오베노동조합	000617	김 중 민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14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030921	천 영 호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02
한덕산업노동조합	881014	박 해 운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8 - 10
한일제관노동조합	870817	이 동 호	경남 양산시 유산동 211
효성기계노동조합	830326	박 성 조	경남 창원시 성산동 77

10) 울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9. 9. 1.
 ②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 - 7
 ③ 전화 번호 : (052) 276 - 5880 FAX : (052) 274 - 9631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신 택 기	LG - NIKKO	2004.2.11
부 의 장	허 문 근	대 일 공 업	"
부 의 장	손 영 호	인 산 기 업	"
사무국장	문 성 일	삼 주 기 계	"

⑤ 울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LG-Nikko동계련노동조합	830321	신 택 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
고려아연노동조합	771009	조 한 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505
국일인트르노동조합	030515	이 동 철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점단리 437

금강공업노동조합	900811 김 종 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40-25
다스노동조합	890518 홍 정 표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 - 2
대일공업노동조합	850607 허 문 근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302번지
동희산업노동조합	870811 이 찬 기	울산시 남구 황성동 218
명화공업노동조합	991115 여 영 주	울산시 남구 부곡동 273
삼주기계노동조합	881214 문 채 근	울산시 북구 효문동 750 - 1
영신정공노동조합	890421 장 복 이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408
우영산업노동조합	870829 연 기 섭	울산시 북구 연암동 714 - 15
인산기업노동조합	010511 손 영 호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01-5
조선선재온산공장노동조합	020306 최 성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21번지
지코노동조합	870912 박 관 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20-4
풍산노동조합	870725 손 은 진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3리 2222-2

11) 대구.경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10.
 ②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4 - 73
 ③ 전화 번호 : (053) 564 - 0128 FAX : (053) 564 - 0127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지도위원	장 지 태	경 창 산 업	2002.01.29.
지도위원	이 복 교	삼 립 산 업	"
지도위원	김 춘 종	미 주 금 속	"
의 장	김 무 호	한국파워트레인	"
수석부의장	신 석 곤	평 화 산 업	"
부 의 장	이 석 기	화 신	"
"	전 봉 진	성 산	"
"	나 영 섭	일 지 테 크	"
사무국장	김 순 창	평 화 정 공	"
기획실장	김 동 준	평 화 발 레 오	"
조직국장	김 종 오	남 양 금 속	"
교육국장	황 성 원	대 철	"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KCW노동조합	880907 김 재 준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86
경창산업노동조합	850720 장 지 태	대구시 서구 종리동 1072
경창정공노동조합	880909 김 기 표	대구시 달서구 장동 306-56

금융기계노동조합	900324 이 상 만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666 - 1
남선알미늄노동조합	680825 최 화 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13
남양금속노동조합	881109 김 종 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대동금속노동조합	880216 이 강 진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18
대리정밀노동조합	880714 임 중 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21
대성정기노동조합	900410 이 규 열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32
대원기계공업노동조합	881010 박 인 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580-34
대철노동조합	700226 황 성 원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788-6
대한소결금속노동조합	881021 김 용 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10
대호에이엘노동조합	021002 양 만 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44
동남주물노동조합	880321 박 원 길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66 - 1
동원파이프노동조합	890315 한 판 시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6
동해전장노동조합	890227 정 한 근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 - 3
모토닉노동조합	871021 조 성 칠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95 - 11
미주금속노동조합	780816 김 춘 중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39
삼립산업노동조합	680618 이 복 교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36 - 3
삼립전기노동조합	910410 김 채 민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4
삼보고토스노동조합	870408 김 병 연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080 - 3
삼익LMS노동조합	870818 이 중 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10-76
삼익정공노동조합	890816 김 세 흥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25-2 42 B - 3 L
성산노동조합	890309 전 봉 진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18 성서공단
세양테크노동조합	020904 장 병 철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아세아종합기계노동조합	870615 권 영 동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168
영남주물공업노동조합	790101 백 윤 학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34
영진노동조합	851115 권 태 훈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14-11
이수테타시스노동조합	890420 이 기 남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54
텍스텍노동조합	750410 김 순 석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11
평화탈레오노동조합	890128 김 동 준	대구시 달서구 장동 306 - 70
평화산업노동조합	750410 신 석 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17
평화오일셀노동조합	781014 유 길 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88
평화정공노동조합	880920 김 순 창	대구시 북구 노원3가 214
한국파워트레인노동조합	731130 김 연 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597-10
화신테크노동조합	880429 이 회 찬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4 B - 2 L
효림산업노동조합	990409 장 병 관	경산시 남산면 전지리 718
건화 노동조합	030425 채 중 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9-4
남선홀웨어 노동조합	021004 김 순 진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17-9
대원인지니어링노동조합	001007 정 원 태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500
삼성제침노동조합	910527 차 태 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2
삼익R&C노동조합	000624 정 잠 석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1-7
세명기업노동조합	750619 오 재 학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10
세왕금속노동조합	870827 이 동 물	경북 영천시 망정동 390
세원물산노동조합	870828 손 광 회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6
세원이엔아이노동조합	011026 박 두 규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6
세원정공노동조합	011025 이 정 수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6
신영금속노동조합	841026 김 재 덕	경북 영천시 본촌동 440

유진전장노동조합	930712	강 환 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10-2
일지테크노동조합	890201	나 영 섭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10-3번지
전우개발노동조합	881208	박 종 윤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445-4
체시스노동조합	920618	황 재 순	경북 경산시 진량면 당곡리 산 22-1
케이디에스노동조합	030127	전 회 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타이코AMP노동조합	891101	윤 정 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91
화신노동조합	880504	이 석 기	경북 영천시 연하동412

12) 구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3. 2. 10
 ② 소 재 지 : 구미시 공단동 262-2번지
 ③ 전 화 번 호 : (054) 464-3643 FAX : (054) 464-3643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노 승 표	LG 마 이 크 론	2002.12.3
부 의 장	이 화 철	LG 전자(구미)	"
부 의 장	장 해 도	대우일렉트로닉스	"
부 의 장	박 광 호	하이닉스반도체	"
부 의 장	김 상 일	새 로 닉 스	"
사무국장	강 영 철	하이닉스반도체	"
회계감사	이 기 학	클레스트라하우저만	"
"	손 진 명	일성기계공업	2003.12.15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LG.Philips Displays 노동조합	010629	김 인 배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4
LG.Philips LCD노동조합	990101	변 재 환	구미시 임수동 161
LG마이크론노동조합	870814	김 동 의	구미시 구포동 624
LG실트론노동조합	890105	조 성 룬	구미시 임수동 274
LG이노텍노동조합	870817	원 종 도	구미시 공단동 133
고려전기노동조합	901126	한 기 훈	구미시 공단동 171
델코노동조합	870819	권 영 기	구미시 황상동 495
두산전자사업부노동조합	870820	황 윤 옥	구미시 구포동 644
새로닉스노동조합	740611	김 상 일	구미시 공단동 169
알칸대한노동조합	950715	박 풍 우	경북 영주시 적서동 250
오리온금속노동조합	880818	김 철 수	구미시 공단동 158

일성기계공업노동조합	820903 손 진 명	구미시 공단동 194
클레스트라우저만노동조합	890224 이 기 학	구미시 황상동 502 - 4
태평양금속노동조합	880726 최 창 균	구미시 공단동 298
한국신영노동조합	870818 손 주 현	구미시 공단동 162

13) 포항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1. 11. 23.
 ②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 - 11
 ③ 전화 번호 : (054) 283 - 3728 FAX : (054) 283 - 3729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병 수	세아특수강	2002.12.9
부 의 장	송 만 현	포스렉정비	"
회계감사	장 석 락	동신평강	2002.12.30
회계감사	천 정 근	동화기업	"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경원철강노동조합	001228	장 석 락	포항시 남구 괴동 777
공영엔지니어링노동조합	020406	현 일 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62
그린산업노동조합	880701	안 진 수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4-67 (14/1) 3층
동방금속공업노동조합	890701	이 재 광	포항시 남구 호동 567
동일기업노동조합	880704	장 문 식	포항시 남구 해도 1동 432-1
동일산업노동조합	960320	조 진 석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800번지
동일산업봉강사업부노동조합	881227	이 윤 양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3
삼정제강 노동조합	020610	배 규 현	포항시 남구 괴동 848-4
삼정피앤에이노동조합	890208	손 귀 선	포항시 남구 괴동 967
성우오토모티브노동조합	890610	김 중 한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세아특수강노동조합	890321	김 민 영	포항시 남구 장흥동 747
유일노동조합	000408	최 영 태	포항시 남구 해도2동 82-14번지
제일테크노스노동조합	890808	김 성 운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
조선선재노동조합	881210	김 이 두	포항시 남구 장흥동 865
진성산기노동조합	021214	류 인 선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170-2 B동 202호
코스틸노동조합	880424	이 경 수	포항시 남구 호동 286
포스렉정비부문노동조합	880629	송 만 현	포항시 남구 호동 611
포철산기노동조합	880629	신 영 결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 - 4

피에스씨노동조합	011128 김 종 목	포항 남구 연일 동문리 141-5 삼도상가3층
한금노동조합	901205 이 경 룰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4
현대중합금속노동조합	870819 정 종 현	포항시 남구 장흥동 90 - 5
흥화공업노동조합	870825 손 제 형	포항시 남구 괴동 117 24B

14) 광주.전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30.
- ② 소 재 지 : 전남광역시 북구 유동 40 번지
- ③ 전화 번호 : (062) 524 - 8581 FAX : (062) 528 - 8671
-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용 표	L G 이노텍	2002.1.17
부 의 장	송 용 규	화 천 기 공	"
부 의 장	최 정 열	대우일렉트로닉스	"
부 의 장	김 동 인	부 국 산 업	"
사무국장	김 수 복	서 암 기 계	2003.1.20
회계감사	최 기 철	한국신광전자	"
회계감사	김 형 곤	한 국 차 량	"
"	기 원 서	세 방 전 지/광주	"

⑤ 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D.S.R.제강노동조합	850617	서 임 석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291
대유에이텍노동조합	001214	나 경 문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822
로케트전기노동조합	760213	남 규 현	광주시 북구 일곡동 758
부국산업노동조합	881101	김 동 인	전남 광양시 금호동 644
서암기계노동조합	990708	김 수 복	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738-5
아름기공노동조합	870811	정 홍 원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81 - 1
여수항운노동조합	000420	김 종 훈	광양시 금호동 793 관리부두 해운센터 B-1
캠스노동조합	020406	노 승 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35-5
포철기연노동조합		정 정 섭	전남 광양시 폐인동 1656-4
하남전자노동조합	850317	박 기 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5 - 1
한국신광전자노동조합	891127	최 기 철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35
한국알프스노동조합	890516	오 명 식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0 - 1
한국차량노동조합	671013	전 춘 식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273-8
화천기공노동조합	770327	송 용 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6 - 1

15) 전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6. 4. 10.
 ②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북동 3601-3
 ③ 전화 번호 : (063) 465-4875 FAX : (063) 465-4876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길 주	기아특수강	2002.01.10.
부 의 장	양 남 용	동 양 기 업	“
부 의 장	이 중 찬	파 츠 닉	“
회계감사	유 창 석	누 보 텍	“
회계감사	이 용 칠	FAG한화베어링	“
사무국장	정 한 수	회 성 전 선	“
조직국장	이 종 대	한국열교환기	“
교육국장	문 금 록	두레에어메탈	“
기획국장	김 영 석	남 성 기 업	“
복지국장	박 기 열	계 립 공 업	“

⑤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KHE노동조합	880831	이 종 대	전북 정읍시 하북동 2공단 3블럭 825번지
기아특수강노동조합	660506	하 원 준	전북 군산시 소룡동 1 - 6
남성기업노동조합	011202	김 영 석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45-1번지
누보텍노동조합	890306	유 창 석	전북 익산시 팔봉동 839-1
동양기업노동조합	880428	양 남 용	전북 군산시 경암동 486 - 7
파츠닉노동조합	750516	이 중 찬	전북 정읍시 망제동 19번지

16) 강원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2003. 2. 20
 ②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11-6 공업단지 한일전기 내
 ③ 전화 번호 : (033) 744-6658 FAX : (033) 744-6658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지 도 위 원	신 종 찬	속 초 지 역	2003,2,20
의 장	윤 용 민	한 일 전 기	"
사 무 국 장	김 홍 배	쌍용동해산기	"

⑤ 강원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델파이성우노동조합	920315	김 종 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30
속초지역노동조합	700126	신 종 찬	속초시 금호동 482-5 근로복지회관
신일정밀노동조합	001213	성 화 만	강릉시 입암동 21-40 신일정밀3공장
쌍용동해산기노동조합	980702	김 홍 배	동해시 삼화동 200
이수세라믹노동조합	930714	손 호 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2
한일전기노동조합	751021	윤 용 민	원주시 우산동 411 - 6 공업단지 10브릭

2.지부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LG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	920124	이 화 철	경북 구미시 진평동 642
LG전자노동조합 김해지부	791009	한 상 대	경남 김해시 안동 259 - 1
LG전자노동조합 오산지부	710514	김 만 경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79
LG전자노동조합 창원1지부	630505	박 준 수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 - 2
LG전자노동조합 창원2지부	880122	김 태 현	경남 창원시 성산동 76
LG전자노동조합 청주지부	630530	배 상 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0
LG전자노동조합 평택지부	630530	김 길 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 - 1
LG전자노동조합구미2지부	830705	정 종 용	구미시 공단동 299
LG전자노동조합서울지부	980123	강 성 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9
LG전자노동조합청주2지부	980701	이 창 훈	충북 청주시 향정동 73
OTIS-LG엘리베이터노동조합서울	870727	오 용 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0-2 동우빌딩 10층
OTIS-LG엘리베이터노동조합창원	870727	김 재 수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지부	830402	최 정 열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1 - 1
대우일렉트로닉스 구미지부	830328	장 해 도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지부	830328	김 만 용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04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안지부	830328	김 정 근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41 - 5
대한전선노동조합 안산지부	870808	정 교 태	안산시 성곡동 603번지 20B
대한전선노동조합 안양지부	760615	조 병 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785
대한전선노동조합시흥지부		김 영 배	서울 금천구 시흥1동 996번지
LG전선노동조합 구미지부	670512	이 수 문	구미시 공단동 190
LG전선노동조합 군포지부	870924	강 진 원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00

LG전선노동조합 안양지부	670512 함 재 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
서진산업노동조합 광주지부	990626 유 장 수	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735-1
서진산업노동조합 화성지부	910710 안 광 호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8
서진산업노동조합울산지부	김 진 동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5-2번지
한국번디노동조합 광주지부	960322 김 원 영	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738 - 3
현대에너지노동조합경주지부	남 현 진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075-1
회성전선노동조합 전주지부	890124 오 재 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 가 408
대림통상노동조합 김포지부	860901 최 재 원	인천시 서구 금곡동 158 - 6
대한제당노동조합 울산지부	900213 권 한 혁	울산시 남구 용잠동 480
동국제강노동조합 포항지부	901017 김 정 영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67
한영알미늄노동조합 안산지부	761024 이 은 호	안산시 원시동 833 - 2
대경화성노동조합제2공장지부	930331 윤 여 경	안산시 성곡동 638
두레에어메탈전주지부	991101 김 학 송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6
서구산업노동조합 대구지부	870824 이 인 철	대구시 서구 이현동 45 - 55
동부제강노동조합 인천지부	660429 백 승 탁	인천시 서구 가좌동 590 - 1
동부제강노동조합 포항지부	880720 한 규 호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 792 - 1
동양철관노동조합 충주지부	910125 이 대 형	충북 충주시 용탄동 168
진로산업노동조합목천지부	910701 도 성 록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소사리 242-2
LG산전노동조합 천안지부	870727 이 신 선	충남 천안시 목천면 삼성리 181
삼화전기노동조합 충주지부	950823 박 철	충북 충주시 목행동 240-4
하이닉스반도체노조 구미지부	900209 박 광 호	구미시 임수동 171
한국주철관노동조합 포항지부	890117 김 수 용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 - 138
FAG베어링코리아노동조합전주지	890320 이 용 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2
세방전지노동조합 광주지부	891216 기 원 서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0 - 4
한일제관노동조합 수원지부	870817 김 진 국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와우리 12
LG-Nikko동제련노동조합장항지부	551015 김 기 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5
다스노동조합아산지부	010410 배 진 환	충남 아산시 읍동면 삼거리 90번지
대일공업노동조합 상북지부	850605 김 이 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216
명화공업노동조합 안산지부	970228 김 세 윤	안산시 원시동 720-2 1-56B
지코노동조합 평택지부	870921 정 기 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울포리 28 - 5
풍산노동조합 동래지부	881205 박 동 원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1 동 52
풍산노동조합 부평지부	870816 고 상 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24-6
풍산노동조합 안강지부	870725 박 종 흙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3리 2222-2
풍산노동조합 온산지부	870725 이 상 협	울산시 울산군 온산읍 대정리 611
화신노동조합봉동지부	880504 김 해 용	경북 영천시 봉동 646
LG.Philips Displays노조창원	010907 김 종 철	경남 창원시 성산동 76-1
LG이노텍노동조합광주지부	870817 이 기 동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8 - 1
두산전자사업부노조 증평지부	881015 윤 영 훈	충북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산 661
삼정피앤에이노조 광양지부	890805 박 용 을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5 - 1
포스텍정비부문노조광양지부	880723 황 부 성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2

3. 신규조직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설립일자	소 재 지	주 생산품
에스제이텍	노형선	03,04,10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반도체
KDS	박상훈	03,04,18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43-16	LCD모니터
대풍공업	이교원	80.9.30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9-3	자동차부품
진화	채종윤	03,04,25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9-4	자동차부품
에프와이디	이영수	03,04,14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0-8	카애플
국일인토트	이동철	03,05,15	울산시 울주군 용촌면 감단리 437	가스켓
세양테크	장병철	02,08,26	경북 진량읍 신상리 1208-6	자동차부품
진성산기	류인선	02,12,14	포항시 남구 대도동 170-2	정비
대기포레시아	김현식	03,06,19	시흥시 정왕동 1264	자동차부품
대동하이텍스	류성용	03,08,06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22-5	자동차부품
한국미쓰비씨엘리베이	김우광	03,08,26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보수
영풍석포제련소	임병기	광산에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55	아연
한국시그넥스	이운순	민주금속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9-5	반도체
한국강구	박태인	03,10,13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산136-1	베어링
주)삼동	홍승욱	03,12,12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산39	변압기전선
풍산기계	임윤식	03,11,16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52	방산
한국우주항공	천영호	03,09,21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02	항공기제작
경원철강	장석락	03,11,16	포항시 남구 괴동 710-1	케이스
주)서진캠	이의형	03,07,05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884	자동차부품
한국하니웰	김상규	04,01,07	충남 천안시 차암동 56	자동제어공학
유니온코팅	김철희	04,01,09	화성시 동탄면 중리 883-7	케이스
주)세양엔지니어링	김윤철	04,02,27	대구시 서구 이현동 45-55	산업용로봇
파이런텍	전오상	04,02,23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공조부문수리
주)GBS	서정우	04,01,23	포항시 남구 호동 605	서비스
대원특수전선	최창남	03,07,05	평택시 모곡동 433-10	일반전선

4.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대표자)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서울지역				
한국음향	노 윤 철	김 중 화		정기총회
삼흥사	박 태 형	김 성 춘		"
경기지역				
삼아알미늄	김 종 덕	정 재 민	2004. 1.16	정기총회
서진산업	최 현 호	문 성 동	2003.12.23	"
LG전선	유 은 식	도 정 복	2003.12. 5	정기대회
신한일전기	정 한 수	유 병 유	2004. 2.13	"
큐엔텍코리아	원 철 식	문 주 기	2003. 9. 5	"
한국키스톤 밸브	박 명 규	서 지 원	2003. 7. 1	"
LG전선(안양)	함 재 현	송 석 훈	2003.12. 5	정기대회
LG전선(군포)	강 진 원	김 기 춘	2003.12. 5	정기대회
동일제강	이 종 근	김 원 환	2003. 6.13	정기총회
신라엔지니어링	김 정 수	김 영 수	2003. 8. 1	"
안산.시흥지역				
코리아철	김 진 국	이 쌍 봉		정기총회
한 샘	탁 재 송	원 선 회		"
인천지역				
충남지역				
한국하니웰	김 상 규	강 성 만	2003.11.14	정기총회
존슨컨트롤즈	이 창 수	홍 광 기	2003.12.27	임시총회
충북지역				
LG산전	김 세 하	윤 종 남	2002.12.13	임시총회
에 넥 스	이 상 재	정 운 석	2002. 8.11	정기총회
부산지역				
대한제강	윤 각 열	서 상 웅	2003. 3.24	정기총회
동국제강지부	윤 성 원	양 승 용	2003.12. 8	"
부산선박목의장	이 종 용	박 순 철	2003. 7.11	"
부산주공	안 병 철	홍 종 정	2003.11. 1	"
삼천리 열처리	전 상 남	서 종 룰	2003.10.29	"
태원S&G	정 용 환	정 운 국	2003.12.23	"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울 산			2004. 2.20	임시총회 “
경 남				
대구.경북				
대리정밀	김 길 한	임 종 춘		
대성정기	김 재 철	이 규 열		정기총회 “ “ “
포 향				
조선선재	김 이 두	이 창 호		
한국주철관	김 말 텍	김 수 용		
광주.전남				
서진산업	유 장 수	장 포 문		임시총회
대유에이텍	나 경 문	윤 재 곤		
캡스	김 홍 관	노 승 기		
삼정P&A	박 용 을	마 홍 철		
전 북				정기총회
기아특수강	김 길 주	하 현 준		
강 원				
신일정밀	성 화 만	이 기 연		

5. 해산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해산일자	조합원수	해산사유
경기지역				
동신평강	김상옥	03.10.1	153	매각
써미텍	김대훈	04.2.29	50	폐업
대전지역				
동양멀티	이종일	03.12	40	기능마비
충북지역				
한국가로수보호	김은식	03.10	18	조합해산
SRC	강병철	2003	4	제명
경남본부				
두산메카텍	류문수	03.11.24		탈퇴
한국철강(마산)				폐업
한국시티즌				폐업

5-1. 이탈조직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탈퇴일자	이 탈 사 유	조합원수
포항세기	권기찬	2003.5	규약변경(금속산업)	6

5-2. 조직변경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소 재 지	조합원수	비고

6. 년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2003. 12월말 현재)

년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조직체수		605	541	524	509	512	499	497	498	502
조 합 원 수	남	143,488	123,628	101,181	93,161	88,638	77,160	77,208	77,116	77,195
	여	52,124	45,875	37,677	31,391	28,555	28,859	26,392	26,377	23,655
	계	195,612	169,628	138,858	124,552	117,193	106,019	103,600	103,493	100,850
조합원증감		-77,659	-25,984	-30,770	-14,306	-7,359	-11,174	-499,3	-107	-2643
조직체증감		-38	-62	-17	-15	4	-13	-2	1	4

7. 기타활동

1) 이라크 전쟁중단 국회파병안 통과저지 철야농성

- 일 시 : 2003년 4월 1일 (화) 오후7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앞
- 철야농성 프로그램 : 4월1일 19:00 파병저지 범국민 대회 23:00 반전 평화문화제
4월 2일 09:00 파병저지 결의대회

2) 산별 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3년 4월 7일(월) 15: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3.30 전국노동자 대회평가
- 2003 상반기 총력투쟁 방안검토
- 2003 노동절행사 계획검토
- 기타 토의사항

3) 산별 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3년 4월 15일(화) 10:3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113주년 노동절 행사 계획논의
- 기타논의

4) 고양시 덕양갑 합동연설회 (국회의원)

- 일 시 : 2003년 4월 20일(일) 15:00
- 장 소 : 화수중학교

5) 경인지역 조합원 등반대회

- 일 시 : 2003년 4월 20일 (일) 10:30-14:00
- 장 소 : 성리산 국사봉
- 참가대상 : - 한국노총 임직원 및 회원조합 대표자
-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임직원
-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조합원

6) 11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 일 시 : 2003년 5월 1일(목) 09:00
- 장 소 : 여의도 문화마당
- 행사내역 : - 1부 노동절 기념행사
 - 2부 거북이 마라톤 행사

7) 노동조건없는 주5일제쟁취 및 비정규직노동차별 철폐5.1km마라톤대회

- 일 시 : 2003년 5월 1일(목) 09:00
- 장 소 : 여의도 문화마당
- 참가대상 : - 각 회원조합 조합원가족
 - 사회민주당 당원 및 일반시민
 - 이주노동자

8) 제조공무원 전국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 시 : 2003년 6월 4일(수) 13:30
-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국민은행)
- 참가대상 : 각 단위노조 및 지부대표자상근간부 전원

9) 산별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3년 6월 5일(목) 14: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상반기 총력투쟁 계획검토
 - 투쟁현안 점검
 - 기타토의사항

10) 한국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 일 시 : 2003년 6월 30일(월) 14:00
- 장 소 : 종묘공원
- 참석대상 : 수도권 전조합원

11) 주5일제 재논의에 따른 재계의 성실교섭촉구 결의대회

- 일 시 : 2003년 7월 25일(금) 14:00
- 장 소 :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앞
- 참석대상 : 수도권 회원조합, 지역본부상근 임직원
 1부행사 : 주5일제 재논의에 따른 성실교섭 촉구대회

2부행사 : 전경련 항의방문

12) 주5일제 법안 국회통과저지를 위한 투쟁

- 노숙투쟁
 - 일 시 : 2003년 8월 18일(월) 18:00
 - 장 소 : 국회(국민은행)앞
 - 참가대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상근간부
- 규탄집회 투쟁
 - 일 시 : 2003년 8월 19일(화) 15:00
 - 장 소 : 국회(국민은행)앞
 - 참가대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상근간부

13) 산별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3년 8월 26일(화) 15: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규탄대회

14) 근기법 개악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규탄대회

- 일 시 : 2003년 8월 28일(목) 14:00
- 장 소 : 국회앞(국민은행)
- 참가대상 :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및 간부,조합원

15) 노동부 규탄대회

- 일 시 : 2003년 10월 9/10일(목,금) 14:00
- 장 소 : 국회앞(국민은행)
- 참가대상 : 회원조합 임,직원

16) 태풍매미 수해복구지원

- 일 시 : 2003년 9월 18/19일(목,금)
- 장 소 : 부산지역
- 참가대상 : 회원조합 임,직원

17)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집회

- 일 시 : 2003년 10월 25일(토) 15:00
- 장 소 : 서울 대학로

- 참가대상 : 간부 및 산하조직조합원

18) 비정규확산저지, 권리보장쟁취 및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

- 일 시 : 2003년 10월 26일(일) 14:00
- 장 소 : 종묘공원
- 주 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 시 : 2003년 11월 23일(일) 13:00
- 장 소 : 대학로
- 목 적 : - 2003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반노동법저지, 각종 제도개선 과제 관철
- 전조직의 총력집결투쟁으로 노동운동 탄압분쇄 및 한국노총의 요구사항 관철
- 대회규모 : 10만
- 대회식순 : - 1부 노동문화제
- 2부 전국노동자대회
- 가두행진 및 규탄대회

20) 산별 조직담당자 워크샵

- 일 시 : 2003년 12월 4/5일(목, 금)
- 장 소 : 속초 한전연수원
- 목 적 : 2003년 조직사업평가회 및 2004년 조직사업 방향논의

21) 산별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4년 1월 13일(화) 11: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2004년 임시대의원대회 준비에관한건

22) 2004년도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일 시 : 2004년 1월 15일(목) 14:00
- 장 소 : 용산구민회관
- 안 건 : - 한국노총 17대 총선방침
- 기타토의사항

23) 산별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4년 2월 16일(월) 14: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2.22 사민당 총선승리 결의대회에 관한건
- 2004년 전국대의원대회에 관한건
- 2004년 조직본부사업에 관한건
- 기타 토의사항

24) 2004년 전국대의원대회 본과 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4년 2월 25일(수) 14:00
- 장 소 : 노총3층 회의실
- 내 용 : - 2003년도 전국대의원대회 관한 건
- 기타 토의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전 화 번 호	비 고
본 노 련	사무처장	김 만 재	02)864 - 2901	
본 노 련	부위원장	문 광 주	02)864 - 2901	
L G 전 자	위 원 장	장 석 춘	02)2630 - 3295	
현 대 전 자	위 원 장	정 상 영	031)630 - 4050	
동 부 제 강	위 원 장	강 창 영	041)351 - 8260	
LG-Nikko동제련	위 원 장	신 택 기	052)276 - 5880	
금속경기도본부	의 장	허 원	031)442 - 3666	
금속부산본부	의 장	강 진 호	051)635 - 5405	
금속대,경본부	의 장	김 무 호	053)564 - 0128	
금속서울본부	의 장	서 갑 순	02) 676 - 4823	
금속충남본부	의 장	강 한 우	041)541 - 6970	
금속인천본부	의 장	손 종 홍	032)437 - 8505	
LG필립스LCD	위 원 장	변 재 환	054)478 - 4900	

25) 한국노총 2003년 정기 전국대의원 대회

- 일 시: 2004년 2월 26일(수) 10:00
- 장 소 : 용산구민회관
- 안 건 : - 2003년도 사업 보고
 - 2003년도 결산보고
 - 200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 회원조합 제출의안 심의
 - 규약개정(안) 심의
 - 임원보선 및 중앙위원 선출
 - 제17대 총선방침에 관한건
 - 기타토의 사항
 - 결의문 선택
- 노총위원장 표창 : 평화정공(주)노동조합 위원장 김순창
- 2004년도 노총 중앙위원 선출
 - 당연직 : 3명 (연맹위원장, 노총 시도본부 의장)
 - 선출직 : 13명

26) 산별 조직담당자회의

- 일 시 : 2004년 3월 16일(화) 10: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회원조합 대표자 전국순회에 관한건
 - 기타토의 사항

국제연대활동

◦평가와 개선방향

1. 국제회의의 파견
2. 해외노조 간부 초청·방문 및 기타인사 방문
3. 국제교류활동
4. 외국인투자사업장 대책활동
5. 기타 국제활동

일본기간노련 통합사례연구

국제연대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홈페이지(www.metall.or.kr)내의 자료실 “문서자료실”란에 있습니다.

평가 및 개선방향

올 해는 9. 11 테러와 전세계적 SAS공포로 전세계 노동단체들의 국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실제로 국제자유노련을 비롯하여 금속노련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단체인 국제금속노련 등 많은 국제회의와 교류 및 방문이 취소된 한 해였다.

올 해의 국제연대사업은 기간 활동의 반복·연장선에 서 있다. 다만 새롭게 추진된 것은 최근들어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NGO)들의 대안포럼인 세계사회포럼에 한국노총 참가단의 일원으로 금속노련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올 1월 초에 인도의 뭄바이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에서 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약 8만명이 모여서 자본의 세계화,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평화, 종교적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카스트와 인종차별주의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 중에서도 단연코 세계화(Globalization)와 제국주의(Imperialism)가 참석자들의 성토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회의 중후반기에서부터 브라질 포토알레그래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회의때까지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공유가 참석자들간에 있었다. 이렇듯 제3세계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과 같이 토론하고 호흡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행동까지도 내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사회포럼에의 참가는 아직은 시작이지만 금속노련 국제연대활동의 소중한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하나 올 사업 중 새로운 부분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금속산업부문 노동조합과의 교류 및 연대의 물꼬를 텃다는 점이다. 금속노련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 동안 국제금속노련(IMF)을 비롯한 선진 금속노동조합의 지원을 많이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 국가로서 그 역할을 해야할 때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특히 아시아진영에서라도 노동자간의 국제연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노총과 야금노조 그리고 베트남 노총과 기계공업노조 그리고 인도네시아 금속노조의 사무실 방문 및 지도부 면담은 추후 연맹 국제활동의 폭과 질을 한단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아쉬운 점은 여전히 인력과 재정의 부분이다. 이제는 누구도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 갔으며 연맹내에도 약 80개의 외국인투자사업장이 있음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연대활동의 전략과 계획에 인력과 재정을 배치하는 '목적의식'의 결여와 이에 기반한 활동을 할 수 없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바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국제교류와 회의 몇 번하다보면 1년이 금세 지나가는 구조이다.

1. 국제회의의 파견

1. 일본금속노협(IMF-JC) 국제노동세미나

- (1) 일시 : 2003. 7. 17 - 19
- (2) 장소 : 일본 후쿠오카
- (3) 참석자 : 본노련 사무처장 김만재, 본노련 국제부장 한동균
- (4) 활동사항 : 세미나 주제강연 및 토론 참석

2. 대만금속노협(IMF-ROCC) 대회

- (1) 일시 : 2003. 11. 19
- (2) 장소 : 대만 카오슝
- (3) 참석자 : 본노련 수석부위원장 정창영,
 본노련 대구경북본부의장 김무호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3. 일본금속노협(IMF-JC) 연수

- (1) 일시 : 2003. 11. 17-22
- (2) 장소 : 일본 동경
- (3) 참석자 : 본노련 상임부위원장 정일진,
 본노련 복지국장 정용영,
 본노련 인천본부의장 손종홍,
 그린산업노조 위원장 안진수,
 성신노조 위원장 유진화,
 엔젤악기노조 위원장 홍재자
- (4) 활동사항 : 일본노총 및 단위산별 방문
 일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토론
 사업장 방문

4. 국제금속노련(IMF) 중앙위원회

- (1) 일시 : 2003. 12. 3- 4
- (2) 장소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이병균
 본노련 국제부장 한동균
- (4) 활동사항 :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회의참석

5. 제4회 세계사회포럼 참석

- (1) 일시 : 2004. 1. 12-22
- (2) 장소 : 인도 뭄바이
- (3) 참석자 : 본노련 국제부장 한동균
- (4) 활동사항 : 전세계 노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 민중들이 모여서 세계화의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행동을 계획하는 세계사회포럼에 한국노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 노동관련 각종 세미나에 참석.

2. 해외 노조간부 초청 및 방문

1.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외빈초청

- (1) 일시 : 2003. 5. 20-24
- (2) 방문자 :
 히사시게 단노(Hishaige Danno) 일본금속노협 사무국장
 허창휘(Hsu, Chang-Huei)
 대만금속노협 상임국장 겸 항공우주산업분과 의장
 신야 이와이(Shinya Iwai) 일본금속노협 국제담당자.
- (3) 활동 :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축하

3. 국제교류 활동

1.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 아시아 집행그룹회의

(1) 일시 : 2003. 5. 6

(2) 장소 : 서라벌호텔

(3) 참석자 :

한국 : 금속노련 - 문창수 조선분과 의장,
권동재 오리엔탈정공노조 위원장
황대선 대선조선노조 위원장
윤정원 강남노조 위원장
한동균 정책 및 국제부장.

금속산업연맹 - 김국래 조선분과 의장
노재열 정책실장의 11명

일본 : 일본조선중기노련 - 타나카 위원장 외 6명
신야 이와이 일본금속노협 국제담당자

(4) 프로그램 :

5월 7일 수요일

09:30 등록

10:00 의제1 : 개회식 및 환영식

- 토시오 타나카 일본조선중기노련 위원장
- 데이빗 세릭슨 국제금속노련 국장

10:40 참석자들 각자 소개

10:50 휴식

11:00 의제2 : 세계 조선산업의 현황과 수요추세

- 일본조선중기노련 사무국장 준로 나이트 발표
- 질의 응답 및 토론

11:40 점심

13:10 의제3 : 국제금속노련의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 데이빗 세릭슨 국제금속노련 국장

13:50 - 질의 응답 및 토론

14:50 휴식

15:00 의제4 : 산업재해와 질병의 발생현황과 노조의 대응에 대한 각국 보고

- 한국
- 일본
- 대만
- 싱가포르

17:00 휴식

18:00 환영만찬

5월 8일 목요일

10:00 의제4 : - 질의 응답 및 토론

10:50 휴식

11:00 의제5 : 고용, 노동시간, 임금 및 부가급여에 관한 각국 보고

- 한국

- 일본

12:00 점심

13:30 의제5 속개

- 대만

- 싱가포르

14:30 휴식

14:40 의제5 : - 질의 응답 및 토론

15:20 의제6 : 선박 칠벗기(Ship Scrapping)는 과정에서의 상황과 대처

- 미키오 수zuki 일본조선중기노련 사무차장

15:50 - 질의 응답 및 토론

16:10 의제7 : 회의 결론의 채택

- 미키오 수zuki 일본조선중기노련 사무차장

16:30 결론 채택에 따른 토론

16:40 의제8 : 폐회식

- 토시오 타나카 일본조선중기노련 위원장

- 데이빗 세릭슨 국제금속노련 국장

18:00 환송만찬

2. 제12회 한일금속노동자회의

(1) 일시 : 2003년 6월 23일(월요일)

(2)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 참석자 :

한국 : 금속노련 - 이병균 위원장,
문광주 상근부위원장,
김만재 사무처장,
강진호 철강분과 의장,
배승천 전선분과 의장,
문창수 조선분과 의장,
한동균 정책 및 국제부장.

금속산업연맹 - 백순환 위원장,
정식화 부위원장,

김국래 조선분과 의장
노재열 정책실장
김주희 국제국장

일본 : 일본금속노협 - 수즈키 위원장,
노보아끼 부위원장,
카토 부위원장,
꼬이데 부위원장,
미야조노 부위원장,
와타나베 부위원장,
푸쿠다 부위원장,
와타베 부위원장,
단노 사무처장,
오야나기 국제실장,
이와이 국제담당자,
하주미 일본자동차연맹 국제담당,
이쉬주카 일본철강노련 사무차장
시라키 일본철강노련 중앙집행위원,
이데 일본철강노련 국제담당,
니시노 일본원자재 및 에너지노조 교육선전담당.

(4) 프로그램 :

09:30 환영사
이병균 금속노련 위원장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스즈끼 일본금속노협(IMF-JC) 위원장
참가자 소개

안전1. 정치 경제 노동 상황
(금속산업의 노동시장, 고용, 비정규직관련 내용 포함)

10:00 일본금속노협(IMF-JC)

10:30 금속산업연맹

11:00 질의응답 및 토론

11:30 휴식

11:30 점심식사

안전 2: 산업관계 (노사, 노정, 노사정관계)와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

(노동정책, 노사정위원회 상황과 주요 논의, 노동법 변화의 내용을 포함함)

13:00 금속노련
13:20 일본금속노협(IMF-JC)
13:40 질의응답 및 토론
14:10 휴식
안전 3: 작년 임단투 투쟁과 결과 및 올해 임단투 주요 요구
14:30 일본금속노협(IMF-JC)
14:50 금속노련
15:00 금속산업연맹
15:10 질의응답 및 토론
15:40 휴식
안전 4: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과 중국문제(다국적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함)
16:10 금속노련
16:30 일본금속노협(IMF-JC)
16:50 질의응답 및 토론
17:20 휴식

안전 5: 기타 안전

17:40 종합토론 (기타 추가 질문과 논의사항)
18:00 회의 종료 및 종료 발언

3. 제5회 한일철강노동자회의

- (1) 일시 : 2003년 6월 24일.
- (2)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3) 참석자

한국 : 금속노련 - 강진호 철강분과 의장,
강창영 동부제강노조 위원장,
김재업 동국제강노조 위원장,
류해출 YK스틸노조 위원장,
주해식 유니온TM틸노조 위원장,
한동균 정책 및 국제부장
금속산업연맹 - 조명래 조직국장,
김주희 국제국장 외 수인.

일본 : 일본철강노련 - 미야조노 위원장,
고지마 국제고문,
코다마 사무국장,
이시주카 사무차장,
타다 사무차장,
시라키 중앙위원,
이데 국제국원

(4) 프로그램 :

오전사회: 한국 측

09:00 개회사
 금속노련 철강분과 의장
 금속산업연맹
 일본철강노련(JSW) 위원장
 참가자 소개

안전 1. 각국 노조 소개

09:30 각국 노조 소개(노조현황, 조합운동, 교섭과 투쟁, 산업안전)

안전 2. 양국 철강산업의 현황과 전망

10:00 한국의 철강산업 현황과 전망
10:20 일본의 철강산업 현황과 전망
10:40 질의 및 응답
11:00 휴식

안전 3. 양국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재편(고용문제) 그리고 노조대응

11:20 일본철강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재편(고용문제) 그리고 노조대응
11:40 한국철강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재편(고용문제) 그리고 노조대응
12:10 질의 및 응답
12:30 점심식사

오후 회의 시작: 사회 일본측

안전 4. 아시아 지역내 철강산업 정책에 대한 노조의 입장

14:00 일본측 발표(JSW)

14:20 한국측 발표

14: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5:40 휴식

안전 5. 한일철강회의, 한일조선회의 통합(배경제안)

16:00 일본측 제안

안전 6. 기타 안전 및 폐회

16:20 기타 안전 및 폐회

폐회사: 금속산업연맹 철강분과 의장

금속노련 철강분과 의장

일본철강노련 (JSW) 위원장

19:00 환송만찬

4. 외국인투자사업장 대책활동

1. 제조연대 소속 외국인투자사업장 노동조합 워크숍

(1) 일시 : 2003년 11월 5-7일.

(2)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11월 5일(수)

12:00-13:00 등록 및 중식

13:00-13:30 안내 및 개강식

13:30-15:00 [강의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문제와 대응

이종희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본부 집행위원

15:00 - 15:20 [강의 1]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5:20-15:30 휴식

15:30-17:00 [강의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과 정부정책(제조업을 중심으로)

윤상직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과장

17:00 -17:20 [강의 2]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7:20-17:30 휴식

17:30-19: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 사업장 개요 및 노사관계 소개

19:00-20:00 석식

20:00-21:30 [강의 3] 외국자본이 제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노조의 대응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실장

21:30 - 21:50 [강의 3]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1월 6일(목)

09:00-12:00 [사례발표] 유형별 외투사업장 노사관계 사례발표 및 진단

12:00-13:00 중식

13:00-14:00 [사례발표] 계속

14:00-16:30 분반토론

16:30-18:00 분반토론 결과발표

18:00-19:00 석식

19:00-20:30 [강의 4] 노동문화 - 노동가요·율동 배우기
섬유노련 남남노동조합 이윤재 사무국장

20:30-22:00 대동놀이 / 단결의 밤

11월 7일(금)

09:00-12:00 [전체토론] 제조연대 외투사업장 노조간 연대와 협력방안

12:00 중식 후 해산

5. 기타 국제연대활동

1. 일본노동조합 통합사례연구

(1) 일시 : 2003. 7. 20-21

(2) 장소 : 일본 동경

(3) 참석자 : 본노련 통합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김만재, 실무위원 정문주,
국제부장 한동균

(4) 활동사항 : 일본기간노련(JBU) 통합추진위원회 방문
일본철강노련(JSW)과 일본조선노련(JSEU)의 기간노련으로의
통합에 관한 추진과정과 내용연구

<자료 1>

제 12회 한일금속노동자회의
일시 : 2003년 6월 23일(월요일)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의제 1

한국의 노사·노동관계와 주요 쟁점

1.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노동정책

노무현 정부는 자칭 '참여정부'라 칭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국정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 정책방향을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설정하여 ▲노사관계 제도의 선진화, ▲자발적·창의적인 노사파트너십사업 지원,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 자치주의 정착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노동탄압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밝힌 것은 전향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제적 노동기준에 여전히 미달되고,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21C노사행동규범 권고¹⁾안 마련 등을 통해 노사협조주의를 강요하고, 김대중 정권의 신노사문화 정책²⁾을 답습하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면서 파업권까지 부정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 노동부는 3월19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21C노사행동규범을 마련하겠다고 한뒤 3월 28일 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조찬모임을 갖고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사용자에게 △투명경영과 노동권 존중 △성실교섭 및 합의사항 충실 이행 △산업재해 예방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노동자에게 △경영권 존중 △합리적인 요구와 성실교섭 △경영합리와 함께 모색 △위압적 복장이나 불법행동 근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제1과제에서 노동3권의 일부분의 개선을 말하면서 제3과제에서 '노동자의 행동규범'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존중과 국가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합리적 요구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성실 교섭,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 모색, 위압적 복장이나 비신사적 언행·폭력·파괴 등 불법행동 근절 등을 강요하는 것이다.

2) 노사협력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헌법과 노동법에 의한 노동3권을 사적 조정제도 활성화로 '민영화'하려는 정책 등

1) 노무현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주요 내용

①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가. 복수노조 등 대응방안 마련

- 교섭창구 단일화, 유니온숍,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조합원 이종가입 문제 등
- 제3자 지원 신고제도,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문제 등의 개선 검토

나. 단체행동권 제한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교섭범위, 쟁의행위 절차규정 등 검토
- 자율 해결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를 고려, 공익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 지양
- 직권중재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국제기준과 현실 등을 감안하여 조정

다. 노동위원회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위증 예방을 위한 허위증언 처벌규정 신설 등
- 공익위원의 중립성유지방안 강구, 위원 증원 및 책임성 강화 추진

라.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 예산편성지침·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주요 사안은 부처간 사전 협의 등을 거쳐 확정
- 공공부문 노동쟁의 조정을 전담할 (가칭)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에 설치

마.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 조합비·임금 가압류의 범위 조정, 신원보증인의 책임문제, 가압류시 노조의 소명기회 부여
- ※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 입법 추진

② 자발적·창의적인 노사파트너쉽사업 지원

가. 노사관계 의식·관행 개선 지원 :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 노사파트너쉽 교육 등

나. 자발적인 신노사문화 지원 인프라 구축

- 노사협력사업 재정지원(2003년 20억원)
- 노사갈등 사업장에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제공하여 노사갈등 사전 예방
- 노사협력 우수사업장을 고성파사업장화하여 지원

다.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 노사협의회 중점지도사업장 선정·지도(3천개소)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강화
- 신노사문화 6대 과제별(열린경영 확대, 성과배분 확대, 지식근로자 육성, 작업장 혁신,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 추가 개발

③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 자치주의 정착

가.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 예외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자율적 해결이 어려워 장기화되는 경우 정부 개입
-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보호하되 부당노동행위 등 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조치

나. 노사분규 사전예방 지도 강화

- 주요 사업장 집중지도
- 노사단체와의 정례간담회 개최를 통한 상시적 갈등 해결 시스템 구축
- 사적 조정제도의 활성화로 노사 자율해결 기회 확대

다. 불법행위 엄정 대처

-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관행을 확립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강력대응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견지

2) 신정부 출범 100일간 주요 노동문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후 지난 100일간에 걸쳐 발생한 주요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권과 비교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정권은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노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로 미루는 방식으로 노동기본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다.

노무현정권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자율적 해결이 어려워 장기화될 때 정부가 대화주선 등 적극 개입하여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단발적으로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노동부는 물론이고 노동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부처와 노동조합 간의 일상적이며 실질적인 협의의 틀이 마련되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① 두산중공업 사태

손배·가압류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촉발되어 배달호 동지의 분신사망을 계기로 전체 노동계 문제로 부각되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3월 12일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개인 손배·가압류 소급 취하 △조합비 가압류 40%만 적용(60%해제) △해고자 5명(HDS엔진 2명 포함) 복직 △지난해 47일간 파업 무단결근 처리 50%보존 등 쟁점사항에 합의하면서 사건 발생 63일만 타결되었다.

② 화물연대 파업

한달 수입 70만원도 안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는 파업 14일만에 마무리 되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화물운송비 인상, 경유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다단계 알선 근절 등은 운송하역노조와 건교부, 노동부, 재경부가 협상을 하여 5월 15일 경유 교통세 인상분 전액 정부 지원 등 11개항의 화물운송 제도개선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했다.

③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란? 학교·교육청·교육부 등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인사, 예산, 시설, 교무학사, 보건 등 27개 영역으로 나눠 인터넷으로 연결한 시스템을 말한다.

교사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시도교육청에 구축된 서버로 직접되고 이 정보를 교사나 교육공무원이 공유하는데 교육목적으로 수집한 학생·학부모 정보가 왜 학교 담장을 넘느냐가 논쟁의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보건·진학·입학 등 학생·학부모 신상과 관련된 세 영역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3개 영역 한시적 중단 뒤 재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교총과 교유감 등의 반발로 교육부총리는 또다시 이를 반복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전교조와의 약속은 위반되고 말았다. 이에 교육부와 전교조는 NEIS를 놓고 또다시 마찰할 피할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노정리에 주요쟁점 현안들

① 노동시간단축

노무현 정부는 주40시간제에 대해 김대중 정권에서 국회 제출한 입법안을 전시행 후보완하고 공휴일 합리적 조정, 휴가사용률 제고, 단협과 취업규칙의 정비 등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임금삭감·노동조건 후퇴, 2010년까지 단계적 시행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의미 상실 등으로 노동시간단축의 근본취지인 노동자서민 삶의 질 개선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양대노총 제조부문 연맹들은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지난 2002년 9월 김대중 정권이 마련한 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시켜내고, 정부입법안 폐기를 전제로 한 재협상을 요구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말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재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협상결렬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서 6월 임시국회에서 주40시간제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②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산업연수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허가제는 용인할만하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6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월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명을 출국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③ 공무원 노조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노동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20일 노조명칭 허용, 노동2권 보장, 특별법 형태, 내년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조합법 재입법안을 발표하여 기존 조합법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러나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한 노동3권보장, 일반법 형태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노정간 마찰의 불씨가 남은 상태에서 정부는 오는 7월말 국회에 재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④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

3월 19일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비정규보호대책' 발표이후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공익위원안'을 채택, 2년여에 걸친 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를 마무리지어 이달중으로 정부로 이송될 경우 빠르면 7월까지 입법안을 마련,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노동계 의견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후퇴한 안"으로서 문제를 담고 있다.

⑤ 퇴직(기업)연금제도

3월 10일, 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기침체와 증권시장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연금제 조기도입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연금제를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계가 노동자의 퇴직금이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것을 의식하여 3월 13일 "근로자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도입 자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의미도 반감될 것이며, 재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이라는 시각에서 기업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결국 퇴직연금제 핵심문제는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노동계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단체는 영세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용을 반대하는 것이며, 퇴직금 형태로는 노동계는 기업이 연금을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연금액을 확정해서 보장해주는 확정부급형을, 경영계는 근로자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매달 지급되는 각출금을 관리하는 확정각출형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는 노사정위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을 확정,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2임단투 결과와 2003임단투 주요 요구

1. 2002 임단투 결과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이었던 1997년에 비해 2002년의 실질임금은 만 5년동안 7.4%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노동부통계를 보면 1997년도 실질임금이 162만원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2002년에 되어서는 174만원(2002년 상반기)으로 고작 7.4% 증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동안에 노동생산성은 57.3%가 상승하여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크게 줄어 들었다. 이는 자본과 권력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입체적인 노동통제 강화로서 실질임금의 저하와 노동조건 후퇴를 몰고 온 것이다.

법정최저임금 경우 2002년도는 양대 노총이 공조를 취하면서 현실화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자본과 권력의 공세를 뚫지 못한채 2002년 법정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8.3%인상에 머물고 말았다.

2002년 임단투 결과를 보면 노동계에서는 12% 중반대(한국노총 12.3%, 민주노총 12.5%)를 요구하여 8%(한국노총 8.1%, 민주노총 7.9%)의 타결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부가 집계한 협약임금인상률은 6.9%(2001년도 6%)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일부 사업장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타결률을 보였다.

단체협약 상에 있어 주요한 결과를 보면 상당수 사업장들이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일시금, 성과급 등의 변동성 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기본급 인상을 회피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단협 상에 임금(보조)적 성격을 띠는 수당이나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인상하거나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노동시간단축, 퇴직금 확보 및 중간정산 등을 쟁취하였다.

또한 단체행동이 과거에 비해 급증하면서 쟁의 역시 치열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장기파업 사업장이 속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쟁의행위(특히, 파업)가 전년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지면서 계속적인 고용의 질 악화(비정규직 증가)와 고용불안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노조측의 사업장내 주도권 약화를 기회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폭증한데에 있다.

2. 2003년 임단투 주요 요구

• 한국노총

정액급여대비 11.4%인상 요구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쟁취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차별금지법, 비정규직보호입법, 사내최저임금협약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

- **제조연대(한국노총 고무, 금속, 섬유, 출판, 화학노련)**

기본급대비 12.0%(103,957원)의 임금인상 요구

업종별, 기업별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범위를 $\pm 1.5\%$ 를 주어 10.5% ~ 13.5% 제시

단체협상 핵심공동요구사항-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그 외 요구사항-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고용안정을 이한 제도 정착, 노동자 경영참가 실현 등

2003년 6월 3일 현재 보고된 산하노조 임단투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기본급 대비 11.4%(127,559원)를 요구하여

기본급 8.4%(80,088원)의 타결 결과를 보임(산하 28개 노조 타결결과)

의제 2

다국적 기업(외자기업)에 대한 노동의 국제연대활동 강화

1. 문제제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은 그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분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빛과 어둠’을 동반하는 과정이었다. IMF위기 극복과 외환보유고 1,000억 달러(2001년 9월 현재) 달성이라는 환호 뒤에는 “경제중속의 심화”, “사회적 불평등의 악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경제 위기 기간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으로는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의 해외매각을 통한 ‘외자도입확충’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 결과 외국인직접투자(FDI) 확충을 통해 외환보유고는 급증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매각되었다. 2001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11,515개로서 199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1999년 현재 외국인투자제조업체들의 생산규모는 64조원으로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총액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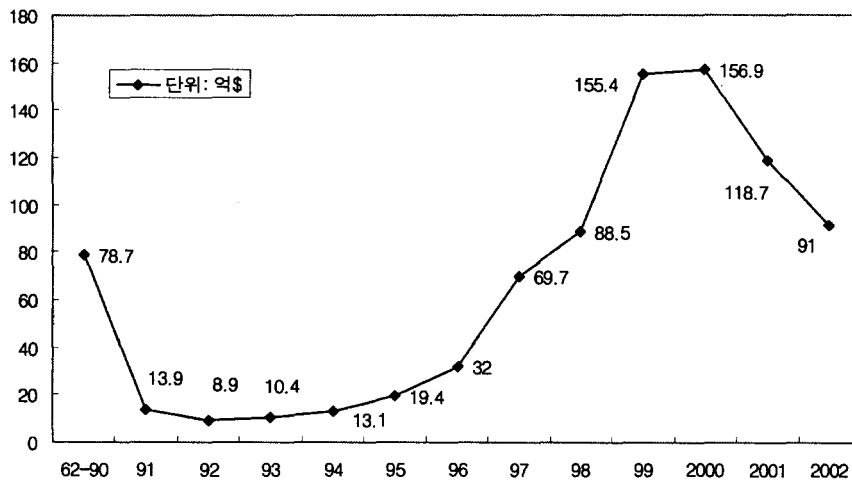
증가했으며, 그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매각을 둘러싸고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있으며, 경영권 인수이후에도 노사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2. 한국 진출 외자기업 현황

1) 전체 총괄

1998-2001년까지의 외자도입 총액은 520억 달러로 지난 35년(1962-1997)간의 도입 총액인 246억 달러의 2배 이상 되는 큰 규모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감추이 (1962-2001)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수는 1997년 4,419개에서 2.6배 증가하여 2001년 최초로 10,000개를 넘어 2001년 말 현재 11,515개로 늘어났다. 또한 고용 인력은 50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8%를 외자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 한국진출 외자기업의 국가별 비교

1994년 외국인투자가 증가세를 나타낸 이후 지역별 구성비에서는 일본 약세, 미국과 유럽 지역의 강세라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IMF 위기 이후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투자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기업의 국내진출은 1997년 20억, 1998년에는 3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1999년에는 6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유입액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33%에서 1999년 40%로 상승하였다. 1962년부터 현재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유럽(29.5%)> 미국(29.3%)> 일본(14.6%) 순이다.

<표 1>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 투자 유입 동향 (1997-2001, 단위: 백만달러, %)

	미국	EU	일본	기타지역	합계
1997	3,190(45.7)	2,305(33.0)	266(3.8)	1,210(17.4)	6,971(100.0)
1998	2,974(33.6)	2,884(32.6)	504(5.7)	2,490(28.1)	8,852(100.0)
1999	3,746(24.1)	6,259(40.3)	1,750(11.3)	3,786(24.4)	15,541(100.0)
2000	2,922(18.7)	4,391(27.9)	2,448(15.6)	5,936(37.8)	15,697(100.0)
2001	3,889(32.7)	3,062(25.7)	772(6.6)	4,147(35.0)	11,870(100.0)
62-2002.4	23,254(29.3)	23,412(29.5)	11,545(14.6)	21,144(26.6)	79,355(100.0)

3) 산업·업종별 비교

지난 외환위기 5년 동안(1997~2001)의 외국인직접투자액(비중)을 산업별로 보면 ① 서비스산업 326억 달러(55.4%)> ② 제조업 260억 달러(44.1%)> ③ 1차산업 3억 달러(0.5%)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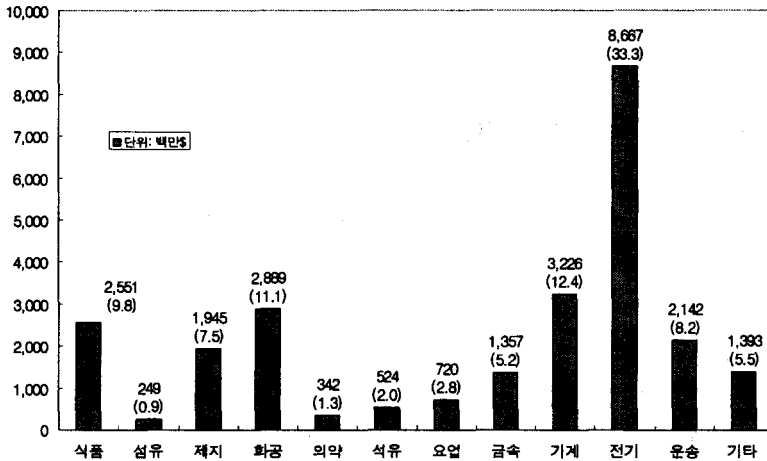
[표2] 업종별 외국인투자 동향 (1997~2001, 단위: 백만달러, %)

연도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1997	58(0.8)	2,347(33.7)	4,568(65.5)	6,973
1998	179(2.0)	5,735(64.8)	2,938(33.2)	8,852
1999	54(0.3)	7,129(45.9)	8,359(53.8)	15,542
2000	3	7,129(45.4)	8,565(54.6)	15,697
2001	9	3,668(30.9)	8,193(69.0)	11,870
1997~2001	303(0.5)	26,008(44.1)	32,623(55.4)	58,934
1962~2001(누계)	360(0.5)	37,131(47.7)	40,324(51.8)	77,817

[그림2]는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이다. 지난 5년 동안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곳은 ①전기 87억달러(33%)> ②기계 32억달러(12%)> ③화학 29억달러

(11%)> ④ 식품 25억달러(10%)이며 뒤를 이어 운송(8%), 제지(7%)의 순이다. 특히, 기계·전기·전자·금속·운송 4개 업종을 합하면 58%로 이들 업종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업종별 비교 (단위: %)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재구성

주: 외환위기 5년(1997~2001) 합산 금액임.

제조업 업종별로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유입된 기업을 보면, 업체 수 기준으로 전기·전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 화학, 식품 등의 순이다. 전기·전자산업에서는 필립스가 LG전자와 LCD 사업부문에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LG.Philips-LCD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11건의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기계산업의 경우 6건의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으며 그 중에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스웨덴의 볼보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토목공사장비, 굴삭기, 로더, 크레인 등의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며, 엘지그룹은 엘지산전의 엘리베이터 사업을 미국의 오티스에 매각하였다. 한화그룹은 한화베어링의 지분 70%를 독일의 FAG에 매각하여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LG동제련은 일본의 니꼬금속에 합작투자 형태로 경영권을 넘겼다. 그밖에도 대한중석초경, 한라공조, 만도공조 등이 외국기업에 매각되었다.

3. 외투기업과 노사관계

1) 한국진출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와 노동운동의 입장은 크게 대립된다. 먼저 정부의 입장은 1석5조(一石五鳥) 효과론으로 요약된다. 즉,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①고용증대, ②장기자본의 유입, ③전통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난 현대적 경영기업 도입, ④경영투명성 확보, ⑤수출증대 등의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노동운동은 ①국내에서 생산된 부(wealth)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 ②인수합병 형태로 들어오는 외자들은 생산에 치중하기보다는 구조조정 후 재매각하는 방식의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은커녕 실업양산과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는 점, ③외국자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선진경영기법은 이른바 신경영전략신인사제도 등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기법이란 점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대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노사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투기업의 노조 조직율은 약 30% 전후인데 이것은 전체 노조조직율인 12%보다는 꽤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자기업의 기업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좋은 것을 감안하면 조직율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외자기업 경영진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24.5%, 노조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8.8%로 약 63.3%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2000). 반면 노조가 원래 존재했던 사업장을 인수하였던 사업장에서는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제기된다.

외투기업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로 노동쟁의 발생 빈도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외투기업의 노동쟁의는 1997년 5건, 1998년 2건, 1999년 9건에서 2000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2000년 31건, 2001년 20건 등)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쟁의가 장기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3] 외자기업 노동쟁의 현황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수	5	2	9	31	20	20

주: * = 2002년 7월까지의 통계임.

4. 세계화 속에 외국인투자기업과 노동조합의 대응

외자기업의 노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의 세계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출현은 불가피 한 흐름이다. 문제는 세계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이다. 세계화에 대해 노동조합은 변화를 회피하거나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세

계화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국제금속노련(IMF)를 비롯한 국제산별(ITS)과 국제자유노련(ICFTU)의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에 대한 활동이 보다 강화확대 되어져야 한다.

또한 외자기업(다국적기업)내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확보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OECD 가맹국으로서 2000년 채택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³⁾에 따르도록 권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및 활동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노사관계에 있어 특징이자 관건은 국가간 문화, 관습, 법 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질감을 얼마나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다. 다국적 기업 및 외자기업 노조간의 국제 정보교류의 장을 확보함으로써 외자기업의 경영관행을 확인, 이해(경영 이념, 기법, 타국에 진출한 공장관행, 의사결정 과정)하고 경영관련 정보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외투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사용자가 취하는 전략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한국의 금속연맹(FKMTU, KMWF)과 일본의 금속노협(IMF-JC)이 앞장서서 양국의 노사관련 법, 제도나 관행을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출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양국 외투사업장의 노사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양국간의 국가적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기업주는 양국의 금속연맹(IMF-JC, FKMTU, KMWF)이 공동연대활동을 통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제 3

중국 관련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
-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하여 1976년 제정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뇌물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추가하여 2000년 6월 새롭게 개정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한국을 포함한 총 33개국이 각기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다.

1. 한국의 중국 투자 현황과 전망

1) 대(對)중국 투자 현황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던 대(對)중국 투자가 건수와 규모면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에도 지속되었다. 건수 면에서는 지난해 1,203건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금액 면에서는 지난해 7억 2,400만 달러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2002년말 현재 대(對)중국 투자는 누계로 7,293억 건에 64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건당 투자규모는 평균적으로 88만 달러이다.

〈표 1〉 한국의 대(對)중국 연도별 투자 현황 (1991~2002, 단위: 백만달러)

	중 국		
	건수	금액	평균금액
~ 1991	101	65	0.64
1992	170	141	0.83
1993	381	264	0.69
1994	841	633	0.75
1995	748	840	1.12
1996	734	893	1.14
1997	628	718	2.62
1998	258	677	0.77
1999	454	348	0.80
2000	753	605	0.53
2001	1,022	544	0.60
2002	1,203	724	
계	7,293	6,452	0.8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총 투자 누계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투자대상국의 지위에 있다.

〈표2〉 한국의 대(對)중국 연도별 투자비중(1996~2001,단위: 백만달러,%)

구 분		92년말 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1년말 누 계
해외투 자전 체 (A)	건수	2,103	1,463 (10.7)	1,315 (-10.1)	607 (-53.8)	1,078 (77.6)	2,024 (87.8)	2,032 (0.4)	14,473
	금액	5,076	4,314 (38.9)	3,527 (-18.2)	4,219 (19.6)	2,740 (-35.1)	3,925 (43.2)	3,238 (-17.5)	33,876
대중국 투 자 (B)	건수	271	734 (-1.7)	628 (-14.4)	257 (-59.1)	454 (76.7)	751 (65.4)	990 (31.8)	6,054
	금액	206	888 (6.0)	716 (-19.4)	677 (-5.4)	337 (-50.2)	379 (12.5)	466 (23.0)	5,406
비중(%) (B/A)	건수	12.9	50.2	47.8	42.3	42.1	37.1	48.7	41.8
	금액	4.1	20.6	20.3	16.1	12.3	9.6	14.4	16.0

주 :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한편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는 실행기준으로 2001년 말 현재 124억 8,000만 달러로 중국 총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3.1%로 제7위를 차지하고 있다.

2) 대(對)중국 투자 특징

가. 높은 제조업 투자 비중

2002년말 현재 대(對)중국 투자기업 가운데 제조업분야 진출 비중이 건수와 금액 면에서 각각 88.7%, 85.9%로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 전체 해외투자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61.6%, 54.2%에 불과하다.

제조업 투자는 금액기준으로는 주로 전자통신, 의류, 석유화학 등이, 건수기준으로는 섬유·의복, 전자통신, 기계장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자통신 분야는 1994년부터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액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분야의 대(對)중국 진출이 시작된 2000년부터는 정보통신 분야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건수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 한국의 대(對)중국 업종별 투자현황 (1991~2002, 단위: 백만달러)

		제조업								비제조업						
		음식 료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석유 화학	조립 금속	전 자 통신	기타	소 계	농림 어업	건설 업	운수 업	도소 매	기타	소 계	
~1991	금액	6	9	10	6	0.04	7	25	63	0.1		0.5	0.1	1.2	1.9	
	건수	7	19	10	2	1	9	45	93	1		1	1	5	8	
1992	금액	3	35	12	2	10	16	40	118	1			0.2	22	24.2	
	건수	9	47	10	4	10	14	66	160	7			1	2	10	
1993	금액	8	84	22	13	7	25	94	253	3	2	3	2	4	14	
	건수	21	105	33	32	13	24	127	355	6	2	0	3	15	26	
1994	금액	26	104	34	30	18	145	224	581	6	12	7	4	22	51	
	건수	67	194	45	61	33	58	245	703	17	9	13	30	69	138	
1995	금액	55	123	45	65	13	143	267	711	4	26	16	12	70	128	
	건수	60	132	44	65	31	68	248	648	11	9	10	19	51	100	
1996	금액	43	106	26	81	18	183	248	705	7	52	6	41	82	188	
	건수	66	126	47	58	35	53	253	638	25	10	1	21	39	96	
1997	금액	18	53	11	64	9	41	289	485	1	44	6	15	165	231	
	건수	38	117	27	47	33	57	226	545	10	6	7	18	42	83	
1998	금액	7	24	9	52	5	293	195	585	2	18	4	3	65	92	
	건수	12	66	12	20	7	23	78	218	5	1	3	16	15	40	
1999	금액	9	14	22	51	6	109	75	286	1	12	2	1	43	59	
	건수	33	100	35	24	20	30	166	408	6	3	3	13	21	46	
2000	금액	12	27	22	63	12	122	197	445	1	16	16	28	90	151	
	건수	46	124	55	53	24	91	260	653	8	2	2	27	61	100	
2001	금액	28	94	25	55	18	154	135	590	2	1	2	13	17	35	
	건수	61	146	82	82	37	130	347	884	7	4	2	41	84	138	
2002	금액	30	74	21	71	30	161	236	623	3	29	4	23	42	101	
	건수	64	166	60	88	61	197	379	1,015	12	5	7	62	102	188	
계	금액	245	747	259	553	146	1,399	2,026	5,375	32	212	66	142	624	1,077	
	건수	484	1,342	460	535	305	754	2,440	6,320	115	51	49	252	506	97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나. 소규모 투자 위주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투자가 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말 현재 대(對)중국 건당 평균투자액은 88만 달러로, 한국의 세계 해외투자 건당 평균투자액 224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대(對)중국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작은 것은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의 투자가 많은 반면,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말 현재 한국의 전세계 해외투자 기업 가운데 1,000만 달러이상을 투자한 276개 사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5,400만 달러인 반면, 대(對)중국 투자기업 48개사의 건당 평균투자액은 3,500만 달러이다. 한편 세계 각국의 대(對)중국 건당 평균 투자액은 2002년 말 현재 105만 달러로 한국의 투자규모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표 4〉 한국의 해외투자 규모별 구성 (2002. 5월말 현재, 단위: %)

	세 계		중 국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000만~2,000만	98	35.5	23	47.9
2,000만~3,000만	41	14.9	7	14.6
3,000만~4,000만	39	14.1	5	10.4
4,000만~5,000만	22	8.0	5	10.4
5,000만~1억	47	17.0	7	14.6
1억 이상	29	10.5	1	2.1
합 계	276	100.0	48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지역편중 심화

대(對)중국 투자는 지역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확대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진입 제한이 완화되면서 점차 편중 현상이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성(省)별로 보면 산둥(山東), 톈진(天津), 장쑤(江蘇), 랴오닝(遼寧), 상하이(上海) 순으로 높은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5개 지역이 전체 중국투자 건수,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투자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산둥(山東)과 톈진(天津) 지역은 한중 수교 초기부터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금까지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또한 북경 진입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중국투자에 대한 금속노련의 생각

중국은 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서구의 대표적

기업들의 투자가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 그 결과 조만간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대(對)중국투자 러시의 근저에는 여러 가지 유인들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임금에 있어서 중국내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기업규모별, 성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국의 10~20% 수준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중국 상품시장의 규모와 잠재적 소비수준을 고려하면 중국은 단순 해외사업장이 아니라 해외를 겨냥한 생산거점내지는 자체가 거대소비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노동법에는 노동자들의 근무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교섭역시도 개별적 노동계약이 보편적이다 라는 점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유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위의 3가지 유인에 있어서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가령 임금수준에 있어서 저숙련의 노동력은 유휴인력이 충분하지만 사무직과 기술직은 제한된 노동시장 인력으로 인해 인력충원과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외자기업의 생산직 인력은 금전적 보상을 최우선함으로 어느 정도 숙련이 형성되면 서구의 대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시장을 보고 진출한 기업들이 한 제품시장에 100여 개가 넘는 중국계와 외국계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변화의 한 축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노동3권 관련 환경이 최근 들어 크게 변하여 외자기업에 공화설립이 독려되고 있으며 단체교섭의 실질적 이행이 강력히 지도되고 있으며 유보된 단체행동권에도 중국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중국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전히 생산공장의 중국이전을 촉진시키는 유인이 유효하고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의 경향이 조사되어서 적절한 노동조합의 조치가 필요함은 절감하고 있다.

〈표 5〉 제조업체들의 생산거점 이전 계획 (2002년, 단위: %, 괄호 안은 업체 수)

		전 체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계획이 있다	소 계	74.5(70)	75.5(24)	74.2(46)
	중국	71.3(57)	83.3(20)	66.0(37)
	동남아	25.0(20)	16.7(4)	28.6(16)
	미국	1.2(1)	0.0(0)	1.8(1)
	기타	2.5(2)	0.0(0)	3.6(2)
계획이 없다		25.5(24)	25.0(8)	25.8(16)
전 체		100.0(94)	100.0(32)	100.0(62)

주 : 복수응답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위 표에서 조사되어진 한국기업들의 생산거점 이동 계획은 통상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에 달한 국가들에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시작된다는 경험적 조사결과와 더불어 향후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10년 이내에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생산공장의 중국이전에 대한 산업정책적 대안을 일본금속노협으로부터 듣고자 한다.

3. 중국 공회에 대한 금속노련의 입장과 향후 계획

1995년 11월 말에 개최된 국제자유노련 집행위원회(벨기에 브뤼셀)는 다음과 같은 대 중국 정부 및 중화전국총공회 접촉 수정 정책을 결정하고 "접촉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contacts)"을 마련하고,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 (1) 중국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논의하고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한다.
- (2) 중국 당국에 모든 구속된 인권 노동운동가를 석방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과 중화전국총공회에 이들의 명단을 제공한다.
- (3) 중화전국총공회로 하여금 1997년 후의 홍콩과 중국의 모든 지역에 기본적 노동조합권과 인권을 완전히 준수되도록 신뢰받는 활동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4) 지역과 국제노동조합 협력을 위해 완전히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만이 그 나라의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주장한다.
- (5) 중국의 인권 노동운동가들과의 만남을 이들에게 중국 측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최근의 변화들

- (1) 국유기업개혁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참가 추진
- (2) 단체협약 제도를 전체 기업으로 확산
 - 현재 13만개 기업의 50만명 노동자가 체결함
- (3) 외국투자기업과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직 확대
 - 현재 6만개의 외국기업노조 조직됨

- (4)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의료보험 실업보험등 사회보장확대 방안
- (5)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제정

한국노총과의 관계

- ♦ 1995년 5월 중국 총공회 창립70주년 기념대회 한국대표단 2명 참석
- ♦ 1995년 10월부터 양국간의 정기 교류가 시작
- ♦ 1996년 6월에 중국 총공회 대표단의 방한
- ♦ 1997년 8월에 한국노총 대표단 중국방문
- ♦ 1998년에는 중국 총공회 측에서 전국대회 개최 관계로 인해 방한 연기
- ♦ 2001년도 중국 총공회 대표단 방한.

금속노련의 중국 기계공업노조와의 교류추진

- ♦ 2002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서 중국 기계공업노조 부위원장과의 교류의사 타진
- ♦ 2003년 1월 국제담당자의 중국 총공회 방문, 총공회 국제담당자와 교류추진 합의
- ♦ 2003년 중국 총공회, 기계공업노조 방문계획이 사스(SARS)로 무기한 연기

한국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공장 이전이 이미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사업장 중에는 금속노련 회원조합의 소속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총공회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속노련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기계공업노조와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기본원칙은 국제자유노련이 제시한 "접촉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향후 중국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금속노련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관계와 제도에 대한 학습으로 중국 금속산업 노동자의 노동권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장시간 발표를 들어주신 일본금속노협(IMF-JC)와 전국금속산업연맹(KMWF)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2>

제5회 한일철강노동자회의

일시 : 2003년 6월 24일.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의제 1

한국철강산업 현황과 전망

I. 국내경제 전망

1.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세계경제

○ 2002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하반기들어 국제 금융시장 불안, 미·이라크 전쟁가능성 등 불안요인으로 회복속도 약화

○ 2003년 상반기 중동정세로 불안하였으나 이라크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되어 하반기 들어 미국의 필두로 빠르게 안정화 되고 있음.

○ 그러나 테러의 위협등으로 국제정세의 불안이 상존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환경은 혼미하고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 국내경제

□ 이라크전과 북핵문제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4%대 성장

○ 최근 가계 및 기업의 기대심리가 부진을 보인 가운데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경제 불안 예상

=> 최근 실물경제를 보면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크게 부진해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음

○ 전년도말 5%대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던 주요 연구기관들 최근 4%대 이하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국내경제 전망 >

구 분	2002	2003						
		한국은행		KDI		IMF		한국경제연구원
		'02. 12	03. 3	02. 12	03. 3	02. 12	03. 3	03. 3
경 제 성장률	6.3%	5.7%	4%대	5.3%	4%대	5.5%	3%	4.9~1.4%

2. 철강수요산업 생산활동 전망

1). 건설경기및 경기부진에 따라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

○ 건 설 : 정부의 SOC 투자확대로 토목부문의 수주는 증가가 예상되나 건축부문의 수주 부진으로 전년비 감소

=> 재해방지관련 공사발주 증대, 강북재개발관련 등 토목부문의 수주는 증가하나, 가계신용악화, 물가불안 등으로 주택건설 부진

○ 조 선 : '02년도 4/4분기들어 활발한 수주가 이루어 짐에 따라 향후 2년 치 이상의 충분한

=> 원활한 생산활동과 생산성향상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02년도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판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자동차 수요의 회복으로 수출 증가 예상, '03년도 자동차생산, 320만대로 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

구 분		단위	2001	2002		2003(F)	
					전년비		전년비
건 설	국내건설 수 주	백억원	6,784	8,315	22.6	8,068	-3.0
	건 축	"	4,183	5,425	29.7	4,993	-8.0
	토 목	"	2,601	2,890	11.1	3,075	6.4
조 선	건조량	천CGT	6,447	6,824	5.8	7,000	2.6
자동차	생 산	천대	2,946	3,148	6.9	3,200	1.7
일 반 기 계	생 산	십억원	41,978	48,203	14.8	51,483	6.8

자료 : 각 수요가단체

2). 철강수요산업 생산활동 전망

□ 성장세 다소 둔화 전망, 특히 건설수주는 2002년도 큰 폭의 증가에서 감소세로 반전 전망

구 분		증가율(%)		2003년도 주요요인	
		2002(E)	2003(F)	긍 정 적	부 정 적
국내 건설	수 주	13.5	-1.0	·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 증가 · 새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SOC투자 확대 기대	· 다세대 · 다가구주택 건설의 부진 · 2002년도의 각종 주택 가격 안정대책의 파급 효과, 재건축요건 강화 부동산경기 위축
	투 자	4.9	4.4		· 정부의 주택가격 억제
조 선	전 조	10.1	-	· 충분한 수주잔량 · 확충된 설비의 효율성 증가	· 대형탱커 및 컨테이너 선 의 대체발주가 일단락되어 대량발주 기대어려움
자동차	생 산	5.2	3.2	· GM대우 정상화로 구조 조정 완료	· 경제둔화로 내구재 소비 둔화 예상
	내 수	10.3	3.1		·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유
	수 출	-0.1	3.3	· 주5일 근무제 확산시 레저활동 증가 · 2003년도 세계 자동차 수요 회복 전망	· 류가격 인상 예상 ·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따른 불안심리
일반 기계	생 산	8.4	5.0	· 동남아시아의 안정적인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증가 ·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	· 소비재중심의 내수소비 감소
가 전	생 산	8.1	16.3	· 일본의 경제개혁 추진으로 세계경제 호전가능성 · 국내경기는 신정부의 경제확대정책, 저금리 정책으로 소비증가	· 가계대출의 과다, 부실 부동산경기위축으로 소비심리 냉각 가능성 · 원화강세가 계속된다면 수출감소 예상

자료 : 각 수요가단체(2002. 11), 건설투자는 KDI(2002. 10)

3). 세계 철강경기 전망

□ 세계 조강생산 및 강재소비 5%대 증가 전망

○ 세계 조강생산은 중국의 높은 신장세에 힘입어 2002년도 4.5% 증가에 이어 2003년도에도 5.2% 증가하여 930백만톤에 이를 전망(WSD)

○ 강재소비도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EU지역의 수요증가로 4.8% 증가한 841백만톤 전망(IISI)

< 세계 철강수요 전망 >

(단위 : 백만톤)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전년비
강재수요	IISI	770.1	802.3	4.2	841.2	4.8
	WSD	748	782	4.5	824	5.4
조강생산	WSD	846	884	4.5	930	5.2

주 : 전망시점 ~ 2002. 10

□ 세계 철강시황,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국면 지속 전망

○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공급부족으로 열연강판 가격상승 단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나, 하반기에는 가격하락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미국과 중국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시장의 최근시황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중국시장은 지금까지 급성장을 해 왔으나, 2003년에는 판재류 생산능력확대 및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투자의 증가로 공급과잉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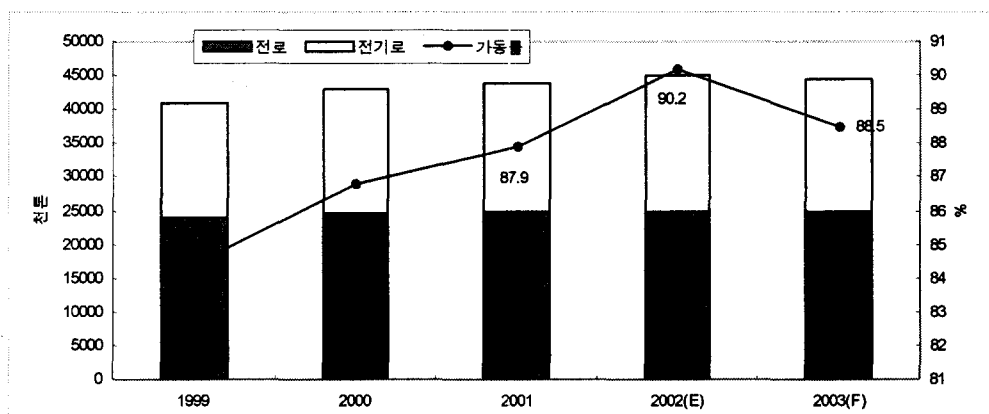
· 이럴 경우 세계 전체로 심각한 공급과잉 상황 초래

4). 국내 철강경기 전망

< 2003년도 국내·외 철강산업 환경변화 요인 >

	2002년	2003년
국 내 경 제	·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안정 · 적인 성장세 유지	· 이라크사태 등 대외여건 불안, 내수둔화와 금년도 하반기부터 상승탄력 둔화
철강수요산업	· 건설경기 호조 ·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제조업 경기의 호조	· 건설경기 부진 ·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제조업 경기 상승세 둔화 · 하반기이후에는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로 다소 회복
세 제 경 제	· 전년도 저성장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 · IMF 2.8% 성장 예상	⇒ · 미국의 이라크 전쟁위협 고조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회복세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 전망 · IMF 3.7% 성장 전망
세계철강경기	· 강재수요, 조강생산 전년대비 증가 예상(IISI, WSD)	·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국면 지속 전망
무 역	· 미국의 201조 발동 등 철강보호주의 절정 · 통상환경 악화 영향 본격화	· 주요국의 수입규제로 수출여건 개선은 예상키 어려우나 · 국내경기부진으로 수출확대 노력
국제철강가격	· 2001년 9월이후 가격상승세 7월이후 둔화 · 그러나 4/4분기중에도 미국을 제외한 EU, 아시아지역은 가격회복세 지속 예상	· 상반기까지는 강보합세 지속될 가능성 · 하반기이후 가격하락 예상

가. 조강생산 전망



(단위 : 천톤, %)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전년비	
조강생산	43,852	45,105	2.9		44,420	-1.5	
전 로	24,741	24,865	0.5		24,890	0.1	
전기로	19,110	20,240	5.9		19,530	-3.5	
가동률(%)	87.9	90.2	+2.3%p		88.5	-1.7%p	

□ 2002년도 조강생산, 전년비 2.9% 증가

○ 포스코의 고로대보수로 전로강생산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기로강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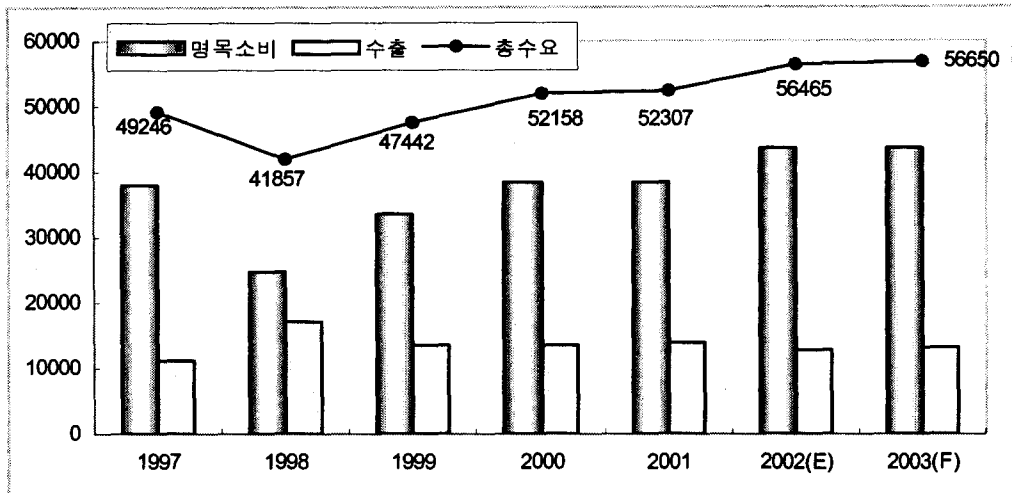
=> 전로강 : 24,865천톤(0.5% 증가), 전기로강 : 20,240천톤(5.9% 증가)

□ 2003년도 조강생산, 2002년대비 1.5% 감소 전망

○ 포스코의 전로강 생산은 전년도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 전기로강 생산은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INI Steel의 70톤 전기로폐쇄, 한국철강 마산공장의 가동률하락(3교대→2교대)으로 생산 감소하여 전년비 3.5% 감소 전망

나. 철강재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총 수 요	52,307	56,465	7.9	56,650	0.3
명목소비 (내수+재고)	38,272	43,620	14.0	43,455	-0.4
수 출	14,035	12,845	-8.5	13,195	2.7
생 산	49,072	51,520	5.0	51,685	0.3
수 입	3,235 (10,737)	4,945 (13,925)	52.9 (29.7)	4,965 (13,375)	0.4 (-3.9)

주 : 1. 수입의 ()는 핫코일, 반제품포함

2. 철강재생산=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수출분)

□ 국내경제 및 철강수요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국내소비는 감소 전망되나, 수출은 2002년도 보다 다소 증가 전망

○ 2002년에 이어 5,600만톤대 수준은 유지 전망

※ 2003년도 철강재 수급전망

□ 명목소비: 주요 철강수요산업의 생산활동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전년비 0.4% 감소 전망

○ 건축경기의 부진으로 철근, 형강 등 봉형강류의 소비는 감소 전망되나, 판재류 소비는 소폭 증가 전망 => 봉형강류 : -2.2%, 판재류 : 1.2%

□ 수출 : 주요국의 수입규제 지속으로 수출여건 개선은 어려우나, 수출선 다변화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전년비 2.7% 증가 전망

○ 국내수요 감소에 따라 형강, 철근 등 봉형강류 수출은 2002년에 비해 14만톤 증가 전망

○ 2002년도 포스코의 고로개수로 생산이 감소된 핫코일은 일본, 동남아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전망

○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EU, 미국의 수출도 금년도 수준 내지는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 => 봉형강류 : 7.9%, 판재류 : 21%

□ 생산 : 수출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 감소로 2002년도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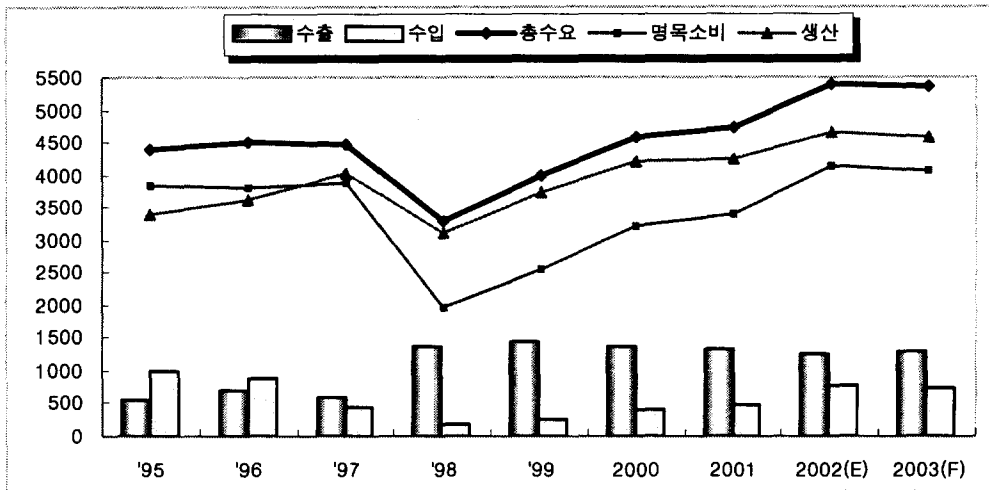
○ 봉형강류의 생산은 다소 감소 전망되나, 판재류 증가 전망

○ 전체적으로 생산규모는 2000년이후 경기둔화와 함께 큰 변화없이 일정한수준유지

□ 수입 : 관세인하 등으로 저가재에 대한 수입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빌릿 등 반제품과 핫코일의 수입은 감소 전망

다. 주요 품목별 수급전망

□ 형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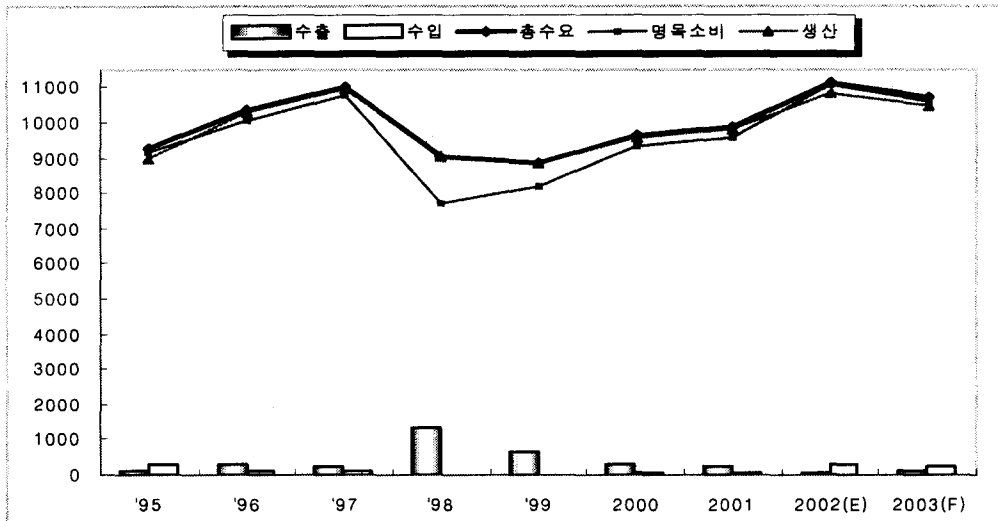
(단위 : 천톤, %)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전년비
총 수 요	4,714	5,400	14.6	5,345	-1.0
명목소비 (내수+재고)	3,382	4,145	22.6	4,055	-2.2
수 출	1,332	1,255	-5.8	1,290	2.8
생 산	4,248	4,640	9.2	4,595	-1.0
수 입	466	760	63.1	750	-1.3

□ 건설경기의 회복과 조선 등 수요산업의 호조로 2002년도 내수수요 전년비 22.6% 증가한 415만톤으로 사상 최대실적 예상되며, 2003년도에는 토목분야의 공사는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나, 상업용건축공사의 부진으로 급년대비 2.2% 감소 전망

□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향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업계의 수출확대로 증가 전망되며, 수입은 2002년도에는 국내경기의 호조로 일본으로부터 저가의 수입재가 다량으로 수입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경기부진에 따라 다소 감소 전망

철근



(단위 : 천톤, %)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전년비
총 수 요	9,846	11,130	13.0	10,740	-3.5
명목소비 (내수+재고)	9,591	11,065	15.4	10,590	-4.3
수 출	255	65	-74.5	150	130.8
생 산	9,789	10,830	10.6	10,470	-3.3
수 입	57	300	426.3	2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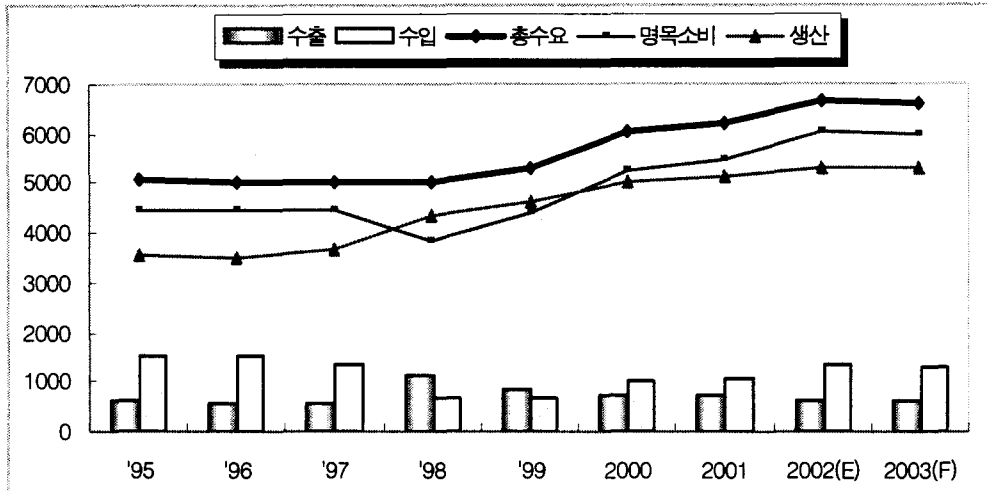
□ 2001년 4/4분기이후 건축경기의 호조로 2002년도 국내수요는 다세대 주택건설 등 건축수요의 증가로 1,100만대로 '97년이후 최대실적 예상

2003년도에도 상반기중에는 재해복구사업 등 수요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이후 수요 감소 전망

□ 건설경기호조에 따라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

□ 생산도 2002년에는 '97년이후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도에도 다소 감소는 전망되나 1,000만톤대의 생산 전망

回 中 后 판



(단위 :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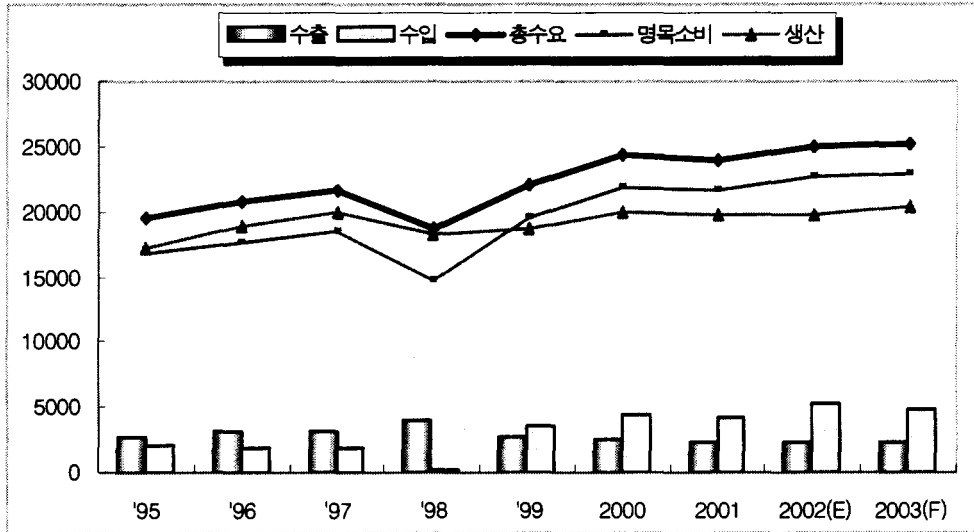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총 수 요	6,218	6,655	7.0	6,600	-0.8
명목소비 (내수+재고)	5,477	6,060	10.6	5,980	-1.3
수 출	741	595	-19.7	620	4.2
생 산	5,147	5,295	2.9	5,280	-0.3
수 입	1,071	1,360	27.0	1,320	-2.9

□ 조선경기의 호조로 총수요 '97년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다소 감소전망

□ 조선경기는 호황이 지속되나,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2003년도 국내수요는 감소 전망되며, 이에따라 수입도 감소된 132만톤대에 이를 전망

□ 수출은 2002년도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 전망

□ 하트 코 일



(단위 : 천톤, %)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전년비
총 수 요	23,984	24,890	3.8	25,200	1.2
명목소비 (내수+재고)	21,631	22,580	4.4	22,800	1.0
수 출	2,353	2,310	-1.8	2,400	3.9
생 산	19,780	19,650	-0.7	20,270	3.2
수 입	4,204	5,240	24.6	4,93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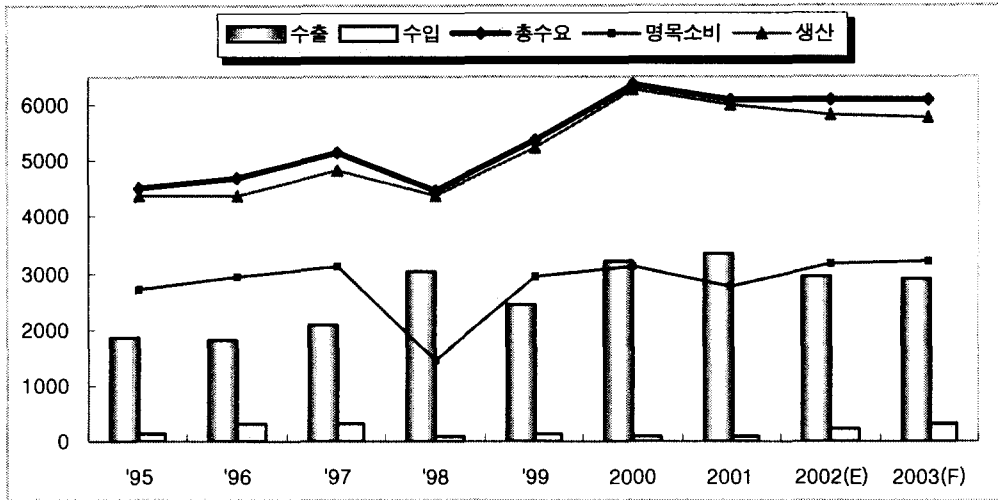
주 : STS제외

□ 2002년도 명목소비는 자동차, 가전산업의 호조로 차공정용의 수요증가로 전년 비 4.4% 증가, 2003년도에는 자동차 등 제조업의 경기가 다소 상승함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생산은 포스코의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2002년대비 3.2% 증가한 2,027만톤 전망, 이에따라 수입은 감소 전망

- 한보철강의 미니밀리 4/4분기중 가동시, 생산은 더 증가할 전망

▣ 냉연강관



(단위 :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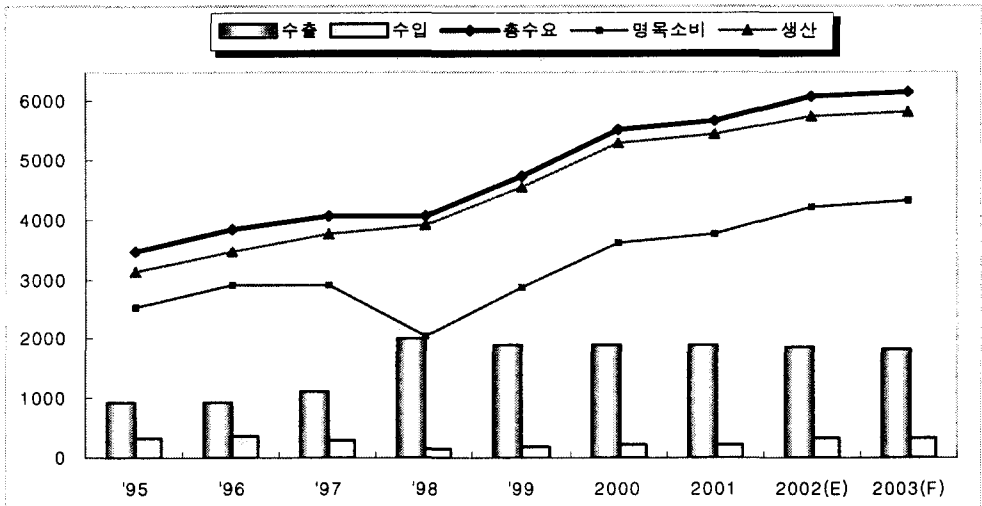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전년비
총 수 요	6,081	6,075	-0.1	6,090	0.2
명목소비 (내수+재고)	2,760	3,155	14.3	3,190	1.1
수 출	3,321	2,920	-12.1	2,900	-0.7
생 산	6,007	5,845	-2.7	5,790	-0.9
수 입	74	230	210.8	300	30.4

□ 2002년도 자동차, 가전산업 등 냉연 수요업계의 생산활동 호조로 국내 수요 전년비 14.3%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지나, 증가폭은 둔화 전망

□ 생산은 고부가가치강 중심의 생산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수출은 미국, 중국, EU의 수입규제로 감소세 지속 전망

□ 그동안 고급강중심으로 소량의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국내공급부족에 따라 수입증가

▣ 아연도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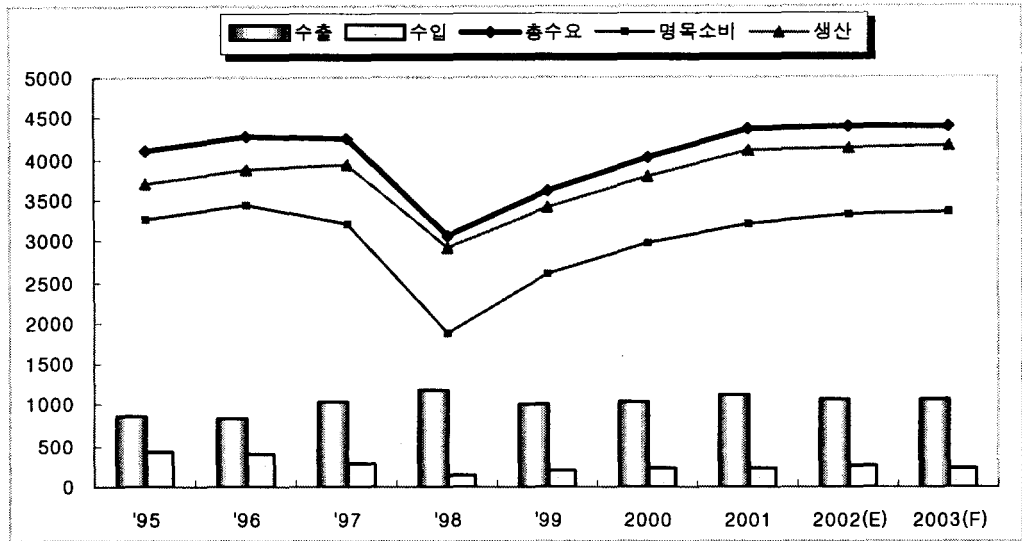


(단위 : 천톤, %)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전년비
총 수 요	5,681	6,073	6.9	6,160	1.4
명목소비 (내수+재고)	3,769	4,218	11.9	4,330	2.7
수 출	1,912	1,855	-3.0	1,830	-1.3
생 산	5,456	5,745	5.3	5,835	1.6
수 입	225	328	45.8	325	-0.9

-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수요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98년이후 증가세 지속
 - 용융아연도강판 3.3%, 전기아연도강판 2.9%, 착색아연도강판 1.1% 증가
- 수출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감소세 지속 전망

강 관



단위 : 천톤, %)

구 분	2001	2002(E)	전년비	2003(F)	전년비
총 수 요	4,352	4,400	1.1	4,400	-
명목소비 (내수+재고)	3,212	3,325	3.5	3,340	0.5
수 출	1,140	1,075	-5.7	1,060	-1.4
생 산	4,117	4,135	0.4	4,160	0.6
수 입	235	265	12.8	240	-9.4

□ '98년이후 증가세 지속

□ 건설경기 및 기계산업도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호조를 보여 건설 및 기계구조용 강관 수요 증가, 2002년도 하반기들어서는 수해복구용 농원용강관의 수요도 크게하여 2002년도 국내수요 전년비 3.5% 증가하고 2003년도에도 소폭의 증가 전망

□ 수출은 최대 수출지역인 미국의 수입규제 영향으로 감소 전망

2003년도 철강재 수급전망

(2003. 3)

(단위: 천톤, %)

품 목		총수요		명목소비		수 출		생 산		수 입	
			%		%		%		%		%
봉 형 강 류	형 강	5,350	-1.9	4,110	-2.5	1,240	1.1	4,680	-0.8	670	-8.7
	(H 형 강)	3,510	0.1	2,670	0.5	840	-1.1	3,060	-0.7	450	5.9
	봉 강	2,500	2.5	2,270	2.4	230	4.1	2,230	5.5	270	-7.5
	철 근	11,120	-1.4	11,020	-1.5	100	37.0	10,620	-3.1	500	20.7
	선 재	3,140	-1.1	2,920	-1.5	220	5.3	2,170	4.1	970	-10.9
	케 조	150	1.4	110	-2.7	40	14.3	145	0.7	5	25.0
(소 계)		22,260	-1.0	20,430	-1.4	1,830	3.7	19,845	-1.0	2,415	-1.0
판 재 류	중 후 판	6,600	0.3	5,920	-0.8	680	10.9	5,310	1.6	1,290	-5.0
	열연강판	7,170	2.6	4,270	0.9	2,900	5.3	7,110	2.7	60	0.0
	(핫코일)	25,300	1.3	22,900	1.1	2,400	3.7	20,320	3.0	4,980	-5.0
	(스테인리스)	1,610	7.5	1,210	6.0	400	12.4	1,400	12.4	210	-17.0
	냉연강판	6,980	1.0	3,740	-0.6	3,240	2.9	6,710	1.1	270	-1.5
	냉연박판	6,060	1.0	3,090	-0.5	2,970	2.6	5,810	0.6	250	9.6
	STS강판	920	1.0	650	-0.9	270	5.9	900	4.0	20	-58.5
	아연도강판	6,145	0.2	4,210	-1.2	1,935	3.4	5,852	1.0	293	-13.8
	(용융아연도)	2,750	1.3	2,100	-0.6	650	7.6	2,520	3.2	230	-15.4
	(전기아연도)	1,625	1.2	1,050	-0.7	575	4.7	1,565	1.4	60	-4.8
	(착색아연도)	1,770	-2.4	1,060	-3.1	710	-1.3	1,767	-2.4	3	0.0
	전 기 강 판	660	3.9	480	1.1	180	12.5	620	4.7	40	-7.0
	석 도 강 판	780	2.5	325	-3.8	455	7.6	770	2.9	10	-23.1
	기타도금강판	780	8.5	310	2.6	470	12.7	740	8.3	40	11.1
	강 관	4,320	-1.5	3,250	-2.3	1,070	0.9	4,080	-1.1	240	-7.7
(소 계)		33,435	1.0	22,505	-0.7	10,930	4.5	31,192	1.5	2,243	-0.0
주 단 강	주 강	160	3.2	75	5.6	85	1.2	120	5.3	40	-2.4
	단 강	575	2.1	560	1.6	15	25.0	555	2.4	20	-4.8
	(소 계)	735	2.4	635	2.3	100	3.1	675	2.9	60	-9.2
합 계		56,430	0.2	43,570	-1.0	12,860	4.5	51,712	0.5	4,718 (9,908)	-3.4 -4.5
반 제 품		160	-19.5			160	-19.5	160	-19.5	3,400	-2.7
강 선 류		380	5.3	20	53.3	360	4.0	360	3.0	20	33.3
철 강 재 계		56,970	0.2	43,590	-1.0	13,380	4.1	52,232	0.5	4,738 (13,308)	-3.3 -5.5

주: 철강재계 수입의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II. 철강산업 과제 및 전망

1. 세계 철강업체 동향

'90년대 유럽 고로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통합이 추진되면서 촉발된 세계 철강업계 재편 움직임은 일본 고로업계의 통합 및 제휴, 미국 주요 고로사들간의 통합 추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21세기 세계 철강업계 지형도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는 글로벌 소싱, 인터넷 구매 등 구매패턴 다변화와 철광석 등 원료공급 시장 통합화 촉진에 연유하고 있다.

최근 세계 철강업계 재편 동향은 Usinor(프랑스)가, Arbed, Aceralia와 합병 하여 2002.2월 세계 최대 철강사 Arcelor를 탄생시켰으며, 미국의 US Steel는 · Bethlehem Steel와 통합을 추진중이다.

일본은 NKK - 川鐵 통합 이에 따른 日新製鋼도 어떤 형태로든 구조재편 움직임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일본의 고로업계는 NKK-川鐵 통합사와 新日鐵-神戸-住金 제휴 그룹으로 양분될 전망이다.

※ OECD 철강설비능력 감축 논의 동향

세계 철강설비능력 과잉 문제의 다자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회의에 이어 제2차 OECD 철강 고위급회의가 12.17(월)~12.18(화)간 파리에서 OECD 회원국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철강국 3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 ① 비효율적 설비 폐쇄 : 97.5백만톤 (2010년)
- ② 설비폐쇄 방안 연구를 위한 스터디그룹 설치
- ③ 미국 201조 조사에 대한 우려 고조
- ④ 2002년 2월, 4월 추가 회의 개최이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보조금을 세계 철강시장을 왜곡시켜온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조금 지급금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차기 WTO협상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으나 주요 철강국들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EU는 세계 철강설비능력 감축 협상을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통상법

201조 조사와 연계시켜, 미국이 201조 발동을 유보시키지 않는다면, EU는 능력감축협상에서 탈퇴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전망

1) 국내 철강업체 경쟁력 강화계획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참고1)

당면과제	중장기 환경변화
○ 일부 제품의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 지속 ○ 재무구조 취약 및 많은 기업의 부실화 ○ 통상마찰 심화 및 대일본 철강역조 확대 ○ 선진 철강국대비 기술기반 열위 ○ 낮은 원료 자급도 ○ 환경규제 강화	○ 글로벌 통합화 및 전략적 제휴 확산 ○ 선진 철강국의 경쟁력강화 및 중국의 빠른 성장 ○ 수요의 저성장 및 시장의 개방화 ○ 시장의 Buyers' Market화 ○ 혁신기술 개발 가속화 및 대체소재와의 경합 심화 ○ 전자상거래 급속 확산



○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기반 강화 ○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에 적극 대처 ○ 기술중심의 핵심역량 구축 ○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수요둔화 및 대체소재에 대응한 신수요창출 활동 강화 ○ 철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및 상용화



21세기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

1.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기반 강화
2.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에 적극 대처
3. 기술중심의 핵심역량 구축

<혁신철강기술 개발동향>

기 술 명	기술개발 추진동향
용융환원법 (Finex법)	· 2000년 기술개발 완료 (8mm이하의 미분광 사용) · 2001년 Demo Plant (연산 60만톤) 착공 · 2003년 Demo Plant 준공
Strip Casting법	· 2000년 기술개발 완료 (폭 1,300mm/10톤 무결합 주조기술) · 2001년 Strip Casting 박판의 상용품질 주조기술 개발
차세대 구조용 강재	· 2002년 1단계 기술개발 (600Mpa급 구조용강 및 1,300Mpa급 볼트강 제조기술 확보)

<고기능 강재 개발계획>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개발강종	고압송전용 Invar 선재 등 10종	초대입열 선급TMPC강 등 10종	중온(600°C) 구조용STS강판 등 11종	400kg급 Tire-Cord 선재등 9종	100kg급 자동차휠용 Trip강판 등 10종

3.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주요 청정기술(예)>

적용분야	주요 청정기술
에너지 회수	전기로 조업 자동제어기술, 미분탄 취입기술, 배가스 회수기술
공 정 개 선	Thin Slab Casting, Strip Casting, Slag현열기술, 반응로 가공기술
연료대체 및 자원화	청정연료 대체, 폐자원 이용기술, 이산화탄소 회수 및 이용기술, 폐플라스틱 고로 취입기술

4. 수요둔화 및 대체소재에 대응한 신수요창출 활동 강화

<철강제 신수요 창출 가능성>

구 분	스틸하우스	철골조아파트	금속가구
국 내	'98년 최초 보급(180호) 2000년 보급확대(3,700호)	아파트 건축의 1% 수준('99)	사무용 가구의 33%
해 외	미국 : 2000년 신규주택 25% 목표(12만호)	일본 : 아파트 건축의 34%	일본 : 사무용 가구의 70%

5. 철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및 상용화

의제 2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1.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국내 및 국제적 공급 과잉
-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
- 불분명한 중국과 동남아 시장 개척
- 어려운 국내 경기로 인한 인수합병을 확대 및 내부 구조조정

2. 철강업계 구조조정 추진전망

z

- 세계적 차원의 구조조정
- 국내 구조조정
- 예견되는 2차 국내 구조조정

3.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고용불안과 대응

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나. 메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다. 내부구조조정으로 발생할 고용불안

- 1) 정리해고
- 2) 비정규직의 확대

정책실(2001.7.6)

자료 : 금속산업연맹

노조, 지회	전체사원	조합원	비정규	비정규직 현황	
				사원수 대비율	조합원수 대비율
INI스틸(포항)	2400	1487	1100	46	74.0
INI스틸(인천)	2859	2116	1318	46	62.3
삼미특수강	985	708	40	4	5.6
현대하이스코	1162	625	1334	115	213.4
한국제강	340	250	50	15	20.0
총계	7,746	5,186	3,842	49.6	74.1

3) 아웃소싱 및 분사의 증가

4.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가. 기업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요구

- 1) 경영정보 공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
- 2)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실질적인 사외이사제 도입

나. 철강산업 정상화 및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

- 1)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 2) 공동으로 원료구입 요구
- 3) 수입규제 등으로 인한 수출한계를 내수창출로 극복 할 것을 요구
- 4) 선진국의 덤핑수출 규제로 인한 한계를 중국시장, 동남아 시장 개척으로 돌파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등을 무기로 중국,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을 요구

다. 노동조합,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구조조정 요구

의제 3

아시아지역내 철강산업 정책에 대한 노조의 입장

1. 세계 철강시황 전망

1) 중국 시황 급락, 세계 철강시황 급락 우려 고조

- 그동안 세계 철강시황 호조세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국의 판재류 시황이 최근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철강시황의 급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2) 세계 철강시황 전망 시나리오 (WSD) = 가격폭락 가능성 높다.

- 중국 철강시황 급락으로 WSD의 세계 철강경기 전망 시나리오중 '공급부족 지속 및 세계 철강경기 호조 지속' 시나리오는 폐기되었으며 대신에 '95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가격 폭락(death spiral)' 시나리오 가능성이 상승.

3) 세계 철강시황 급락(death spiral) 전망 배경

(1) 역사적인 가격결정 패턴

-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철강수출가격 변동 패턴은 하락기가 매우 짧고 하락 폭도 큰 매우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하락 시점을 보면 '95년, '98년, 2000년으로 하락폭은 최고점 대비 각각 48%, 55%, 45% 었음.
- 이와같은 큰 폭의 잦은 변동의 원인은 세계경제의 경기변동과 함께 세계 철강 수급의 구조적 결함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중국의 철강재 수입 여력 포화 상태

- 세계 철강 수급 타이트의 유일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중국의 철강 수입 급증세가 최근의 과도한 수입급증으로 수입 여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3) 중국 철강수급 공급과잉 지속 전망

- 수입 급증과 더불어 중국의 철강 생산도 2월까지 전년비 17% 증가하는 등 공급이 수요를 초과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4) 중국의 지역 완충 역할 기대 어려움

- 중국의 지역에서 철강수요가 회복되어 중국에서 수입이 전환될 물량을 소화해 철강시황 급락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됨.

(5) 신속한 감산 대응 기대 어려움

- 세계 철강경기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음.
- 감산에 따른 가동을 하락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고용문제)

2. 미 철강 201조 관련 동향

1). 2차년도 적용제외 품목

(1) 미 USTR, 총 295건 40만톤 적용예외 승인

- 2003. 3.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 201조 구제조치 제 2차년도 ('03.3.20~'04.3.19) 적용제외 품목을 발표
- 금번에 발표된 2차년도 적용제외 조치는 미 국내 수요업체 및 대미 수출업체로부터 총 661건, 400만톤이 신청되었으나, 특수강 및 틈새품목(niche products)을 중심으로 295건, 40만톤이 승인되었음
- 1차년도의 경우 7회에 걸쳐 총 727개 품목, 320만톤의 예외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나, 2차년도 제외조치는 금번 발표로 종결시키고, 2003. 11월부터 3차년도 예외조치 신청을 접수할 계획임

(2) 미 관련업체 상반된 반응

- 미 철강업체는 금번 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미국내 철강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중국 등으로의 수출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201조 중간점검을 염두에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반면 미국내 철강수요 업체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특히, 철강수요업체를 대표하는 CITAC(The Consuming Industries Trade Action Coalition)은 금번 조치가 중소 철강수요업체가 당면한 저렴한 철강제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

2). WTO 중간검토 결과

(1) WTO, 미 201조 WTO 규정 위배 판정

- WTO는 3.26일 분쟁해결 Panel의 중간검토(Interim Report) 결과, 미국의 철강 201조는 WTO 규정을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WTO 패널은 중간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 201조 조치를 발동할 당시 미국의 철강수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음을 들어 '불법(illegal)'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동 건은 작년 7월 EU, 일본, 한국 등 8개국이 미 201조가 WTO 규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에 제소한 바 있음.

(2) WTO 최종판정도 '불법(illegal)' 고수 예상

- 최종판정은 중간검토 결과에 대해 1개월 동안 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로부터 5주내 최종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판정에서도 중간검토 결과 내용이 고수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경험적으로 중간검토 결과가 최종판결에서 번복된 사례가 없으며 또한 Safeguard를 발동한 국가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었던데 따른 예상임.

(3) 미 정부, WTO 최종판정 내용 불변시 항소 확실시

- 미국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WTO 최종판정이 미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며 항소심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되어 9월말 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 시점은 ITC가 201조 중간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9.20일)과 거의 일치해 WTO 항소심 결과와 ITC 중간검토 결과의 연계 가능성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3. 향후 대응 전략 및 영향

1) 영향

(1) 세계 시장 급락 회피 위한 적극적 공조 필요

- 특히, 지금까지 세계 철강시황을 떠받쳐온 중국의 철강시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세계 철강업계가 신속하고 충분한 감산, 적절한 재고수준 유지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2) 세계 시황 급락시 주요 철강사 중심의 경쟁구도 재편 가속화

- 현재 세계 철강업계는 대형 철강사간 M&A, 부실철강사 처리, 활발한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메이저급 대형 철강사 위주로 경쟁구도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 이와같은 현상은 '95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세계 철강시황 폭락과 그에 따른 경영위기가 추진동력임을 감안할 때 만약, 세계 철강경기가 다시 급락한다면 세계 철강업계는 경쟁력있는 대형 철강사 위주로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될 전망.

(3) 세계 시황 급락시 중국의 설비확장세 둔화

- 세계 철강시황이 급락할 경우 현재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설비 능력 확장 계획이 둔화되고 비경쟁적인 설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아시아지역내 공동 대응전략

(1) 미국 철강 201조 및 중국의 Safeguard에 대한 공동대응

(2) 인력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마련

(3) 세계 주요 철강사 중심의 경쟁구도 재편에 따른 국제교류 활동 강화

세계 대형 철강사간 M&A, 부실철강사 처리, 전략적 제휴 등에 대응한 국제 교류 활동 강화

<자료 3>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 아시아 집행그룹회의

의제 1

1. 한국의 조선산업 고용현황

한국의 조선인력 고용은 1974년 정부의 조선입국정책선언으로부터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으나, 1990년경부터 조선소 기업들의 기업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정규직의 감소, 하청업체증가등으로 이어졌고, 장기적으로는 하이테크 산업의 활성화예언으로 조선업의 사양화를 예견하는 정책으로 이어져, 조선산업신규인력 양성이 전면중단되어 대형사업장과 중형조선소는 기존의 인력만으로 생산을 하여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으며, 더구나 기존의 인력도 고령화되어 평균년령이 40대 후반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한국의 조선산업의 미래는 그다지 밝다고 할 수없다고 보겠다.

정부와 기업의 특단의 신규인력 양성 대책이 없는한 3D업종으로 인식된 한국의 조선산업은 중국 등 조선후발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조선인력현황

년도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	하도급	계
1984	9,775	60,453	5,415	-	75,643
1985	10,531	56,629	5,320	-	72,480
1986	8,995	47,986	4,805	-	61,786
1987	9,550	43,780	3,818	-	57,148
1988	7,851	37,892	3,416	-	49,204
1989	8,086	39,645	3,172	-	50,903
1990	7,967	34,701	4,062	7,360	54,090
1991	6,756	33,518	5,301	7,582	53,157
1992	7,095	32,450	5,499	7,778	52,822
1993	7,336	31,637	7,198	10,549	56,720
1994	9,040	36,979	9,211	15,371	70,601
1995	11,775	39,236	7,333	18,986	77,330
1996	12,679	40,478	7,419	20,777	81,353
1997	11,726	40,370	6,481	19,222	77,799
1998	12,077	38,088	6,219	19,321	75,705
1999	10,425	36,320	6,234	18,665	71,644
2000	10,420	36,215	7,181	25,960	79,776
2001	10,245	36,434	7,586	32,417	86,682

출처 : 한국조선공업협회자료 2002년판 자료

<표 2> 신조선 수주량

구분 년도	국내선			수출선			합계		
	척	GT	千 \$	척	GT	千 \$	척	GT	千 \$
'84	11	306,198	141,192	110	2,249,399	2,288,743	121	2,555,597	2,429,935
'85	25	436,611	188,213	40	931.138	605,846	65	1,367,749	794,059
'86	31	390,273	179,913	67	3,118.550	1,479,693	98	3,508,823	1,659,606
'87	79	1,075,346	668,235	58	2,625.577	1,325,271	137	3,700,923	1,993,506
'88	22	407,721	328,418	61	2,634.615	1,578,068	83	3,042,336	1,906,486
'89	39	265,208	424,877	108	3,207.124	2,964,433	147	3,472,332	3,386,310
'90	15	64,110	132,362	61	4,318.720	3,537,683	76	4,382,830	3,670,045
'91	10	116,548	195,377	111	5,317.409	5,365,171	121	5,433,957	5,560,548
'92	10	5,070	107,561	41	1,637.584	1,770,610	51	1,642,654	1,878,171
'93	7	16,290	36,927	177	9,490.581	7,289,974	184	9,506,871	7,326,901
'94	7	4,843	87,441	159	6,366.525	5,794,022	166	6,371,368	5,881,463
'95	2	340	23,438	192	7,132.801	6,768,746	194	7,133,141	6,792,184
'96	2	2,000	29,204	142	6,971.849	7,037,946	144	6,973,849	7,067,150
'97	1	11,800	49,575	200	12,737.616	10,382,531	201	12,749,416	10,432,106
'98				175	9,998.518	7,923,876	175	9,998,517	7,923,876
'99	3	14,800	25,800	224	12,704.309	9,159,620	227	12,719,109	9,185,420
'00	2	23,235	12,647	311	10,378.273	15,146,970	313	10,401,508	15,159,617
'01				185	6,408.408	10,695,082	185	6,408,408	10,695,082

출처 : 한국조선공업협회 2002년판 자료

- ※ 1990년 이전에서 하도급이 없는 정규직만 운영됨
- ※ 기술직 사무직 인력은 1984년과 2001년에 비교하면 17%인원 증가
- ※ 생산직은 하도급포함 1984년보다 14.5%인원 증가
- ※ 신조수주량도 1984년 비해 397%증가됨
- ※ 1985년부터 5-6년간 세계조선 시황이 좋지 않아 수주량이나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1992년 이후 고용이나 수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1. 위의 도표나 비교에 의해 한국의 조선 인력 현황은 1989년까지는 정규직에 의해 선박을 건조 수리했으나 1987년 이후 민주화 대투쟁이나 경제 개발에 의한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정규직과 하도급이 병행하는 구조조정이 시작됨

2. 세계 상황이나 선박의 건조 수요에 따라 인원 관리에 문제점과 선가의 약세로 임금 구조 조정에 의해 하도급이 증가되기 시작됨
3. 조선의 전체인원은 14%늘었지만 정규직은 40%줄었으며 정규직인원은 아웃소싱 외주 하청으로 이동함
4. 정규직의 인력감소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정년으로 인한 자연 감소로 가장크게 나타났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을 충원하지않고 그 자리를 하청이나 아웃소싱으로 대체 고용에 문제점이 있음
5. 신조선 수주량은 84년에 비교 4배정도 증가되었으나 조선산업 인원은14%밖에 증가되지 않았음. 작업환경은 설비기계투자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된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조선 인력은 절대부족한 실정임.
6. 조선사업은 특성상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것이나 회사들의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자동화, 1인 다기능제도입으로 인해 4명이 처리해야하는 업무량을 1명이 처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요통 등 많은 산재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표준작업 준수 및 작업중지권활용등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주력함.

2. 임금현황

구 분	강남	오리엔탈 정공	대선	STX	한진중공 업	현대미포	삼호중공 업	대우조선	현대중공 업
기본급	919,048	1,180,600	1,002,628	1,162,969	1,064,260	1,126,444	1,165,027	1,364,273	1,24,063
통상수당	103,378	82,000	179,994	138,724	138,018	113,664	197,876	113,664	166,827
통상임금	1,224,868	1,307,600	1,182,622	1,301,713	1,202,279	1,277,003	1,362,903	1,477,937	1,406,890
상여금	통상700%	통상700%	통상700%	통상700%	통상600%	통상700%	통상650%	통상700%	통상700%
월할상여금	744,831	762,766	689,862	834,333	807,756	803,252	891,152	949,630	946,979
특별상여금	500,000	600,000	-	900,000	100%	700,000	700,000	1,050,000	900,000

* 위자료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수도 있음

-국내조선업체들의 임금현황은 중형과 대형사업장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도표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임금은 대형사업장이 주도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중형조선소는 통상임금이 1,238,000원정도이나 대형사업장은 1,338,000원 으로 약 100,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여금은 대동소이하게 700%를 보이고있으나, 통상임금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실제 소득은 여전히 대형사업장이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3. 노동시간

-한국조선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대형사업장과 중형사업장들의 근무시간은 주40-42시간정도로 비슷하며

-연장근로시간도 월 60시간정도로 연작업시간은 2,900여시간을 근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42시간× 52주 + 720시간(OT60시간×12월))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 산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있으며, 앞서말한 근골격계질환, 요통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험한 산재로부터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 현재 노동계에서는 주5일, 주40시간근무제를 입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의 근로조건 저하조건의 노동시간단축주장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 정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주5일제 근무를 선시행하고 후보완하겠다고 하고있으나, 금속, 섬유유통.화학등 제조업체에서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의제 2

한국조선산업의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방안

1. 총괄 현황

□ 재해자수

○ 재해자수는 17,29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60명(1.48%) 감소

- 재해율은 0.17%로서 전년 동기대비 0.01%p(5.56%) 감소

※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2002. 1/4분기 산업재해현황>

구 분	2002. 3월말	전년 동기	증 감	증감율(%)
○ 사업장수(개소)	873,948	705,343	168,605	23.90
○ 근로자수(명)	10,001,628	9,581,508	420,120	4.38
○ 재해자수(명)	17,290	17,550	- 260	- 1.48
- 업무상사고자수	15,972	16,387	- 415	- 2.53
- 업무상질병자수	1,318	1,163	155	13.33
○ 재 해 율 (%)	0.17	0.18	- 0.01	- 5.56
○ 사망자수	488	558	- 70	- 12.54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241	281	- 40	- 14.23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247	277	- 30	- 10.83
○ 사망만인율	0.49	0.58	- 0.09	- 15.52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0.24	0.29	- 0.05	- 17.24
-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0.25	0.29	- 0.04	- 13.79

□ 사망자수

○ 사망자수는 48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0명(12.54%) 감소

※ 사망만인율은 0.49로 전년 동기대비 0.09P(15.52%) 감소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24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0명(14.23%) 감소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0.24로 전년 동기대비 0.05P(17.24%) 감소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24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0명(10.83%) 감소

※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은 0.25로 전년 동기대비 0.04P(13.79%) 감소

□ 업무상질병자수

○ 업무상질병자수는 1,31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5명(13.33%)증가

※ 업무상질병 만인율은 1.32로 전년 동기대비 0.11P(9.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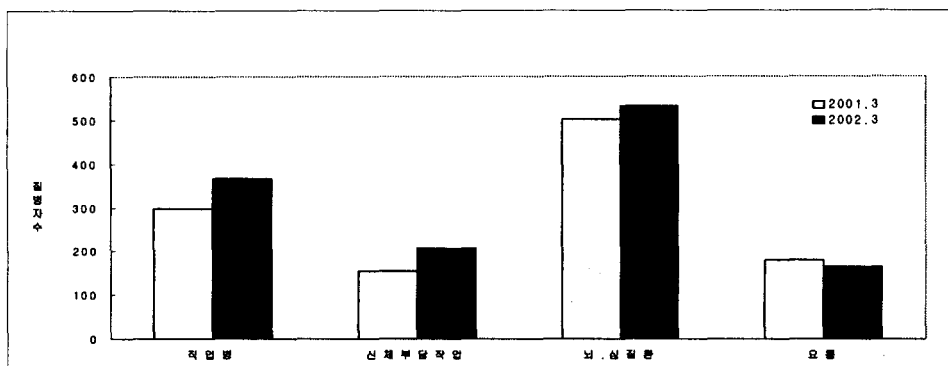
- 업무상질병 요양자수는 1,0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85명(20.88%) 증가

※ 업무상질병 요양자만인율은 1.07로서 전년 동기대비 0.12P(16.30%) 증가

○ 업무상질병중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모두 증가

- 난청, 중금속중독 등 직업병자는 36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0명(23.6%) 증가
- 작업관련성 질병자수는 95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5명(9.8%) 증가
 - 뇌·심혈관질환자(532명)는 전년 동기대비 31명(6.2%) 증가
 -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자(207명)는 전년 동기대비 52명(33.5%) 증가
 - 요통질환자(164명)는 전년 동기대비 16명(8.9%) 감소

<업무상질병자 현황>



구분		총계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유기 용제	특정 화학 물질	기타	소계	신체 부담 작업	뇌· 심 질환	요통	기타
2002 · 3월 말	계	1,318	367	252	61	2	9	11	32	951	207	532	164	48
	요양 자	1,071	275	167	61	1	8	10	28	796	207	389	164	36
	사망 자	247	92	85	0	1	1	1	4	155	0	143	0	12
2001 · 3월 말	계	1,163	297	115	119	11	12	9	31	866	155	501	180	30
	요양 자	886	192	19	119	11	12	5	26	694	155	339	180	20
	사망 자	277	105	96	0	0	0	4	5	172	0	162	0	10
증감 (증감 율)	계	155 (13.3)	70 (23.6)	137 (119.1)	-58 (-48.7)	-9 (-81.8)	-3 (-25.0)	2 (22.2)	1 (3.2)	85 (9.8)	52 (33.5)	31 (6.2)	-16 (-8.9)	18 (60.0)
	요양 자	185 (20.9)	83 (43.2)	148 (778.9)	-58 (-48.7)	-10 (-90.9)	-4 (-33.3)	5 (100.0)	2 (7.7)	102 (14.7)	52 (33.5)	50 (14.7)	-16 (-8.9)	16 (80.0)
	사망 자	-30 (-10.8)	-13 (-12.4)	-11 (-11.5)	0 (0.0)	1 (100.0)	1 (100.0)	-3 (-75.0)	-1 (-20.0)	-17 (-9.9)	0 (0.0)	-19 (-11.7)	0 (0.0)	2 (20.0)

※ 직업병의 기타 :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진동장해, 세균바이러스 등

※ 작업관련성 질병의 기타 :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등으로 인한 질환 등

2. 세부내용별 현황

□ 업종별

- 업종별 재해율은 제조업·기타산업에서는 감소, 광업·건설업은 증가
-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497명, 6.25%), 기타산업(711명, 13.48%) 등에서는 감소한 반면, 건설업(923명, 33.07%), 광업(58명, 23.58%) 등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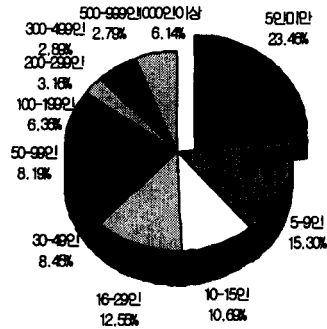
<업종별 재해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2. 3. 31			전 년 동 기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총 계	10,001,628	17,290 (488)	0.17	9,581,508	17,550 (558)	0.18	- 260 (- 70)	- 5.56
광 업	17,908	304 (87)	1.70	19,781	246 (110)	1.24	58 (- 23)	37.10
제 조 업	2,860,168	7,456 (105)	0.26	2,945,629	7,953 (122)	0.27	- 497 (- 17)	- 3.70
건 설 업	2,338,257	3,714 (116)	0.16	1,965,632	2,791 (124)	0.14	923 (- 8)	14.29
전 기 가 스 수 도 업	49,336	31 (3)	0.06	49,086	30 (1)	0.06	1 (2)	0.00
운 수 창 고 통 신 업	641,256	1,222 (40)	0.19	658,957	1,256 (44)	0.19	- 34 (- 4)	0.00
기 타 산 업	4,094,703	4,563 (137)	0.11	3,942,423	5,274 (157)	0.13	- 711 (- 20)	- 15.38

□ 규모별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0.46%(12,182명) 발생
 - 특히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23.46% (4,057명) 발생



구 모 별	재 해 자(명)	구 성 비(%)
총 계	17,290	100.00
5인미만	4,057	23.46
5-9인	2,645	15.30
10-15인	1,849	10.69
16-29인	2,170	12.55
30-49인	1,461	8.45
50-99인	1,416	8.19
100-199인	1,100	6.36
200-299인	547	3.16
300-499인	500	2.89
500-999인	483	2.79
1,000인이상	1,062	6.14

※ 2002. 3월 말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비중은 70.46%로 2001년(69.07%)에 비해 1.3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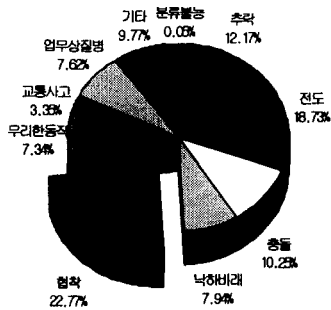
□ 발생형태별

○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등 5대 재래형 반복재해가 전체 재해의 71.86%(12,426명) 발생

- 특히 협착재해가 전체 재해의 22.77%(3,937명) 발생

※ 기타는 절단, 베임, 찢림, 고온저온, 화재폭발, 붕괴도괴, 감전, 유해화학, 빠짐, 익사, 산소결핍 등임

<자료 4>



발생형태별	재해자명	구성비(%)
총 계	17,290	100.00
추락	2,105	12.17
전도	3,239	18.73
충돌	1,772	10.25
낙하비레	1,373	7.94
협착	3,937	22.77
무리한동작	1,269	7.34
교통사고	579	3.35
업무상질병	1,318	7.62
기타	1,690	9.77
분류불능	8	0.05

일본노동조합 통합사례연구 방문 결과

▲ 일시 : 2003. 7. 16(수)

▲ 장소 : 기간노련 회의실

▲ 방문자 : 금속노련 사무처장, 교육국장, 국제부장

▲ 인터뷰 상대 : 日本 철강노련 부위원장 (기간노련 통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 히로토요 오거리

1. 기간노련(JBU) 출범 배경 - 3개 산별이 통합을 추진하게된 배경

1) 구조적 문제 해결

조합원수 감소(철강노련 경우 10년전 조합원수 25만명 → 현재 13만명으로 감소)에 따른 인력, 재정 문제에 봉착

2)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와 사회적 역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과거문제해결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개개 산별차원에서는 사회변화에 접근이 용이하지 못함. 사회문제(연금, 의료, 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3) 령고 '운동강화'에 복무

50개 이상 산별로 구성된 일본노총(령고)은 90년대 이후 조직화방침을 통해 대산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12개 산별그룹화를 목표로 두고 있음. 그동안 진척되지 못한 조직통합사업을 금속에서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함

2. 2001년 신산별 통합결의(조직통일기본방침 결정)이전

3개 연맹의 공동연대활동 내역

- IMF-JC를 통해 춘투 등에 결합하는 수준정도이며,
- 통합을 염두해 놓고 의식적으로 공동사업을 하지는 않음

3. 통합과정에서 IMF-JC와 노총의 역할

- 기간노련 결성이 랭고 강화에 기여하고 금속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랭고와 IMF-JC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함 (현재 철강노련이 랭고내에서 규모면으로 13위 → 통합 후 기간노련 8위로 부상 : 임원포스트 획득과 책임확대)
- 통합추진 3개 연맹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랭고와 IMF-JC에서 지원한 것도 없음

4. 통합조직 대상 결정

- 철강노련은 10년전부터 IMF-JC소속 전 산별이 통합하는 대금속연합을 구상함
그러나 IMF-JC내 전기전자 등 규모가 큰 산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 10년전 철강노련의 제안은 90년대 초 랭고의 '1000만 랭고 실현 조직화 방침'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철강노련의 금속대연합 구상은 IMF-JC가 금속산업의 7개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입연맹 결정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대산별 전환이 모색한 것임
- 본격적인 통합논의 출발은 4년전 비철금속노련에서 철강노련에 제안하였고, 비철금속노련의 경우 조합원 3만명 수준으로 연맹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이에 따라 4년전 철강, 비철금속노련 위원장간에 합의로 통합을 추진하였고, 철강노련에서 통합조직 대상 확대를 위해 IMF-JC 소속 산별중 전선, 조선중기, 비철, 철강 4개 연맹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전선노련은 독자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3개 산별이 통합을 추진하는 단위로 결정됨

5. 3개 산별(비철, 조선중기, 철강)의 조직규모와 통합방식

1) 조직규모 변화 추이

비철(96년)	33노조, 9본부, 조합원수 20,800명	➡	기간노련	조합원수 약 25만명
조선중기(72년)	71노조, 19본부, 조합원수 114,000명			
철강(51년)	224노조, 28본부, 조합원수 145,000명			

※ ()는 연맹 결성년도이며, 3개조직의 규모 현황은 2001년, 기간노련 규모는 2003년 자료임

- 2001년 3개 조직에서 조직통일 기본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3개조직의 총규모는 조합원수 약 26만명(328개 노조)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 2003년 통합시점에서는 기간노련은 25만명(345개 노조)의 규모로 출범함
- 조합원수가 1만명 정도 감소한 이유는 통합추진기간(2년)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임
- 기간노련은 통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상급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던 17개 기업단위 노조(조합원수 약 3천명)가 참여함

2) 통합방식

- 3개 조직이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대등한 합병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 작업위원회(각분과위원회)에 3개 조직에서 동일한 인원 파견을 목표로 함. 그러나, 상근자가 적은 비철금속노련은 사무국에는 1명을 파견함
- 단, 기간노련 출범이후 상근자 구성은 규모가 작은 비철금속노련은 철강, 조선중기의 1/2수준으로 결정함

6. 통합 준비과정 주요활동

1)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통일준비위원회 : 3조직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사무국 : 총 10명
 사무국: 철강, 조선 각 2명, 비철 1명 파견과 사무국장 1명 (통합전담업무 담당 파견활동) : 총 6명
 작업위원회 : 개별과제 구체검토, 각산별 1-2명 대표임원과 사무국 ※ 지방조직관련 지방조직대표참가
 - 각 산별 : 조직통일대책위원회 구성, 절차대응, 현본부발족준비위원회

- 통일준비위원회는 실행기관의 기능을 담당함
- 사무국은 철강노련에 설치했고, 사무국장은 철강노련 부위원장이 맡음
- 작업위원회는 규약, 재정, 핵심활동, 임원체제, 조직운영, 지방조직체제·운영요령, 공제회 등 개별과제별로 구성하여 해당분과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했으며, 월1회 결과를 통준위에 보고하고 통준위는 각 위원회에 결과심의 및 지시함

- 각 산별마다 조직통일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취급한 안전을 조직적으로 공유·확산시켜내는 기능을 담당함. 철강노련 경우 조직통일대책위 구성은 중앙집행위원과 대공장노조 대표자로 총 35명, 별도로 철강노련내에 통일대책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내부적 해결과제를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함
- 현본부발족준비위원회는 36개 지방단위별로 설치했으며, 체계와 구성은 중앙과 동일함 (중앙차원에서 년 2회 현본부발족준비위원회를 소집, 회의 개최)
- ※ 통일준비활동에 3개 연맹의 상근자 전원이 결합함 (철강 35명, 조선 30명, 비철 5명)

2) 통합추진과정에서 조직내 공감대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

- 통합추진을 위한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조직체계속에서 계획수립과 회의, 홍보활동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됨
- 대표적으로 통합조직의 명칭, 심벌마크·로고 공모사업, 각종회의활동(지방조직, 작업위원회, 대공장노조 대표자 간담회) 등

3) 통합추진 일정

기간노련의 통합 일정

2001년	각 연맹(철강,비철) 대회에서 조직통일 기본방침 결정 ※ 조선중기노련은 2002년 대회에서 통합 결의
2002년	각 연맹 대회 (통일준비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2003. 9. 8	각 연맹별 이행결의 대회
2003. 9. 9	결성대회

- 통합대의원대회(03.9.9)전날 3개 조직별로 동시에 각기 해산과 통합이행에 대한 확인절차로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함 (통합연맹 방침, 예산까지 보고)
- 통합대의원대회는 의식적인 행사이자 상징적인 의례로서의 의미를 갖음

7. 통합연맹 명칭 기본 방침

- 조합원 응모사업 (30만엔 상금)을 통해 4400건 응모했고 통준위에서 심사함
- 통준위에서는 기존조직명칭 사용을 배제할 것과 새로운 명칭 응모를 주문함
- ※ 기간노련 : 일본 기간산업의 노조가 대동단결함에 걸맞는 명칭
- 조직명칭 변화대한 조직적 반발은 없었으나 명칭 변화에 따른 아쉬움 정도 파악

8. 재정관련 사항

1) 3개연맹내 일반회계와 적립된 특별회계기금

	조합비총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누계액
비 철	1억7030만엔	엔	엔	1억2천만엔
조선중기	6억9430만엔	엔	엔	12억엔
철 강	13억 5255만엔	엔	엔	13억엔

※ 일반회계는 조합비, 특별회계는 공제회, 적립금+회관 및 부동산 등

※ 기간노련 : 3개연맹의 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완전 통합

2) 통합연맹 의무금 책정 방식

의무금 수준이 가장 낮은 조선중기노련을 기준으로 하향 평준화

1인당 510엔 + 130엔(복지상호부조기금) = 640엔으로 결정

	의무금		의무금
비 철	630엔	→	기간노련
조선중기	500~250엔		640엔
철 강	574~378엔		* 복지상호부조기금 1인당 130엔 포함된 금액

※ 통합연맹의 가맹 형태 비교

중 앙 본 부

현(縣)본부 · 현(縣)센터

중앙본부가맹

현본부 A 가맹

현본부 B 가맹

	중앙본부가맹	현본부 A 가맹	현본부 B 가맹
일반회비	510円	340円	170円
중앙본부의 기관 참가와 활동	모든 권리를 가 지며,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기관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 권은 없음 도도부현(都道府縣)을 선출모체로 한 특별대의원중앙위 원자격) 일상활동의 지원을 받아 조직활 동에 참가할 수 있다.	기관에는 방청참가할 수 있다. 일상활동의 지원을 받아 조직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부문업종별 회의	참가할 수 있음	참가할 수 없음	참가할 수 없음
공 제 회	가입	가입	가입할 수 있다.
현본부의 기관참 가와 활동	모든 권리를 가 지며,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권리를 가지며, 모든 활동 에 참가할 수 있다.	임원 피선거권의 일부 (현본부위원장·사무국장)을 제외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지방연합활동	참가한다	참가한다	원칙참가한다
조직 규모	제한없음	250名 미만조직에 한함 (운용조치)	100명 미만조직에 한함 (운용조치)
현행가맹형태와의 이미지	直가맹조합	조선: 지협가맹중앙연합조합 철강: 현본부가맹조합	비철: 현협가맹조합 조선: 지협가맹조합 鐵鋼: 읍서비가맹조합

※ 통합연맹의 공제제도

철강노련공제

조선중기노련공제회

비철연합

스케일 메리트를 살린
신산별에 모이는 노동자의 복지와 상호부조

조합원 일인당 원액 130円의 회비를 각출

신산별의 공제제도

공 제 금 부

회원사망	80만원의 조위금 (별도로 1.5만원의 獻花料)
배우자 사망	5만원의 조위금
중도장해 위문	장해등급 1~3급의 장해를 받은 때 30만원의 위문금
주택재해위문	1급 (전소·전괴) 15만원의 위문금 2급 (반소·반괴) 10만원의 위문금 3급 (일부소손·일부손괴) 5만원의 위문금

3) 의무금 납부방식

	납부방식		납부방식
비 철	중앙 납부하여 지역에 교부	➔	기간노련
조선중기	중앙 납부하여 지역에 교부		중앙 납부하여 지역에 교부
철 강	중앙 납부하여 지역에 교부		

※ 지역본부가 거출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음. 단,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데 ▲모든 가맹노조의 만장일치,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

재편된 36개 지역본부 중에서 1개 본부만이 거출금 징수 의사를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지방본부가 령고 지역본부, 지부의 의무금만을 징수하고 있음

4) 지역본부 교부금 기준

중앙연맹의 지역본부 교부금 기준은 월단위 기준으로 현본부는 기본경비+(조합원수×13엔)+(조직수×7200엔)

※ 교부금의 지급기준

	활동교부금	사무관리비	직원응원보조비		
			구분	조합수	교부금액
현본부	· 일률분 50,000円/月	20,000円/月	A	30이상	8만円/月
	· 조합수 구성조합		B	16~29	4만円/月
	· 비례부분 1단위당		C	6~15	2만円/月
	7,200円/月		D	5~ 2	1만円/月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1현 1조합의 현본부는 지급 없음			
	· 비례부분 13円/月				
현센터	· 일률분 연간 10만円	지급 없음	지급 없음		
	· 조합수 구성조합				
	· 비례부분 1단위당				
	7,200円/월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 비례부분 13円/월				

<비고> 직원응원(職員應援) 보조비의 구분의 등급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행한다

9. 조직 및 운영관련 사항

1) 통합추진시 반대조직에 대한 대처

철강노련 경우 2001년 대의원대회에서 98%가 통합추진을 결의

기존 조직의 법통 계승과 의무금 감소 등으로 인해 통합추진에 반대하는 조직은 없었으며, 불안감으로 의견 제출하는 수준정도

2) 신산별(통합연맹)의 사무소, 사무국 체계 및 구성

① 중앙조직의 사무소는 철강노련에 설치 (조선중기 임대, 비철금속 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좁음)

② 통합전후 사무국 조직체계 변화여부 : 기존 사무국체계 유지 (전문위원회)

중앙본부 사무국은 2004년 9월 단계별 목표로 중앙본부에 전임하는 21명 정도의 임원과 15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

그룹배치는 전문그룹(일상업무 추진), 업종그룹(산업별부문, 업종별부회의 활동 추진), 프로젝트팀(특정사항의 활동추진)으로 함

※ 참고자료

1. 중앙본부 사무국 (전문 그룹)

전문 그룹은 아래의 4개로 하고, 각각에 복수 팀을 구성하여 기동적으로 활동할 있도록 한다.

- 총무 그룹 (총괄팀·재정팀)
- 조직 그룹 (조직확대팀·조직팀·교육홍보팀)
- 노동정책 그룹 (기획팀·노동조건팀)
- 산업정책 그룹 (산업정책팀·정책제도팀)

더욱이, 제1기는 초기에 일체적(一体的)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무·조직 그룹과, 노동정책·산업정책 그룹을 연대시켜 활동한다.

2. 조직운영

(1) 전문위원회

① 중앙본부에 각전문그룹을 단위로 하는 아래의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여 간다.

- 총무위원회
- 조직위원회
- 노동정책위원회
- 산업정책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에는 분과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제1기는 노동정책위원회와 산업정책위원회의 아래에 부문별 분과회를 설치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수(본부 멤버 제외)를 10~20정도로 하여 중앙본부 가맹조합 중에서 업종별部會의 대표성도 고려·선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더욱이, 멤버(위원)를 억지로 끼워 넣는 일과 관계되는 것인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조직 내로 이해·침투를 도모하기 위해 총합(總合)부문 서기장회의와 충분히 연대할 것과, 구성원 이외의 기업연(企業連)·單組의 담당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전문위원회」를 배치하는 등, 운영면을 연구하여 간다.

(2)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게 한다. 설치에 당하여서는 그 때마다 위원회의 성격, 임무, 구성, 운영을 명백히 한다.

제1기는 아래의 5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의 성격 임무,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결성대회 방침 안에 명백히 해 둔다.

- 고용·합리화 대책위원회
- 조직확대추진위원회
- 정치위원회
- 정책제도위원회
- 최저임금대책위원회

(3) 산업별부문·업종별部會

① 部門·部會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강철부문) : 강철총합, 보통강, 특수강, 아로이(합금), 2차가공, 철강일반, 철강관련

(조선중기부문) : 총합중공, 조선, 기기(機器), 엔지니어링

(비철부문) : 비철총합(總合), 비철관련

(독립부문) : 정보분야, 독립조합 (어느부회에도 소속하지 아니하는 중앙본부 가맹조합)

② 산업별부문에는, 의장, 사무국장 각 1명을 둔다.

③ 업종별部會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④ 각 부문에 있어서 總合조합의 구성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한다.

또 제1기의 총합조합의 구성은 각산별과 조정(調整)한 뒤, 2003년 5월말을 목표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확인한다.

③ 통합전후 사무국 구성원(상근자) 변화

	상근자	상급단체 파견자	직원
비 철	4명	-	3명
조선중기	14명	2명 (랭고1, JC1)	7명
철 강	18명	4명 (랭고2, JC1)	7명



지역본부 편제
기간노련
21명 임원, 15명 직원

※ 통합전 3개조직 현황은 2001년자료임

3) 신산별 업종분과 위원회 구성 및 변화

산업별부문으로 비철금속, 조선부분, 철강부분 등 3개의 대표자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산업별부문회의 산하에 업종별 부회를 14개로 세분화시켜 설치하였음

10. 지역본부

1) 기간노련의 지역조직체계

통합전 3개조직 편제와 통합후 지역조직 편제

	지역본부 편제		지역본부 편제
비 철	9지방블럭본부 31도도부현 협의회 본부	➡	기간노련
조선중기	19지방협의회 9지방협의회		36개 현본부, 6개 현센터
철 강	28현본부 8현본부		

※ 일본 행정구역이 42개시도로 구분되어 있어 36개 현본부, 6개 현센터로 맞춰 구분함
36개의 縣본부, 6개의 縣센터로 구분되어 있고, 기능은 동일하며, 권리부여 역시 동일하다. 본부와 센터 구분은 조합원수 기준으로 1천명이하 조직이 현센터로 분류된다.

※ 지방조직의 구성

중
央
본
부

都道府縣	조합수	조합원수	전임인수	조합수 내역			조합원수 내역		
				비철	조선	철강	비철	조선	철강
北海道本部	26	3,851	1	6	2	18	638	312	2,901
青森縣本部	3	633		1		2	187		446
岩手縣本部	9	1,106				9			1,016
宮城縣本部	6	989		2		4	299		690
秋田縣本部	10	824		10			824		
福島縣本部	8	752		4		4	556		196
茨城縣本部	26	8,784	1	8		18	1,664		7,120
栃木縣本部	6	857		2		4	260		597
群馬縣本部	7	1,432		4		3	476		954
埼玉縣本部	10	2,063		8		2	1,788		275
千葉縣本部	48	17,911	1	1	5	42	443	241	14,227
東京都本部	51	22,153	1	12	18	21	2,624	12,776	6,709
新奈川縣本部	31	18,560	1	3	11	17	545	10,034	7,981
山梨縣本部	1	367		1			367		
長野縣本部	3	1,428			3			1,428	
新潟縣本部	10	2,011		1		9	545		1,466
富山縣本部	7	1,087		2		5	68		1,013
岐阜縣本部	6	4,420		3	3		856	3,564	
靜岡縣本部	7	1,268		4	1	2	739	315	214
愛知縣本部	49	28,315	1	1	17	31	93	12,270	15,981
三重縣本部	5	1,449		2		3	254		1,195
滋賀縣本部	4	1,469			4			1,469	
京都府本部	2	969			2			969	
大阪府本部	57	11,601	1	4	9	44	267	2,943	8,391
兵庫縣本部	102	43,834	2	4	41	57	741	23,319	19,651
和歌山縣本部	23	5,242				23			5,457
岡山縣本部	20	11,930	1	7	3	10	902	3,449	7,579
廣島縣本部	42	23,401	1	2	27	13	468	11,995	10,938
山口縣本部	29	8,815	1	2	7	20	557	1,709	6,539
香川縣本部	7	1,920		1	4	2	415	1,281	224
愛媛縣本部	11	2,819		2	9		994	1,825	
福岡縣本部	41	12,984	1	4		37	837		12,145
佐賀縣本部	2	783			2			783	
長崎縣本部	24	11,985	1		24			1,985	
熊本縣本部	1	1,287			1			1,287	
大分縣本部	18	4,229		2	2	14	558	385	3,288
							<縣本部...36都道府縣>		
山形縣센터	3	620		1		2	476		144
福井縣센터	1	32		1			32		
島根縣센터	1	11					11		
德島縣센터	2	248		1		2			248
宮기현센터	1	159		1			159		
죽아도현센터	2	119		1			119		
							<縣센터...6縣>		

2) 신산별의 가맹형태

- 3가지 방식 : ①중앙본부 가맹, ②현본부A 가맹, ③현본부B 가맹
- 총 조합원수 25만명 중에서 ①중앙본부 가맹이 일반적인 형태(조합원수 24만명), ②현본부A 가맹 형태는 6-7천명, ③현본부B 가맹 형태는 3-4천명
- ※ 연맹 중앙에서는 통합연맹으로 전환하면서 중앙본부 가맹 조직 노동조합이 현본부A 또는 현본부B로 전환하지 않도록 조직지도를 하고 있지만 일부 변동
- 가맹형태를 3가지로 분류시켜놓은 이유 : 조직확대 차원 의미

3) 가맹형태에 따른 의무금

- 가맹형태에 따라 3가지로 분류, 권리 차등 부여
- ① 중앙본부 가맹 : 510엔 - 완전한 권리 보장
- ② 현본부A 가맹 : 340엔 - 부분적인 권리보장
- ③ 현본부B 가맹 : 170엔 - 기초적인 권리 보장

4) 통합후 지역본부의 두드러진 변화

기존 3개조직의 지역본부 상근자수가 합쳐져 상근자 수가 증가한 효과를 봄(총14명)

5) 도도부현(지방본부) 임원 선출

기간노련 추진과정에서 시끌하게 선출하도록 지도함

지방조직 담당 작업위원회에서 2가지 기준 마련 → ▲현본부 임원 전형위원회 설치 (1/3이상 추천)

▲여러조직의견 모아서 결정할 것

2003. 7월(통합2개월전)까지 36개중에서 1개 조직(본부장 대행제)을 제외하고 완료

11. 대의원 및 중앙위원

1) 통합전후 대의원 배정 변화추이

비	철	250 명당 1명	총수 151명	⇒	기간노련	450 명당 1명	총수 700명 규모
조	선중기	400(?) 명당 1명	총수 385명				
철	강	400 명당 1명	총수 391명				

통합대회 대의원 규모는 700명(기준 450명당 1명배정)으로 통합대회이후 차기 대의원대회의 대의원 배정기준을 다르게 정한다는 방침을 세움 (정확한 배정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통합대회 대의원 · 특별대의원 · 중앙위원 · 특별중앙위원 할당표

회비납입인원	대의원수 특별대의 원수	중앙위원수 특별중앙위 원수	회비납부인원	대의원수 특별대의원 수	중앙위원수 특별중앙위원 수	회비납부인원	대의원수 특별대의 원수	중앙위원수 특별중앙위원 수
1~ 450	1	1	11,501~12,100	23	12	25,951~26,700	45	23
451~ 900	2	1	12,101~12,700	24	12	26,701~27,450	46	23
901~ 1,350	3	2	12,701~13,300	25	13	27,451~28,200	47	24
1,351~ 1,850	4	2	13,301~13,900	26	13	28,201~28,950	48	24
1,851~ 2,350	5	3	13,901~14,500	27	14	28,951~29,700	49	25
2,351~ 2,850	6	3	14,501~15,100	28	14	29,701~30,450	50	25
2,851~ 3,350	7	4	15,101~15,750	29	15	30,451~31,250	51	26
3,351~ 3,850	8	4	15,751~16,400	30	15	31,251~32,050	52	26
3,851~ 4,350	9	5	16,401~17,050	31	16	32,051~32,850	53	27
4,351~ 4,850	10	5	17,051~17,700	32	16	32,851~33,650	54	27
4,851~ 5,350	11	6	17,701~18,350	33	17	33,651~34,450	55	28
5,351~ 5,900	12	6	18,351~19,000	34	17	34,451~35,250	56	28
5,901~ 6,450	13	7	19,001~19,650	35	18	35,251~36,100	57	29
6,451~ 7,000	14	7	19,651~20,300	36	18	36,101~36,950	58	29
7,001~ 7,550	15	8	20,301~21,000	37	19	36,951~37,800	59	30
7,551~ 8,100	16	8	21,001~21,700	38	19	37,801~38,650	60	30
8,101~ 8,650	17	9	21,701~22,400	39	20	38,651~39,500	61	31
8,651~ 9,200	18	9	22,401~23,100	40	20	39,501~40,350	62	31
9,201~ 9,750	19	10	23,101~23,800	41	21	※ 40,351인 이상은, 900인에 1인의 대의원·특별대의원을 가산한다. 또 중앙위원·특별중앙위원수는 그 대의원의 1/2로 하며, 단수는 절상한다.		
9,751~ 10,300	20	10	23,801~24,500	42	21			
10,301~ 10,900	21	11	24,501~25,200	43	22			
10,901~ 11,500	22	11	25,201~25,950	44	22			

2) 중앙위원회 : 대의원 총수의 1/2수준으로 정함

비	철	총수 115명	⇒	기간노련	총수 350명 규모
조	선	중기			
철	강	총수 197명			

12. 임원의 수, 선출 및 체계

비	철	총수 4명	⇒	기간노련	21명
조	선	중기			
철	강	총수 18명			

- 임원의 수는 통합이후 1년간만 21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

1) 통합연맹의 임원 선출 및 체계

※ 전반적으로 기간노련 경우 임원선출에 대해서는 무리함이 없이 진행됨

- 사무국, 통준위에서는 통합조직 대표자 건에 대해 3개 조직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함

- 2002. 8월 통준위에서 임원 선출에 대한 결론 발표 :

역할분담에 대한 원칙 제시(위원장, 위원장대행, 사무처장을 각기 다른 조직에서 맡는 것으로) → 위

원장대행은 예우차원에서 마련한 것(우리나라의 수석부위원장 정도의 직책), 통합조직 1기에 한해서 과도기적 체계를 인정(임기 1년, 200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2년으로)

※ 위원장 대행은 1년 후에도 존속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없애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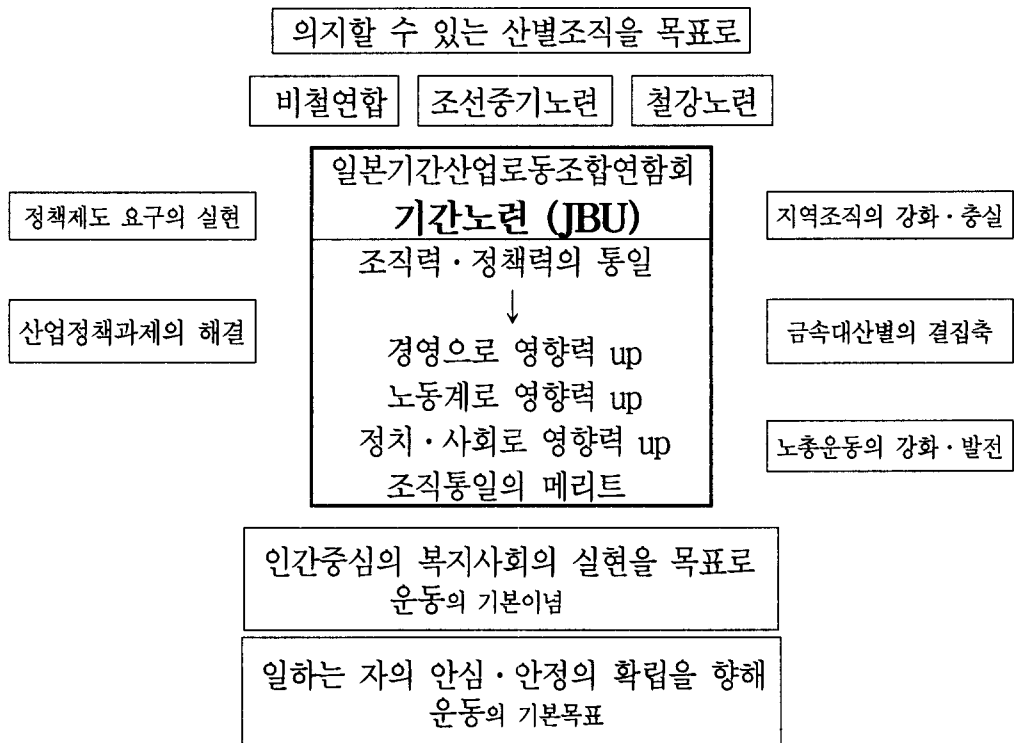
- 2002. 9월 통준위 산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

총 7차례 회의 개최, 10명으로 구성(9명 위원: 대공장노조 대표자, 1명 간사: 사무국장)

- 3개 조직별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 2003. 7월 통일준비위원회 결정 (위원장 : 철강노련 위원장, 위원장대행: 조선중기 위원장, 상근 부위원장 : 각 조직별로, 서기장: 조선중기)

13. 조직통합의 의의와 운동이념과 목표



1. 노동조합주의의 견지
자유롭고 민주적인 조직운영
2. 산업민주주의의 추구
노사협회의 충실과 적극적인 경영참가
3. 의회민주주의의 존중
사회적 합의형성을 목표로 정치활동참획
4. 우애와 연대의 사회 만들기
서로 돕는 정신과 공생의 사회 만들기
5.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
항구평화의 실현, 지구환경보호

1. 고용의 안정은 최우선 과제
2. 노동조건은 기간산업에서 일하기에
결맞는 수준을 목표로
3. 안전하며 쾌적한 직장 만들기
4. 「제품 만들기 산업」의 안정·성장을
지향한 산업정책의
5. 안심하고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6. 폭넓은 정치활동의 추진
7. 직장에 뿌리박은 조직활동의 추진
8. 중소기업의 조합과의 더 한층의 연휴강화
9.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만들기
10. 튼튼한 조직·次代리더 육성을 위한 교
육활동 추진
11. 스케일 메리트를 살린 共濟활동의 추진
12.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의 추진
13.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제활동

14. 향후 신산별(통합조직)의 추가적인 통합활동 계획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그 대상은 IMF-JC내 금속산별조직이다

추가적인 통합추진활동은 방침으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어 특별보고안에 포함되어 있다

15. 기타사항

- 심벌마크와 로고 (제작방식, 시기 등)

조합원 응모 → 포스터 제작,현장배부 → 총 2000건 응모 → 통준위 심사

- 쟁점사항 중에서 3가지를 최대과제로 설정함 : 1순위 (명칭), 2순위 (사무소), 3순위 (임원)

- 통준위, 사무국에서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철저히 토론, 단 뒷소리는 철저히 제한함

노사대책활동

● 노동쟁의사업장 현황

1. 성우오토모티브
2. 남양금속
3. 한국철강
4. 로움코리아
5. 삼양중기
6. 조선선재

노동쟁의 사업장 현황

1. 성우 오토모티브 노동쟁의

1) 사업장 개요

- 가. 대표자 : 김 중 한
- 나.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번지
- 다. 사업종류 : 제조업 (주생산품 : 자동차 부품)
- 다. 근로자수 : 436명
- 라. 조합원수 : 306명

2) 주요쟁점

- 가. 임금 12% 인상요구
- 나. 상여금 700% 단협 명시

3) 단체교섭 경위

- 2003. 3. 3. 교섭위원 명단 통보
- 3. 17. 1차 교섭요구
- 4. 1. 1차 교섭 재요구
- 4. 7. 4. 29일에 1차 교섭 재요구(내용증명 발송 및 근로감독관 방문)
- 4. 29. 제 1차 교섭, 상견례
- 5. 14. 제 2차 교섭, 노조측 요구안 설명
- 5. 21. 제 3차 교섭, 사측 경영현황 설명후 본교섭 시작 (시간을 달라)
- 5. 28. 제 4차 교섭, 시간을 달라, 5%로 제시
- 6. 4. 제 5차 교섭, 5% 고수
- 6. 11. 제 6차 교섭, 5% 고수
- 6. 13.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6. 18. 제 7차 교섭, 진전 없음
- 6. 23. 경북 지노위 조정회의 참석, 조정안 거부
- 6. 23.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실시

총조합원수 :305명, 투표인원 :289명(투표율 94.75%), 찬성
255표(88.23%)반대 31표, 무효 3표, 기권 16표 로 쟁의행위 가결

- 6. 24~ 25 부분파업 4시간 실시
- 6. 25~ 7. 1일 까지 전면 파업 실시 (파업기간중 8차에서 15차까지 교섭)
- 7. 1. 조합원 총회후 교섭 및 파업종료

4) 투쟁 결과

가. 임금 : 시급 347원 인상

나. 상여금 : 700% 명시화(1,3,5,7,9,11월 각100%, 설,추석 각50%)

2003년도는 생산격려금 100%(7월),년말 상여금 100%지급하고
추가지급은 요구하지 않는다.

2. 남양금속노동쟁의

1) 사업장 개요

가. 대표자 : 김종오

나. 소재지 : 대구 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 29번지

다. 사업종류 : 제조업(자동차 부품)

라. 근로자수 : 274명

마. 조합원수 : 200명

2) 주요 쟁점

가. 기본급 12.36%(115,259원) 정율 인상요구

나. 특작수당 20,000원 인상

다. 복지수당 15,000원 통상임금화

라. 직급수당 1직급 1만원, 2직급 1만5천원, 3직급 2만원, 반장직급 2만원

마. 상여금 600%에서 700%로

바. 휴가비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상향조정

사. 귀향비 통상임금 35%에서 50%로 상향조정

아. 가족수당 세법상 인정되는 부양가족 전원(단, 부모, 자녀)

자. 성과급 상반기 100%, 년말 200%지급(단, 휴무 토요일 생산특근 월1회작업시)

3) 단체교섭 경위

- 2003. 5. 14 단체교섭 요청공문 발송
- 5. 20. 상견례 일정 연기요청-사측
- 5. 28. 원만하고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주 2-3회 교섭요청 공문발송
- 5. 30. 상견례, 교섭진행 방법 및 일정협의
- 6. 5. 제 1차 교섭, 조합측 요구안 설명, 2차교섭 일정확정 및 3차부터 주2회 교섭 하기로 합의
- 6. 12. 제 2차 교섭, 회사측 사업환경 및 현황설명
- 6. 13. 원만하고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주2-3회 교섭요청 공문 발송
4차교섭(20일자) 요청공문 발송,사측에서 교섭위원의 긴급출장을 사유로 한 3차교섭연기(19일자)공문발송,주 2회 교섭일정 번복 및 주1회 교섭요구
- 6. 17. 주2회 교섭을 위해 5차교섭(23일자) 요청 공문 발송
- 6. 19. 제 3차 교섭, 회사측 임금 제시안 요구, 회사측 사업환경 및현황 재설명, 임금 제시안 없음.
- 6. 19. 주2회교섭을위해6차교섭(25일자)요청공문발송,사측은4차교섭(25일) 연기 및 주 1회 교섭요청 공문 발송.
- 6. 20. 제 4차 교섭, 단체협약에 의거 교섭진행, 사측은 불참
- 6. 23. 제 5차 교섭, 단체협약에 의거 교섭진행, 사측은 불참,6시그마
관련사유로 25일 교섭을 26일로 연기 요청
- 6. 25. 제 6차 교섭, 단체협약에 의거 교섭진행, 8차교섭(30일자) 요청공문 발송 사측은 불참
- 6. 26. 제 7차 교섭, 회사측 제시안 요구, 기본급 3.4%(31,700원) 제시,
나머지 사항 나머지 사항은 제시 없음. 사측 30일자 교섭 7. 1일로 연기요청 공문발송
- 7. 1. 제 8차 교섭, 회사측 제시안 요구, 추가 제시안 없음
- 7. 2. 단체교섭 결렬, 경북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7. 10. 경북 지노위 조정중지로 결정
- 7. 11.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총원 200명, 투표인원 198명, 찬성 188표(95%) 반대 7표, 무효 3표로 쟁의행위 가결.
- 7. 14. 파업출정식, 연맹, 대구노총,지역본부의장, 지역 단위노조 위원장 및 간부다수 참석하여 격려 및 지원

- 7. 14 -22일 까지 전면파업 (파업기간중 13차 까지 교섭)
- 7. 22 단체교섭 종료 및 파업 종료

4) 투쟁 결과

- 가. 기본급 8.9%(83,000원) 인상
- 나. 특작수당 10,000원 인상
- 다. 상여금 : 정기상여금 50%(O/T 15HR 포함)인상
- 라. 생산 장려금 : 통상임금 100% 지급.

3. 한국철강 노동쟁의

1) 사업장 개요

- 가. 대표자 : 김 회 봉
- 나. 소재지 : 마산공장- 마산시 월영동 321번지
창원공장- 창원시 신촌동 70번지
- 다. 사업종류 : 철강업
- 라. 근로자수 : 1,100명
- 마. 조합원수 : 872명

2) 주요쟁점

- 가. 기본시급 : 12.4%(453.4원)
- 나. 기본급 :125,591.8원
- 다. 월정액 : 1,980,226원

3) 단체교섭 경위

- 2003. 3. 19. 창,마 합동대의원대회 임금요구안 확정
마산공장 부지매각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4조3교대 근무제
- 5. 12. 제 1차 교섭, 상견례
- 5. 22. 제 2차 교섭, 노조요구안 설명, 사측 경영현황 및 전망설명
- 5. 30. 제 3차 교섭, 사측 6.2%(시급 226.7원)제시 및 차기교섭에서 새로운 대안 제시약속
- 6. 4. 제 4차 교섭, 사측 6.7%(시급 245원)제시 하고 늦어도 6월중순까지

임금협상을 끝낼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함.

- 6. 11. 제 5차 교섭, 사측 7.1%(시급 260원)제시 하고 6.18일에 협상을 끝낸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함.
- 6. 18. 제 6차 교섭, 사측 7.1%에 일시금 50만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함. 노조측은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 6. 19. 경남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6. 20. 조정위원 추천, 덴소풍성 박상열 대표이사,한국NOK이글 하준 대표이사 FAG한화 베어링 송호열 업무이사
- 6. 27. 경남 지노위 조정안 제시- 조정중지 결정
- 6. 30.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총조합원수 868명, 투표자수 851명, 기권 17명 찬성 759명(89.2%), 반대 91명, 무효 1명으로 쟁의행위 가결.
- 7. 1.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
- 7. 4. 시한부 총파업
- 7. 5. 시한부 총파업
- 7. 5.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기본급 8%인상, 격려금 인당 500,000원, 마산공장 매각위로금 인당 1,200,000원,무노동무임금은 휴무보수 대체, 파업기간중 민,형사상 문제제기 없음.
- 2003. 7. 7.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투표자수 855명, 찬성 368명(43%),반대 487명(57%)로 부결됨.
- 7. 7. 집행부 총사퇴
- 7. 22. 위원장 선거, 7대위원장 8대 위원장으로 재당선
- 7. 29. 실무합의, 잠정합의안 포함 추석선물로 15만원 현금지급,2003년말 성과급 지급 결정시 마산공장 정리로 인한 희망퇴직자 포함 지급
- 8. 5. 임금인상 잠정합의 수정안 찬반투표(투표자수 791명, 찬성368명 46.5% 반대 419명 53%, 무효 4명으로 부결됨.
- 9. 2. 임금인상 잠정합의 재수정안 찬반투표(투표자수 828명, 찬성 573명 69.2%, 반대 250명30.2%, 무효 5명으로 가결됨.
- 9. 3. 2003년 임금인상 최종합의 종료.

4) 투쟁 결과

가. 임금 : 기본급 8% 인상

나. 격려금 : 인당 500,000원

다. 마산공장 매각에 따른 위로금 : 인당 1,200,000원

라. 성과급은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4. 로움코리아노동쟁의

1) 사업장 개요

가. 대표자 : 최 회 섭

나. 소재지 : 서울공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11

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2-2

다. 사업종류: 제조업 (전자부품)

라. 근로자수 : 994명

마. 조합원수 : 741명

바. 외국자본(일본계) 기업임

2) 주요 쟁점

가. 임금인상 12% 요구

나. 성과급 지급

3) 단체교섭 경위

- 2003. 6. 4. 제 1차 교섭, 임금인상 요구안 개요설명
- 6. 12. 제 2차 교섭, 회사측 안 제시요구 및 중국투자문제 교섭
- 6. 19. 제 3차 교섭, 회사측 기본급 3%인상, 특별상여금 100%제시
- 6. 25. 제 4차 교섭, 경영현황 자료 제시요구
- 7. 3. 제 5차 교섭, 노동조합 수정안 제시요구,차기교섭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제시하겠다.
- 7. 9. 제 6차 교섭, 제무제표등 경영자료 신빙성에 대한 논란
- 7. 11. 제 7차 교섭, 교섭내용 진전없음. 교섭결렬,
- 7. 11.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7. 21. 충남지노위 조정- 조정중지로 결정
- 7. 24~25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총조합원수 741명, 투표자수 716명, 찬성 694명 (96.9%), 반대 22명, 기권 25명으로 쟁의행위 가결.
- 7. 24. 투쟁본부 투쟁준비 및 교육,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

- 7. 25. 파업출정식개최,연맹사무처장,노사대책본부장,대전본부의장,
지역대표자 참석 및 연대
- 7. 26~27 총파업 진행 및 제 8차, 9차 교섭
- 7. 28. 제 10차 교섭, 노사 합의안 도출 및 파업종료

4) 투쟁 결과

- 가. 기본급 8.7%인상 (3. 16일부터 소급, 인상분 추가분 지급일 8. 25일)
- 나. 성과급 지급
 - 지급대상 : 타결일 현재 재직자.
 - 지급율 : 400%

5. 삼양중기 노동쟁의

1) 사업장 개요

- 가. 대표자 : 이 성 수
- 나.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4번지
- 다. 사업종류 : 주물, 기계가공, 기계조립
- 라. 근로자수 : 106명
- 마. 조합원수 : 59명

2) 주요쟁점

- 가. 기본급 13%(호봉 승급분 제외, 1일4,374원, 월131,223원)
- 나. 단협- 적용범위-수습기간 중인자 및 임시직 삭제
 - 인사권- 용역전환 및 부서이동 배치시 노동조합과 합의
 - 정년 - 만 58세 도달하는날
 - 정년퇴직인원 차기년도 총원
 - 징계위원회 노사 각 5명
 - 근로시간 주40시간,주5일 근무
 - 하기휴가 6일 유급, 휴가비 50만원지급
 - 선물지급 30만원
 - 상여금 800%
 - 생산성 장려수당 월 40,000원
 - 환경공해수당 월 30,000원

-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요건 폐지, 분기별 4명에서 5명으로

- 종합건강진단 2년마다 1회

다.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원상회복

3) 단체교섭 경위

- 2003. 1. 30.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공문 발송.

- 4. 25. 제 1차 단체교섭 요구, 사측의 연기요청으로 연기

- 5. 14. 제 1차 단체교섭, 상견례 및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

- 5. 23. 제 2차 단체교섭 요구, 사측의 연기요청으로 연기.

- 5. 28. 제 2차 단체교섭, 회사측 휴일축소등 4개항 요구제시, 조합측은 교섭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일주일에 1회이상 교섭진행 요구

- 6. 5. 제 3차 단체교섭 요구, 회사측의 연기요청으로 연기

- 6. 13. 제 3차 단체교섭, 조합측은 단체협약과 합의서 일방적 파기와 관련 관련자 처벌 요구, 회사측은 원론적 노사관계 유지에 대한 설명

- 6. 19. 제 4차 단체교섭 요구, 회사측의 연기요청으로 연기

- 6. 26. 제 4차 단체교섭, 노동조합은 원만한 협상 전개를 위하여 요구안 하향수정 대성보링 주동자 2명, 회사측 주동자 1명 처벌 요구

- 7. 3. 제 5차 단체교섭, 조합측은 2개월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전혀진전이 없으므로 결렬선언

- 7. 4. 노동조합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쟁의행위 결의

- 7. 7. 확대 간부회의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쟁의행위 결의 및 찬반투표 실시요청

- 7. 16.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총원 58 명중 56 명참석, 찬성 49 명 (87.5%), 반대7명(12.5%)으로 쟁의행위 가결됨.

- 7. 16. 경기지방 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7. 24. 경기지방 노동위 조정안- 조정중지 결정.

- 8. 4~10. 준법투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전면거부

- 8. 11~24. 부분파업, 오전근무 오후파업

- 8. 28~9. 9. 전면 총파업

- 9. 9. 임단협 타결, 파업종료

4) 투쟁 결과

- 가. 조합원에 대한 분사는 시행하지 않는다.(단 유효기간 2005. 3. 30일 까지로한다)
- 나. 조합원에 대한 능률급제는 조합원 총회에 승인을 득한후 노사간 합의한다.
- 다. 대성보링 주동자 처벌건은 회사측안을 수용한다.
- 라. 임금(호봉승급분 포함 6%,일 2,000원)인상한다.
- 마. 상여금 40%인상 추석에 지급한다.
- 바. 하기휴가비 50,000원 인상
- 사. 임금인상 소급분, 상여금 40%, 하기휴가비는 다음주중 지급한다.

6. 조선선재 노동쟁의

1) 사업장 개요

- 가. 대표자 : 이 창 호
- 나.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865번지
- 다. 사업종류 : 용접봉 제조
- 라. 근로자수 : 180명
- 마. 조합원수 : 125명

2) 주요쟁점

- 가. 임금 기본급 15.11%(일급 4,044원, 월 121,312원)
- 나. 단체협약 갱신

3) 단체교섭 경위

- 2003. 6. 19. 확대간부회의 2003년 임금 요구안 심의
- 6. 20. 임시총회, 임금요구안 설명회
- 6. 23. 임금 요구안 발송
- 7. 8. 제 1차 임금교섭, 상견례, 노사 성실교섭 촉구
- 7. 9. 확대 간부회의 단협 갱신안 심의
- 7. 10. 임시총회, 단협갱신안 설명회 및 제 2차 임금교섭
- 7. 11. 김봉규 전무 경영현황 설명회
- 7. 14. 2003년 단협 갱신안 발송 및 제 3차 임단협 교섭
- 7. 16. 제 4차 임단협 교섭, 사측 임금6.83%(1,791원)제시

- 7. 18. 제 5차 임단협 교섭, 진전 없었음
- 7. 21. 제 6차 임단협 교섭, 진전 없었음
- 7. 23. 제 7차 임단협 교섭, 사측 임금9%(2,358원), 단협3.1%제시, 총12.1% 제시
- 7. 24. 확대간부회의 개최, 임단협 중간설명, 1차 회사공문 접수-노동가 방송건
- 7. 25. 제 8차 임단협 교섭, 진전 없음
- 7. 26. 임시총회 개최, 2003년 임단협 중간 설명회
- 7. 29. 경북지방 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간부 철야농성시작 1일차.
- 7. 30. 노총 포항지부 상담국장 면담, 위원장 야간조 기장급 이상회합
- 7. 31. 사무국장 남택근 본부장 면담, 임단협 관련 입장 전달, 철농 3일
- 8. 1~ 5. 하계휴가, 간부 철농은 계속, 8일차
- 8. 6. 경북 지노위 1차 조정회의 참석, 철농 9일차
- 8. 7. 노조 가정통신문 발송, 사측의 가정통신문에 대한 반박,
- 8. 8. 경북 지노위 2차 조정회의 참석, 철농 11일차
- 8. 9.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 72.3%가결, 쟁의행위 신고, 파업 1일차, 철농12일차
- 8. 11. 총파업 출정식, 파업 3일차, 철농 14일차
- 8. 12. 2차 회사공문 접수, 회사 정문 개방요청건
- 2003. 8. 13. 파업 5일차, 철농 16일차
- 8. 14. 파업 6일차, 철농 17일차
- 8. 15. 3차 회사공문 접수, 업무방해 금지요청건
- 8. 16. 4차 회사공문 접수, 불법 현수막 자진철거 요청건
- 8. 17. 파업 9일차, 철농 20일차
- 8. 18. 5차 회사공문 접수, 직장폐쇄 통보건
- 8. 19. 6차 회사공문 접수, 탈의실 폐쇄 통보건, 옥외 집회신고서 접수
- 8. 20. 7차 회사공문 접수, 공장내 주차 차량 이동요청건
- 8. 21. 8차 회사공문 접수, 회사정문 개방 요청건, 회사 정문에서 천막 설치중 내근직원과 몸싸움, 간부 이종목 직장 자택주변 항의방문
- 8. 22. 파업장소 식당 출입로로 이동, 위원장, 강학중 지부장 주관조,반장 간담회
- 8. 23. 9차 회사공문 발송, 공장내 현수막 철거요청, 옥외집회 신고서 제출

(울산 조선선재 앞), 파업 15일차, 철농 26일차

- 8. 24~26. 파업 휴전
- 8. 27. 관광차 이용 조합원 26명 현장복귀, 조합원 비상소집,
총파업투쟁승리 결의각서 작성(65명)
- 8. 28. 관광차 이용 조합원 현장투입 정문봉쇄, 제 9차 임단협교섭
-진전없음, 10차 회사공문접수, 조업복귀 요청건 및 임단협
협상요청
- 8. 29. 제 10차 임단협 교섭- 임금9%,단협3.1% 고수(사측)
- 8. 30~31. 간부 8명 부산출장- 이탈 조합원 설득차
- 9. 1 제 11차 임단협 교섭- 진전없음, 파업 24일차, 철농 35일차
- 9. 2 제 12차 임단협 교섭- 진전없음, 연맹 노사대책본부장 사측과
대화시도
- 9. 3 김홍용 본부장,강학중 지부장 회사 김봉규 전무와 대화.
- 9. 5 김홍용 본부장,강학중 지부장 회사 김봉규 전무와 대화 통해
의견접근 제 13차 임단협 교섭, 사측 임금9%+500원+노사화합
격려금20만원, 단협3.1%제시, 노조측 사측안 수용으로 타결,파업
29일,철농38일 종료

4) 투쟁결과

- 가. 2003년도 임금인상 : 기본급 대비 9% 정액인상(2,360원)
- 나. 단체협약 개정안 : 별첨
- 다. 기타 : 일급 500원 인상(2003년 9월분부터)

법 규 활 동

1. 법률학교 개설
2. 질의회시

1. 법률학교 개설

1. 어떠한 목적에서 개설하는가

- 우리는 싫든 좋든 법의 지배와 법의 활용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 노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 수많은 법률 앞에 직면하는데 법적 대응에 대한 실무 능력을 높여 노동조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따라서 핵심 노동관계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권장하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에 목적을 둔다.

2. 어떻게 개설 되는가

- 때 : 2004. 2. 11(수)~13(금) / 2박3일
- 장소 : 한국 노동교육원 (경기도 광주 소재 / 약도 참조)
- 참석대상 : 각 지역본부, 단위노조 상근자 및 법규 담당 간부
- 인원 : 70명 (선착순으로 마감)
- 참가비 : 1인당 35,000원 (당일 교육장으로 접수)

3. 법률학교의 운영은

- 제 1강 : 노동법의 원리와 체계에 대하여 한국노동교육원 윤강희 교수 강의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노동법과 판례를 대하는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동법의 탄생, 제정, 개정의 역사 속에 드러난 노동자들의 투쟁정신과 의미를 새기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과 개별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등 노동법을 구성하는 여러 법률체계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 제 2강 : 개별적 노사관계법 I 은 한국노동교육원 이공희 노무사 강의를 통해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 퇴직금)에 대한 정의와 계산방법, 그리고 노동시간, 휴일, 휴게,휴가에 대한 정의와 권리주장에 대해 공부합니다.
- 제 3강 : 개별적 노사관계법 II 에서는 한국노동교육원 김영호 노무사 강의를 통해 근

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와 노사관계에서 적용되는 각종규범(헌법, 국제노동법규, 노동관련 특별법,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들의 적용순서와 효력에 대해 공부하며, 근로기준법의 원칙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해고등 불이익 처분과 인사이동에 맞선 대응과 이와 관련 노동사건 구제절차(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판례, 행정해석 등의 자료찾기와 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제 4강 : 집단적 노사관계법 I에서는 한국노동교육원 최영우 교수 강의로 노조설립절차, 운영원칙등에 대해 정리하고 복수노조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법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 5강 : 집단적 노사관계법 II에서는 한울 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 강의를 통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대한 조항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 단체교섭의 방식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단체협약의 성립과 내용, 효력과 구속력 그리고 유효기간, 단체교섭의 회피, 해태에 대한 대응등 단체교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요건,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사용자의 손배청구, 직장폐쇄, 대체근로, 도급행위에 맞선 대응등 단체행동의 모든 것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제 6강 : 법률상담 사례 소개

수년에 걸쳐 한국노총 법률구조본부에서 법률상담 및 지원활동중인 정숙희 상담국장의 강의를 통해 주요사례를 소개 하므로써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처리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7강 :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절차 /민사,행정소송 절차에 대하여 연맹 자문변호사인 정경모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절차를 알아보고 노동사무소 진정절차, 고소고발의 절차 및 근로감독관의 입건과 송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절차 및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 이와 같은 강의 외에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모의참여 법정을 열어 공통의 주제 및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4. 법률학교 참가 교수진

- 변호사 정경모 우리노련 자문변호사
- 교수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법률교수
- 공인노무사 이공희 한국노동교육원 노조 지부장
- 공인노무사 김영호 한국노동교육원
- 소장 하종강 한울 노동문제연구소
- 상담국장 정숙희 한국노총 법률구조본부
- 교수 윤강희 한국노동교육원 법률교수

5.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 일자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07:00	모이자! 교육장으로	맛있는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강의3】 개별적 노사관계법Ⅱ 노동교육원 김영호 노무사	【강의7】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민사 행정소송절차와 방법 연맹 자문변호사 정경모	
10:00		【강의4】 집단적 노사관계법Ⅰ 노동교육원 최영우 교수		
11:00			종강식	
12:00	등록 및 중식	즐거운 점심식사	점심식사 후 가자! 현장으로	
13:00	안내 및 개강식			
14:00	【강의1】 노동법의 원리와 체계 노동교육원 윤강희 교수	【강의5】 노동법을 상담 사례사례 한국노총 정숙희 법률국장		
15:00	【강의2】 개별적 노사관계법Ⅰ 노동교육원 이공희 노무사	【강의6】 집단적 노사관계법Ⅱ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		
16:00				
17:00				
18:00	신나는 저녁식사			
19: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와 토론	【다함께 교육】 모의참여법정		
20:00				
21:00		단결의 밤		
22:00				

6. 교육장 찾아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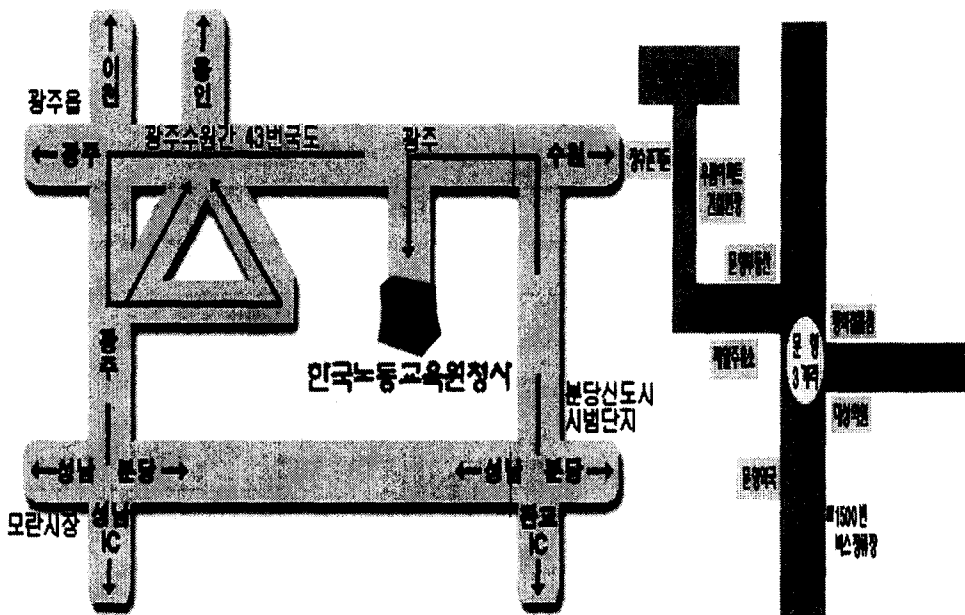
● 한국노동교육원 찾아오시는 길 (☎031.760-7786) 약도

승용차이용시

☞경부(판교IC)▷분당서천사거리▷열병합발전소▷능골삼거리좌회전▷문형3거리▷좌회전2.4km

☞중부(경안IC)▷수원방면 43번국도▷문형3거리▷좌회전2.4km

☞영동(용인IC)▷광주방면45번국도▷외대용인캠퍼스앞4거리좌회전▷문형3거리▷좌회전2.4km



7. 교육신청 양식 : 2월 7일(금)까지 선착순 50명 모집

※ 교육참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원활한 진행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참가자들은 정확한 시간(오전까지 교육장 집결)을 엄수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기간 중에 퇴소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바랍니다. 만약, 중도 퇴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 다음 교육기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질의회시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

정경모 변호사님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역을 맡아 주신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코너가 신설 되어 있지만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 이지만 앞으로 이 공간이 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유익한 공간 이 되기를 희망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1) 산재환자의 경우 산재기간 중 퇴직금 중간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기산일이 언제 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99년 7월 21일 산재가 발생하여 2001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2001년 2월 28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산재발생 전월 3개월인지, 아니면 퇴직금 중간 정산일 기준 (2001년 2월 28일 이전) 3개월인지 조언을 당부합니다.

2)참조: 근기법 시행령 제5조 1항에는 동일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부상 또는 질병 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을경우 그 변동비율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4항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노동조합에 서는 시행령 5조 4항에 근거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2조 4호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공개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첫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늦어도 3일안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퇴직금 중간 정산일(2002.2.28)기준 3개월이 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일 3개월간에 산재기간이 있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① 4)따라서 2001. 1. 10.을 업무에 복귀한 날짜로 본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2월 한 달과, 업무에 복귀한 날 이후인 2001. 1. 11~2001. 1. 31.과 재해당시를 역으로 계산하여 1999. 7. 11.~1999. 7. 20.을 다시 한달로 계산하고, 그 전달인 1999. 6. 11.~1999. 7. 10까지를 나머지 한달로 계산하여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에 해당 3개월의 일수를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다시 재직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단, 산출된 금액이 당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②)참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평균임금조정은 보상금과 관련된 사안으로 퇴직금 산정과 무관합니다.

질의 :상급단체의 파업결의로 파업시 정당성

상급단체의 파업결의로 단위노조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하여 파업에들어갔다면 이것은 위법인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상급단체의 파업결의로 파업시 정당성

상급단체의 파업결의로 단위노조에서 파업을 하는 경우 파업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만일 상급단체의 파업결의가 그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따른 단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상급단체의 파업결의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파업이거나, 일부 노조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요구 조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정파업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질의 : 근로격계질환 산재인정여부

여성조합원으로 현장 근무경력이 현재13년차입니다 지금 몸상태는 병원진단으로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며 당장이라도 수술을하고 요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 근무조건은 주야간 맞교대이며 하루 종일 서서 리벳팅을하는 소형 프레스입니다.요즘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저와 유사한 질환으로 산재로 인정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산재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근골격계질환 산재인정여부

근골격계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사관이 이를 조사하고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요양등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의 : 잔업,특근 동의서 강요로 시간외 근무 못함

작년임단협이후,회사는 주임급사원이하조합원에게 잔업,특근동의서작성을요구하고,작성을 거부한조합원에게는 잔업특근을 시키지않고,계약직사원을채용해 동의서를작성한사원과,계약직사원에게만 일을하게하고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사외교육을 실시하면서, 업무시간 이후교육에 대해서 조합원에게도 잔업을 인정하고, 회사내생산에서는 인정하지않고있는데 벌써6개월이됐습니다.회사에서하고있는 행동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잔업,특근 동의서 강요로 시간외 근무 못함

질의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하겠습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주임급사원 이하 조합원에게 그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동의서를 받은 근로자에 한해서 잔업근무를 시키는 것 또 한 적법한 것입니다.

② 회사에서의 근로시간이외의 사외교육이 업무로서 성격을 갖는 경우 시간외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동의를 얻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시킬 수 있으므로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 : 조합원의 자격

저회회사는 처음으로 노조가설립되 단협을하는와중에 발생되었습니다
처음가입당시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가 가입했는데 단협을하는도중에 몇몇의 회유로 전원 탈퇴를 한다고 하는데 막을방법은 없는지요.회사는 본인이 탈퇴서를 써서 조합에 제출만 하면 막을수 없이 자동 탈퇴가 된다고 하고 조합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조합원의 자격

귀 노동조합의 설립을 축하드리고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명확치 않으나 본 변호사가 이해한 바로는 단협 도중에 노조에 기 가입한 사무직 조합원이 회사의 회유로 전원 탈퇴를 하려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0 기능직 근로자이건 사무직 근로자이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중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에서 제외됩니다.

0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무직 근로자가 회사의 회유 및 협박 등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못하거나 탈퇴 할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관할지 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를 고소,고발하여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따라서 귀하는 회사가 회유나 협박 등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을 막고 탈퇴를 종용한 것을 이유로 관할지 노동관서에 고소,고발을 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이건의 경우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련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의 조합원자격이 될 수 없는자 범위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미

. 채용, 인사,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제공에 관하여 지휘, 명령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와

- 노조법상의 사용자 의미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미 외에 비서, 전용운전수, 근로자에 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의 감시, 순찰 등을 담당하는 경비직, 청원경찰 등을 의미함.

질의 : 포괄적 임금체계에서의 연월차 수당

저는 금년 1월말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제가 다니던 회사는 10년이 넘도록 미사용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한번도 지급하여 본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계속 감원하는 상태였음)이의 제기를 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연봉제 실시 시 연봉은 실시 전인 2001년 03월 임금을 기준으로 1년치를 계산한 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연봉제 실시 이전 임금에도 연월차수당은 없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봉제에도 연월차는 당연히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포괄적 임금체계에서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고 있으며, 연봉제 실시 이전인 2000년도분만 지급하겠다고 하며, 통상임금도 현재 기준이 아닌 연봉제 실시 이전으로 회귀하여 예전 급여 기준으로 지급 하겠다고 하고 있음. 또한 노동부는 처음에는 회사가 3년치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결정을 못하겠다는 애매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

1. 포괄적임금체계이면 무조건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것인지?
2. 노동부에서는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준 시점은 퇴사일이 아닌 임금지급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3.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연월차수당은 3년치인지 아니면 91년도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전부 다, 즉, 10년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4. 현재도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통상임금은 매월 받았던 금액인지? 아니면 연봉제 실시 이전인 2000년 3월 임금으로 하는 것인지?

5. 조합원의 미사용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를 지급하고 있으나 비조합원은 지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자 1배만을 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각기 다른 룰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5배, 본인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1배를 주도록 되어 있음)

답변 : 포괄적 임금체계에서의 연월차 수당

귀하의 질의에 사정상 다소 늦은 점 양해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포괄적임금체계이면 무조건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 대법원 99다2881 판례에 의하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시(대판95나5506)하고 있습니다. 그 무효라는 궁극적인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연·월차휴가권의 매수예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이 정하고 있는 연·월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임금약정은 이를 포함시킨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노동부에서는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준 시점은 퇴사일이 아닌 임금지급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 노동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노동부답변에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므로, 예컨대 연월차수당이나 상여금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퇴직금에 관하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민법 제157조) 진행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한 기준 시점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고, 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연월차수당은 3년 치인지 아니면 91년도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전부 다, 즉, 10년 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 연월차수당도 연월차수당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로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단기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의 사정상 감원하는 상태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3.1월 전부터 역산한 3년분에 한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도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통상임금은 매월 받았던 금액인지? 아니면 연봉제 실시 이전인 2000년 3월 임금으로 하는 것인지?

[답] 연봉계약직원의 통상임금은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노사간에 임금협정을 하는데 노사간의 임금협정이 우위에 있다고 하나 귀사의 경우는 연봉제도입시점에서부터 현재일까지 합의한 사항이나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연봉제를 임금삭감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이를 막을 법적 제제수단은 없으며 법규상 최저임금액 이상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당사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의 적용은 합의내용에 따라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고, 누락된 것이 있으면 산입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귀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조합원의 미사용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를 지급하고 있으나 비조합원은 지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자 1배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각기 다른 룰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5배, 본인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1배를 주도록 되어 있음)

[답] 귀하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차등 없이 당연히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받아야 하므로 미지급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 노동조합 합병에 대하여

법인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가능하다면 절차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전에는 하나의 회사였는데 한곳의 사업부가 법인분리(분사)되면서 노동조합 또한 분사된 사업장에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지금에와서는 두개의 노동조합이 합병을 원합니다.

질의 : 노동조합 합병에 대하여

합병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조직현상을 말한다.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기업의 합병에 의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합병의 절차는 기존노동조합을 해산한 다음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거나(신설합병),

또는 일방의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그 조합원을 타방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흡수합병)이 있다. 노동조합의 합병에는 구 조합과 신 조합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신설합병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조합의 재산이나 단체협약은 포괄적으로 신 조합에 승계됩니다.

절차는 외부적으로는 두 조합간의 합병계약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합병계약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 : 퇴직금 관련

저희는 고정급없이 영업사원이 벌어오는 수익의 몇%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나눠먹기식의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영업사원이 몇명있습니다.

이경우 고정급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고용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으나, 근기법 34조에 의거 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퇴직금은 근로하는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의 개념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수익의 본인분)에서 일부를 적립한 후(10%정도) 1년뒤 퇴직금 중간정산방식의 개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범위반이 아닌지요? 즉 다시 말해 적립금이 아닌 퇴직금의 명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퇴직금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자,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있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귀사의 일부사원에 대하여 고정급 없이 영업사원이 벌어오는 수익의 몇%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나눠 먹기식의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에 따라 정상적인 근로계약절차를 거쳐 고정급 없이 성과급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대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제도인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 전 계속 근로중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는 규정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고정급 없이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근기법 제34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성과급(수익의 본인분) 중 10% 적립금이 아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중간정산방식이든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질의 : 노동조합 합병 추가문의

노동조합 합병건에 관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현재 두개의 회사는 다른 법인이고 회사합병없이 두개의 노동조합만이 통합하려고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각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을 한후 단체협약체결은 어떻게 진행해야합니까?

답변 : 노동조합 합병 추가문의

추가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입니다.

현재 두개의 회사는 다른 법인이고 회사합병 없이 두개의 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조정하여 규약 및 정관 등을 개정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통합한다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2개의 법인이 되고 노동조합은 1개로 통합되게 됩니다.이 경우 기존의 각 단체협약의 기간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합병 후 사용자가 2개의 법인이 되어 단체협약 체결에 절차상, 내용상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급단체가 아닌 한 노동조합의 실익 상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체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각 법인과 각각 체결을 하면 되므로, 합병전의 단체협약 체결 절차와 비교하여 차이는 없습니다.

질의 : 단협과 근기법의 효력우선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은 단체협약 개정시에 "회사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2007.1.1이후)"조항을 법적 유예기간이 끝나도 "회사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단협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것 인지요.. 현행법대로라면 2007.1.1일부터는 지급금지가 되는지라.. 그때가서 법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단체협약이 우선합니까?

답변 : 단협과 근기법의 효력우선에 관하여

현행법체계상 단체협약(단협)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사관계법)이 상충될 경우 단협은 노사관계법보다 하위법에 해당되어 노사관계법이 우선시 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단협 개정시에 "회사인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하는 조건 등" 으로 할 경우 법적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07. 1. 1.부터는 "노사관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는 부당노동행위뿐만이 아니라 법체계상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귀 노조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과 법정관리

본인은 퇴직금 중간 정산확정자이고 지급시기가 2003년 1월이었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시기를 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결국 1차 부도가 났습니다. 법정관리로 될 경우에 퇴직금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청산절차로 파산될 경우에 퇴직금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 퇴직금이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과 법정관리

[질의] 법정관리로 될 경우에 퇴직금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정리절차는 사안이 방대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납비용, 인지비용, 변호사등의 선임비용, 종업원의 급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재건하기 위하여는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지급일에 전액의 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금의 확보를 우선하여 법정관리신청을 하나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법정관리상태에서도 공익채권으로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 또 청산절차로 파산될 경우에 퇴직금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청산절차로 파산되더라도 회사의 총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절차에 배당신청을 하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그 이상의 퇴직금은 후순위 권리와 경합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법정퇴직금이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법정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및~~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소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 관행적으로 해오던 야간근로 거부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야간근로를 근로기준법 원칙에 의하여 정상근무 8시간만 하겠다고 사측에 통보를 한다면 이는 노조가 불법 단체성에 적용 되는지요?

답변 : 관행적으로 해오던 야간근로 거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연장근로의 대상자인 개별근로자 개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개별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이 단순히 관행적으로 야간근로를 해온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불법도 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장에 연장근로를 그만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지혜롭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통상임금에 관하여

저희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교통비:145,000원 식대:100,000원(직원 개개인 사외 식당 이용) 을 직책과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급여와 지급되어 왔습니다.245,000원이 통상임금에 산정되어 야간근로 시간 계산에 산계가 되어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과 대법판례의 차이점과 기준이 서로 다른점에 따라 임금체불보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 통상임금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식대, 교통비 등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 통상임금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대법원 판례 1996.5.10.선고 대판95다2227). 따라서 귀사에서 지급하여 온 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출시 적용되어 이에 따른 계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체불된 임금으로 지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 희망퇴직 위로금

희망퇴직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였 습니다.어렵다 하여 썼 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 법정 관리 신고를 하고 정리채권이라 합니다.세금은 2002.12말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에 의뢰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 희망퇴직 위로금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제가 이해한 바대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귀하는 지금 희망퇴직을 한 후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미루던 중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법정관리기업이 되어 귀하가 회사에 대해 받을 퇴직금 등의 채권이 정리채권이 되었는데 어떻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귀하가 다니던 회사가 법정관리기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회사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다른 정리채권자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기위해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전에 관할노동부 사무소를 통하여 미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므로써 후일 판결을 받은 후의 집행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 연월차 수당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대에 다니는 행정조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번에 저희 대학의 정직원들에게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연월차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직원들이 파업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파업하는 동안의 행정은 모두 행정조교가 하다시피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은 이 학교에 4년가까이 다니면서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단지 조교라는 것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직원들만 연월차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저또한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동안 일하고 임기가 끝나면 더 연장하여 일 하고 싶다는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비정규직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요?

답변 : 연월차 수당에 관해서

질문하신 분과 같이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보호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현실에서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 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은 의문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계약당사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국가적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 공장 가동중단에 대하여

30년간 전자부품만을 제조 판매하여 국내1,2공장(약1000명)과 중국 천진1,2공장을 운영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몇칠전 사장은 느닷없이 노조사무실에 와서 국내공장(1,2공장)을 폐쇄시키겠다 라고 한후 각종 회의나 교육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사장은 그자리에서 국내 1,2공장 폐쇄에 따른 법적검토를 거친 후 정식공문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근기법에 명시된 경영상이유로인한 해고 혹은 휴직등에 관해 검토를 하기위한 수순일 것이라 생각 듭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만약 현행법과 단체협약이 동일안건을 가지고 서로 상이할때는 어디 쪽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하는지요?

2.현재로서는 노,사의 원만한 타협을 이끌수없는 사안을 가지고 회사는 협상을 하자고 할 텐데 (가령1,2공장중 한곳만이라도 닫자)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물론 단협,및 노동법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3.회사사장이 이처럼 국내공장이동중단 설비해외공장이전등으로 노,사대립의 사업장이 있

있을텐데 알고계신대로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 공장가동 중단에 대하여

귀하의 질문은 최근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가 문제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서로 입장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현행법과 단체협약이 서로 상이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불리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대처방안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자체는 현행 노동관계법상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숨은 의도가 정리해고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정리해고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회사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급노동조합단체(한국노총, 민노총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입니다.

3. 유사사례

구체적인 사업자 명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2년 성남에 소재한 회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그 당시 관할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회사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자체는 노동위원회의 관할 업무가 아니나, 다만 근로자의 임금, 복지, 후생, 해고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위 사건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시각을 달리하여 국내 공장은 폐쇄하되 이 경우 국내 근로자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공장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복지, 임금, 후생 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를 하였고 결국 사용자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 및 해결방법은 위 사례와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 권고퇴직에 대하여

권고퇴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권고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권고퇴직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권고퇴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권고퇴직(명예퇴직)이란 정년이전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사원퇴직제도로써 회사의 구조조정 및 불황극복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취급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 의사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한뒤 이를 수령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귀하께서 부당한 해고라 느끼신다면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을 거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질의] 권고퇴직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인 퇴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상당량의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근로소득세보다는 낮습니다. 10년 근속기준에 3%정도가 됩니다.

질의 :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현재 연장근로 계산시 계산방법에대하여질문을 드립니다

계산시 월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해야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240시간으로 계산되어져 수정을 요구하여 그 동안의 손실분 임금추가 지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3년동안 연장근로에 대하여 전 근로자모두에 대한 모든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예) 일 기본급 (30,000) 수당(2,000)

32,000원 통상임금 지급대상자가 월 240시간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금액이 시간당 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월 226시간으로 계산하면6,372원이됩니다 차액분 시간당 372원에대한 변제분 3년치에 대한 보상분 말입니다 빠른시간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정근로 시간에 대하여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인 월 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3년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산 임금에 50%를 가산하게 되므로 $32000/8\text{시간}=4000\text{원}$ 이 되고,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600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금액이 월기준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시간을 길게 책정한 것이고,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다시 한번 회사의 규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 산재 처리후 회사와 합의금

회사에서 손해배상액을 서면으로 청구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일하다 허리를다쳐 디스크4-5번 3-4번 허리디스크 환자입니다 수술을받았구요.산재 후 장애등급 12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한것도 아니고 100kg이 넘는 보호 필름을 들다 다쳤는데

저의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얼마를 청구 해야하는지요.

산재환자라서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내보아도 연락이 없습니다. 1년동안치료받으면서 별 호전도 없습니다.어떡해 해야하나요?

답변 : 산재 처리후 회사와 합의금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장애등급 12급)로 귀하의 평균임금 154일분을 지급받을 수있고, 휴업기간중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 산재사고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는 귀하가 입은 장애율에 따라 산정된 피해금원을 계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금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원을 청구할 것인지는 귀하의 직업, 소득, 생년월일, 사고연월일,가족관계, 사고경위, 장애율 정도등을 알아야 가능합니다.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추가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근로계약서 1년마다 쓰는이유

저는 한 회사에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저회회사는 약2-3년전 부터 임금인상이 끝나면(1년에 한번임금인상을 함)근로계약을 1
년으로 쓰는데 (인상된시급으로) 쓸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비정규직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어요.다들 쓰니까 별 문제의식을 못느끼고 있지만
혹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요??

답변 : 근로 계약서 1년마다 쓰는 이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
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와 같은 조항을 둔 취지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이상 장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근로를 유발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것이고,
회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귀하를 비정규직으로 처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 : 구정 휴일 문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구정휴일과 격주휴무일이 중복되는 상태에서 단협상 익일 휴무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하루를 더 휴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없고 유권해석상
이와같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질의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의 경우 전체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중단시킨 경우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이 없습니다.휴일근로를 위원장 직권으로 거부한 경우는 우리 대법원이 "근로자들이 자신
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업무
병해퇴가 성립된다"와 같은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사
의 경우 "단체협약상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으
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노사합의가 없는 것을 이유로한 집단적 휴일근로 거부는 업무방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 회사측의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용해부서의 근무하는 작업반장인 김모씨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권고로 수년간 해오던 작업반장직을 못하고 반대로 작업반장 밑에서 반장직책을 달고 평사원일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원래 작업반장이란 회사에서는 승진심사를 거쳐 사장이 임명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부서팀장이 작업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들어 하루아침에 반장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회사측의 변칙적인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1항을 들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권및 생활권을 함부로 하지말고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회사에서 변칙적으로 시행한 인사권이 정당한지 변호사님의 명확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 회사측의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작업반장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평사원 일을 하게 하는것은 업무내용을 바꾸는 전직(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전직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해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만일 단협상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개략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인사조치의 경우 이와 같은 절차없이 취해진 것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 통상임금 관련

평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에 추석, 구정에 각각 귀향여비 명목으로

통상임금 50%, 하계휴가시 휴가비 명목으로 정액 1인/400,000원, 11월에 월동비 명목으로 통상임금 20%를 전직원에게 매년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년 10월 23일 선고 2003다40859)판례에 비추어보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통상임금 관련

우리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 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석, 설, 한계휴가비, 겨울월동비는 매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 : 연월차 수당지급에 관하여

저희 회사는 1998년분 부터 회사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년,월차수당을 회사에 반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2003년분부터 발생하는 잔여 년,월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부분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나 한가지 궁금한 점은 사측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법률적 해석된 내용을 제시하며 노조 전임자의 년,월차 수당은 지급사유가 아니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저희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완전전임이 아니라

한달에 일정한 기간을 단체협약에 정하여 조합업무활동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전임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말대로 전임자처우와 동등하게 처리할 수있냐는점이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3항 조합위원장 또는 조합간부는 합계 월 21일간의 조합업무 전임 및 조합간부에 한하여 전임 3일 추가 위와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연월차 수당 지급에 대하여

전임 노조간부로 일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 아래 있지 않으며 일종의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임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분 전임 노조간부는 "해당사업장 일반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에 대해 해당전임간부의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

정된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근로자가 100% 출근하였을때 받는 휴가일수가 12일이고, 일반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가 280일, 해당전 임간부의 총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라면 약 8일이 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180일을 280일로나누어 12를 곱하면 약 7.68일이 됩니다) 귀하가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9조 3항을 기재한 내용은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위 계산방법을 참조하여 회사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 노조 규약에 관하여

저희 회사는 000년 조합원의 탈퇴로 노동조합이 와해된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음모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사무장,부위원장 3명만으로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노조비를 받으며 지금까지 유지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의 요구로 인하여 노동조합을 부활시키고자 가입원서를 받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예전 3명이 노조원으로 있을때 새로만든 노조규약의 효력은?

규약 개정은 조합원의 2/3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3명중 2명의 찬성으로 만든 규약은 결정족수를 충족하나요

2) 노조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규약내용중에 규약을 변경할수 없다(2004년 8월까지)는 조항이 있는데 그조항은 합법한가요 . 지금 당장 대의원의 2/3 찬성으로 개정할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 노조규약에 관하여

질문 1)에 대한 답변 : 새로 만든 규약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 2004년 8월 까지 규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님)으로 그 조항을 변경할 수 있으니, 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휴직자 경영 성과급에 대하여

항상노동자의권익을 대변하시는 변호사님께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질문할 내용은 2003년도 경영 성과에 대하여 12월 노,사협의를 통하여 상여금 기준 100%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급일은 12월16일입니다 저희회사상여금기준은6개월이상근무자가 100%인데,한휴직자가 개인적인 신병으로 인하여 10월 중순 휴직하여 2004년도 1월2일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성과급 지급시점에 복직이 되지않았고 2004년도에 복직이되어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9개월 이상 근무한것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 노,사협의시 휴직자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우리가 정기적인 상여금은 휴직자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 휴직자 경영 성과급에 대하여

귀하 회사의 2003년도 경영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근무자(2003년도 근무일수가 6개월 이상인자)에게 100%를 지급하는 것이고, 달리 경영성과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직자의 경우라도 2003년도 근무일수가 6월이상인한 2003년도 경영성과급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직자에게 10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 평균임금 산정 및 적용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매출물량 증가로 휴일생산작업을 위해 9차례에 걸쳐 생산작업을 휴무토요일에 실시하여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출근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되어온 금액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우리 회사 단체협약에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으며 조합원이 퇴직하였을때와 중간정산신청시,상여금,연월차수당,기타 지급한 모든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도 되어있으며,단체협약제54조에도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그 구성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기타 임시지급의 금액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회사에서는 지급까지 평균임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성과급,장려금,격려금 등)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 해 왔으며,생산작업과 관계 없이 명절기간중에 1일근무한 자에 대하여 2만원씩 지급해온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생산작업과 관계없이 지급해온 명절근무자에 2만원씩 지급한 부분을 들어 똑같이 수고비로 보아야한다라고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생산작업을 하지 않고,일부 작업자에게 수고비로 명절에 지급된

2만원과,휴무토요일에 거의 대부분 출근하여 생산작업을 하고 지급된 5만원을 달리 해석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해달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매출량증가로 생산작업을 위해 휴무토요일에도 출근하여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출근한 자에게 노동력의 댓가로 1인당 5만원씩 9차례에 걸쳐 지급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 평균임금 산정 및 적용

우리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회사가 휴무토요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외에 1인당 5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 제54조에 규정된 "기타 임시지급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금원은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 근무시간 적용에 관하여

부서업무의 특성상 2교대근무를 하고있고 지원부서라 특근이 자주 있습니다 말씀드릴 질문은 일요일 아침부터 24시간 특근근무를 하였고 월요일 아침 퇴근을 하였습니다 특근근무는 정상적으로 시간을 적용받았고 월요일은14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하여 근무협약에 따라 익일 유급휴일입니다 주간근무자 같으면 월요일 유급휴가를 하고화요일 아침에정상적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나 낮시간은 휴식을 취하나 월요일부터 2교대 당번이라 저녁근무를 들어가는데 월요일 근무는 저녁 정상출근으로이루어 지기때문에 낮에유급휴일분은 휴무대신 금전으로 8시간분을 지급받습니다 질의 내용은 월요일 2교대 근무만큼은 특근이되어야 하지않나 해서 질의하오니 내용을 이해 하시리라 믿고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 근무시간 적용에 관하여

귀하는 귀하의 회사의 근무협약에 따를때 14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는 경우 익일 유급

휴일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간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 유급휴가를 얻으므로 월요일 저녁근무자의 경우 휴무대신에 8시간분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바로 저녁근무를 하는데 대하여 특근처리를 하여 주는 것이 옳지 않은지 질문해 오셨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나 여러가지 이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처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사의 근무협약이 14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익일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였으므로 특근으로 인해 일요일 아침에 퇴근한 근로자에게 월요일 저녁근무를 마치는 시간까지(화요일 아침이 될 것임)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이는 유급휴일중 근무한 것이므로 특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8시간 분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유급휴일중 쉬지 못하고 근무한 데 따른 것이므로 지급받는 것이 옳다고 볼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여러가지로 고려할 점이 있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학자금에 관하여

학자금 관련내용을 문의 드릴려고요. 저희 회사 협약사항을 보니까>..

- 1) 1년이상 근속사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한하여 2명까지 공납금(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 2) 유치원에 다니는 2자녀에 한하여 1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 3)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재학생 1인에 한하여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부인에 대한 해당 사항은 해당이 없는지요???

답변 : 학자금에 관하여

귀하 회사의 단체협약은 자녀의 학비보조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나 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단체협약을 볼 때 현재의 단체협약으로는 근로자 본인이나 그 처의 학자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학자금 보조는 단체협약등에 규정이 있을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 임금체불에 대하여

30명정도 근무하는봉제공장에서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사장이 공장을 이전하여 작전동에서 임대을 해 공장을 운영하다가 탄사람에게 공장을 넘기면서 11월봉급을 250.000정도 채불하고,전사원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하여 사표를 쓰니까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물론 11월 임금도 채불하고 1월 봉급도 주지않고 말입니다.임금지불을 요구하니 전 사장이 2월 15일까지 준다고 각서를 써주었는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누구에게 임금을받아야하며 해고비는 받을수가 있는지요 ,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임금못받고 있습니다.향후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들어가는 서류와 사장이 처벌을 받으면 임금은 누구에게 받을수있는지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 임금채불에 대하여

- 1.현재의 사장은 전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한 전사장의 영업상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전사장 또한 책임이 있으므로 현사장과 전사장 모두에게 채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해고예고와 관련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서류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채불임금확인서 (채불임금 진정관련 조사시 채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것)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전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전혀 별개로 전사장과 현사장의 재산에서 채불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조합원자격 불인정에 대하여

저는 10년 넘게 생산현장에서 근무중 산재로 2년 가까이 요양을 하다가 회사에 복귀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제 현장에서 일할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며 두 달이 넘게 대기 발령인 상태로 놓아 두었다가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의 단협에는 생산직만 조합원이고 사무직은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에는 조합원 범위가 ○○금속에 다니고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질의 회신을 한 결과 규약과 단협의 조합원 범위가 상충될 때는 규약의 범위가 우선되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합과 사측에 이야기한 결과 사측은 단협이 있는데, 무슨소리냐! 라고 이야기 하고, 조합은 우리가 너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단협을 조합이 먼저 어기게 되는 것 아니냐! 라며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일을 했던곳은 인천에 있는 공장 이었는데, 전라도 광주 영업소에 자리가 비었으니 가서 영업을 하라고 사무직 인사담당자가 세번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설득을 하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절대로 갈수 없다고 거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12일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2004년1월1일 부터 광주 영업소에서 근무 하라는 인사 발령을 내었습니다. 일단 저는 지노위에 부당전배 철회를 요구 하는 신청을 내놓은 상태에서 광주 영업소에서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첫번째 - 조합에서 제가 조합원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먼저 인지, 아니면 사측에 조합원임을 인정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에게 먼저 저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게 해야되는를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 양쪽다 조합원을 인정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 (지노위, 소송 등등) 저들이 저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게끔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알려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조합원 자격 불인정에 대하여

귀하가 노동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대로 귀하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귀하는 이미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귀하를 조합원으로 인정치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귀하는 이미 산재휴직전에 조합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규약에는 아마도 요양중인 근로자라 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산재요양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회사나 조합에 대해서 조합원임을 인정케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귀하는 조합원으로서 그러한 권리를 요구하고 의무(당장 조합원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회사나 조합이 거부한다면 귀하는 법원

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조합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 : 급여 시스템에 대하여

회사내 급여 시스템이 호봉제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오픈샵인 관계로 규약상 조합원자격 범주에 드는 연봉직 사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똑같은(입사및 연봉) 연봉직인데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폭 외에 더 많은 인상을 해줄 경우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연봉직 사원들의 추가인상을 회사측에 요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규약상 조합원 범주에 들지않는 연봉직 사원들은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매년 임금과 성과급을 별도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호봉제는 급호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쁘신데 죄송스럽습니다.

답변 : 급여 시스템에 대하여

1.먼저 회사에 대하여 임금의 추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회사측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구제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와 법원에 의한 구제가 있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여부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하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 및 관련된 가처분신청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통제활동

◦기간 활동 평가 및 과제

1.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지원활동

- 1) 임투지원 단위노조 교섭위원, 노조간부교육
- 2) 제조연대 2004년 임단투 표준요구서 시달

2. 2003년 임투평가

3. 2004년 임투준비활동

- 1) 2004년 임투준비 실태조사
- 2) 2004년 임단투 지침서 발간
- 3) 2004년 임투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방향

조사통계활동은 현장 조합원 및 노동자의 상황,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 등 객관적 현황파악을 통해 연맹활동의 과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 조직, 교육 등 타부서 활동의 기초가 된다. 2003년 연맹의 조사통계부는 임단투에 국한된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임투진행 조사 및 분석, 임투 지침서 작성, 임투관련 교섭위원과 노조간부 교육 등에 지극히 필수적인 활동에만 그 범위를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실무역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담당부서가 있어야 함에도 그나마 있는 1명의 담당자도 다른 업무로 인해 제대로 조사통계업무만을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연맹 조사통계활동의 대표성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수거된 설문지량과 응답의 충실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문제해결은 오로지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히 응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단위사업장에서는 연맹에 다양하고 깊은 수준의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단위노조에서 근거자료제출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다. 특히 자신의 사업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타사업장의 정보는 받아보려 하는 것이다. 적어도 절반이상의 사업장으로 부터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올해 2003년의 조사통계활동 역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임단투 지원과 관련된 조사활동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정세 하에서 임단투 뿐만 아니라 '산업공동화' 문제, 중국 등 '사업장 이전'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사 및 분석활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수립에의 근거자료 생산 역시도 눈 앞에 닥친 '임금인상'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물론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조사통계업무만을 전담하는 실무역량을 적어도 1인의 담당자만이라도 온전히 확보할때만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1장.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지원활동

1. 임투지원 단위노조 교섭위원 및 노조간부 교육

1) 2004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단위노조 교섭위원 교육

교육취지

2004임단투는 개정 근기법에 따라 주40시간제가 시행되어 단협 개정과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함께 배치되고 있어 노동조합의 임단투 준비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임단투 준비 지원을 위한 단위노조 교섭위원교육을 2, 3월에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한다.

- ① 대 상: 단위노조 교섭위원 및 쟁의부장
- ② 시 기: 1차 : 2월 24(화)~26일(목) / 2차 : 3월 3(수)~5일(금)
- ③ 장 소: 노동교육원

시 간	일 정	2/24(화), 3/3(수)	2/25(수), 3/4(목)	2/26(목), 3/5(금)
07:00 ~ 08:00			 아침식사	
08:00 ~ 08:50			 교육준비	
09:00 ~ 10:00			<강의3> 노동정세 및 임금인상요구안 작성법	<강의8> 단체교섭 전략과 기술
10:00 ~ 11:00			-1차: 민한홍 부장 2차: 한동균 부장	- 화학 김기청 국장
11:00 ~ 12:00		접수 및 방배정	<강의4>주40시간제 지침해설	중강식 및 해산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4:00	개강식		<강의4> 계속 -1차: 정문주 국장 2차: 임준택 국장	
14:00 ~ 15:00	<강의1>통합시대! 노동운동의 역할과 과제 -1차:화학 사무처장 2차:금속 위원장		<강의5>근골격계질환과 노동조합의 예방활동 - 한국노총 김순희 국장	
15:00 ~ 16:00	<강의2> 노동조합과 정치 -한신대 박영호 교수 011.9056-3937		<강의6> 쟁점 노동관계법 해설 - 노동교육원 이공희 노무사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저 녁 식 사		
19:00 ~ 20:00	자기소개		<강의7>노동문화의 이해 - 흥미의	
20:00 ~ 21:00				
21:00 ~ 22:00	세면후 휴식		단결의 밤	

2) 2004년 금속노련 주40시간제 노조 교섭위원 집중 교육 계획서

교육목적

2004년 시행되는 주40시간제와 관련 노조 교섭위원들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40시간제에 대하여 임금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시간단축을 쟁취해 내기 위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함.

교육방법

노조 교섭위원 및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하며 내용은 주40시간제 관련 지침해설과 질의응답 그리고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아울러 4. 15총선을 앞두고 노조 정치세력화를 독려함.

교육일시 및 장소

2004년 4월 7일-8일간 1박 2일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진행함.

교육인원

단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및 노조간부 약 50명

교육프로그램

시간/일정	4월 7일(수)	4월 8일(목)
08:00~09:00	등록 및 접수	교육준비
09:00~10:00		교섭 전략과 전술(2시간 30분)
10:00~11:00		연맹 김홍룡 노사대책 본부장
11:00~12:00		평가 및 종강식(30분)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후 해산
13:00~14:00	개강식(30분)	
14:00~15:00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역할(1시간30분) 연맹 정일진 부위원장	
15:00~16:00	주40시간제 지침 해설(3시간) 참터 노무법인 노무사 고경섭	
16:00~17:00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질의응답을 통한 주40시간제 해설 (1시간)	
20:00~21:00	세면후 취침	

2. 제조연대 2004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표준요구서

1. 제조연대에서 표준요구서를 산하노조에 전달하는 이유

1)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한 생활임금 저하기도 분쇄

경총은 「2004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빌미로 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2003년 지급수준에서 동결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 3.8% 범위내에서 인상·조정할 것을 각 회원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임금을 동결하게 되면 지난해 물가인상률 3.6%를 감안할때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3.6%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상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면 중소기업도 동결되거나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되어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줄게되며, 노동소득분배율을 악화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이에 제조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의 확보를 위해 기본급대비 12.0(±1.5)%인 10.5~13.5%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관철한다.

2) 노동자의 동의없이 통과된 주40시간 개정법의 무효

올해는 주40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이후 처음으로 7월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40시간제가 도입되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치열한 혈전이 예상되어진다. 이는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10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일 수가 없다. 정부와 경총의 요구대로 근기법 개악내용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휴일·휴가가 줄어드는 등 기존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대폭 후퇴한다. 우리는 '근기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과 개악된 법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처리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노동제를 관철할 수 있도록 집중교섭과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3) 고용불안 시대에 고용안정의 확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구조조정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향이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적 유연화를 배제한 채 인원 및 임금삭감 방식의 수량적 유연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업간 무한경쟁체제 돌입으로 인해 시장에서 도태되는 다수의 기업들이 인수·합병 또는 법정관리 등 정리절차에 있는 상황에서 노동

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확보가 절실하다.

고용증가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용안정 중심의 교섭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한다. 이에 전사업장은 고용안정 달성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을 필수요구 협약으로 제기하여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4) 제조노동자 연대투쟁의 활성화 · 일상화

지난 2001년 1월 16일 제조연대가 출범한 이래 많은 연대활동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는 정책, 교육, 홍보 등 수 많은 공동활동을 비롯해서 구체적 사안으로는 주40시간제 개악저지 활동의 탁월한 성과를 가져왔다. 97년 IMF 사태이후 광폭하게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현시기 유일한 노동운동의 활로와 희망은 제조노동자 총단결로 교섭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올 2004년 임단투는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제조연대의 활성화와 강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이에 제조연대 산하 모든 노동조합은 2004임단투에서 주40시간제와 고용안정협약을 단체협약 갱신요구로 필수적으로 제기하고 교섭과 투쟁시기를 집중해야 합니다.

2. 표준요구서 활용방법

본 표준요구서는 ▲전문, ▲임금인상 요구안과 근거, ▲단협갱신 주요요구협약, ▲임단투 목표, 전략 및 추진일정, ▲ 단협갱신 필수요구 협약(주40시간제관련, 고용안정 관련) 그리고 ▲공동투쟁결의 조합원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임금인상 및 단협갱신 요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임금인상요구율(액), 단체협약 갱신요구는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①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와 ② 고용안정 협약은 반드시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조연대 2004년 임금인상 요구

● 요구안 작성 기초

- 금액과 올(%)로 작성하되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92%충족을 목표로 적용하여 요구수준을 산정함.
- 업종별, 기업별 실정 반영을 위해 12.0%를 기준으로 $\pm 1.5\%$ 의 범위율을 주어 10.5%~13.5%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제시함.

●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03년말을 기준으로 3.32인을 사용
- 물가수준은 주요 연구기관의 평균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2.9%를 적용
2004년 6월까지의 평균 물가상승률 1.45% [연평균 상승률 $2.9 \div 2 = 1.45$]를 적용함
- 가구소득중 가구주의 근로소득비율은 70.6%를 사용
(2003년도 3/4분기 평균치 통계청 자료)

임금인상요구 : 기본급대비 12.0±1.5%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등을 감안하여 2004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21.7%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2004임금실태조사서에서 적정임금인상요구액으로 제시된 110,045원에 가장 근접한 표준생계비의 92%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12.0% (110,50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성과반영 차원에서 12.0%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10.5% ~ 13.5%를 제시한다.

2004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신가구	2인	3인	4인 I	4인 II
모형	성인 1인 (남녀 각각)	성인 남녀	가구주 35세 배우자 32세 자녀 5세 (유치원)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자녀 11세(초) 자녀 9세(초)	가구주 44세 배우자 41세 16세(고) 14세(중)
액수	1,385,012원	2,182,898원	2,880,914원	3,759,287원	4,300,449원

식1) 제조노동자 평균가족규모 3.32인에 대한 생계비

$$\begin{aligned}
 &= 3인가구 생계비 금액 + (4인가구 생계비 금액 - 3인가구 생계비 금액) \times 0.32 \\
 &= 2,880,914 + (3,759,287 - 2,880,914) \times 0.32 \\
 &= 3,161,993원
 \end{aligned}$$

※ 4인가구 생계비 활용이유 :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평균연령(남38.6세, 녀35.3세)을 감안 4인가구 생계비 금액을 채택함

식2) 3.32인 생계비에 물가를 반영한 생계비

$$\begin{aligned}
 &- 2004년 물가상승률 주요 기관의 평균 전망치 2.9% \\
 &- 1~6월까지 물가인상률: 1.45% [$2.9 \div 2 = 1.45$] \\
 &= 3.32인 생계비 금액 $\times 1.0145$ \\
 &= 3,161,993 $\times 1.0145 = 3,207,842원$
\end{aligned}$$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2004년 한국 경제전망

구분	한은	KDI	삼성경제	LG경제	KI	IMF	평균
GDP성장률(%)	5.2	5.3	4.3	5.0	5.0	5.0	
소비자물가(%)	2.9	2.8	2.8	2.8	-	3.2	2.9%

식3) 노동자 가구소득 중 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을 반영한 생계비

$$= 3,207,842\text{원} \times 0.706 = 2,264,736\text{원}$$

노동자 가구별 가구주 근로소득의 비중

(단위 : 천원, 자료: 통계청)

구분	2001.3/4	2002.3/4	2003.3/4
가구소득(A)	2,734.9	2,863.4	3,018.6
근로소득	2,296.6	2,457.1	2,683.8
가구주 근로소득(B)	1,861.9	1,971.0	2,129.9
가구주 근로소득 비중(B/A)	68.08	68.83	70.6

따라서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주 필요소득은 2,264,736원

• 2004년도 제조연대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주의 필요소득 - 제조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

$$= 2,264,736 - 1,861,211 = 403,525\text{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text{정액임금 기준 } (403,525 / 1,861,211) \times 100(\%) = 21.7\%$$

$$\text{기본임금 기준 } (200,552 / 924,001) \times 100(\%) = 21.7\%$$

제조 부문 산업별 임금실태

(2003년 12월 현재, 단위: 원)

연령	기본급 (1)	통상수당 (2)	기타수당 (3)	상여월할 (4)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4)	임금총액 (5)
고무산업	708,307	115,305	157,260	371,280	354,250	1,352,152	1,706,402
출판	967,495	73,644	17,520	478,995	616,006	1,537,654	2,153,660
화학	1,037,480	111,498	110,948	622,623	344,832	1,882,549	2,227,381
금속	857,337	188,187	142,932	530,338	345,526	1,718,794	2,064,320
평균	924,001	186,416	164,637	586,157	363,400	1,861,211	2,224,611

자료: '제조연대 2004 임단투 준비를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

주: 평균은 수거된 조사서 응답치의 총 평균치이며, 연맹별 평균치의 평균과는 다름.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등을 감안하여 2004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21.7%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2004임투준비조사서에서 적정임금인상요구액으로 제시된 110,045원에 가장 근접한 표준생계비 92%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12.0% (110,50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충족률에 따른 제조부문 임금인상 조건표

(단위 : 원, %)

충족률	획득정액임금	정액임금요구	율산정	기본임금요구	율산정
100%	2,264,736	403,525	21.7	200,552	21.7
99%	2,242,089	380,878	20.5	189,296	20.5
98%	2,219,441	358,230	19.2	178,040	19.3
97%	2,196,794	335,583	18.0	166,785	18.1
96%	2,174,147	312,936	16.8	155,529	16.8
95%	2,151,499	290,288	15.6	144,273	15.6
94%	2,128,852	267,641	14.4	133,018	14.4
92%	2,083,557	222,346	11.9	110,506	12.0
91%	2,060,910	199,699	10.7	99,250	10.7
90%	2,038,262	177,051	9.5	87,994	9.5

주 : 기본임금요구액은 정액임금요구액에 49.7%(제조연대 2004임금조사결과)를 곱하여 구한 것임.

율산정은 소수점이하 2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생계비 충족률 92% 달성을 위한 임금인상요구률

정액임금 기준 $(222,346 / 1,861,211) \times 100(\%) = 11.9\%$

기본임금 기준 $(110,506 / 924,001) \times 100(\%) = 12.0\%$

<참조> 2004 경제지표 및 임금인상 요구 동향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제조연대 임금요구율	민주노총 임금요구율	정총임금 가이드라인
04	2.9% (추정)	5.3% (추정)	10.7%, 정액기준 162,518원	12(±1.5)%, 기본급기준 110,506원	10.5(±2)%, 기본급기준 125,445원	대기업(300인 이상) 동결, 중소기업 3.8% ¹ 범위내 인상

주 : 1은 실질 GDP 성장률(4.8%)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1.1%) - 취업자 증가율(2.1%)로 계산.

제조연대 2004년 단체협약 갱신 요구

반드시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요구 협약	다른 협약에 우선하여 요구하여야 하는 협약
주40시간제, 고용안정 협약	비정규직, 산업안전, 경영참가 협약

1) 주40시간제 단체협약

- ▶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제 도입
- ▶ 기존 휴일·휴가일수 유지 및 개선
- ▶ 전사업장 조기 전면 실시 쟁취

2)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

- ▶ 고용안정협약 쟁취
- ▶ 경영상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보장
- ▶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서면합의

3)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

-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 ▶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 ▶ 비정규 연대임금인상률 도입

4) 산업안전 관련 단체협약

- ▶ 근골격질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실행위원회 구성

5) 경영참가 관련 단체협약

- ▶ 경영참가협약 쟁취
- ▶ 노조의 이사 및 감사선임 요구
- ▶ 우리사주제도의 민주적 운영보장

2004년 제조연대 임단투의 목표 및 전략

임단투 목표

생활임금 확보
임금·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협약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기업경영 투명화 및 노동자 경영참여 확보
노동자 정치의식 고양 및 정치세력화

임단투 전략

업종별 주요 단협요구사항 통일 및 공동투쟁
교섭과 투쟁시기 구분(5월 중순 기준)
지역별 공동투쟁
미타결 사업장의 교섭권 연맹 위임

임단투 추진일정

구분	일정	투쟁계획	세부계획
준비기	2월 ~ 3월	• 제조연대 공동임투요구 확정 • 제조연대 임단협표준요구서 시달 • 업종별 주요 단협요구사항 통일 • 연맹 및 지역 단사 임단투지도 • 각 사업장 임단투 요구사항 확정	• 제조연대 임단투 교섭위원교육 • 임단투 특보 및 속보 제작 • 업종별 임단협 관련 정보공유 • 지역별 임투출정식 • 각 사업장 임투승리 결의대회
교섭집중기	~ 5월 중순	• 교섭돌입 (업종내 주요 단협요구사항 통일필수) • 5월 10일까지 1차 교섭진행 점검 (필요시상급단체 지정교섭위원이 결합한 대각선교섭 요청) • 5월 중순까지 집중교섭	• 업종별 공동요구 진행 점검 • 임단투 교섭 진행상황 점검 • 요청시 대각선 교섭 진행 • 조정신청 지침 시달
투쟁기	5월 중순 ~ 6월	• 미타결 사업장 조정신청 • 6월초 임시대의원대회 / 총회를 통한 쟁의행위 결의 • 6월 중순 총력투쟁 • 6월말 타결 • 장기 미타결 사업장 교섭권 연맹 위임	• 조정신청 및 쟁의상황 점검 • 비상체제 가동 • 장기미타결 사업장 연맹 직접 교섭

을 임단협의 핵심은 ① 업종별 주요 단협요구 통일과 ② 교섭과 투쟁시기 구분을 통한 행동통일임.

단협경신 필수요구협약

주40시간제 단체협약 지침 해설

1) 지침설정의 목표와 기본 방향

■ 목표

-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제 도입
 - 주5일제 도입 (주휴2일제)
 - 월 기본급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저하금지
 - 연장근로 한도축소 및 실연장근로시간 단축
 - 교대근무제 개선 및 실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강화
 - 유해 작업장 기준노동시간을 주34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단축
 - 연소노동자 기준노동시간을 주42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
- 기존 휴일·휴가일수 유지 및 개선
 - 연월차휴가일수를 보전한 통합연차휴가 설정 : 22~32+a 확보
(기존의 연월차휴가 존속 바람직)
 -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5일 확보
 - 단체협약상의 약정휴가일수 개선 및 단축기도 저지
 - 일방적인 휴가사용축진방안 시행 저지
- 전사업장 조기 전면 실시 쟁취
 - 1000인이상 사업장 및 기40시간제 도입사업장 지침실천 및 공동투쟁
 - 2004년에 40시간제 도입 전조직적 단체교섭 요구
 - 40시간제 도입이전이라도 이에 근접하는 노동시간 단축 쟁취

■ 기본방향

-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주5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산하조직은 2004년 시기집중, 공동투쟁으로 총집중할 수 있도록 교섭시기를 지침에 맞춰 조정한다.
- 단협개약 저지 및 노동조건 저하없는 집중투쟁시에는 1000인이상 사업장 및 기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 선봉이 되어 조직적 투쟁을 전개한다.
- 주40시간제 도입 이전이라도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및 단협개선투쟁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개정근기법의 시행이전이라도 회사측이 투쟁지침의 목표에 상응한 안을 수용하는 경우 협약을 타결할 수 있다.

2) 주40시간, 주5일제 쟁취 단협지침

※ 단협지침 주요내용

- 교섭에 있어 기준노동시간단축(주40시간)과 이에 따른 임금보전만 제기
- 단, 사측에서 시간단축에 동반된 제반 노동조건문제를 거론할 때는 아래와 같이대응

주40시간	전면 실시 요구
임금보전	시급인상 요구
휴가제도 월차제지·년차축소 생리 무급화	현재 단협 유지 ➡ 불이익한 변경사항이므로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근기법 위반
년월차 통합조정 요구할 때	년22일부터 시작 1년당 1일씩 가산하여 32일까지(32일 초과하는 경우 금전보상), 1년미만자나 신규입사자 초년도에서는 월 1.5일 요구
휴가사용축진제	노조와 사전합의로 시행할 것을 요구
초과근로	현재 단협 유지 (불이익한 변경사항이므로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근기법 위반)
교대제 사업장	4조3교대 요구 (3조3교대에서 전환시 임금감소 발생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임금보전 요구)
변형근로·선택적 보상휴가제	개정 근기법에서도 노사 서면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단체협약(안)>

제○조(소정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의 작업시간, 작업지시 시간, 조 회시간, 품질관리 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시간, 석식시간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의 시간 및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기간을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단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한다.
2. 유해·위험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일에 3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한다.

제○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회사는 최소한 3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단, 유급휴일이 주휴일 또는 기타 유급휴일과 중복될 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 일요일.

<토요일에 대한 처리방안> 토요일의 단협 규정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2가지중 택일토록 한다.

- 1) 주휴일에 포함하여 주 2일의 유급휴일을 확보하는 방안
- 2)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확보하는 방안(근무시 휴일할증을 적용)

2. 명절

가. 설날: 음력12월29일 ~ 1월3일(5일간)

나. 추석: 음력8월13일 ~ 17일(5일간)

3. 신년휴일: 1월1일 ~ 1월3일(3일간)

4.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5. 기념일: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각 1일

6. 노동절: 5월 1일

7.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노동조합 정기총회일 각 1일

8.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9. 새로이 정해지는 법정공휴일

10.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조(월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는 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월차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월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④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미사용 월차휴가는 1개월이 경과한 첫달 급료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단, 회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⑥ 퇴직 또는 장기휴직시 미사용 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입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는 10일, 90%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8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 ②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게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때1년에 대해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 ③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없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④ 휴일, 휴가, 휴직,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휴업, 쟁의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미사용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달 급료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단, 회사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⑥ 퇴직 또는 장기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연월차유급휴가의 통합조정(월차유급휴가 폐지)을 요구하는 경우

- 제○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입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한 조합원에게 2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조합원에게 1월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결근시에는 휴가일수로 자동 대체한다.
 - ③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때1년에 대해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 ④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없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⑤ 휴일, 휴가, 휴직,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휴업, 쟁의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미사용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달 급료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단, 회사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⑦ 퇴직 또는 장기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참고> 경총 주40시간제 지침 방향.

주40시간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진요함.

이를 위해 법 적용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올해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

[고용안정협약 지침 해설]

1) 지침설정의 목표와 기본 방향

■ 목표

- 고용안정위원회
 - 고용안정위원회의 설치
 -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 확대
 - 고용안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효성 확보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명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 구체적 명시
 - 사용자의 해고 회피노력 구체적 명시
 - 해고회피 노력과 절차를 무시한 정리해고의 무효화
 -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억제

- 기업변동시 제반 조건 보장 및 승계
 - 임금, 노동조건 보장
 - 고용승계

■ 기본방향

- 고용조정 문제는 조합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사항이며,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채용, 적정인력 확보 및 노동시

간 및 교대제 개선, 회사의 인수·합병, 전직·배치전환, 구조조정 등 일자리와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노사합의로 심의·의결할 것.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31조에 따라서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ii)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iii)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하고, iv)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함.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이를 위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무효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또한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이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희망퇴직과 관련된 조항은 집단해고의 제한과 같이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 사업 또는 사업부, 회사의 일부를 분리, 독립시키거나 합병·폐지될 경우 노조의 사전 통지와 승인을 얻어야 함. 단체협약으로 사업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 독립, 폐지에 따른 고용승계, 임금·노동조건을 보장토록 함.

제○조 【고용안정위원회】 ① 회사는 조합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사 각 ()명을 위원으로 하는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적정인력 유지 및 확보에 관한 사항
 3.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교대제 개선 및 고용유지,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휴직, 전직, 배치전환 조치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계열사간 이동에 관한 사항
 6. 공장이전에 관한 사항
 7. 하도급·외주 등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분할·합병·양도에 관한 사항
 9.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
 11. 기간제, 파견, 파트타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
 12. 전직훈련에 관한 사항
 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자의 취업알선 및 생활지원, 재고용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동·수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합의제로 한다.
- ③ 회의는 노사 대표가 공동의장으로 하여 교대로 진행한다.
- ④ 제1항의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한 회사의 조치는 무효로 간주한다.
- ⑤ 노사는 어느 일방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① 회사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회사의 도산이 우려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서면으로 해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30일 동안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적용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앞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경영책임자의 개인재산 출연(出捐), 회사자산의 매각 등 자구노력, 신규채용의 중단, 근로시간단축, 휴직제, 전직·배치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과 제4항의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등에 관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함에 있어서 대상자선발기준을 조합과의 합의로 정한다. 그 선발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 보다 높은 연령

2. 보다 장기의 근속기간

3. 보다 많은 부양가족

4.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음

5. 기타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⑦ 제2항의 해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노조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선발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조치는 무효로 한다.

⑧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특별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경영사정이 회복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본 조에 의하여 해고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⑩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조 **【사업 또는 회사의 분사, 폐지】** ① 사업 또는 사업부 및 회사의 일부를 별도분리·독립시키거나 폐지할 경우 이의 범위, 규모,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 합의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가 분리되거나 폐지되는 사업 또는 사업부에 소속되어 퇴직이 불가피한 조합원에게 퇴직금등 당면지급 금품이외 평균임금 6개월분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분사기업은 조합원의 고용을 '완전승계'하고 모기업의 임금·근로조건을 최저한선으로 한다.

④ 모기업은 분사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해 분사기업의 기존하청물량을 유지토록 한다.

⑤ 기타 기업분사시 임금·근로조건은 모기업의 협약을 저하하지 못한다.

제○조 **【회사의 분할·합병·양도시 고용 등의 승계】** ① 회사는 분할·합병·양도시 해당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승계를 보장한다.

② 회사는 분할·합병·양도를 계획할 경우 6개월 전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의 시행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2장. 2003년 임단투 평가

2003임단투 현황 (12월31일 현재)

- 요구 11.88%, 타결8.14% -

2003년 임단투시 가장 역점을 둔 사항으로는 통상임금 및 수당과 상여금 등 임금부분과 복지부분이었으며, 임금·복지 이외의 사항으로는 주5일제와 고용보장 부분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 외 희망적으로 소수 사업장에서는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를 쟁취하였다.

또한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31.6%의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이 2003년 한해 동안은 없었다. 고용조정 형태는 고용증가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25.2%인 반면에 비정규직으로만 인원을 충원한 경우가 14.4%에 달하였다. 고용감소의 경우 신규채용 중단이 20.4%, 명예·희망퇴직 실시가 5.6%에 이르렀으며, 분사, 소사장제 등이 2.4%였다. 정리해고는 0.4%이었다.

2003년도 임금교섭시 쟁의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노조가 단체행동 없이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20여개의 사업장이 조정신청을 내었고 그 중 절반의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맹으로 보고된 산하노조 임단투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기본급대비 11.88%를 요구하였고, 기본급대비 8.14%의 임금인상 타결율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련 전체 434개 사업장 중 268개 사업장만이 교섭진행·타결상황을 보고하여 시기상 교섭율 100%를 가정하여 추정된 타결율(61.75%)은 과소추정되어 있다.

더불어 단협 및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주40시간(주42시간), 고용안정, 복리후생, 성과급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단체협약진행및타결현황(2003,12,31기준)

단협요구 주요 항목	단협타결	
	노조 수	비율
노동시간 단축	15개 노조	5.59%
고용안정	6개 노조	2.24%(과소추정된 듯)
비정규직 정규직화	4개 노조	1.49%

특히, 올해 교섭에서 그린산업 노조, 세광알미늄 노조가 주40시간제를, 삼한 노조가 주42시간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로서 연맹산하 노조중 법정노동시간(주44시간) 미만으로 단협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수는 81개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조정은 18개 노조, 파업은 10개 노조가 돌입했다.

조정신청사업장

DSR제강, 클라크, 환영철강, 현대제이콤, 삼양감속기, OTIS-LG, 성우오토모티브, 동일산업봉강, 동일산업합금, 태화기계, 한국철강, 남양금속, 톰코리아, 조선선재, 삼양중기, 삼화전기, 대동기어, 창원텐소, 텐소풍성, 이상 19개 노조

파업사업장

DSR제강, OTIS-LG, 삼양감속기, 성우오토모티브, 태화기계, 성신, 동희정공, 한국철강, 조선선재, 삼양중기, 텐소풍정 이상 11개 노조

연맹산하노조중법정노동시간미만단체협약체결노조

▶ 주 40시간 : 15개 노조

머큐리, 이나베어링, 사이스이천열병합발전, 우진공업, 동성금속, 칩팩코리아, 그린산업, LG-OTIS, 세진전자(년간 월차휴가 6일치 상계), 세광알미늄(년간 월차휴가12일치 상계) LG전선, 유니온스틸, 대덕GDS, 두원중공업, 현대오토넷

▶ 주 41시간 : 2개 노조

신한일전기, 한국카시오

▶ 주 42시간 : 64개 노조

TRW, 경신공업, 경신전선, 경용기계, 경창산업, 경창와이퍼, 경창정공, 남양금속, 대경화성, 대동금속, 대동기어, 대명공업, 대부기공, 대우전자서비스, 대우전자, 대우통신, 대명공업, 대철, 대한알미늄, 델코전기, 동원금속공업아산공장, 동희ACS, 두산메카텍, 두산, 두원중공업, 텐소풍성창원, 텐소풍성전자, 반도기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부천공조, 삼주기계, 삼한, 삼화전기, 삼화전자, 서봉산업, 서암기계공업, 서진산업, 세방전기, 세일공업, 수산정밀, 수산특장, 쉘프네이커풍정, 쌍용테스텍, 에이치앤티, 영신정공, 우진공업, 위스코, 이화다이아몬드, 지코, 창원공업, 파츠닉, 평화산업, 평화발레오, 평화오일셀, 평화정공, 한국NOK이글, 한국GMB, 한국산본, 한국시티즌, 한국중천전화산업, 한일제관, 화천기공, 효성기계공업

연맹산하노조중비정규직정규직화단체협약체결노조
한국동양유전, 삼흥사, 두원중공업, 세양테크

3장. 2004년 임단투 준비활동

1. 2004년 임단투 준비를 위한 실태조사

1) 조사목적

2004임단투에 임하는 단위노조 상황 및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제조연대 및 연맹의 정책 근거로 삼는다.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파악 및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조연대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지침을 작성하는데 자료로 활용한다.

2) 조사일시

2003년 12월 22일 ~ 2004년 1월 17일

3) 조사방식

제조연대 산하 4개 산별연맹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총수조사를 하였고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으로 하였다.

4) 조사결과

(1) 응답자 분포

분석대상인 204부에 대하여 유효설문지를 속성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연맹별로는 고무 3.9%, 금속 55.4%, 출판 2.5%, 화학 38.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22.5%, 100인 이상 300인 미만 46.1%, 300인 이상 500인 미만 15.7%, 500인 이상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노조 분포

	수거부수	비율(%)
<연맹> 고무산업	8	3.9
금속	113	55.4
출판	5	2.5
화학	78	38.2
<규모> 100인 미만	46	22.5
100~299명	94	46.1
300~499명	32	15.7
500인 이상	32	15.7

(2) 제조연대 노동시간 및 조합원 근속년수, 연령, 가족규모 현황

	노조당 평균조합원수	주당 평균노동시간	평균 근속년수		평균 연령		평균 가족규모
			남	녀	남	녀	
총수	204(100%)	204(100%)	(100%)	(100%)	(100%)	(100%)	204(100%)
고무(8)	727.63인	52.97시간	7.89년	6.20년	40.76세	40.46세	3.31인
출판(5)	120.75인	56.00시간	8.85년	5.38년	39.70세	36.88세	3.52인
화학(78)	146.72인	51.05시간	10.40년	7.21년	39.21세	33.25세	3.43인
금속(113)	245.44인	45.95시간	10.30년	8.12년	38.05세	36.38세	3.14인
2003년결과	224.77인	50.10시간	10.21년	7.54년	38.65세	35.33세	3.32인
2002년결과	268.60인	52.58시간	10.03년	7.05년	38.02세	35.52세	3.32인

(3) 임금수준

제조 부문 산업별 임금실태

(2003년 12월 현재, 단위: 원)

연맹	기본급(1)	통상수당 (2)	기타수당 (3)	상여월할 (4)	초과급여	정액급여	임금총액(5)
고무산업	708,307	115,305	157,260	371,280	354,250	1,352,152	1,706,402
출판	967,495	73,644	17,520	478,995	616,006	1,537,654	2,153,660
화학	1,037,480	111,498	110,948	622,623	344,832	1,882,549	2,227,381
금속	857,337	188,187	142,932	530,338	345,526	1,718,794	2,064,320
평균	924,001	186,416	164,637	586,157	363,400	1,861,211	2,224,611

자료: 제조연대 2004 임단투 준비를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

주: 평균치는 각 항목 평균치에 평균을 산출, 단순 합산치와는 다르게 나타남.

제조부분 규모별 임금실태

(2003년 12월 현재, 단위: 원)

연 맹	기본급 (1)	통상수당 (2)	기타수당 (3)	상여월할 (4)	초과급여	정액급여	임금총액 (5)
100인 미만	831,935	85,738	129,028	481,521	301,827	1,528,222	1,830,049
100~299인	977,247	205,116	115,672	559,298	376,212	1,857,333	2,233,545
300~499인	943,114	132,918	156,289	654,586	423,869	1,886,907	2,310,776
500인 이상	907,347	140,886	147,595	553,984	384,297	1,749,812	2,134,109
평 균	924,001	186,416	164,637	586,157	363,400	1,861,211	2,224,611

(4) 회사 형태

문항	빈도수	(%)
1: 원청회사	68	37.2
2: 하청업체	24	11.8
3: 독립회사	81	39.7
4: 기 타	10	4.9
5: 무응답	21	10.3
합 계	204	100.0

(5) 조합원의 교대 형태 (중복 응답)

문항	빈도수	(%)
1: 통상근무	102	47.4
2: 2조2교대	50	23.3
3: 3조2교대	10	4.7
4: 3조3교대	38	17.7
5: 4조3교대	15	7.0
합 계	215	100.0

(6) 귀 사업장의 임금체제는? (중복응답)

시급, 일급제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급제는 31.1%로 나타났다.

문항	빈도수	(%)
1: 시급제	84	31.5
2: 일급제	62	23.2
3: 결근 공제 월급제	24	9.0
4: 완전 월급제	59	22.1
5: 연봉제	31	11.6
6: 도급제	1	0.4
7: 기타	6	2.2
합 계	267	100.0

(7) 2003년도 경영상태

2003년 경영상태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31.3%, 보통이 38.7%, 부정적인 응답이 28%로 경영상태는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문항	빈도수	(%)
1: 매우 좋음	16	7.8
2: 좋음	48	23.5
3: 보통	79	38.7
4: 안 좋음	45	22.1
5: 매우 안 좋음	12	5.9
무응답	4	2.0
합 계	204	100.0
5점 척도 평균치	2.90 (보통에서 약간 긍정적임)	

(8) 2003년도 고용 변화 (중복응답)

고용증가가 39.6%, 고용감소가 28.8%로 나타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빈도수	(%)
1: 증가-정규직을 새로 채용함	63	25.2
2: 증가-비정규직만 충원	36	14.4
3: 변동없음	79	31.6
4: 감소-자연감소	51	20.4
5: 감소-희망퇴직자 모집	14	5.6
6: 감소-정리해고 단행	1	0.4
7: 감소-분사, 아웃소싱, 소사장 등	6	2.4
합계	250	100.0

(9) 희망퇴직 또는 인원정리

가. 사무직 희망퇴직 : 평균 퇴직인원 수 20.00명, 평균 개월치 7.10개월기준 :

	빈 도 수	(%)
기 본 급	4	2.0
통상임금	3	1.5
평균임금	1	0.5
무응답	196	96.1
합 계	204	100.0

나. 사무직 정리해고 : 평균 인원정리 수 7.75명, 평균 개월치 3.00개월 기준:

	빈 도 수	(%)
통상	1	0.5
무응답	203	99.5
합 계	204	100.0

다. 기능생산직 희망 퇴직: 인원수 18.92명, 평균 개월수 8.55개월 기준 :

	빈 도 수	(%)
기본급	2	1.0
통상임금	7	3.4
평균임금	1	0.5
무응답	194	95.1
합 계	204	100.0

라. 기능생산직 정리해고: 평균 인원정리수 3.25명, 평균 개월수 10.67개월 기준:

	빈도수	(%)
통상	1	0.5
무응답	203	99.5
합 계	204	100.0

(10) 단체교섭 시기를 단협상에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돌입시기

	빈 도 수	(%)
있다	145	71.1
없다	50	24.5
무응답	9	4.4
합 계	204	100.0
평균 돌입시기	4.44월	

(11) 2003임단투에 있어 실제 교섭돌입월, 타결월, 타결차수

2003년도 임단투에서 사업장의 평균 교섭차수는 7.74회, 교섭돌입월은 평균 4.84월로써 4.5월이 5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관측치	무응답	합 계
평균돌입월	4.84월(4월말)	192 (94.1%)	12 (5.9%)	204 (100%)
평균타결월	6.77월(6월말)	192 (94.1%)	12 (5.9%)	204 (100%)
평균타결차수	7.74차	189 (92.6%)	15 (7.4%)	204 (100%)

(12) 2003년 사업장별 임금 교섭구조

노조 조직체계가 기업별 구성되어 있음을 반영하듯이 기업별 교섭이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업종별교섭 4.9%, 지역별 교섭 1.5%,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 0.5%, 그룹사 공동교섭이 1.0%로 나타나고 있다.

문 항	빈도수	(%)
1: 기업별 교섭	185	90.7
2: 업종별 교섭	10	4.9
3: 지역별 교섭	3	1.5
4: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	1	0.5
5: 그룹사 공동교섭	2	1.0
무응답	3	1.5
합 계	204	100.0

(13) 사업장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섭구조

현행 교섭구조 중 90.7%가 기업별 교섭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각 단위노조에 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교섭형태로는 현행 기업별 교섭(58.8%)과 산업(업종)별 공동교섭 (26.5%)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	빈도수	(%)
1: 기업별 교섭	120	58.8
2: 산업(업종)별 공동교섭	54	26.5
3: 지역별 공동교섭	7	3.4
4: 상급단체 위임	3	1.5
5: 그룹사 공동교섭	4	2.0
무응답	16	7.8
합 계	204	100.0

(14) 각 사업장별로 바라보는 2004년도 경영전망

각 사업장별 2004년 경영전망은 긍정적인 응답(1,2번) 33.8%, 부정적인 응답(4,5번) 22.0%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	빈도수	(%)
1: 매우 좋을 것이다.	2	1.0
2: 좋을 것이다.	67	32.8
3: 보통일 것이다.	82	40.2
4: 안 좋을 것이다.	38	18.6
5: 매우 안 좋을 것이다.	7	3.4
무응답	8	3.9
합 계	204	100.0
5점 척도 평균치	2.90 (보통에서 약간 긍정적인임)	

각 연맹별 2004년 경영전망

	① 매우 좋을 것이다	② 좋을 것이다	③ 보통	④ 안 좋을 것이다	⑤ 매우 안 좋을 것이다	합계
고 무		2(25.0%)	4(50.0%)	1(12.5%)	1(12.5%)	8(100.0%)
출 판		1(20.0%)		3(60.0%)	1(20.0%)	5(100.0%)
화 학		20(26.3%)	35(46.1%)	19(25.0%)	2(2.6%)	76(100.0%)
금 속	2(1.9%)	44(41.1%)	43(40.2%)	15(14.0%)	3(2.8%)	107(100.0%)

고무, 출판, 화학에서는 보통이나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금속연맹에서는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15) 2004년 적정 평균 임금상승률 (기본급기준)

2004년도 적정 임금인상요구율은 기본급 대비 11.50%, 액수는 110,045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상승률	평균 상승액
응답	201 (98.5%)	195 (95.6%)
무응답	3 (1.5%)	9 (4.4%)
합 계	204(100.0)	204(100.0)
평균	11.50(%)	110,045(원)

(16) 한국노총에서 2004년 임단투 공동투쟁 제기 시 교섭집중 시기

2004년 공동투쟁 제기 시 교섭을 집중해야 할 시기로 4월초 ~ 5월 중순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항	빈도수	(%)
1: 2월말 ~ 3월초	12	5.9
2: 3월 중순 ~ 3월말	27	13.2
3: 4월초 ~ 5월 중순	92	45.1
4: 5월 중순 ~ 5월말	48	23.5
5: 6월초 ~ 6월 중순	20	9.8
무응답	5	2.5
합 계	204	100.0

(17) 2004임단투에서 기업차원의 역점사항

고용안정>임금·상여금 인상>노동시간 단축>노조 재정자립 및 노조활동 보장>복지 향상>단체협약실효성 확보>경영참가>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순이며 그밖에 문항은 소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용안정,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중복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노조 재정자립 및 노조활동 보장	38	18.6	19	9.3	9	4.4	32	15.7	98	12.2
2: 노동시간 단축	48	23.5	47	23.0	21	10.3	17	8.3	133	16.6
3: 고용안정	60	29.4	45	22.1	22	10.8	13	6.4	140	17.4
4: 임금·상여금 인상	49	24.0	37	18.1	36	17.6	12	5.9	134	16.7
5: 단체협약실효성 확보	1	0.5	17	8.3	35	17.2	12	5.9	65	8.1
6: 경영정보 공개 및 경영참가	1	0.5	10	4.9	24	11.8	24	11.8	59	7.3
7: 단체교섭시기 조정, 통일			1	0.5	7	3.4	1	0.5	9	1.1
8: 산업안전보건	1	0.5	5	2.5	10	4.9	14	6.9	30	3.7
9: 복지향상	2	1.0	13	6.4	29	14.2	52	25.5	96	12.0
10: 기술교육, 훈련					2	1.0	7	3.4	9	1.1
11: 비정규직 차별철폐	1	0.5	7	3.4	6	2.9	16	7.8	30	3.7
유효수	201	98.5	201	98.5	201	98.5	200	98.0	803	100.0
무응답	3	1.5	3	1.5	3	1.5	4	2.0		
합 계	204	100.0	204	100.0	204	100.0	204	100.0		

(18) 노동운동 측면에서의 2004년도 활동 역점사항

노동시간 단축 > 전임자 임금문제 대비 > 사회보험개혁 > 양노총 연대활동 및 통합, 비정규직 조직화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노동자정치세력화 > 한국노총 개혁 > 유사 산별 통합 및 산별 노조 추진 > 최저 임금 개선 활동 순이며 그밖에 문항은 소수 응답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사안이 2002년에 이어 역시 주요한 우선과제로 꼽혔다. “전임자 임금 문제 대비”가 15.1%로 작년(9.3%)에 비해 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걸 볼 수 있다.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중복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법정노동시간 단축	95	46.6	22	10.8	16	7.8	12	5.9	145	18.3
2: 비정규직 조직화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8	8.8	32	15.7	14	6.9	21	10.3	85	10.7
3: 최저임금 개선활동	10	4.9	21	10.3	17	8.3	9	4.4	57	7.2
4: 사회보험 개혁	6	2.9	41	20.1	18	8.8	27	13.2	92	11.6
5: 공무원 노동3권 보장			2	1.0					2	0.3
6: 노동자 정치세력화	17	8.3	8	3.9	35	17.2	21	10.3	81	10.2
7: 유사 산별 통합 및 산별노조 추진	9	4.4	23	11.3	13	6.4	17	8.3	62	7.8
8: 양노총 연대활동, 통합	12	5.9	17	8.3	35	17.2	21	10.3	85	10.7
9: 한국노총 개혁	9	4.4	8	3.9	20	9.8	27	13.2	64	8.1
10: 전임자 임금문제 대비	23	11.3	24	11.8	30	14.7	43	21.1	120	15.1
유효수	199	97.5	198	97.1	198	97.1	198	97.1	793	100.0
무응답	5	2.5	6	2.9	6	2.9	6	2.9		
합 계	204	100.0	204	100.0	204	100.0	204	100.0		

(19) 2004년 또는 차기년도 단체협약 갱신 시 노동시간단축 계획

문항	빈도	(%)
1: 예	129	63.2
2: 아니오	45	22.1
3: 이미 주 40시간제를 하고 있음	25	12.3
무응답	5	2.5
합 계	204	100.0

(20)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완전 주40시간제 요구가 귀 단위사업장에서 관철될 가능성

완전 주40시간제에 대해 각 노조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음”에 56.6%로 나타났다.

문항	빈도	(%)
1: 가능성이 매우 큼	9	7.0
2: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음	73	56.6
3: 가능성이 별로 없음	42	32.6
무응답	5	3.9
합 계	129	100.0

(21)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그 수위는?

문항	빈도수	(%)
1: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한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완전 주40시간제 쟁취	23	17.8
2: 개정된 주40시간제 관련법 보다 훨씬 개선되면 타결	43	33.3
3: 개정된 주40시간제 관련법 보다 어느 정도 개선되면 타결	46	35.7
4: 개정된 주40시간제 관련법을 준수하는 대신에 기타 노동 조건 개선 요구	9	7.0
무응답	8	6.2
합 계	129	100.0

(22) 주40시간제 확보 관련 귀 노조가 취할 수 있는 투쟁수위(중복응답)

리본 및 현수막 게시 > 사내 집회 > 상급단체 집회 >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 대의원 대회(총회) 개최 투쟁 > 부분파업 > 총파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노조는 주40시간제 확보를 위해 규모가 큰 파업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빈도수	(%)
1: 총파업	38	7.7
2: 리본 및 현수막 게시	109	22.0
3: 사내 집회	94	19.0
4: 부분파업	50	10.1
5: 상급단체 집회	76	15.3
6: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67	13.5
7: 대의원대회(총회) 개최 투쟁	62	12.5
합 계	496	100.0

(23) 2007년 1월 시행되는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규정에 대한 귀 노조의 대책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규정에 대한 각 노조들의 대책은 “대책이 없다”가 63.2%로 나타나, 각 노조의 대책이 없다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규정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전임자 수의 확대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 전임요구”가 22.1%, “기금을 모으고 있다”가 13.2%로 나타났다.

문항	빈도	(%)
1: 기금을 모으고 있다	27	13.2
2: 반전임자 수의 확대 또는 노사협의회 의원 전임요구	45	22.1
3: 대책이 없다	129	63.2
무응답	3	1.5
합 계	204	100.0

(24) 2007년 전임자임금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전임자임금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요구”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년간 재 유예 요구”가 20.6%로 나타났다.

문항	빈도	(%)
1: 5년간 재 유예 요구	42	20.6
2: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요구	125	61.3
3: 산별노조로의 조속한 전환	26	12.7
4: 대책이 없다	1	0.5
무응답	10	4.9
합 계	204	100.0

2. 제조연대 2004 임단투 지침서 작성 및 발간

1) 발간일: 2003년 2월 19일

2) 목차

I. 들어가며	1
II. 2004년 전망	3
1장. 2004년내외 정세·경제·산업전망	3
1. 2004년 정세전망	3
2. 2004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전망	6
1) 2004년 세계경제 전망	6
2) 2004년 국내경제 전망	8
3) 2004년 주요산업 전망	11
① 자동차산업 전망	13
② 반도체산업 전망	15
③ 정보통신기기산업 전망	16
④ 조선산업 전망	17
⑤ 철강산업 전망	19
⑥ 석유화학산업 전망	20
⑦ 건설산업 전망	21
III.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투쟁 지침	26
1장. 임금인상 결정관련 각계동향	26
1. 한국노총	26
2. 정부	30
3. 사용자단체	30
2장. 2004 임단투 준비를 위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30
3장. 2004년도 임단투의 방향과 목표	41
4장. 제조연대 2004년 임금인상 요구	43
5장. 단체협약 갱신 요구	47
1. 주40시간제 관련 단체협약<필수요구>	160
2.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필수요구>	48
3.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우선요구>	70

4. 산업안전 관련 단체협약(우선요구)	78
5. 경영참가 관련 단체협약(우선요구)	80
6장. 제도개선 및 사회개혁 요구	100
1. 노조전임자임금 노사자율화	100
2. 노사관계선진화 방안(로드맵) 저지	102
3. 국민연금 개악 저지	117
4. 퇴직연금(기업연금) 도입 저지	120
5. 세제개혁	133
6. 최저임금제 개선	143
7장. 2004년 제조연대 임단투의 목표 및 전략과 전술	154
1. 2004년 제조연대 임단투 목표	154
2. 2004년 제조연대 임단투 전략과 전술	156
<별첨> 주40시간제 단협지침	160
1. 투쟁경과와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60
2. 주40시간제 시간단축 단협지침	165
주40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단체협약(안)	186
주40시간 개정 근로법 문답풀이	188
3. 경총지침 비판	202
4. 참고자료 1 : 소정근로시간 산정	215
5. 참고자료 2 :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 사례	219
1) 사이스 이천 열병합발전소 사례	220
2) 머큐리 사례	222
3) 동성금속 사례	223
4) OTIS-LG 사례	223
5) 세진전자 사례	224
6) 그린산업 사례	226
7) 현대오토넷 사례	227
8) 다스 사례	228
9) 대덕전자 사례	229
10) 웨프네커폹정 사례	232
11) 한국GMB 사례	233
12) 세광알미늄 사례	234
13) SKC 사례	235
14) 쌍용양회 사례	237

15) 유한킴벌리 사례	242
16) 금용산업노조 사례	245
17)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례	247
18) 현대자동차 사례	248
모범 단체협약(안)	249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295
1.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95
2. 제조노동자 월임금 실태	309
3. 제조노동자 평균 주당 노동시간, 근속년수, 연령, 가족규모	312
4. 제조부문 업종별 임금 실태(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317

3. 2004년 임단투 진행상황 조사

1) 목적

주40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이 2004년 7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됨에 따라,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원활한 주40시간제 교섭지도와 효과적인 투쟁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함.

2) 조사일시

2004년 4월 ~ 6월

3) 조사내용

■일반사항

지역		업종		노조명		지부명	
조합원 수		명	종업원 수	주생산		특이사항	
남성 조합원 수	여성 조합원 수	명	명	품			
명	명	명	명				

■ 교섭 돌입여부 : ☐ 예 ☐ 아니오

■ 최초 교섭돌입일 : (월 일) 또는 교섭돌입 예정일 : (월 일)

■ 교섭 타결여부 : ☐ 예 ☐ 아니오

■ 임금인상 평균요구 : 기본급기준은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기본급기준 요구율	%	기본급기준 요구액	원
총액임금기준 요구율	%	총액임금기준 요구액	원

■ 임금인상 평균타결 :

기본급기준 타결율	%	기본급기준 타결액	원
총액임금기준 타결율	%	총액임금기준 타결액	원

■ 단협갱신 요구사항 : 해당사항에 ○/×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요구		고용안정 관련 요구		비정규직 관련 요구	
근골격계 관련 요구		경영참가 관련 요구			

■ 단협갱신 타결사항 : 해당사항에 ○/×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요구		고용안정 관련 요구		비정규직 관련 요구	
근골격계 관련 요구		경영참가 관련 요구			

■ 주40시간제 타결사항 : ■표시 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바랍니다.

① 주40시간제 시행시기 - (년 월 일)

② 노동시간 - (1주 시간, 1일 시간)

③임금체계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개수·도급제	
-----	--	-----	--	-----	--	--------	--

④ 유급휴일 수 - (일) ※근기법 54조에는 1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무사항으로 둠.

⑤ 월소정 근로시간 - (시간) ※계산식은 $\frac{\text{주당유급노동시간}}{7\text{일}} \times \frac{365\text{일}}{12\text{개월}}$ 임.

⑥ 임금보전 방안

기본급 또는 시급통상임금 인상으로 보전		기타	
-----------------------	--	----	--

⑦ 연월차 유급휴가 수

2년이상 계속근로시 연간 일부터 년당 일을 가산하여 일까지 유급휴가증.

⑧ 3년간 한시적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도입여부 (50%→25%)

- 예 아니오

⑨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여부(서면합의시 1개월 → 3개월)

- 예 아니오

⑩ 무급생리휴가 도입여부 - 예 아니오

⑪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여부 - 예 아니오

⑫ 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여부 - 예 아니오

⑬ 교대근무제 변동여부

- ()조 ()교대에서 ()조 ()교대, ()조 ()교대로 변경

⑭ 40시간제 도입으로 고용변화 예상

-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산업안전활동

1. 제1기 산재보상학교
2. 제2기 산재보상학교
3. 산재조합원 지원활동
4. 산업안전보건교육 1차
5. 산업안전 보건교육 2차
6. 무료 안전진단사업

1. 제 1기 산재보상학교

●●● 한국노총과 함께!! · 시민당과 함께!! · 4·15총선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홈페이지www.metall.or.kr 전자우편fkmtu@chol.com

금속노련산안 제 159 호

2003. 10. 7

수 신 각 지역본부의장. 단위노조위원장

제 목 제1기 산재보상학교 교육생 모집

1. 한국노총에서 산업재해 보상과 산재처리, 산재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기 산재보상학교를 첨부 계획서와 같이 개최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직결될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산업재해시 노동조합의 대처능력을 높여줄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이번 산재보상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제1기 산재보상학교 추진계획 1부 -끝-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이 병 균

직 인
생 략

제1기 한국노총 산재보상학교 추진

1. 목 적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처리 및 산재보상 실무, 산재예방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산재보상정책활동을 강화함.
-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일회성 교육에 치우쳐왔던 산재보상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도있는 실무 전문가를 양성함.

2. 주요 추진내용

- 1) 교육 시간 : 18시간(2박3일 합숙)
- 2) 교육 일정 : 10월 22(수) - 24(금)
- 3) 교육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여주)
- 4) 교육 인원 : 70명
- 5) 교육참가비 : 1인당 20,000원
- 6) 입학신청 접수 및 마감 : 10/1 - 10/15까지(입학신청서 별첨)

3. 교과 및 강사진 (교육일정 별첨)

- 1) 하반기 노동운동 동향과 노조간부의 자세 (1 ') : 이남순 위원장
- 2) 산재보상보험법 I (산재보상법의 의의와 노동조합의 역할) (1 ')
: 박석운 소장
- 3) 산재보상보험법 II (보상절차와 보험급여) (1 ') : 박석운 소장
- 4) 산재보상보험법 III (산재보험의 적용과 운용) (2 ') : 윤조덕 소장
- 5) 산재보상보험법 IV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2 ') : 최재욱교수
- 6) 산재보상보험법 V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과 장해판정기준) (2 ')
: 최재욱교수
- 7) 산재보상보험법 VI (산재심사제도와 소송일반) (2 ') : 한기준변호사
- 8) 산재보상보험법 VII (직업재활) (1 ') : 박석돈교수
- 8) 산재보상 실무 (2 ') : 이호복노무사
- 8) 산재예방활동 및 PL법 이해 (1 ') : 자체강사
- 9) 정부의 산재보상정책(1 ') : 이상진과장
- 10) 분임토의(2 ')

4. 입교 및 수료식

- 1) 입교식:10/22(수) 13:00-인사말(위원장)
- 2) 수료식:10/24(금) 12:00-인사말(위원장), 수료증 수여, 모범학생 상장 수여

5. 교육생 준비사항

- 1) 10/22(수) 12:00까지 노총 중앙교육원 집결
- 2) 츠리닝, 세면도구 등 본인 지참

<제1기 한국노총 산재보상학교 입학신청서>

조 직 명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락처(휴대폰 No)	
본인은 제1기 한국노총 산재보상학교 입학을 신청합니다. 2003. 10. 성 명 (인)	

※ 교육신청은 10/17일까지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2-864-0457, 문의전화 864-290 김홍룡 노사대책본부장)

<교육 일정표>

구분	10/22 (수)	10/23 (목)	10/24 (금)
09:00 ~ 09:50		산재보상보험법 IV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과 근골격계질환)	정부의 산재보상정책
10:00 ~ 10:50		“	산재보상 실무
11:00 ~ 11:50		산재보상보험법 V (산재보험의 적용과 운용)	“ 수료식
12:00 ~ 12:50	점심식사		
1:00 ~ 1:50	입교식	산재보상보험법 V (산재보험의 적용과 운용)	
	하반기 노동운동의 동향 과 노조간부의 자세		
2:00 ~ 2:50	산재보상보험법 I (산재보상법의 의의와 노동조합의 역할)	산재보상보험법 VI (산재심사제도와 소송일 반)	
3:00 ~ 3:50	산재보상보험법 II (보상절차와 보험급여)	“ ”	
4:00 ~ 4:50	산재보상보험법 III (업무상재해의 인정기 준)	산재보상보험법 VII (직업재활)	
5:00 ~ 5:50	“ ”	산업안전과 PL법	
6:00 ~ 6:50	저녁식사		
7:00 ~ 8:50	분임토의	단결의 시간	
9:00 ~	취침	취침	

제1기 산재보상학교 참가자 명단

순번	소속노조	성명	직책	연락처	비고
1.	명화공업	하의태	부위원장	016-9616-7393	
2.	“	정태윤	사무국장	017-594-5436	
3.	대일공업	허문근	위원장	016-579-2707	
4.	동성금속	박희동	위원장	011-9089-8635	
5.	그로웰 메탈	김용남	안전부장	031-491-3239	
6.	삼양중기	이성수	위원장	011-9369-5416	
7.	백조썩크	서일원	사무국장	016-414-0872	
8.	넥상스 코리아	정민교	부위원장	016-9680-7636	
9.	“	고인재	안전부장	016-9587-5838	
10.	한국가구	기상진	위원장	017-304-1577	
11.	두원중공업	오삼석	사무국장	011-569-4720	
12.	LG마이크론	남이경	복지후생부	019-9164-4142	
13.	“	정우철	대의원	019-530-7614	
14.	LG실트론	유상원	산안부장	019-9173-9750	
15.	“	성재모	“	011-810-9973	
16.	“	윤지현	대의원	011-820-5377	
17.	롬 코리아	송영만	사무국장	042-939-3436	
18.	“	오승휴	산안차장	“	
19.	현대 아스텍	고재기	복지후생부장	016-358-7351	
20.	미주제강	김동관	사무국장	016-517-3242	
21.	협진정밀	최용웅	위원장	011-9137-2676	
22.	금속충북본부	김한성	의장		
23.	금속노련	김홍룡	본부장	016-299-2335	
24.	“	정일진	부위원장		

2. 제2기 산재보상학교

제2기 한국노총 산재보상학교 추진

1. 목 적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처리 및 산재보상 실무, 산재예방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산재보상정책활동을 강화함.
-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일회성 교육에 치우쳐왔던 산재보상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도있는 실무 전문가를 양성함.

2. 주요 추진내용

- 1) 교육 시간 : 17시간(2박3일 합숙)
- 2) 교육 일정 : 3월 17(수) - 19(금)
- 3) 교육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여주 소재)
- 4) 교육 인원 : 60명
- 5) 교육참가비 : 1인당 20,000원
- 6) 입학신청 접수 및 마감 : 3/5까지(입학신청서 별첨)

3. 교과 및 강사진 (교육일정 별첨)

- 1) 2004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2) :
- 2) 산재보상보험법 I (산재보험의 개요) (2 ') :
- 3) 산재보상보험법 II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3 ') :
최재욱교수(고려대의대)
- 4) 산재보상보험법 III (산재심사제도와 소송일반) (2 ') :
한기준변호사(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 5) 산재보상 실무 (3 ') : 김완식 노무사(열린노무법인)
- 6) 산재보상 실무 II (1 ') :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 7)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안(1 ') : 최병균 산업안전본부장
- 8) 정부의 산재보험정책 (1 ') :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 8) 분임토의 및 체육활동 (2 ')

4. 입교 및 수료식

- 1) 입교식:3/17(수) 13:00 - 인사말(위원장)
- 2) 수료식:3/19(금) 12:00-인사말(위원장), 수료증 수여, 모범학생 상장 수여

5. 교육생 준비사항

- 1) 3/17(수) 11:40까지 여주 중앙교육원 집결
- 2) 휴리닝, 세면도구 등 본인 지참

<제2기 한국노총 산재보상학교 입학신청서>

- 본인이 직접 작성, 접수하여 주십시오

조 직 명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e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No)	
본인은 제2기 한국노총 산재보상학교 입학을 신청합니다. 2004. 2. 성 명 (인) 한국노총 산재보상학교장 귀하	

※ 교육신청은 3/5일까지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2-864-0457, 문의전화 864-2901 김홍룡 본부장)

<교육 일정표>

구분	3/17 (수)	3/18 (목)	3/19 (금)
09:00-09:50		산재보상보험법 II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과 근골격계질환)	산재보상실무 II
10:00-10:50		" "	정부의 산재보상정책
11:00-11:50		" "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11:40 접수 및 방배정	수료식		
12:00-12:50	점심식사		
1:00 - 1:50	입교식 2004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산재보상 실무 I	
2:00 - 2:50	" "	" "	
3:00 - 3:50	산재보상보험법 I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 "	
4:00 - 4:50	산재보상보험법 I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분임토의 및 체육활동	
5:00 - 5:50	산재심사제도와 소송일반	분임토의 및 체육활동	
6:00 - 6:50	저녁식사		
7:00 - 8:50	산재심사제도와 소송일반 단결의 시간	단결의 시간	
9:00 -	취침		

●●● 한국노총과 함께!! · 시민당과 함께!! · 4 · 15총선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홈페이지www.metall.or.kr 전자우편fkmtu@chol.com

금속노련산안 제 38 호

2004. 2. 20

수 신 각 지역본부의장. 단위노조위원장
제 목 2004년 제2기 산재보상학교 교육생 모집

1. 귀 노조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에서 2004년도 제2기 산재보상학교를 첨부 계획서와 같이 실시합니다.
3. 산재 보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니 관심있는 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교육신청은 3월 5일까지 우리노련 산업안전국으로 기일엄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4년 제 2기 산재보상학교 계획서 1부, 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병 균

직인
생략

제2기 산재보상학교 참가자 명단

순번	조직명	직책	성명	연락처	비 고
1.	엘지전선(군포)	산안부장	신남철	011-0001-5922	
2.	“	사무장	김영무	019-356-6968	
3.	환영철강	산안부장	황일진	016-9705-2528	
4.	엘지전자(평택)	산안부장	배성수	019-332-5989	
5.	풍산	산안국장	장현식	016-9564-0723	
6.	경신전선	사무국장	채준병	011-454-0386	
7.	두원공조	산안부장	장현식	011-9772-4360	
8.	동원금속	법규부장	김창영	016-436-4759	
9.	동원금속	대의원	안창국	016-9566-9561	
10.	동원금속	교선부장	최정화	011-9823-6393	
11	기아특수강	산안1차장	강동진	017-616-1054	
12	“	복후실장	김용해	011-684-1858	
13	“	산안2차장	장호규	011-682-8766	
14	“	산안1부장	조원국	017-660-9098	
15	“	산안2부장	채남석	016-348-7026	
16	대우일렉트로닉	산안부장	고재수	017-623-9928	
17	FAG베어링	사무국장	전광배	019-9008-5784	
18	“	산안부장	전명식	017-586-5475	
19	“	산안차장	조영국	017-586-5475	
20	성우오토모티브	산안부장	최봉규	011-9426-8890	
21	동화산업	안전부장	송준호	017-577-9763	
22	“	대의원	진재혁	011-559-0761	
23	풍산 안강지부	산안차장	김철호	017-810-0354	
24	한국보그워너	사무국장	안하규	043-233-6994	
25	“	산안부장	김충래	011-469-2971	
26	름 코리아	산안차장	오승휴	019-649-2764	
27	“	산안부장	조영주	017-420-2077	
28	“	대의원	김원진	016-895-0190	

3. 산재조합원 지원활동

◎ 산재조합원 지원활동 계획서 ◎

1. 취지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년말을 맞이하여 연맹 복지사업의 성과분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따뜻한 격려와 정성을 불어넣고 동지애를 싹트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총 5,000,000원(올해 복지사업본부에서 출연 가능한 액수)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심사를 거쳐 보고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1명의 산재조합원(지역본부마다 1명: 300,000원, 전국적으로 총 15명)에게 이를 분할하여 1인당 30만원을 지급함

(추후, 복지사업 성과가 높을 경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임)

3. 지원대상 선정원칙

- 현재 산재를 입어 요양 치료 중에 있는 가맹노조의 조합원
- 장애등급, 부양가족 규모, 재산정도, 소득 수준(장애급여 감안)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조합원을 우선 지원함

4. 심사방법

- ▶ 각 지역본부별로 별도의 협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 선정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한 뒤
- ▶ 년 말에 산재조합원을 방문하여 연맹과 지역본부가 함께 전달함

5. 산재조합원 현황 및 지원자 보고

- ▶ 지역본부는 해당지역내 산재조합원 현황과 지원자 내역을 연맹으로 12월 2일(화)까지 별첨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 ▶ 연맹에서는 이를 검토한후 년 말에 연맹과 본부에서 직접 전달할 계획임

6. 위문·지원시기:

12월 5~20일사이에 위문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임
(세부일자는 지역본부와 협의후 결정할 계획임)

7. 산재조합원 현황 보고 양식

지역	노조명	성명	부양가족	요양기간	요양기관(병원)	장해부위 및 상태
			명			
			명			
			명			
			명			

●●● 2003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 통합 산별 건설!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전자우편 fkmmtu@chol.com

금속노련산안제 200 호

2003. 11. 25.

수 신 지역본부의장

제 목 산재조합원 현황조사 및 지원자 선정의뢰

1. 노동운동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귀하께 격려를 드립니다.

2. 우리노련 산업안전부에서 복지사업본부 수익금중 일부를 지원받아 불의의 산재를 입어 고통받고있는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 년말을 맞이하여 지원 함으로써 동지애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별첨과 같이 산재조합원 현황조사 와 함께 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각 지역본부에서는 별첨양식을 참고하여 2003. 12. 2일 까지 산재조합원 현황 및 지원자를 선정 우리노련 산업안전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산재조합원 지원활동 계획서 1부. 끝

산재조합원 지원자 현황

지역	노조명	성명	부양가족	요양기간	요양병원	장해부위및상태	순회일정
서울	롯데알미늄	황은서	4명	2003.10.28~	서부공단병원	우측 발목 골절	12.15
경기	동아정기	이홍술	단독	2003.3~		척추 디스크	12.15
인천	대한제당	김응희	4명	2003.11.5~	부평성모장애인병원	뇌경색(중환자실)	12.11
안산,시흥	코리아 필	박광석	3명	2003.9~	광명성애병원	다리뼈 골절	12.11
충남	LG산전 장항	김운창	2명	2003.11.17~	군산 한사랑병원	작업중 과로 아직 병명모름	12.23
충북	없음						
대전	동양멀티칼라	이종일	2명	2개월	대전중앙병원	다리 골절	12.23
대구	경창정공	임장삼	4명	6개월	구 병원(통원치료중)	왼손검지 신경 파손(장애판정)	12.18
구미	알칸대한	강동원	4명	03.11.11~	경북대 병원	개방성하지골절	12.18
포항	(주)한금	김종원		1개월	오학운 정형외과	추간판탈출증	12.18
경남	효성기계	박정호	3명	02.8~	세광병원	오른손엄지 절단	12.19
울산	고려아연	이상철	1명	03.7.30~	부산샘턴병원	팔 절단	12.19
부산	대선조선 YK Steel	박영도	3명	03.6.20~	해동병원	요부염좌 좌상	12.19
		김선봉	3명	02.9.25~	동의의료원	뇌졸중	
전북	K.H.E(열교환기)	백명수	1명	03.11.12~	정읍 장기영정형외과	우측관절내아골절,우하태부찰과	12.23
광주 전남	화천기공	민영연	3명	03.10.28~	서울한강성심병원	하체2,3도화상 발가락양쪽절단	12.22
강원	쌍용동해산기	김영소	3명	98.8.27~	백신경외과 통원치료중	전기감전으로 근육마비	12.19 순회팀 전달

4. 산업안전보건교육 1 차

국장	본부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문서번호	산안 호	시행일	2003. 9. 23	작성자	산업안전보건 김홍룡	
제 목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안)			수신처	위원장, 의장	

1. 지난7월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폭 개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보건 활동방향의 모색과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근골계질환 예방 대책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을 강구 하고자 첨부 계획서와 같이 한국노총이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2.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활동인바 적극적인 참석을 바라며 오는 10월 10일까지 노련 산업안전국으로 참가신청 바랍니다.

별첨 :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안 1부, 끝.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조합 대책활동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배치하고 단위노조 산재예방 및 후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참석대상:** 단위노조 산업안전보건 담당간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석을 희망하는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선착순으로 60명을 선발)

2. **교육참가비 :** 1인당 2만5천원

3. **장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

4. **준수사항 :** 원활한 진행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참가자들은 정확한 시간(7/8 11시까지 교육장 집결)을 엄수바라며, 교육기간 중에 퇴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바랍니다.

5. 교육내용

- ▲ 노동정세와 연맹활동방향 (1시간) : 연맹 임원
- ▲ 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정책 (1시간) : 산업안전공단 노조 위원장
-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해설 (3시간) :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노동조합의 활동 (3시간) : 이윤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 ▲ 직업병인정사례와 보상 (2시간) : 최재욱 교수 (고려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2.5시간) : 산업안전공단 추천 강사 (이동경 교수)
- ▲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활동 (2시간) :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6. 교육일정표

시간 \ 일자	7/8(화)	7/9(수)	7/10(목)
07:00~08:00		조 식 (1H)	조 식 (1H)
08:00~09:00		교육준비(1H)	교육준비(1H)
09:00~10:00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노동조합의 활동(3H)	분임토의결과발표(1H)
10:00~11:00			한국노총의 안전보건활동(2H)
11:00~12:00			평가 및 종강식
12:00~13:00	등 록 중 식 개 강 식	중 식	중식후 귀가
13:00~14:00	노동정세와 연맹 활동방향 - 연맹 임원	직업병인정사례와 보상 (2H)	
14:00~15:00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해설(3H)		
15:00~16:00	- 하종강 소장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2.5H)	
16:00~17:00			
17:00~18:00	공단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안전공단 노조 위원장	분임토의	
18:00~19:00	석 식	석 식	
19:00~20:00	자기소개(2H) -진행팀	분임토의 계속 -진행팀	
20:00~21:00			
21:00~22:00		단결의 밤	
22:00~23:00			

7. 약도: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032.5100-950 / 인천시 구산동 소재)

전철 영등포역에서 인천행 전철(1호선) 승차후 송내역에서 하차 (소요기간 25분)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지하철(3호선) 승차후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후
 신도림역에서 하차하여 인천행 전철(1호선)으로 환승후 송내역에서 하차(소요시간
 70분) 용산에서 부평까지 직통전철 이용시 15분정도 소요시간 단축

승용차 서해안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정인 서창IC에서 부천방향으로 진입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송내에 도착하여 안전공단방향으로 좌회전한후 500m 운행
 경인고속도로는 부천IC를 지나서 서울외곽 순환도로 송내방향 진입

서울외곽 순환도로(일산-판교·성남)은 (부평·부천 출구) 부천방향으로 진입

고속시외버스 인천 또는 부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후 택시승차 (소요시간: 인천30분, 부천 15분)
문의: 인천터미널 032.430-7333 / 부천터미널 032.325-8212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하차후 인천지하철 이용(터미널-부평-송내)시 30분 소요

항공기 김포공항에서 부천·인천방향 시외버스(550번)승차후 송내3거리에서 하차(소요기간 50분)

수도권 전철이용(김포공항-신길-송내, 김포공항-까치산-신도림-송내)시 60분 소요

송내역에서 교육원오시는 길

교육원 버스: 매시간 08시 20,30,40,50분 등 총 4회 운행(소요시간 5분)

도보: 경인국도 횡단후 중앙병원 방향으로 도보 (소요시간 15분)

7. 예산계획(안)

숙식 및 강사, 교재제작 : 산업안전공단 교육원 지원

기념품 제작, 다과 및 뒷풀이 비용 : 교육생 참가비로 대체

예 산		지 출	
교육참가비	25,000원×50명=1,250,000원	부교재제작	100,000원
		현수막	50,000원
		기념품(T-셔츠)	@10,000×60벌=600,000원
		다과비	100,000원
		뒷풀이비	300,000원
		예비비	100,000원
총계	1,250,000원	총계	1,250,000원

5. 산업안전 보건교육 2차

≡ 한국노총 산업보건교육 계획서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작업현장에서 스스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입니다.

노동현장이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유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각종 직업병의 예방, 근골격계질환 대책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되어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적극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교육이 요구되고 되고 있습니다.

1. 교육 일시 ; 2003년 10월 15일 ~ 17일 (2박3일)

2. 교육장소 : 산업안전공단 교육원

3. 참석대상 : 산별회원조합 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단위노조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참가희망 노조간부 등 60명

4. 교육 과목 및 강사

- ▲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1시간) : 노총 김 성태 사무총장
-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방향과 과제 (2시간)
- ▲ 정부의 산업보건정책방향 (2시간) : 노동부 송 봉근산업안전국장
- ▲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2시간) : 노동인권회관 박 석운소장
- ▲ 산업보건기준규칙과 노동조합의 활동방향(3시간):고려대 박희찬교수
- ▲ 직업병예방과 인정사례(2시간) : 직업병연구센터 강성규 소장
-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2시간) : 공단 이 동경교수
-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와 예방프로그램(2HR): 카톨릭대 김현옥 교수

5. 교육일정

1일차 (10월 15일 수요일)

11:00 ~ 12:00	접 수, 등록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30	개강식
13:30 ~ 14:30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
14:30 ~ 16:30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16:30 ~ 18:00	정부의 산업보건정책 방향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자기소개 및 친목도모

2일차 (10월 16일 목요일)

07:00 ~ 08:00	아침식사
08:00 ~ 09:00	자치회 시간
09:00 ~ 12:00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와 예방프로그램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6:00	산업보건기준규칙과 노동조합의 활동방향
16:00 ~ 18:00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30	분임토의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의 과제)
20:30 ~ 23:00	단결의 시간

3일차 (10월 17일 금요일)

07:00 ~ 08:00	아침식사
08:00 ~ 08:30	분임토의 발표
08:30 ~ 10:30	직업병 예방과 인정사혜
10:30 ~ 11:30	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방향과 과제
11:30 ~ 12:00	교육결과 평가 및 종강식
12:00 ~	중식 후 귀가

산업안전공단 교육원 찾아오는 길

우)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 (구산동 34-4)

대표전화 032) 5100 - 500



-전철이용 : 1호선 송내역 하차 남부광장 방향에서 교육원 버스 이용
(매일 08시 08, 20, 30, 50분 등 총 4회 운행)

◎ 인천방향 → 송내역하차 → 인천기능대, 한국산업안전공단 방향 (도보로 15분 거리)

◎ 도시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내분기점에서 나와서 부천방향으로 진입 →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 첫번째 신호등에서 유턴 → 안전공단

◎ 신갈안산 고속도로 → 부천방향(인천방향으로 가면 안됨) → 고속도로 종점에서 3킬로미터 → 우측 중앙병원 후에 안전공단

◎ 경인고속도로 → 부천과 중동을 지나 송내사거리에서 좌회전 → 첫번째 신호등서 유턴 → 안전 공단

◎ 경인고속도로 → 부천지나서 서운분기점으로 나와 도시외곽순환고속 도로 판교방향으로 송내분기점에서 나와서 부천방향으로 진입 → 첫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 첫번째 신호등에서 유턴 → 안전 공단

◎ 88대로 → 김포매립지 방향 → 부천중동 방향으로 가서 중동아파트단지 지나 → 송내지하차도 통과 → 첫번째 신호등에서 유턴 → 안전 공단

6. 산업안전교육 참가자 명단

순번	소 속	성 명	노 조 직 위	연 락 처
1.	바이오 하이디스	윤상호	복지후생실장	011-9839-5589
2.	“	정남일	산업안전부장	016-9321-2044
3.	성우 오토모티브	안석기	산업안전부장	019-583-1664
4.	“	이창승	사무국장	011-807-9084
5.	(주) 강남	박영완	사무국장	051-262-8948
6.	현대에너지셀	김호섭	총무부장	011-9719-8711
7.	“	최관홍	명예 산안감독관	019-301-8704
8.	신한일전기	김정우	안전차장	011-9739-9330
9.	“	황운기	안전관리자	019-524-6399
10.	다 스	김경한	사무국장	011-523-3295
11.	“	윤학선	산업안전부장	011-9506-2755
12.	기아특수강	고성명		
13.	“	김의겸		
14.	“	정건찬		
15.	“	양성호		
16.	“	조진성		
17.	“	이명상		
18.	델코 전지	최창희	쟁의부장	019-423-2872
19.	“	김성후	대의원	011-529-5348
20.	금속노련	김홍룡	산업안전담당	016-299-2335

6. 무료안전진단사업



●●● 한국노총과 함께!! · 시민당과 함께!! · 4·15총선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홈페이지www.metall.or.kr
전자우편fkmtu@chol.com

금속노련산안 제 15 호

2004. 2. 2

수 신 단위노조 위원장

제 목 무료 안전진단 사업장 신청

1. 귀 노조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에서 무료 안전진단 사업을 별첨 내용과 같이 시행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산재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바랍니다.
3. 무료 안전진단은 신청순위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 실시 할 계획이니 2004. 2. 13일 까지 우리노련 산업안전국으로 신청 바랍니다.

붙 임 : 한국노총 안전진단 계획 1부. 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이 병 균

한국노총 안전진단

동 사업의 목적은 산재다발 업종이면서 산재예방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2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 노·사 참여하에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산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 안전진단 대상사업장

조합원수 200인미만 사업장으로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호텔, 병원, 아파트, 공연장 등) 사업장

2. 산업재해는 사전예방이 중요

2002년에 무려 2,605명의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하였고 81,911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매일 7.1명의 사망자와 224.4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아직 대부분의 노조는 산재예방보다는 사후보상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장애자가 된 뒤에 산재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없이 산업재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3.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 파악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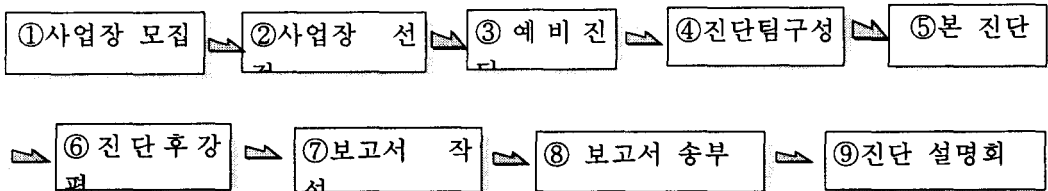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건강진단을 해야 하듯,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점검)을 먼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찾아낸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들은 없애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가 지는 것이지만 노조도 도덕적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임금 결정을 사업주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노조가 유해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박멸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4.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우면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에 의뢰-무료

막상 작업장을 안전점검 해보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법적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워낙 위험한 작업에 익숙해져온 작업습성 탓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보면 처음에는 겁(?)을 먹다가 나중에는 용감(?)해지듯이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어디든지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5. 안전진단 과정



*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액 무료임

6. 안전점검(진단)과 관계되는 법령 및 규칙,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취업제한규칙)

* 통상 1개법에는 1개의 시행규칙이 기본, 그러나 산안법은 1개법에 4개의 규칙이 있음

(산안법시행규칙, 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규칙)

2) 노동부 각종 고시

-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
-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규정
-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보일러, 프레스, 로울러기 제작

기준,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 각종 KOSHA Code

7. 안전진단 신청양식

사업장명	주 소	조합원수	위원장	연락처	업종	비 고

☞ 연락처 : 금속노련 산업안전국 (02/864-2901, fax 02/864-0457)

8. 무료안전진단 사업장

순 번	사업장명	주 소	조합 원수	위원장	연락처	업종
1.	한국코트 텔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1 옥도빌딩	151명	이종영	019-207-1391 02-320-6133	전기 집진기
2.	한국코오 배용점	경남 창원시 팔용동21-14	74명	김종민	019-365-4324 055-292-6886	제조
3.	(주)KHE	전북정읍시 하북동 852 (2공단 3블럭)	58명	이종대	019-616-7529 063-531-0188	기 계 제 조
4.	경신전선	충남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463-5	104명	강홍진	011-423-3532 041-541-2959	자 동 차 용 전선
5.	두산전자	경북 구미시 구포동 644번지	182명	황윤옥	054-479-6424	제조업
6.	한국번디 (본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206-1	73명	양봉광	017-346-1802 031-663-1802	제조업
7.	한국번디 (지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38-3	59명	김원영	011-648-1231 062-954-1409	제조업

교 육 활 동

1. 제조연대 경영분석 및 참여 집중교육
2. 단위노조 대표자 정책세미나
3. 제조연대 선전선동학교
4. 주40시간제 대비 특별 교육
5.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
6.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위탁교육
7.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교육지원

1. 제조연대 경영분석·참여 집중 교육

1) 취지

구제금융사태 원인중 한가지는 기업의 독단경영에서 비롯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자본진영에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2003 임단투에서 사용자들은 경영 성과를 은폐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논리와 방어 전술개발이 요구된다.

이제 노동자도 스스로가 재무제표를 놓고 경영분석을 하고, 경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업의 당당한 주체로의 자본의 독단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조연대는 단위사업장의 2003임단협 투쟁활동 지원을 위한 “경영참여 및 분석 집중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영참여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조노동자의 연대성을 확보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2) 장 소 : 한국노동교육원

3) 참가자 : 12개 단위노조 중에서 16명

4) 일정표

시 간 \ 일 정	4/2(수)	4/3(목)	4/4(금)
07:00 ~ 08:00		 아침식사	
08:00 ~ 08:50		 교육준비	
09:00 ~ 10:00		<강의3> 경영분석을 위한 기초 재무제표 알기	<강의7> 소유와 지배구조개선과 노동조합 역할
10:00 ~ 11:00			종강식 및 해산
11:00 ~ 12:00			접수 및 방배정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4:00	개강식	<강의4> 경영분석 실습	
14:00 ~ 15:00	<강의1> 노조 경영참여 필요성과 방법 및 유형		
15:00 ~ 16:00	<강의2> 경영참여사례 (제조업)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저 녁 식 사		
19:00 ~ 20:00	자기소개	<강의6> 노동문화의 이해	
20:00 ~ 21:00			
21:00 ~ 22:00	세면후 휴식	단결의 밤	

2. 단위노조 정책세미나

1) 목적

금속노련은 노동법 개정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의 노조운동상황을 주체적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지난 5.2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조대통합을 위한 화학노련과의 통합 추진을 결의함

이에 따라 ▲주5일제 국회통과, 신노사관계 로드맵 등 당면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투쟁방향을 모색하고, ▲통합추진에 대한 경로와 방향에 있어 금속·화학 양 연맹의 다양한 현장 요구를 모아냄으로서 제조대통합에 대한 의의를 여러 측면에서 재정리하고 조직발전 전망에 기초한 제조대통합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2) 세미나 방식 : 강의·발표 + 질의응답 + 분반 및 전체토의

3) 참가자 : 각 노동조합 대표자 (노조 위원장, 지부장) 및 간부

	시기	대상권역	대상지역
1차	10/14~15	충청권	52 (금속 24 / 화학 28)
2차	10/16~17	수도권,강원도	47 (금속 22 / 화학 25)
3차	10/28~29	영남권	100 (금속 62 / 화학 38)
4차	10/30~31	호남권	20 (금속 11 / 화학 9)
	총계	전 국	219명 (금속119 / 화학 100)

4) 일정 및 장소

차수	시기	대상권역	대상지역	장소
1차	10/14~15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본부	유진호텔(대전)
2차	10/16~17	수도권,강원도	서울, 경기, 인천, 안산시흥, 강원본부	용인 파인리조트
3차	10/28~29	호남권	광주전남, 전북본부	지리산 한화콘도
4차	10/30~31	영남권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구미,포항본부	경주 쿡코드호텔

5) 전반적인 결과 및 평가

- 통합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와 공감대 도모하는 성과를 보임

-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의견은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참석인원이 일부지역에서 저조하게 나타남
 - 특히, 일정대로 세미나가 진행되지 못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분임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열거식 전체 토의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문제를 남음
 - 통합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다만, 의무금, 대의원배정, 통합조직 임원, 지역본부정비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양조직 대표자가 공동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음
- 세미나이후 과제로는 통합추진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구체화시켜낼 것과 양조직을 대표하는 공동추진위원회 의견으로 발전시켜낼 것, 양 연맹산하 지역본부간 결합력 증대를 위한 사업배치 및 지도활동 등이 제기됨

6) 프로그램

일자 시간	1일차	2일차
07:00	10시40분까지 등록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분반토의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 - 분반토의 결과 발표, 종합토론 사회 : 양연맹 사무처장 중에서
10:00		
11:00	오리엔테이션 (참가자소개, 위원장 인사말)	중강식
12:00	중식	중식후 해산
13:00	【강의1】 노동조합운동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 양 연맹 위원장 중에서	
14:00	【강의2】 국내외 산별 통합 추진이 주는 교훈 - 노동사회연구소	
15:00	【강의3】 금속·화학연맹의	
16:00	제조산별 통합추진실무위 경과보고 및 기본계획 발표 - 양연맹 간부중	
17:00	제조산별통합에 대한 질의응답	
18:00	식 식	
19:00	분반토의	
20:00	- 통합 쟁점중 로드맵과 신산별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의	
21:00	단결과 연대의 밤	
22:00		

3. 제조연대 선전선동학교

- 1) 목 적 : 노동조합 간부의 대중집회 기획과 연설 등 선전선동능력 함양
- 2) 시 기 : 11월 12~14일 / 장소 : 노동교육원
- 3) 장 소 : 한국노동교육원
- 4) 참가자 : 14개 단위노조 중에서 임원 및 조직부장, 쟁의부장 31명

5) 프로그램

일자 시간	11월12일(수)	11월13일(목)	11월14일(금)			
07:00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강의3】 쟁점노동관계법 해설 - 이공희 노무사	선동연설 보고 평가하기			
10:00		【강의4】 선동연설 및 연설문 작성 - 충남일반노조 이원복 부위원장 분반별 : 연설문 작성 및 연습	【강의7】 선동가의 자세와 역할 - 노총 조기두 부장			
11:00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제조연대 선봉대 발족·종강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강의4계속 개인별:선동연설(VTR촬영)	중식후 해산			
14:00	【강의1】 제조연대의 운동전략과 과제	【강의5】 집회전술과 판짜기 분반별 : 집회판짜기 실습 분반별 결과발표 - 충남일반노조 이원복 부위원장				
15:00						
16:00	【강의2】 선전선동의 원리와 방법 - 공공서비스연맹 최동민 실장					
17:00						
18:00	석 식	석 식				
19:00	강의2 계속	【강의6】 노동문화교육 (울동과 노래)1.5h				
20: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동지에게 편지쓰기	촛불의식,대동놀이 단결의 밤				
21:00						
22:00						

4. 주40시간제 대비 특별교육

1) 취 지

8.29일 개악된 근기법으로 인하여 2004. 7월부터 1천명 이상 사업(장)을 필두로 개악 근기법이 적용됨에 따라 금속·화학 두 조직의 1천명이상 사업장과 우선 대상 사업장 노조간부들을 중심으로 주40시간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단협지침의 공유를 위한 대비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장 소 : 용인 한화리조트

3) 대 상 : 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수가 1천인이상 사업(장)

현재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

2004년 또는 법시행 시점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하기로한 사업장

4) 참가자 : 총 40개 노동조합에서 94명 참석

5) 프로그램

시간 \ 일자	12월4일(목)	12월5일(금)
07:00	11시부터 등록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강의4】 주40시간제 대응과 단협지침의 방향 (2H) - 금속·화학 정책담당자중에서
10:00		평가후 해산
11:00		
12:00	중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14:00	【강의1】 주40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세와 대응방향(1.5H)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	
15:00	【강의2】 개정 근로기준법 및 주40시간제 노동부 행정지침 해설(2.5H) - 노동부 근로기준국 민길수 서기관	
16:00		
17:00	【강의3】 사례를 통해본 주40시간제 (1.5H) - 금속·화학 정책담당자	
18:00		
19:00	단결과 연대의 밤	
20:00		
21:00		
22:00		

5. 전국지역순회 감담회

1) 목적

금속·화학 두 조직의 제조통합연맹 추진 경로 및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내며 통합연맹 건설을 대중적으로 결의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순회토론회 방식 : 발표 + 질의응답 + 종합토론

3) 순회일정 및 장소

일 정		지 역	장 소
12/08(월)	오전 10시	서울	한국노총 서울본부 강당
	오후 15시	경기(남부,중부,중서부)	한국노총 경기본부 강당
12/09(화)	오전 10시	전북	한국노총 군산지부 강당
	오후 15시	광주전남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강당
12/10(수)	오전 10시	부산	한국노총 부산본부 강당
	오후 15시	경남	한국노총 경남본부 강당
12/11(목)	오전 10시	울산	한국노총 울산본부 강당
	오후 15시	포항	한국노총 포항지부 강당
12/12(금)	오전 10시	대구경북	한국노총 대구본부 강당
	오후 15시	구미	한국노총 구미지부 강당
12/15(월)	오전 10시	인천	한국노총 인천본부 강당
	오후 15시	경기서부(안산 시흥)	한국노총 안산지부 강당
12/16(화)	오전 10시	경기동북부(성남,광주,이천,여주)	한국노총 이천여주지부 강당
	오후 15시	충북	한국노총 충북본부 강당
12/17(수)	오전 10시	충남	한국노총 충남본부 강당
	오후 15시	대전	한국노총 대전본부 강당
12/18(목)	오후 15시	강원	한국노총 동해지부 강당

4) 순회팀 : 금속·화학 양연맹 위원장, 사무처장 + 정책담당자

5) 지역별 참가 현황

일자	지역별	금속	화학	계
12. 8	서울	7	9	16
12. 8	경기남부, 중부, 중서부	9	12	21
12. 9	전북	7	26	33
12. 9	광주, 전남	14	14	28
12. 10	부산	11	8	19
12. 10	경남	19	11	30
12. 11	울산	15	10	25
12. 11	포항	22	14	36
12. 12	대구, 경북	22	9	31
12. 12	구미	12	13	25
12. 15	인천	18	20	38
12. 15	경기서부	20	8	28
12. 16	경기동북부	12	10	22
12. 16	충북	14	24	38
12. 17	충남	11	18	29
12. 17	대전	5	15	20
12. 18	강원	3	22	25
총인원 (조직수)	(17개 지역별)	221명 (205개 조직)	243명 (220개 조직)	464명 (425개 조직)

6.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위탁교육

1) 노조간부 교육

① 장소 및 기간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2박3일

② 목적

- ▲ 21세기 노조간부의 역할 인식 제고
- ▲ 자율적 노사문제 문제 해결능력 배양과 민주적 노사관행 정착
- ▲ 노동운동의 이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정예간부 육성
- ▲ 노조간부의 자질향상과 지도력 개발로 건전한 노동운동의 토착화

③ 교육대상 : 기본과정교육 → 각 단위노조 간부 및 참여의사가 분명한 조합원
심화과정교육 → 기본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 단위노조 임원

④ 교육일정표

과정	일시	참석인원(금)	기별	과정	일시	참석인원(금)	기별
기본과정교육	4. 1~ 3	51 (7)	370기	기본과정교육	7. 1~ 3	52 (28)	376기
기본과정교육	4. 8~10	85 (8)	371기	기본과정교육	9. 2~ 4	94 (33)	377기
기본과정교육	4.22~24	79 (24)	372기	기본과정교육	9.23~25	141 (60)	378기
기본과정교육	5.13~15	115 (21)	373기	기본과정교육	10. 7~ 9	97 (40)	379기
심화과정교육	5.20~22	34 (8)	374기	심화과정교육	10.14~16	67 (27)	380기
심화과정교육	6.10~12	51 (10)	375기	심화과정교육	10.28~30	98 (22)	381기

※ 전체 교육생 964명 중에서 금속 참가자 288명

⑤ 교육과목

- 기본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07:00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노사관계론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활동계획수립 (노동사회연구소 강연배)
10:00		노동조합활동론(강연배)	게시판 평가
11:00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중강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총 대협본부장 이정식)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한국노총 정치국장 이규홍)	노동조합활동론 계속	
14:00		자본주의경제 바로알기 (고려대학교 교수 강수돌)	
15:00		공동체 함양 훈련 (자체)	
16:00			
17:00		석 식	
18:00		노동운동사 (역사학연구소 박준성)	
19:00	석 식	단결의 밤 (서로알기의 시간)	
20: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동지에게 편지쓰기		
21:00			
22:00			

- 심화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07:00		조 식	
08:00		교육준비	
09:00		선전선동훈련 (공공서비스연맹 최동민)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금속노련 김홍룡)
10:00			
11:00		경영분석 (회계사 윤종훈)	게시판 평가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종강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경영분석 계속	
14:00			
15:00	한국자본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려대 강수돌)	공동체 쌓기 훈련 (자체)	
16:00			
17:00	조직분석 (노동사회연구소 강연배)		
18:00	석 식	석 식	
19:00			
20: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동지에게 편지쓰기	사례발표 및 찬반토론 (관광노련 조기두)	
21:00			
22:00		단결의 밤	

2) 2003년도 전문화 교육

① 노동가 울동 교육

1. 교육 목표

문화사업은 조합원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본의식화 교육으로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은 단결을 위한 기본이다. 이에 단위노동조합에 문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가, 울동교육을 실시함

2. 일시 : 2003. 4. 15(화)~17(목)

3.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4. 참석대상 : 단위노조 문예패 (노래패, 율동패), 기타 관심있는 간부 및 조합원
전체교육생 147명중에서 금속 참가자 28명

5. 프로그램

	4/15 (1일차)	4/16 (2일차)	4/17 (3일차)
07:00		조식	
08:00		교육준비	
09:00		개인연습	마무리연습
10:00		강의 및 실기교육	
11:00			종합평가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종강식
13:00	개강식 노동문화의 의의 강의 및 실기교육	강의 및 실기교육	
14:00			
15:00			
16:00			
17:00			
18:00	석 식	석 식	
19:00	서로알기시간	단결의 밤	
20:00			
22:00	취침	취침	

3) 2004년도 전문화 교육

교육 과정	참가자(금속)	일 시	교육 과정	참가자(금속)	일 시
조직쟁의전문가교육	77 (24)	3월 9~11일	선전홍보교육		3월18~20일
조시통계전문가교육	83 (22)	3월15~17일	단체교섭위원		1차: 3월22~24일
노동관계법실무교육		3월25~27일	실무교육		2차: 3월29~31일
노동가요·율동교육		3월23~25일			

① 단체교섭위원실무교육

	3/22, 29	3/23, 30	3/24, 31
07:00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경영분석 및 실습	모의단체교섭 평가
10:00			
11:00		종합 평가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종강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모의단체교섭 실습	
14:00			
15:00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16:00	정세해설 및 임금인상요구서 작성		
17:00			
18:00			
19:00	석 식		
20: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21:00	단결의 밤 (서로알기의 시간)		
22:00			

② 조직쟁의전문가교육

	3/9 (1일차)	3/10 (2일차)	3/11 (3일차)
07:00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파업의 전략과 전술	선전선동훈련
10:00			종합 평가
11:00			종강식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종강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파업프로그램 작성 및 실습	
14:00	노동운동 정세와 전망		
15:00	조직관리		
16:00	석 식		
17:00	석 식		
18: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현장사례토의	단결의 밤 (서로알기의 시간)
19:00			
20:00			
21:00			
22:00			

③ 조사통계전문가교육

	3/15 (1일차)	3/16 (2일차)	3/17 (3일차)
07:00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노동통계 바로보기	임금인상요구서 작성 및 실습
10:00			종합 평가
11:00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종강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임금형태와 표준생계비	조사서 분석 (강의, 실습, 발표, 평가)	
14:00			
15:00			
16:00			
17:00			
18:00	석 식	석 식	
19: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현장사례토의	
20:00		단결의 밤 (서로알기의 시간)	
21:00			
22:00			

④ 선전홍보일꾼교육

	3/18 (1일차)	3/19 (2일차)	3/20 (3일차)
07:00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정보화와 노동운동	기사작성의 실습 평가
10:00			
11:00		기사작성이론 및 실습	종합 평가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종강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기사작성 실습(계속)	
14:00			
15:00	언론바로보기		
16:00	홍보활동론		
17:00			
18:00		석 식	
19:00	석 식	노동조합의	
20: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홍보강화방안 분임토의	
21:00		단결의 밤 (서로알기의 시간)	
22:00			

⑤ 노동관계법실무교육

	3/25 (1일차)	3/26 (2일차)	3/27 (3일차)
07:00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개별적 근로관계법 해설	산재보상실무
10:00			종합 평가
11:00		중 식	종강식
12:00	등록 및 중식	임금채권과 법률적 관계 집단적 노사관계법 해설 석 식 현장사례토론 단결의 밤 (서로알기의 시간)	
13:00	안내 및 개강식		
14:00	신자유주의		
15:00	손배가압류에 대한		
16:00	노조의 대응		
17:00	쟁의행위 및		
18:00	부당노동행위		
19:00	석 식		
20: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21:00			
22:00			

⑥ 노동가·올동교육

	3/23, 7/7 (1일차)	3/24, 7/8 (2일차)	3/25, 7/9 (3일차)
07:00		아침식사	
08:00		교육준비	
09:00		개인연습	마무리 연습
10:00		강의 및 실기교육	
11:00			종합 평가
12:00	등록 및 중식	중 식	종강식
13:00	안내 및 개강식	강의 및 실기교육	
14:00			
15:00			
16:00			
17:00			
18:00	강의 및 실기교육	석 식	
19:00	석 식		
20:00	교육참가자 자기소개	단결의 밤	
21:00			
22:00			

7. 산하조직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및 관련조직 교육지원

- 총 75개 조직 지원

홍 보 활 동

● 평가 및 과제

1. 금속노련 지역통신원 사업
2. 조직문화혁신 프로젝트
3.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 각종 유인물 사업
5. 기타사업

평가 및 과제

1. 금속노련 지역통신원 사업

2003년 상반기에 지역통신원 사업을 주도하던 연맹 상근자가 공식인 관계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져오지 못했다. 더불어, 지역통신원의 현실적인 조건의 변화(현장복귀 등) 역시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그로 인해, 지역통신원의 역할이 연맹 홈페이지에 해당지역이나 산하조직의 소식을 게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하반기에 워크숍을 통해 기존 지역통신원들의 변동을 정리하고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역본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지역통신원들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이 제기되어 진다.

2. 조직문화혁신 프로젝트

2002년 조직문화혁신 프로젝트의 성과로 노동조합의 관행과 의식, 행태등 노동조합의 건강성을 집중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노조일상활동의 가이드북 - 노동조합...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3.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정보화시대의 진척에 따라 연맹 홈페이지의 역할의 개편이 2004년 1월에 이루어졌다. 기존의 홈페이지가 주로 연맹의 소식과 산하단체의 소식(지역통신원 기재)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개편 홈페이지는 온라인상에서 연맹과 산하조직 간의 네트워크의 형성과 업무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노동조합 업무의 효율성을 목표로 금속노련 자체 E-mail 서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홈페이지의 운영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노동조합운동을 진행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각종 유인물 사업

2003년에 발행된 유인물로는, 지난 8월 이후 매주 발행된 금속노련속보, 금속-화학 통합 소식지 '제조노동자'의 제작·배포, 보도자료·성명서·통합특보 등이다. 특히, 기관지의 발행이 상반기에 중단된 이후 금속노련속보의 매주 발행은 조합원들에게 연맹과 산하조직 간의 의사소통구조를 만들어 준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총평

2003년도 홍보국의 사업은 홈페이지의 개편과 금속노련속보의 매주 발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맹 홈페이지의 개편과 지역본부홈페이지의 개설, 단위조합 홈페이지 운영의 증가등으로 금속노련의 정보화 사업은 더딘 속도이기는 하지만 활성화 되어 지고 있다. 향후 홈페이지의 역할이 기획의도 되어진 대로 연맹 각 조직 간의 네트워크의 구성과 업무효율화를 중심으로 자리매김 된다면 노동조합운동의 정보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통신원제의 역할 또한 정보화사업의 큰 범주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지 발행의 중단과 매주 단신 위주의 소식지의 발행은 긍정적인 측면과 미비점을 동시에 표출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은 연맹과 산하조직 간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조합원들에게 연맹과 산하조직의 활동에 공유를 이뤄냈다는 점일 것이고, 미비점은 매주 발행되는 소식지의 성격상 심도 깊은 정책이나 조합원들의 의식을 대변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향후, 단신위주의 속보를 발행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요소를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지의 발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장 금속노련 지역통신원 사업

1. 2차 회의 및 워크숍(2003. 11. 27 ~ 28)

1. 2003년 지역통신원 2차 회의 결과

1) 참석지역 및 참석자 명단

- ① 일정 : 2003년 11월 27(목)일 ~ 28(금)일 [1박2일]
- ② 장소 : 대전 사포그레이스 호텔
- ③ 참석자 : 9개지역 9명 참석

지역	이름	직책
경기	김덕수	전사무국장(이월중)
인천	이운길	태화금속 위원장
충북	최경천	넥상스코리아 위원장
부산	김남주	부산지역본부
대전	오기순	지역본부 사무국장(동양강철 위원장)
광주	채순영	광주전남 지역본부
포항	윤미선	포항 지역본부
전북	최미현	전북 지역본부
울산	문성일	울산지역본부 사무국장(삼주기계 위원장)
서울, 안산·시흥, 충남, 충북, 경남, 대구·경북, 구미 지역본부 불참		

④ 2차회의 및 워크숍 진행

가. 지역통신원제 의의와 방향

－ 박현미 전 홍보국장(현 노총 홍보부장)의 강의로 진행

나. 노동조합의 올바른 조직문화를 위하여 - 김진순 노동자교육센터 부대표

;연맹 발간소책자 “노동조합..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 에 대한활성화방안 모색

다. 기사작성 실습 - 박현미 노총 홍보부장의 지도 아래 기사작성 실습

라 2003 지역통신원 활동보고와 2004년 통신원활동계획(가안) 논의

가) 홈페이지

- ㉔ 연맹-지역본부-단사의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성
- ㉕ 지역본부 홈페이지 운영 시 지역본부 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㉖ 통신원들이 각 지역본부 홈페이지 운영자로 적극결합
- ㉗ 연맹 홈페이지에 산하단체 노보를 게시할수 있는 공간마련
- ㉘ 홈페이지 개통시 실무교육을 연맹차원에서 진행
- ㉙ 지역통신원간 E-mail을 통한 의사소통 및 활성화에 노력

나) 공동노보

- ㉚ 현재의 지역통신원 역량에 어려움이 있음
- ㉛ 단위 지역본부의 움직임으로 가져 가기에는 지역본부 의사결정단위의 결정을 얻기가 어려워 연맹차원의 집행의지 필요 ⇒ 연맹차원의 지역본부 노보의 공동 틀 구성하여 지역본부에 하달, 공동노보제작에 연맹의 적극 독려필요

※ 공동노보의 형식은 지역본부 현실에 따라 1-2면으로 구성되는 팩스신문 등

- ㉜ 지역별 공동노보가 제작되기 전 연맹차원의 교육 및 방향의 논의
- ☞ 홈페이지 - 공동노보 - 통합무크지(또는 '금속노련속보', 연맹노보)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연맹차원에서 공유 및 홍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

다) 지역통신원 활성화에 관한 건

- ㉝ 6개월여간의 연맹 담당자의 부재로 통신원제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함
- ㉞ 통신원의 잦은 교체로 교육 및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
- ㉟ 여성 지역통신원들의 활동을 담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많음
- ㊱ 연맹차원의 지역통신원 위상제고와 여성활동가들의 활동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2장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사업

1. 취지

- 2002년 “조직문화혁신” 프로젝트팀이 논의했던 결과를 원고로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였다.

2. 결과물

- 1) 제목 : 노조일상활동의 가이드 북 “노동조합...조직문화 혁신을 제기한다”
- 2) 판형 및 발간부수 : 국배판 1200부
- 3) 발행일자 : 2003년 9월 22일

3장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001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활용해오던 홈페이지를 2004년 1월 2일부로 전면 개편하였다. 한국노총정보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개편홈페이지의 특징은 소위 ‘금속 네트워크’의 구성과 지역본부홈페이지의 개설이다.

1. ‘금속네트워크’의 구성

연맹 기존의 홈페이지는 사무처 중심의 운영을 통해 홍보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향후 정보화사업의 방향은 온라인 상의 업무효율화와 공동체의 형성으로 예측된다. 연맹의 개편 홈페이지 역시, 연맹-지역본부-단위조합의 의견과 소식들이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 공유되어, 일상적 업무활용 홈페이지와 금속조합원들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현재, ‘금속네트워크’는 한국노총정보화사업단이 제작한 단위조합 홈페이지와 지역본부·연맹의 홈페이지 이다.

2. 지역본부 홈페이지의 개설

정보화시대의 노동조합 활동에 걸맞게 16개 시·도지역본부 중에서 15개 시·도지역본부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금속네트워크’ 하의 연맹과 단위조합 간의 허리 역할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시·도 지역본부별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지역본부 홈페이지 주소			
서울지역본부	http://seoul.metall.or.kr	울산지역본부	http://ulsan.metall.or.kr
경기지역본부	http://kg.metall.or.kr	경남지역본부	http://kn.metall.or.kr
인천지역본부	http://ic.metall.or.kr	대구경북지역본부	http://tk.metall.or.kr
안산시흥지역본부	http://as.metall.or.kr	구미지역본부	http://kumi.metall.or.kr
대전지역본부	http://dj.metall.or.kr	포항지역본부	http://pohang.metall.or.kr
충남지역본부	http://cn.metall.or.kr	광주전남지역본부	http://kj.metall.or.kr
충북지역본부	http://cb.metall.or.kr	전북지역본부	http://jb.metall.or.kr
부산지역본부	http://busan.metall.or.kr		

3. 지역통신원 활동에 의한 홈페이지 내용 강화

기존홈페이지에서는 산하단체소식에, 개편홈페이지에서는 금속네트워크에 지역통신원들이 각 지역본부 및 단사의 일정과 활동들을 게시하고 있다. 특히, 개편이후에는 금속네트워크의 구성으로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의 소식들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해 신속히 공유되어 홈페이지의 내용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4.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실시(화악노련과 공동실시)

1) 시행일시 및 참가인원 :

1차 12월 10일 서울한겨레문화센터(16개조직 20명)

2차 12월 19일 구미 LG전자 러닝센터(9개조직 13명)

☞ 금속-화학 1차 28명 / 2차 22명 참석

차수	노조명	성명	직책	차수	노조명	성명	직책	
1차	1	LG산전	조현미	여성부장	1	(주)대한소결금속	김춘섭	조시통계부장
	2	시그네틱스	이윤순	위원장	2	(주)풍산 안강	신성환	사무장
	3	사이스이천	나종철	사무국장	3	지부	박재운	조합원
	4	경신전선	황해선	서무	4	세아특수강	김원호	사무장
	5		채준병	사무국장	5		박순덕	조시통계부장
	6	(주)두원공조	최정수	홍보편집부장	6	FAG 한화베어링	김상갑	부위원장
	7		강광석	사무국장	7	(주)전광배	사무국장	
	8	전북지역본부	최미현		8	한국항공우주산업	강후원	홍보부장
	9	희성금속	이재성	부위원장	9	세방전지	정쌍규	편집국장
	10	광주전남지역본부	채순영	총무부장	10	남양금속(주)	이상윤	사무국장
	11	한국샤프	박종성	부위원장	11		임종규	교육선전부장
	12		김혜진	교육홍보부장	12	포항지역본부	윤미선	
	13	칩팩코리아	박영철	조직부장	13	부산지역본부	김남주	
	14	세진	윤복현	사무국장	총 9개 조직			
	15	대우전자서비스	최혜진					
	16	삼화전자	이학만	교육부장				
	17		이상기	이상기				
	18	대동모빌시스템	윤성진	위원장				
	19	인천지역본부	손종홍	의장				
	20	경기도본부	안재식	사무국장				
	노동조합 총계 : 16개 조직							

2) 교육총평 :

- ①1차 교육 실습강사인 권차현(매일노동뉴스)의 결강으로 급히 노총정보화사업단의 도움을 받음. 과정에서 교육시간의 변동이 생김.
- ②2차교육의 경우 LG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에서 교육장지원 및 중식지원 받음
- ③홈페이지운영자교육이 2년만에 진행되는 관계로 교육수준을 초급수준으로 맞추었으나 일부 교육생(중급정도)의 경우 불만을 가짐
- ④교육시간이 오전 10시에 시작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지각이 많음
- ⑤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실무교육에 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개선안

- ①구체적 교육과목으로 교육생들의 수준편차를 줄여 각 교육생에 도움되는 교육 실시 필요⇒년 단위 교육과정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②교육생의 일부요구 중 권역별 교육요구가 있었음.

③교육일정을 당일이 아닌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잡아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성 제기

5.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의 일상화

홈페이지에 메일링리스트에 가입되어 있는 400여명에게 매주 발행되는 ‘금속노련속보’를 메일진의 형태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팝업창관리 및 사용상 제기 되는 문제지원, 광고성게시물의 삭제 등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장 각종 유인물 사업

1.금속노련속보 작성, 배포

- | | | |
|------|------------------------------|-------------|
| 제78호 | 중앙위, 제조산별통합 추진결의 등 | 2003. 5. 15 |
| 제79호 | 92.9%지지 이병균위원장 선출 등 | 2003. 5. 26 |
| 제80호 | 가자! 국회로, 주40시간제 쟁취하러~ 등 | 2003. 6. 2 |
| 제81호 | 제조노동자 하나로 똘똘 뭉쳤다. 등 | 2003. 6. 5 |
| 제82호 | 한국노총 6.30 총파업 돌입 등 | 2003. 6. 13 |
| 제83호 | 6·30총파업 총력집중 등 | 2003. 6. 20 |
| 제84호 | 모이자! 종로에서 6·30 총파업 출정식 등 | 2003. 6. 26 |
| 제85호 | 개혁촉구 총파업 8만 참가 등 | 2003. 7. 1 |
| 제86호 | 정부입법안 7월 국회통과 저지 등 | 2003. 7. 14 |
| 제87호 | 주40시간 노동제 제조공투본 단일안 확정! 등 | 2003. 7. 24 |
| 제88호 | 누40시간 노동제 국회노사정협상 재개! 등 | 2003. 8. 11 |
| 제89호 | 주5일제 정부입법안 국회통과 저지 총파업투쟁으로!! | 2003. 8. 13 |
| 제90호 | 근기법개악 저지 양대노총 국회앞 2박3일... 등 | 2003. 8. 21 |

- 제91호 노동악법 생산공장 국회를 멈추게 하라 등 2003. 8. 27.
- 제92호 (근) 근로기준법 (조) 등 2003. 9. 4
- 제93호 연맹 태풍 '매미'수해복구 지원 및 모금활동 진행 등 2003. 9. 17
- 제94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설립 등 2003. 9. 25
- 제95호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등 2003. 10 .2.
- 제96호 제조대통합을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정책세미나 등 2003. 10 .14.
- 제97호 제조대통합 가시권 진입 등 2003. 10 .23
- 제98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등 2003. 10 .28
- 제99호 제조대통합, 힘찬 출발!! 등 2003. 11. 5.
- 제100호 11.23. 금속동지들! 대학로에서 만남시다. 등 2003. 11. 13.
- 제101호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등 2003. 11. 19
- 제102호 금속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등 2003. 11. 26
- 제103호 주40시간제대비 노조간부교육 실시 등 2003. 12. 3.
- 제104호 제조대통합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등 2003. 12. 11.
- 제105호 지역순회간담회 막바지 등 2003. 12. 17.
- 제106호 통합추진위원 세미나 개최 등 2003. 12. 24
- 제107호 8~9일 대전에서 금속노련 통합추진위원 세미나 개최 등 2004. 1. 7.
- 제108호 금속통합추진위 제조대통합 결의 등 2004. 1. 14.
- 제109호 한국사회민주당 강화로 노동자가 국회로 간다!! 등 2004. 1. 28.
- 제110호 제135차 중앙위원회 및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등 2004. 2. 4.
- 제111호 임금인상요구율 12%±1.5%확정 등 2004. 2. 11.
- 제112호 사민당 당원가입 이어져!! 등 2004. 2. 18.
- 제113호 녹색사민당 공식출범 등 2004. 2. 25.

제114호 녹색사민당 김만재후보 여주·이천 선거사무실 개소 등 2004. 3. 4.

제115호 4.15총선 35일 남아..등 2004. 3. 11.

제116호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5월 20일 개최 확정 등 2004. 3. 26

제117호 금속노련! 이천으로 간다!! 등 2004. 4. 1.

제118호 4.15 총선 D-7 등 2004. 4. 8.

제119호 4.15 투표하러 갑시다!! 등 2004. 4. 14.

2.통합소식지 '제조노동자' 작성·배포

준비제1호 11월 23일 전국노동자대회, 대학로에서 만납시다!! 등 2003. 11. 13.

준비제2호 지역순회간담회 개최 등 2003. 12. 3

3.보도자료 배포

노동시간단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제조공투본) 2003. 5. 13.

금속·화학 조직통합에 박차를 가한다.(화학연맹공동) 2003. 11. 13

4.성명서 작성·배포

조흥은행 노동자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2003. 6. 19

미국은 경제패권 장악을 위한 하이닉스 고사작전을 중단하라! 2003. 6. 19.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2003. 10. 8.

(근) 고 김주익 노동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조) 2003. 10. 23.

5.통합특보 발간사업

통합특보 '하나로 단결하여 미래로 전진하자' 2003. 10. 7.

5장 기타사업

1.대내외 홍보활동

- 연맹의 주간 일정이나 주요소식, 산하단체의 동향 등을 요약해 노동관련 매체에 주1회 정도 제공했다.
- 노동관련 매체의 각종 협조사항(광고, 각종 글 작성 등)을 처리하였다.
- 각종 인사장이나 감사장 등을 작성해 산하단체에 배포하였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78호 2003년 5월 15일 (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천리안 flmtu@chol.com

중앙위, 제조산별통합 추진 결의!

5월 22일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차질없이 진행...

연맹은 5월15일 14시 연맹강당에서 제 133차 중앙위원·2차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22일 정기대의원대회 상정 의안을 심의하였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노총 내에 조직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며 제조산별통합 추진을 공식 결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화확노련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양 연맹 통합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금속노련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힘있는 조직통합사업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맹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화확노련과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01년 1월부터는 제조연대활동을 추진해 있으며 최근 3월25,26일 임원·지역본부의장 정책세미나, 4월10일 중집위원회, 4월중순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지역순회토론회에서 전폭적이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조성한 바 있다.

한편 정기대의원대회는 5월22일(목) 14시 구미 시민복지회관에서 개최한다.

● 노동시간단축 즉각 실시 촉구 제조공투본 기자회견 ●

제조공투본은 14일(수) 오전10시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단축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제조공투본은 주40시간·5일제 국회재협상이 국민적인 염원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내 마침표를 찍고 즉각 시행할 것

을 촉구하였으며, 2003임단투에서 1800개 산하노조가 일체제 단협쟁신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재협상이 노동계의 합리적 요구가 무시된채 공전되어 임금·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졸속 통과를 시도할 경우 전 노동계 차원에서 6월 국회상임위 통과시점에 맞추어 전 조합원이 하나되는 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

● 제조공투본 전국노조 대표자 총력투쟁결의대회 6/4 개최 ●

제조공투본은 현재 각 노조마다 전개하고 있는 2003임단투 승리와 국회재협상이 노동시간단축을 완전 쟁취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6월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조공투본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제조공투본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 법안이 졸속 처리될 조짐이 보일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는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

● 최저임금 3100원(32.3%인상)요구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03년(03.9.1~04.8.31적용)최저임금으로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 월급700,600원)을 요구했다.

시급 3,100원은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 다수가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

1,408,468원의 1/2수준을 시급으로 한 산한 금액이다. ■

● 5/20 긴급격계 예방 간담회 예정 ●

한국노총은 오는 5월 20일(화) 10시30분부터 한국노총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긴급격계 직업병 예방 간담회를 개최한다. 본 간담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현장의 긴급격계 질환 문제를 토론했으며, 노동조합의 예방 및 대응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 희망 조직은 연맹 산업안전국으로 문의 바람 ■

● 임단투 진행현황 보고요망 ●

2003임단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현황 보고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각 노동조합에서는 연맹에서 발송한 공문을 참조하여 현황보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02.864-0457)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통계부로 제출바람 ■

주40시간 국회재협상 토론회

제조공투본은 국회에서 진행중인 주5일제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사회적 여론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주40시간제 토론회를 개최하는바 산하노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시: 5월 16일 10~1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진행순서
- 기조발제: 양대노총 사무총장
- 토 론
- 국회 환경노위 하중범 수석전문위원
- 경희대 박우성 교수
- 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국장
- 제조공투본 정문주 국장

●● 2003 임단투 승리! 주40시간·5일제 정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79호 2003년 5월 26일 (월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전리안 fkmtr@chol.com

92.9% 지지 이병균위원장 선출

제조산별 통합 추진, 선언·강령, 규약 개정 통과!

연맹은 2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병균 동지를 재선출한데 이어 선언·강령 및 규약을 개정하고, 제조산별 통합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구미 시민복지회관에서 열린 연맹 제 4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이병균 후보가 투표 참가 대의원 297명 중 276명의 찬성으로 92.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반대표는 21명에 그쳤다.

또한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선언·강령, 규약,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제조산별연맹 통합, ▲우선적으로 화학연맹과 통합추진소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산별 통합 추진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으며, 연맹 의무금을 현재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2004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병균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시켜준 금속노련 조합원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위기의 노동운동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산별연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시권 내 진입한 금속·화학노련 통합은 한국노총 개편과 산별노조 전환의 촉진제가 될 것이고, 통합이후에는 산별노조 전환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산별노조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임원에는 수석부위원장에 정창영, 부위원장에 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

석춘, 서갑순, 최경호, 김순호, 하영일, 지수식, 도정복, 정상영, 조병철, 김한모, 황창배, 손종홍, 이병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강창영, 김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강진호, 권동재, 신태기, 손은진, 김경조, 김무호,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중, 김길주 등이 선출됐다.

사무처장에는 김만재 동지가 선출되었다. ■

● 임단투 11.6%요구 9.5%타결 ●

5월19일 현재까지 연맹으로 보고된 산하노조 임단투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기본급대비 11.6%(108,887원)를 요구하였고, 이중 7개 노조가 타결하여 기본급 9.51% (92,842원)의 타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임단투 집계현황은 연맹 홈페이지 연맹알림방에 등록되어 있음)

이러한 결과는 현재 대부분의 노조에서 임단투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 4월16일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한 사이스이천노동조합(위원장: 노태현/경기 이천)은 10.5%로 잠정합의하여 5월27일 조인식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DSR제강 노동조합(위원장: 서임석/전남 순천)은 5월14일 조정신청에 돌입한후 조정결렬로 인해 5월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단투현황 미보고 노조와 지역본부(산하조직 현황을 취합하여 정리후 보고)

는 연맹으로 홈페이지 산하조직소식란 또는 팩스(02.864-0457)를 통해 보고바랍니다

전국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양대노총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중심축인 제조공투본은 대중적 결의와 투쟁을 통해 주40시간제의 물꼬를 열고, 단위 대표자들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주40시간 정취에 대한 힘을 집약시켜 내어 주40시간 재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측의 개악안과 정부의 소극성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전국노조대표자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 2003임단투 승리 및 주40시간제 완전정취를 위한 전국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 일 시: 6월 4일 13:30~16시
- 장 소: 국회와 (국민은행 앞)
- 진행순서
- 13:30 집결, 대오정리
- 14:00 본행사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연맹 위원장단 및 대오소개
- 공투본 및 국회교섭 경과보고
- 대국회 요구서한 전달
- 대회사
- 격려사 (양대노총 위원장)
- 문화공연
- 대정부 규탄 및 촉구연설
- 요구서한 전달 경과보고
- 결의문

●● 2003 입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0호 2003년 6월 2일 (월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3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전리안 flm1u@chol.com

가자! 국회로, 주40시간제 쟁취하러~

2003입단투 승리 및 주40시간제 완전쟁취를 위한

전국 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자본과 정권은 노동시간단축을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취지를 벗어나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도 경총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내놓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작년도 국회제출한 입법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된 노동시간단축 국회 재협상마저 5월3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이제! 전국의 제조노동자는 다시금 머리를 두루고 대열을 가다듬을 때가왔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 개악 음모에 맞서 단결쟁신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주40시간제를 확산시켜내고, 정부 입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 통과를 시도할 경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 연맹 산하 모든 노동조합은 6월4일 입단투 교섭이 잡혀있는 경우

해당일 교섭을 연기하여 본 대회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갖춰주시길 바람 •

- 일 시: 6월 4일 13:30~16시
- 장 소: 국회앞 (국민은행 앞)
- 참석대상: 각 단위노조 대표자, 상근자 전원
- 준비물: 지역본부 깃발, 투쟁조끼, 머리띠 등
- 진행순서
사전집회 13:30 집결, 대오정리
본집회 14~16시

• 집회장 찾아오는 방법

▲입반버스

3, 9, 30, 33-1, 48, 53, 72-1, 77, 112, 119, 120, 123, 133-2, 145, 323-1, 326, 823-1

▲좌석버스

3, 30, 33, 77, 119, 121, 700, 720, 703, 740, 631, 1002, 1008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 여의도공원을 가로질러서 국회쪽으로 이동(도보로 10분)

(1호선 대방역) 823-1번 버스 이용

(1호선 영등포역) 119, 120번 버스 이용

2003입단투현황 87.11.7% 타결8.3%

6월2일 현재까지 연맹으로 보고된 산하노조 입단투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기본급대비 11.5%(108,840원)를 요구하였고, 타결은 기본급 8.3% (84,84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 조정신청 노조는 5월 15일에 DSR제강 노조(서암식/전남 순천), 5월 29일에 클라크메탈리얼앤드링아시아 노조(이진호/서울)가 돌입하였고, DSR제강 노조는 5월26일 기본급 8.5%(수당포함시 12.5%)로 타결을 지었다.

※ 자세한 입단투 현황은 연맹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40_{HR}

●● 완전 쟁취! ●●

●● 2003 임단투 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1호 2003년 6월 5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민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천리안 flmru@chol.com

제조노동자 하나로 뭉쳐 뚫었다

제조공투본 단위노조대표자 국회 앞 1500명 운집,
주40시간제 쟁취 결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전국의 제조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뚫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제조공투본)는 6월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각 단위노조 대표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임단투 승리,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주40시간제 완전쟁취를 위한 전국 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시간단축 쟁취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우리연맹 이병균 위원장은 '제조공투본' 투쟁 및 국회재협상 결과보고를 통해 정부와 자본의 근로기준법 개악음모에 맞서 주40시간제 완전쟁취를 제조노동자의 손으로 반드시 완수 하겠다는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히면서 소속과

조직의 차이를 뛰어넘어 제조공투본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어 박현수 화학연맹 위원장의 대회사와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의 격려사, 오길성 민주화섬연맹 위원장의 대정부 규탄과 촉구연설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반 제조공투본 각 연맹 위원장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제조공투본의 요구서한을 전달하였다. 결의대회에서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방문투쟁 결과 보고를 통해 "국회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채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단결과 연대를 호소했다.

또한 제조공투본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임단투 승리 ▲주40시간제 완전 쟁취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등을 결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 안산·충남지역, 풍산노조 등 금속 500여 상근간부 동지 참가 ●

제조공투본 전국 노조대표자 총력투쟁결의대회에는 우리연맹의 500여 단위노조 상근간부 동지들이 참석하여 새롭게 통일 제작된 각 지역본부와 노조 깃발이 처녀출전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우리연맹에서는 임단투가 치루어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고루 각 지역과 단위노조에서 참석하여 이날 집회의 성공적 개최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20여명의 조합 상근간부 전원이 참가한 풍산노조 동지들은 집회장에 가장 일찍 도착하여 대오 최선두에서 활약하였으며, 안산시흥지역의 대덕DGS노조 울동패 동지들은 힘있는 몸동작으로 집회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투쟁의지를 과시했다.■

● 임단투 11.6%요구 ●

6월3일 현재까지 연맹으로 보고된 산하노조 임단투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기본급대비 11.4%(127,559원)를 요구하였고, 이중 28개 노조가 타결하여 기본급 8.4% (80,088원)의 타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임단투 집계현황은 연맹 홈페이지 연맹알림방에 등록되어 있음)

임단투현황 미보고 노조와 지역본부(산하조직 현황을 취합하여 정리후 보고)는 연맹으로 홈페이지 산하조직소식란 또는 팩스(02.864-0457)를 통해 보고바람■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2호 2003년 6월 13일 (금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천리안 flmktu@chol.com

한국노총 6.30 총파업 돌입

주5일제 경취·임단투 승리·경제특구법 폐기·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한국노총은 지난 5일 2003임단투 승리와 주40시간제 완전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사유화 정책 분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최저임금 3100원 쟁취 등을 위해 오는 6·30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투쟁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렸다.

한국노총은 지난 6.4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오는 6.17일까지 일괄적으로 조정신청에 들어가고, 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마쳐 29일 총파업 전야제와 6·30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연맹은 올해 임단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4월부터 사무처에서 당직제를 실시하면서 산하노조의 임단투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조정신청 및 현안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관리를 통해 전략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한국노총의 6·30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총파업투쟁일정 □

- 6월 10일(화)까지
각급조직별 투쟁상황실 설치,
투쟁(교섭)진행사항 일일보고 시수
- 6월 16일(월)까지
집중교섭시기 설정
- 6월 17일(화)까지 일괄 조정신청
- 6월 28일(토)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 6월 29일(일) 총파업 전야제
- 6월 30일(월) 전국총파업
파업·현안사업장 총파업 출정식 결합

● 근골격계부담작업 노동부 고시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02.12.30)에 따라 7.1일부터 사업주는 근골격계 예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03.7월부터 1년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천만~5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에 방조치를 위한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를 정하기 위한 노·사·학계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지난 6월9일(월) 개최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인간공학회에 의견을 들어 마련코저 하는 부담작업 범위가 노동계 의견과 현장작업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조사팀을 구성하여 6개월내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역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노동부고시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연맹은 노동부 연구조사에 산하

사업장을 참여시키고, 별도로 6월말부터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연맹은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연다.

- 일 시: 7월 8~10일
- 장 소: 산업안전공단교육원
- 대 상: 노조 간부 및 조합원

산안부장, 명예감독관은 필참

●참가비: 1인당 2만5천원

●주요교육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보험법 해설
- ▷ 근골격계 예방과 노동조합의 활동
- ▷ 직업병인정사례와 보상
-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등

사무처 파견직 간부 공개모집 안내

인원: 1명

조건: 조합활동 경력이 있을 것
40세(1963.1.10후출생)미만자
노동운동에 헌신할 수 있으며,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동지

제출서류: 소속 노조 추천서·이력서
제출기한: 6·20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연맹홈페이지 참조

2003 임단투현황 요구11.9% 타결8.5%

6.12일까지 연맹으로 보고된 산하노조 임단투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기본급 11.9%(112,136원)를 요구하였고, 이중 50개 노조에서 타결은 지어 기본 8.5% (73,211원)를 나타냈다.

또한 현재까지 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6개 노조이며 이중 삼양삼속기 노조(인천/최인석), 클라크 노조(서울/이진호)는 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 자세한 임단투 집계현황은 연맹 홈페이지 연맹알림방에 등록되어 있음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3호 2003년 6월 20일 (금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전리안 flmktu@chol.com

6·30 총파업 총력집중

삼양감속기노조 6.17부터 부분파업 전개, 6.25총파업 예고!

한국노총은 임단투 승리! 주40시간제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하여 6.3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연맹은 총파업 시수를 위한 조직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19일 파업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조흥은행 노조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어 연맹 상근 임직원 전원이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 출정식과 조흥은행 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총파업에 조직적인 결합과 투쟁을 위하여 오는 6.24일 간금 수도권 지역본부 의장·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연맹 산하노조들 역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삼양감속기 노조(인천/최인석)는 6.17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측의 무성익한 태도로 인해 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자 6.25일을 최종시한으로 하여 조합측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현재 전 조합원이 투쟁복과 머리띠를 착용하고 조합측 요구내용이 담긴 문책보를 부착하고 있으며 6.17일 이후 연장, 휴일근무를 전면 거부하면서 1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6.25일까지 투쟁의 수위를 단계별로 끌어올리고 만약 그 때까지 조합측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이후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성우오토모티브 노조(포항/김종한)는 6.13일, OTIS-LG 노조(서울/최경호), 동일산업봉강 노조(포항/조진석), 동일산업합금철 노조(포항/이윤양)는 각기 6.17일 조정신청에 돌입했다.

● 하이닉스 노조

美 상계관세부과 비판 ●

하이닉스 노조(청주/김준수)는 6.18일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44.7%부과 판정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부당한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한국정부 보조금지금은 채권은행단의 상업적인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 반도체 생산업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대사관 항의집회를 시발로 하여 범국민적인 반미운동과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우리연맹 역시 6.19일 성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친미사대외교를 비판하면서 책임있는 경제정책을 촉구했으며 국제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2003 임단투 승리!

6.19일 현황 (기준: 기본급대비)

- 요구: 11.9%(119,438원)
 - 타결: 8.4%(71,566원), 83개 노조 타결
- ※ 자세한 집계 현황은 연맹 홈페이지 참조

● 금속·화학 산별통합

실무위원회 첫회의 열려 ●

지난 6.17일 우리연맹 회의실에서 제 조산별통합을 위한 금속·화학 실무위원회 첫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위원회 운영방안과 통합준비사항, 제조연대 소속연맹들의 참여제한 등을 논의하였으며 차기 회의는 7.8일 개최하기로 했다.

● 6.23 한일금속회의

6.24 한일철강회의 개최 ●

매년 정기적으로 일본 금속노조협의회(IMF-JC)와 한국내 양 금속조직간에 열리는 한일금속회의, 한일 철강회의가 6.23일과 6.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노동경제, 임단투, 세계화와 중국 이전 문제 등이 토의될 예정이다.

● 노조 깃발 통일사업 전개 ●

노조마다 각기 다른 깃발 모양과 크기! 연맹은 금속조직의 연대성, 통일성을 위해 산하노조 깃발 통일사업을 전개한다.

새로 제작하는 금속단일깃발의 색상은 청색 바탕에 흰색글씨이며 단위노조 깃발크기는 가로3M×세로2M이다. 가격은 개당 6만원. 연맹 복지사업국으로 문의·신청바람!

연맹 6월 내쫓겨 일정

- 6/23·월 한일금속회의
포항지역본부 운영위원회
- 6/24·화 한일철강회의
수도권지역 의장·사무국장회의
대구·경북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서울지역본부 체육대회
- 6/25·수 그로웰메탈 노조 총회
- 6/27·금 현대네트웍스 노조 총회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4호 2003년 6월 26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전리안 flintu@chol.com

모이자! 종로에서 6·30 총파업 출정식

수도권·충청권 노조는 상근간부 전원 집결, 영호남권은 해당지역본부 집결, 강원·제주·제주·제주 노조는 상근간부 전원 집결

6.30

한국노총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노정관계가 초긴장 상태로 흐르고 있다.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현 정권과 자본은 강경 대응으로 맞받아 치면서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 탄압, 노조압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 근로기준법 저하없는 완전한 주40시간제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동자가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그 어느 것 하나 단위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고 해결하기 힘든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6·30 한국노총 총파업 투쟁은 총자본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반격이자,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한판 대결의 장이다.

올해 임단투를 먼저 타결한 노동조합 일지라도 6.30일 만큼은 머리띠 지끈 등여 메고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사업장내 현안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회사 울타리 밖에서는 끊이지 않고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자본의 입김에 놀아나고 있다.

6.30일 금속노동자가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금속은 그동안 노동운동의 선봉임을 자임하며 자랑스러운 깃발 휘날리면서 고난의 길을 개척해온 강철대오다. 이제! 또다시 6.30 총파업 출정식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노동자의 힘을 만들어 내자! ■

※ 각 노동조합에서는 집회를 참석한 때 노조 깃발, 투쟁조끼, 머리띠, 피켓 등을 준비하여 지참할 것!

● 성우오토모티브 노조, 태화기계노조 파업돌입! ●

성우오토모티브 노조(포항 / 김중환)는 24,25일 부분파업을 전개한데 이어 26일 오전 10시 파업출정식을 갖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출정식에는 우리연맹 포항지역본부(의장 김병수)를 중심으로 인근지역 노조 대표자 및 간부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4월 29일부터 교섭을 전개하여 왔으나 사측은 교섭희피로 노동위원회 행정지도까지 받으면서도 무성의한 태도와 책임회피를 보인 가운데 교섭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노조 지난 6.23일 조정안료와 7차교섭 결렬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노총 6·30 전국 총파업 출정식

- 일 시 : 2003년 6월 30일(월) 13시50분~
- 장 소 : 종묘공원 (지하철 1호선 종로3가 역)
- 진행순서
집결 및 대오정리(13:50~) → 사전집회(14:00~)
→ 본집회(14:20~) → 거리행진(16시~)
- 주요구호
총파업 투쟁으로 03임투 승리하자!
식민지 노예법 경제특구법 철폐하라!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쟁취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차별 철폐하자!
100만 조합원 총단결로 파업투쟁 승리하자!
- 후렴구호 : 파/업/투/쟁/승/리 결/사/투/쟁

연맹 선언·강령 개정본 배부, 지역본부에서 수령,게시하길...

5.22일 연맹 정기 대의원대회의에서 선언·강령·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처는 선언·강령 개정본을 제작하여 각 지역본부로 발송했다.

이에 각 사업장들은 지역본부로부터 선언·강령 개정본을 수령하여 조합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는 구 선언·강령 게시물과 교체하면 된다. ■

6·30 총파업 출정식 지침

- ☐ 전체 산하 노조 상근자는 전원 총파업 출정식으로 집결!
- ☐ 수도권·충청권 노조는 간부 집회참석 조직화투쟁을 전개 : 상근간부 전원 집결, 상집·대의원 참가 조직화!
- ☐ 영호남권은 해당지역 노총본부 집회 참석하되 집회계획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상경투쟁 전개!
- ☐ 현재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조합원 전원이 총파업출정식에 참가!

(1면 산하노조 파업투쟁 전개 계속)
한편 지난 5.23일 교섭을 시작한 **태화기계 노조**(경남/최종률)는 6.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동안 교섭에서 '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사측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 6.13일 조정신청에 들어갔으나 노사 자율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책임전가성 조정안이 나온 가운데 6.23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전체조합원 48명중 43명 투표참가, 40표 찬성, 반대 3표)를 통해 93%로 가결된 바 있다. 노조는 현재 조합간부들을 중심으로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 수도권 지역본부

의장·사무국장 연석회의 열려 ●

6.30한국노총 총파업투쟁에 대한 조직적 참가와 투쟁조직화를 위해 6.24일(화) 오전 11시 연맹회의실에서 긴급 수도권 지역본부 의장·사무국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총파업투쟁

의 의미와 연맹의 조직적 역할 그리고 총파업출정식 시수를 위한 지역본부의 투쟁조직화 정도를 점검하였으며, 연맹 사무처와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25일부터 수도권 지역 각 단위노조를 방문하여 투쟁독려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 최저임금 결정 결렬!

최심위 노동자위원 전원사퇴 ●

26일 오전 7시20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심위원회 6차(최종)회의가 열리던 중에 우리연맹 위원장(이병균)을 비롯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위원 8명 전원은 오전10시 20분 퇴장과 함께 사퇴했다.

최심위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생계비 보장과 임금차별 해소하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저임금 기초 고착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한 뒤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개혁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노동자위원들은 사퇴서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한편 우리연맹 사무처 동지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앞(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늘(26일) 새벽 6시30분부터 양대노총 간부, 조합원 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최저임금 70만원 보장,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 7/3 임원·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

우리연맹은 7.3일(목) 14시 연맹회의실에서 임원·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5.22일 정기대의원대회이후 사무처 부서부장 임명 및 업무조정 결과와 기간활동 결과 그리고 연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 등을 보고하며 당면 투쟁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참가신청 마감 임박 ●

7.8일부터 2박3일간 산업안전공단교육원 (인천소재)에서 개최하는 연맹 산업안전보건교육 참가신청이 7.4일(금)까지로 선착순 60명으로 마감에 임박하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노조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팩스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람.■

● 산업안전보건특보 발행 ●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연맹 산업안전국에서는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특보 제작에 들어갔다. 산하노조에서는 내주 중순께 우편으로 받을수 있다.■

● 6/25까지 임단투 현황 ●

요구 12.1% 타결8.4%로 전년도 수준기록

극심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연맹 산하노조에서는 정상적인 임단투를 전개하고 있다.

6.25일까지 연맹으로 보고되어 집계된 임단투 진행현황에 따르면 산하노조 평균 요구수준이 기본급대비 12.1%(110,927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맹이 제시한 12%수준과 근접한 것이며 전년도 요구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더불어 단협 및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주40시간, 고용안정, 복리후생,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결은 총 104개 노조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여 기본급 8.4%(71,348원)를 기록하여 전년도 결과 8.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조정은 10개 노조, 파업은 5개 노조가 돌입했으며,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2개(성우오토모티브노조, 태화기계노조)이다.

※ 기타 자세한 임단투 집계 현황은 연맹 홈페이지 연맹일일방을 클릭하시길 바람

● 아직까지 연맹으로 임단투 진행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지역본부 및 노조는 즉시 팩스를 통해 제출바람

최심위 노동자위원 사퇴서 전문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차별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데 대해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빈부격차 해소와 노동 내 임금격차해소를 사회적 과제로 공언해온 정부 역시 2003년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어떤 정책의지도 표명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계비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사퇴한다.

2003년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 2003 입단투 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5호 2003년 7월 1일 (화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천리안 flntu@chol.com

개혁촉구 총파업 8만 참가

종묘공원 2만명 운집, 노동탄압시 대정부투쟁 전환!



노동간에 치열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6.30일 14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정권 개혁후퇴 규탄 및 2003입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투쟁 진군대회'를 열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시간단축 쟁취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말바꾸기 식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면서 노동정책이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노동탄압, 노조압살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연맹 이병균 위원장은 투쟁 결의문 낭독을 통해 '자본의 입김에 놀아나고 있는 참여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사항을 위배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노동시간단축,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허가제 등을 쟁취하는데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택시, 레미콘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차량이동을 물리적으로 저지, 연행하는 등 동원책에 들어갔으며, 집회 후 가두투쟁을 진행하던 대오에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와 일부 조합원 동지들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노총의 6.30총파업 집회는 서울이 외에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총 5만여 조합원이 참가했다.

또한 이날 총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전국적으로 1천여개, 8만여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 금속 1,000여명 참가 ●

한국노총 총파업 진군대회에 우리연맹의

2003 입단투 승리!

7.1일 현황 (기준: 기본급대비)

● 요구: 12%(109,236원)

● 타결: 8.2%(69,642), 129개 노조 타결

1천여 단위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참석하여 금속노동자의 힘을 과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지역 조합원은 물론 멀리 대구, 경북지역, LG전자창원1,2공장, 김해공장지부와 충남, 충북지역에서까지 1000여명 조합원이 골고루 참석하였다.

특히 대부분 노조들이 입단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간부를 중심으로 참석하였지만 성신노조 (경기 부천소재 / 유진화)는 한국노총 지침에 따라 6.30일 13시부터 시한부 파업을 전개하면서 150명 전 조합원이 참석하여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희정공 노조(부산소재 / 추진호) 역시 한국노총 지침에 따라 1일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 한국철강노조 파업결의 ●

한국철강 노조(창원 / 김희봉)는 5.15일부터 임투를 시작하였지만 노사간에 팽팽한 입장차이로 인해 지난 6.19일 조정신청을 거진 끝에 6.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정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총 조합원 868명중 851명이 투표하여 759명 찬성하여 87.4%로 가결하였으며 연맹은 7.2일 현장으로 급파하여 입단투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노조는 12.4%(121.965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측은 7.8%, 일사금50만원을 제시한 상태이며, 조정위원회는 노사자율해결이라는 책임회피성 입장만 나왔다.■

가맹노조 주소록 정비

연맹은 가맹노조·지역본부 주소록을 정비해 수첩을 제작중이다. 새로 제작하는 수첩에는 각 노조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된다. 이에 각 지역본부는 휴대전화 현황을, 단위노조중 주소록 수정자료를 미제출한 노조는 빠른 시일내 팩스를 통해 제출바람!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6호 2003년 7월 14일 (월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민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6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천리안 flmtu@chol.com

정부입법안 7월 국회통과 저지

제조연대 대표자회의 결의! 한국노총 전면투쟁 요구

제조연대는 7.9일 우리연맹 회의실에서 제 12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주40시간제 정부입법안 7월 국회통과 저지를 위하여 한국노총이 투쟁의 중심으로 나설 것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조연대는 국회재협상이 불과 1개월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용자 단체들의 주5일제 조기도입·정부입법안 찬성 입장,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의 7월 임시국회 통과 발언 등으로 불어선 '주40시간제 정부입법안'의 7월 국회통과가 노동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추진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 대표자들은 7.10일 오전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찾아 한국노총이 재협상 요구안을 마련하고 노동시간단축 투쟁 전면에 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그동안 참여를 유보해온 식품산업노련에 제조연대의 참여를 재차 공식 제안키로 했다.■

● 한국노총 주40시간제 관련 대응 ●

제조연대가 7.10일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주40시간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 가운데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7.11일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 정부입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노동부 차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을 연달아 만나 7월 임시국회 통과 반대, 실질적인 재협상 전개 등을 요구했다.■

● 남양금속노조 7/14 파업출정식 ●

남양금속 노조(대구/김종오)는 조정결렬이후 7.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4.9% 찬성으로 결의되어 7.14일 오전 10시 파업출정식을 필두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12.4%와 상여금·휴가비·귀향비·제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6%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 한국철강노조

현영철강 노조 교섭 마쳐 ●

지난 7월3,4일 이틀간 파업투쟁을 전개한 한국철강 노조(경남 창원/김희봉)는 7.5일 기본급 7%인상과 타결격려금100%, 화식비 1인당 3만원으로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또한 파업 초입기까지 들어갔던 현영철강 노조(충남 당진/ 최대식)는 연맹과 충남지역 본부가 지원·결합한 가운데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7/8일 새벽 4시30분 극적 합의로 교섭을 마쳤다. 타결 결과는 임금인상 기본급8%, 일일급100만원이다.■

● 산업안전교육 성황리에 마쳐 ●

연맹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난주 8일부터 10일까지 산업안전공단 교육에서 29개 노조 산안간부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7월 부터 시행되는 근골격계 사업주 의무예방 조치에 맞춰 △산안법·산재보상보험법 해설 △근골격계질환과 노조예방활동

△직업병 인정사례와 보상 △인간공학작업환경 개선 등의 교과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연맹은 하반기 근골격계 예방사업으로 △7.22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근골격계 예방 워크샵, △8.15일까지 근골격계 예방 소책자 제작, △8월말부터 9월까지 근골격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임단투현황 ●

7월10일 현재까지 연맹으로 보고된 산하 노조 임단투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기본급대비 12%(105,549원)를 요구하였고, 이중 143개 노조가 타결하여 기본급 8.1% (70,114원)의 타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2002년도 7월 현재 임단투 결과 요구 12.7%, 타결 8.4%)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더불어 단협 및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주40시간, 고용안정, 복리후생,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 그린산업 노조, 세광알미늄 노조가 주40시간제를, 삼한 노조가 주42시간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로써 연맹산하 노조중 법정노동시간(주44시간) 미만으로 단협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수는 76개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조정은 12개 노조, 파업은 7개 노조가 돌입했다.■

임단투 현황 비교

	2002.7.4일	2003.7.10
전체조직수	437	434
교섭진행 노조수	243	232
타결 노조수	153	143
임금인상요구율	12.7%(105,549원)	12% (109,159원)
타결율	8.4% (68,748원)	8.1% (70,114원)
조정신청 노조수	18	12
파업 노조수	5	7
현재파업노조 수	3	1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7호 2003년 7월 24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전리안 fkmwu@chol.com

주 40시간 노동제 제조공투본 단일안 확정 !

양대노총의 공동대응·단일안 마련.

연대투쟁 요구!

현재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에 대하여 제조공투본은 7.23일 섬유노련 회의실에서 제 6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시간단축 쟁취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조공투본이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을 위한 촉진제로서의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양대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대응과 투쟁을 밝히고, ▲기존의 제조연대안(03.4.28)을 제조공투본 단일안으로 확정하여 양대노총에 제출, 양대노총의 단일안 마련에 적극 참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제조공투본은 향후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양대노총이 마련할 정책과 투쟁지침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 남양금속노조 타결 ●

남양금속노동조합(대구달성/김종오)은 지난 7월 14일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7월 22일 기본급 정을 8.9%(83,000원) 인상, 특장수당 10,000원 인상, 정기상여금 50%인상(통상임금50%+O/T 15H R), 생산장려금 통상임금이 100% 지급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 제 3 차 중집 및 실·국

부서부장 연석회의 열려 ●

7월 3일 오전 11시 우리노련 회의실에서 제3차 중집 및 실·국 부서부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집행위원 및 부서부장 임명 ▲노동시간 동향 및 전망, 대응방향 ▲금속·화학 통합 추진경과 보고 ▲교육사업 집행 계획안 ▲가맹노조 정보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제 재논의에 따른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 일정 : 2003년 7월 25일(금) 14:00 ~ 18:30

▷ 장소 :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14:00 ~ 14:50)

(이후 전경련회관으로 이동예정 14:50 ~ 18:30)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40시간·주5일제 노사정 재논의에 재계의 참여 및 성실한 교섭 촉구를 위해 동지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하고

노동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단축

쟁취하자!!!

제 1기 한국노총 통일순례단 모집

- 활동기간 : 8월 1일(금) ~ 16일(토)
(2박3일 부분참가부터 전체일정 가능)
 - 참가대상 : 금속노련 조합원이 누구나
 - 참가신청마감 : 2003년 7월 29일(화)
 - 참가신청 : 연맹, 지역본부 중 1곳
- ※기타문의 : 금속노련 통일사업부
(☎ 864-2901)

노동시간단축 주요쟁점별 비교

쟁점사항	현행 노동법	정 부 안	제2공투본 단일안(2003.7.23)
임금 보전 및 주휴일	유급주휴 : 1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54조 【휴일】	▲ 주1일 유급휴일 : 현행유지 ▲ 임금보전을 법부칙 명시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 되지 아니하고, 노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협, 취업규 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 정사항을 반영함	- 법에 "기존임금 수준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 은 기본급으로 보전함" 을 명시함 - 연월차휴가 차이일수에 대한 임 금보전은 임금총액에 포함하되 지 속적으로 보전함.
연월차 휴가	▲ 월차휴가 : 1월에 1일의 유급휴가부여 ※ 근로기준법 57조 【월차유급휴가】 ▲ 년차휴가 : 1년 개근시 10일, 2년이상시 1년당 1일 가산 ※ 근로기준법 59조 【년차유급휴가】	▲ 월차휴가폐지, ▲ 년차휴가 15~25일 (2년당 1 일씩 가산) ▲ 1년미만자 : 1월 만근시 1일 부여	▲ 연월차 통합시 18일~27일 ▲ 이후 1년당 1일씩 추가 ▲ 1년 미만자 1월당 1.5일 부여
탄력적 근로 시간제	취업규칙에 의거 2주간, 노사 합의시 1개월(1일 12시간, 주56시간까지) ※ 근로기준법 50조 【탄력적근로시간제】	▲ 3개월(이내) ▲ 내적규제장치는 현행과 동일 (1일12시간, 주52시간까지)	- 1일 10시간, 1주 48시간 한도 - 3개월 이내
시간 단축 일정	※ 1989년도 노동시간단축 사례 주48시간 → 44시간으로 단축하 면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2003.7.1 공공, 금융, 보험, 1천인 이상 사업(장) 2004.7.1 300인 이상 사업(장) 2005.7.1 100인 이상 사업(장) 2006.7.1 50인 이상 사업(장) 2007.7.1 20인 이상 사업(장) ※ 20인 미만사업(장) : 대통령령 으로 정하되 2010년 전까지 도입	시행후 3개월내: 공공, 금융, 보험, 1 천인 이상 2004.7.1: 300인 이상 사업(장) 2005.7.1: 300인 미만 전사업(장)
연장 근로 상한	▲ 연장근로 상한: 당사자 합의시 1주 12시간까지 ※ 근로기준법 52조 【연장근로의 제한】	한시적으로 법시행후 3년간 적용 ▲ 연장근로제한 16시간으로 확 대	▲ 현행 유지(1주 12시간 한도) ▲ 현행 유지(할증률 50%)
할증률 인하	▲ 할증률: 연장, 야간(22~06시 까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 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 ※ 근로기준법 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최초 4시간분 연장근로 대해 서 할증률을 25% 적용	
생리휴가	여성노동자에게 월1일의 유급휴 가 부여 ※ 근로기준법 71조 【생리휴가】	▲ 무급화	▲ 현행 유지(유급휴가)
휴가촉진 방안		▲ 휴가촉진방안 도입 ▲ 선택보상휴가 (노사서면 합의)	▲ 도입반대 ▲ 도입반대
선택적보 상휴가	없음		
단협 취업규칙 변경			부칙에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의 갱신노력 의무 규정 명시 반대

●● 2003 임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8호 2003년 8월 11일 (월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전리안 flmtu@chol.com

주 40시간 노동제 국회 노사정협상 재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40시간제 노동제 단일안을 마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상을 8일부터 재개하였으며 12~14일 사흘동안 집중교섭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지난 8.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단일안 발표를 하였고, 8일 국회 노사정 첫 협상에서는 노동계 단일안과 사용자측 안에 대한 설명과 이후 협상을 12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밤샘을 각오한 집중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양대 노총이 확정한 단일안은 지난 4.28일 제2연대가 정한 공동대안으로서 7.23일 제2공투본 단일안으로 정해져 양노총에 제출된 후, 양대노총 차원에서 단일안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3차례(7/28, 7/31, 8/5)회의를 거친 끝에 마련된 것이다.

단일안 내용은 ▲임금보전 : 시간단축본(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임금은 기본급 보전, 연월차휴가 차이분은 수당으로 퇴직시까지 매년 임금총액 기준 보전, ▲년월차 휴가 일수 18~27일, 1년당 1일추가, 1년미만자 월 1.5일 부여, ▲시행시기 : 2005년 7월까지 전면시행(2.5단계), ▲생리휴가, 초과근로 할증률 한도 : 현행유지, ▲선택적 휴가보상제, 휴가사용촉진제 : 반대, ▲단협 취업규칙 갱신의무 : 반대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표 참조)

그러나 이후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입법안 수용입장을 밝혔던 사용자단체가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하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는 합의가 안될 경우 노사양측이 주장한 내용 중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환노위 차원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18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계획을 연동시킬 방침이다. 먼저 국회 환노위가 제시할 조정안이 노동계 단일안을 대폭 반영할 경우 14일 이후 중앙위원회 회를 열어 조정안에 대한 입장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정부입법안과 별반 차이를 두지 않은채 주40시간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양대 노총이 연대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 진행경과 및 국회일정 △

4/28	제2연대 공동대안 한국노총 제출
7/23	제2공투본 6차 대표자회의 결의 - 제2연대 공동대안을 제2공투본 단일안으로 확정, 양노총 제출
7/25	국회 환노위원장 및 양노총 사무총장 간담회
7/28	양노총 시간단축 단일안 실무협상팀 1차회의
7/31	양노총 시간단축 단일안 실무협상팀 2차회의
8/ 5	양노총 시간단축 단일안 실무협상팀 3차회의
8/ 6	양노총 시간단축 재협상 대책기구 연석회의 양노총 주40시간제 단일안 발표 공동기자회견
8/ 8	국회 노사정협상 재개
8/12 ~ 14	국회노사정 집중협상
8/13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 (국회협상 보고 및 투쟁계획 논의)
8/18	환노위 주40시간제 법안 사전 심의
8/19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8/20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8/28	국회 본회의

◎ 조선선재노조 파업돌입 ◎

조선선재노동조합(포항 / 이창호)은 지난 7월 8일부터 임투를 시작하였으나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인해 8월 6,8일 조정신청을 거쳐 결국 8월 9일 임시총회를 통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참고로 노조는 임금(단협포함) 16%인상을 요구한 상태이며, 사측은 기본급 9%인상과 단협 3.1%인 상인을 제시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사측안을 따를 것을 권고 하였다 그 외 주요쟁점으로 는, 주 5일제,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 합의, 용역하도급 전환시 조합과의 합의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간 조선선재온산공장과 별도 단합을 통해 벌어진 임금격차 등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사측에 요구 하고 있다.■

◎ 삼양중기노조 부분파업 돌입 ◎

삼양중기노동조합(경기 부천 / 이성수) 5월 14일부터 임투를 시작하여 7월 24일 조정신청을 거쳐 8월 11~14일 오후 4.5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참고로 노조는 임금 13%(130,000원)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작년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인 '용역전환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등을 쟁점화 하여 파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8월 11일 13시 파업지원과 통일열기를 확산시키고자 파업현장에 동참하여 자원투쟁을 전개하였다.■

2003년 통일염원

노동자대회

- 일시 : 2003. 8.15.(금) 늦은 3시 ;
"반전평화 통일염원 노동자대회"
늦은 4시~8시 ;
"8·15 10만 촛불대행진"
- 장소 : 서울시청 앞 광장
- 주관 : 한국노총, 민주노총

첨부자료1 : 양대노총 단일안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근기법 개악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보호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노동계 단일안을 적극 수용하라**

지난 1997년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생과 근로조건저하를 고집함으로써 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시간단축은 이미 대세가 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조건개악없는 주5일제가 속속 시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야정당, 정부, 경영계는 노사합의로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없는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근기법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안이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정부안에 의하면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주5일제 시행은 무려 7년이 걸린다. 그동안 노동내의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한 세계 각국이 2년정도의 기간내에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정부안은 고작 12일의 휴일을 늘이면서 최대 20%의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은 통상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이 연간 1700-2100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반해 한국노동자들의 1인당 노동시간이 연간 2500시간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안은 연간 평균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수당 폐지, 잔업수당 할증율 25%로 인하, 생리휴가수당 폐지안을 내고 있다. 변형근로제강화, 보상휴가제도입으로 노동강도강화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임금삭감은 세계노동시간단축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임금삭감 효과는 전체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한계임금에 가까운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타격은 말할 수없이 크다. 노동시간단축과 연월차휴가 축소로 인한 임금보전도 매우 추상적으로 처리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미조직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삭감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침체의 주요원인이 내수위축이며, 이는 IMF 외환위기 이래 5년간 약 2%의 실질임금 저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인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제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문제를 이유로 중소영세기업의 주5일제 시행을 늦추고,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6년간 되풀이 해왔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상황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원하구조 개혁, 세제지원,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 등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가 노동시간단축효과는 최소화하면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희생시키려는 정부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상황에 직면한 우리 양대노총은 상대적으로 장기근속노동자들의 연월차휴가 축소를 감내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계 단일안(잠정안)을 제출한다. 양조직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확정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노사정 재교섭에 임해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이러한 충정과 대의를 무시하고 노사정협상을 형식적인 절차정도로 치부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 강행처리를 한다면 양대노총의 150만 조직노동자들은 이땅 850만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한 13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사수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3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남순

첨부자료2 :

노동시간단축 주요 쟁점별 비교

내용	현행	정부 안	단일 안
법정 근로시간 (제49조 제1항)	1주 44시간	1주 40시간	1주 40시간
연월차휴가수당폐지 (제59조의2 신설)	신설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미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면제, 귀책사유해제	도입 반대
연장근로확대 및 할증율 인하(부칙)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한도 상향조정, 최초 4시간 할증율 25%	도입 반대
생리휴가 무급화(제71조)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청구할 경우 무급휴가	현행유지
시행시기 (부칙)	없음	①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2003.7.) ②300인 이상 (2004.7.1.) ③100인 이상 (2005.7.1.) ④50인 이상 (2006.7.1.) ⑤20인 이상 (2007.7.1.) ⑥20인 미만 (2010년내, 대통령령)	①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 (공포후 3월 경과하는 날) ②300인 이상 (2004. 7. 1) ③300인 미만 (2005. 7. 1)
연월차유급휴가 (57조, 59조 제1,2항)	월 1일의 유급월차휴가 1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유급연차휴가 매1년당 1일 가산 총연월차휴가일수 32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대체 가능	연월차휴가 통합 1년간 8할이상 출근자 15일 유급휴가 매2년당 1일 추가(최초1년은 제외) 총휴가일수 25일 한도 1년 미만자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이때의 월 1일 유급휴가는 1년이상 2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포함)	연월차휴가 통합 1년간 8할 이상 출근자 18일 유급휴가 매1년당 1일 가산 총휴가일수 27일 한도 1년 미만자 1월당 1.5일 유급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0조 제2항)	1개월 단위 1주56시간, 1일12시간 한도	3개월 단위 1주 52시간, 1일 12시간 한도	3개월 단위 1주 48시간, 1일 10시간 한도
선택적 보상휴가제 (제55조의 2 신설)	신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부여	반대
임금보전(부칙)	신설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기준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 개정법 시행시 연월차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
기존단협변경(부칙)	신설	기존단협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명시	반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8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 업 등 특수업종에 대해 연장 근로, 휴게시간 한도 초과 허용	-	폐지 *판매서비스업, 운수업의 장시간노동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추진
연소자, 해위험사업장 근로시간 (제67, 46조)	연소자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2시간 한도 유해위험사업장 근로한도 1일 6시간 1주 34시간	연소자 근로시간 1주 7시간, 1주 40시간 한도 현행	연소자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 유해위험사업장 근로한도 1일 6시간 1주 30시간
법정공휴일 축소	현행 17일(노동절 포함)	4일 축소(토요일과 겹치도록 변경조정)	반대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89호 2003년 8월 13일 (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천리안 flmtu@chol.com

주5일제 정부입법안 국회통과 저지 총파업투쟁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경총 등 노사정은 지난 8월 8일 국회 한노위소회실에서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협상에 재돌입 했었다. 노사정은 12일부터 14일 까지 집중협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아, 협상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힌 뒤, 마지막 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12일(화)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 여야총무,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은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는 경총 등 자본의 입장을 받아들여, 애초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어 본회의 일정을, 14일을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18일 상임위 논의,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송위원장은 이어 “국회도 협상타결을 위한 조정안을 내는 등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오늘(8월 13일) 오전 11시 노총3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주5일 노동제 정부입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노총은 시간단축 재논의 협상에 대한 양대노총 단안을 가지고 타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임하되, 국회 및 여야정당이 이번 재협상을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하여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정부입법안을 국회한노위

에서 강행처리하는 경우 1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을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노총 산하 산별대표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를 방문하여 ‘주5일정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계안이 국회처리시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투쟁일정과 관련 노총은 ▲8월13일 오후 총파업투쟁지침 산하조직 시달 ▲8월14일 총파업관련 홍보물 전국배포 ▲8월18일까지 산하조직 파업찬반투표 완료 ▲8월18일 오후 6시부터 법안이 처리되는 20일 까지 국회와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에서는 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구당사 앞 규탄집회 및 항의농성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체적 총파업투쟁지침은 추후 빠른 시간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통일염원 노동자대회

•일시 : 2003. 8.15.(금)

늦은 3시 ; “반전평화 통일염원 노동자대회”

늦은 4시~8시 ; 8:15 10만 촛불대행진”

•장소 : 서울시청 앞 광장

•주관 : 한국노총, 민주노총

●● 2003 입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0호 2003년 8월 21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전리안 flmtu@chol.com

근기법개악 저지 양대노총 국회앞

2박3일 총력노숙투쟁 전개해

노동시간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협상이 몇 년에 걸쳐 결렬되다가, 최근 금속노동계의 노동계의 힘있는 투쟁에 의해 주5일제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경총 등의 자본은 무책임하게도 정부안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 역시 자본의 이러한 작태에 발맞추어 춤을 추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자본의 입장에 유리한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지난 14일 까지 진행되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협상을 파국으로 내몰고 20일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소리만 되풀이 하였다.

이에 맞서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여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제를 쟁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악 저지 국회 앞 노숙투쟁"을 폭우속에서 전개하였다. 18일 "노숙투쟁문화제"를 시작으로 노총 및 산별간부가 중심이 되어 지하철역 등에서 대국민 선전전, 투쟁결의대회를 이어 나갔다. 그리고, 20일 오후에 진행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일단 2박3일 노숙투쟁을 정리하였다. 과정에서 매일같이 양대노총 만여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동참하여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특히, 20일 총력투쟁결의대회 와중에서는 국회환노위 위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길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는 움싸움 도중 전투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2명의 부상자가 머리가 깨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하였다.

우리노련은 이병균위원장을 필두로 상근암직원들이 총력노숙투쟁에 전면결합 하였고, 산하조직으로는 삼양중기노동조합동지들이 파업 기간중임에도 60여명 조합원이 동참했고 성신노동조합에서도 30여명 조합원들이

들이 동참하였다. 경기지역에서 서진산업,한국체인,국제전기,키스톤밸브,쉐프네크풍정,동일제강,한국번디,엘지전선,칩팩코리아노동조합,하이디스,하이닉반도체 등이 참여했고 서울지역에서도 LG전자,TDK,세진전자,한국특수공구,대우전자서비스,대우일렉트로닉스노동조합 등이 동참하였다. 더불어, 충남지역 노동조합의 대오와 함께 LG산전장항,MEMC,환영철강,새론오토모티브,동원정공,서봉산업,동양철관,LG산전천안지부, 삼신,진영,오택,신우전자노동조합 동지들도 동참하여 "근기법 개악저지 투쟁"에서 금속노동자의 독심을 보여주었다.

환노위 법안소위 '주5일제 정부안'

시행시기 1년 늦춰 통과시켜

20일 오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는 재계가 주장했던 정부의 주5일제법안을 다수안으로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기존의 정부안보다 1년의 시행시기를 늦춰 버렸다.

소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되며,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하고, 임금보전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소위 환노위 법안소위통과안은 여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근기법개악안임을 쉽게 알수 있다.

주5일제 정부입법안 통과저지 긴급투쟁지침

8월 20일(수) 오후 한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다수안으로 통과된 주5일제 입법안은 오늘 8월 21일(목) 한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에 회부, 8월 28일(목)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투쟁지침을 시달하였다. 우리노련은 시달된 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투쟁지침을 마련하여 강고한 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노련은 오는 8월 25일(화) 10시 30분에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를 통하여 '주5일제 정부입법안 통과저지'를 위하여 우리노련의 투쟁결의를 모아내어, 국회본회의 통과예정시기인 8월 28일 국회 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열리게 될 "근기법 개악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에 전체 조직의 참여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노련의 서울지역 항의 서한(항의서한문은 우리노련 홈페이지[www.metal.or.kr]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달과 농성투쟁 지역은 관악성북구이다. 각 시도지역본부 및 지부는 지역내에서 투쟁지침에 따른 견고한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긴급투쟁지침을 시달한다.

- 긴급투쟁지침 -

- 8월 21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우리노련 서울지역 산하 회원조합은 서울지역 전 지역구 지구당 사무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농성투쟁을 전개한다.
- 우리노련 산하 시도지역본부·지부는 각 지역 내 국회의원 지구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농성투쟁을 전개한다.
- 각급조직은 산하조직에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해당 지구당에 전 조합원 항의방문, 집회투쟁, 피켓시위 및 선전전, 사이버투쟁(자유게시판 항의글 게시 및 e-mail 보내기), 전화 걸기 등 국회의원 압박투쟁을 조직한다.

근기법 개악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 2003년 8월 28일

이른 10시

장소 : 국회입구 국민은행 앞

준비물품 : 현수막, 피켓 등 선전물

투쟁조끼, 머리띠, 깃발

연맹, 단사, 지역깃발

※ 한나라당 : www.hannara.or.kr 민주당 : www.minjoo.or.kr

자민련 : www.jamin.or.kr 개혁신당 : www.kppr.org

각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지구당 주소를 확인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른 투쟁속보를 지속적으로 발간 할 터이니, 각급 조합 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은 긴급투쟁지침에 따른 조직화와 투쟁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변경 소집동보

일시 : 2003년 8월 25일(화) 10시 30분

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 2003 입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1호 2003년 8월 27일 (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전리안 flmtu@chol.com

노동악법 생산공장 국회를 멈추게 하라

28일 14시 모이자! 국회로, 근로기준법 개악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투쟁지침

- 각 조직은 깃발, 팻대, 투쟁조끼, 파켓, 현수막 등을 자참하여 28일 14시 국회앞으로 집결할 것
-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로 집회와 노숙투쟁, 국회 봉쇄투쟁이 전개되는 바 참관, 뜻지리 등을 준비할 것
- 우천을 대비하여 비옷을 준비할 것

28일

- 14시 : 양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16:30시 : 가두산전전 (영등포역)
- 20시 : 양노총 투쟁문화제 (국회앞)
- 23시 : 노숙농성투쟁 (취침)

29일

- 7:30-8:30시 : 가리산전전 (산대방역)
- 10-12시 : 중소영세노동자 권리쟁취 결의대회
- 14시 : 양노총 총력투쟁결의대회

관악구·성북구 국회의원 지구당사 항의방문투쟁 전개

우리 연맹은 26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창영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상근 임직원과 서울지역본부 서갑순의장, 대우일렉트로닉스 박정호 기획실장 등으로 국회의원 항의방문단을 구성하여 관악구와 성북구 국회의원 지구당사로 항의방문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항의방문을 전개한 국회의원 지역구는 ▲이훈평(관악갑, 민주당) ▲이해찬(관악을, 민주당) ▲유재건(성북갑, 민주당) ▲신계륜(성북을, 민주당)의원 등이다.

항의방문은 항의서한과 함께 연맹 상근 임직원 및 서울지역산하 조합원들이 연명한 "근기법 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서명지를 지구당 사무실에 전달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5일제 정부입법안"에 동의할 경우 반노동자 의원으로 분류하여 내년 4.15총선에서 조직적 낙선운동을 불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단이 성북구 유재건

(민주당)의원 지구당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경찰병력이 이를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재건 의원 사무장은 지구당사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항의방문단은 사전에 방문약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막는 것은 구시대 독재정권을 연상시키는 민주압살 행위임을 항의하고 준비해온 요구서한과 서명지를 전달했다.■

◎ 8/25 임원·지역본부의장회의, 국회통과 저지투쟁 재다짐 ◎

연맹은 국회통과저지투쟁 및 10월 전국 대표자체육대회, 입단투 현황과 제조산별통합 경과 등 현안문제를 놓고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임금삭감과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주5일제 정부입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28일 국회앞 집회 및 29일까지의 노숙농성투쟁에 조직적으로 적극 결

합할 것을 재다짐했다.

또한 오는 10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로 한국노총 여주교육원에서 전국 노조 대표자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제조산별통합에 대해서는 금속·화학통합추진실무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과 물거리가 잡히는 10월초순 경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 8/25 연맹 42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마쳐 ... ◎

연맹은 지난 8.25(월) 연맹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연맹출신 선배님들을 모신 가운데 현직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과 상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맹 이병균 위원장은 선배들의 땀과 피로 만들어진 금속연맹이 지난 42년 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도약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빈으로는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유재섭 상임부위원장, 박인상(민주당, 전국구의원/전 한국노총·금속노련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2호 2003년 9월 4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민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천리안 flomtu@chol.com

근 근로기준법 조

현장을 조직하자

근기법개악안 통과 주도 한나라당 심판!
단협을 통한 주40시간 노동제 완전쟁취!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업종·규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40시간노동제가 시행된다. 연맹은 정부입법안 보다 시행시기만 1년여 늦춰진 개정안이 실질임금삭감,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시간 확대, 생리휴가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연맹은 지난 개악저지투쟁에서 밝혔듯이 본회의 통과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엄중심판할 것이다. 또한,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도 노동계출신임을 직시하고, 한국사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조직할 것이다. 더불어, 개악된 근기법에 맞서 내년 단협을 통해서 완전한 주40시간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 근기법개악안에 대한 해설 및 투쟁방향은 빠른 시간안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DENSO풍성 · 삼양중기 · 조선선재 파업 소식

◎ DENSO풍성 타결 ◎

DENSO풍성노동조합(서울/이대영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8월 27일 기본급정를 8.3% 인상,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노동(매일 마지막주 토요일근무, 2004년 4.1.전면실시), 상여금 50%인상, 각종수당 5,000원씩 인상, 학자금지급, 45세 이상 노동자 종합진료, 고용안정등의 내용으로 최종합의하였다. ■

◎ 삼양중기노조 전면파업 돌입 ◎

삼양중기노동조합(경기부천 / 이성수위원장)은 8월 11일 4.5시간의 부분파업에서 8월 28일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주요쟁점으로 '분시저지'와 '단협사항이었던 분시문제를 노조와 협의없이 추진했던 당사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노조는 기존임금 인상안을 수정하여 현재 7.3%의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

◎ 조선선재노조 파업24일째 ◎

조선선재노동조합(포항 / 이창호위원장)은 지난달 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이후 노조는 원만한 파업해결을 위해 총 4차례의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사측이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끝내 결렬되었다. 게다가, 사측은 지난달 18일 직장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파업국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연맹은 김홍룡 노사대책본부장을 파견 파업사태 해결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 ■

◎ 제조산업통합 기본계획안 9월내 마련 ◎

제조산업통합 추진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맹은 지난 8월 14일 화학노련과 통합추진실무위원회를 열어 9월 말까지 통합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노조대표자세미나, 전국 지역순회토론회 등을 열어 현장의견수렴 및 조직화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속·화학 양연맹은 오는 9월 5일과 6일 통합추진 실무위원 워크숍을 통해 쟁점 및 기본계획에 대한 집중토의에 들어간다.

현재 통합추진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에 의하면 2004년 3월 중순 내에 통합대회를 열어 2004년 입단투 및 주5일제·전임자임금지급 등의 제도개선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

통일 학교

분단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발견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노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당초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고자 했던 통일학교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빠른 사실내에 연맹 공문을 통해 시달할 계획임)

- 1)대 상 : 각 단위노조 간부 및 조합원
- 2)시 기 : 9월 30일~10월2일(2박3일)
- 3)장 소 : 노동교육원
- 4)참가비 : 1인당 3만5천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찬성의원

강봉균(민주당, 군산시)	강삼재(한나라당, 미산회원구),	강신성일(한나라당, 대구동구),	강운태(민주당, 광주남구),
강인섭(한나라당, 은평갑),	강재섭(한나라당, 대구서구)	강창성(한나라당, 전국구)	강창희(한나라당, 대전중구)
구종태(민주당, 전국구)	권영세(한나라당, 영등포을)	권오윤(한나라당, 안동시)	권태명(한나라당, 부산연기)
김경재(민주당, 전남순천)	김광원(한나라당, 봉화울진)	김기배(한나라당, 구로갑)	김기재(민주당, 전국구)
김덕규(민주당, 중랑을)	김덕배(민주당, 고양일산을)	김민제(한나라당, 대구수성갑)	김명섭(민주당, 영등포갑)
김무성(한나라당, 부산남구)	김부겸(무소속, 경기군포)	김상현(민주당, 광주북구갑)	김성조(한나라당, 구미)
김영선(한나라당, 전국구)	김영춘(무소속, 광진갑)	김옥두(민주당, 장흥영암)	김용갑(한나라당, 밀양, 창녕)
김용균(한나라당, 신창합천)	김용학(한나라당, 영월평창)	김용환(한나라당, 보령서천)	김운용(민주당, 전국구)
김정부(한나라당, 미산합포구)	김중하(한나라당, 창원갑)	김태홍(민주당, 광주북구을)	김택기(민주당, 태백정선)
김학송(한나라당, 진해)	김학원(무소속, 부여)	김황식(한나라당, 경기하남)	김효석(민주당, 담양곡성장성)
김희선(민주당, 동대문갑)	남경필(한나라당, 수원팔달)	남궁석(민주당, 용인갑)	도종이(한나라당, 부산진구을)
문석호(민주당, 서산태안)	박관용(무소속, 부산동래)	박명환(한나라당, 마포갑)	박상현(민주당, 전남고흥)
박세현(한나라당, 전국구)	박원홍(한나라당, 서초갑)	박재욱(한나라당, 경산청도)	박종근(한나라당, 대구달서갑)
박종우(민주당, 경기김포)	박종웅(한나라당, 부산사하을)	박주선(민주당, 보성화순)	박추천(한나라당, 마포구을)
박진(한나라당, 종로구)	박창달(한나라당, 전국구)	박한기(한나라당, 경북영천)	박혁규(한나라당, 경기도광주)
박희태(한나라당, 남해하동)	배기선(민주당, 부천원미을)	배기운(민주당, 전남나주)	서병수(한나라당, 부산해운대기장군갑)
서정화(한나라당, 전국구)	서창원(한나라당, 동작갑)	설송웅(민주당, 용산)	설훈(민주당, 도봉구을)
송석천(민주당, 대전유성구)	송훈서(민주당,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신경식(한나라당, 충북청원)	신계륜(민주당, 성북을)
신기남(민주당, 강서갑)	신영국(한나라당, 문경예천)	안경률(한나라당, 부산해운대구기장군을)	안동선(무소속, 부천원미구갑)
안상수(한나라당, 과천의왕)	안영근(무소속, 인천남구을)	오경환(한나라당, 서울양천을)	오세훈(한나라당, 서울강남을)
오장섭(무소속, 충남예산)	원유철(한나라당, 경기평택갑)	원희룡(한나라당, 서울양천갑)	유시민(무소속, 고양덕양구갑)
유용태(민주당, 서울동작구을)	유재규(민주당, 홍천횡성)	유한열(한나라당, 전국구)	유홍수(한나라당, 부산수영구)
윤여준(한나라당, 전국구)	윤철상(민주당, 전국구)	이강두(한나라당, 경남함양거창)	이강래(민주당, 전남남원순창)
이경재(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을)	이근진(한나라당, 고양덕양구을)	이낙연(민주당, 전남함평영광)	이만섭(민주당, 전국구)
이방호(한나라당, 경남사천)	이부영(무소속, 서울강동갑)	이상수(민주당, 서울중랑갑)	이상희(한나라당, 전국구)
이상현(한나라당, 서대문갑)	이우재(무소속, 서울금천)	이원형(한나라당, 무소속)	이윤성(한나라당, 인천남동구갑)
이재정(민주당, 무소속)	이한동(무소속, 경기연천포천)	이해찬(민주당, 서울관악을)	이호웅(민주당, 인천남동구을)
임재정(민주당, 서울노원)	임태희(한나라당, 성남분당구을)	전용학(한나라당, 충남천안갑)	전재희(한나라당, 경기광명)
정갑윤(한나라당, 울산중구)	정균환(민주당, 전북고창부안)	정대철(민주당, 서울중구)	정동태(민주당, 광주서구)
정웅준(무소속, 울산동구)	정문화(한나라당, 부산서구)	정세균(민주당, 진안무주장수)	정의화(한나라당, 부산중동구)
정진석(무소속, 충남공주연기)	조배숙(민주당, 전국구)	조부영(무소속, 전국구)	조순형(민주당, 서울강북구을)
조정무(한나라당, 경기남양주)	조희욱(무소속, 전국구)	천용택(민주당, 전남강진완도)	천정배(민주당, 경기안산단원구)
최명현(민주당, 전국구)	최병렬(한나라당, 서울강남구갑)	최연희(한나라당, 동해삼척)	최용규(민주당, 인천부평을)
추미애(민주당, 서울광진을)	한희갑(민주당, 전남무안신안)	함석재(한나라당, 충남천안을)	함승희(민주당, 서울노원갑)
허태열(한나라당, 부산북구강서을)	현승일(한나라당, 대구남구)	홍문종(한나라당, 경기의정부)	홍사덕(한나라당, 전국구)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			

연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단죄 할 것입니다.

수재의연금 모금 사업장

- 9월 24일 15시 현재

▶ 서울지역 노동조합

- ▷ LG전자노동조합 (300,000 장석춘위원장)
- ▷ 대우전자서비스노동조합 (50,000 오태근위원장)
- ▷ 대우일렉트로닉스노동조합 (300,000 이병규위원장)
- ▷ 상흥사노동조합 (50,000 김성춘위원장)
- ▷ 대한전선노동조합 (50,000 조병철위원장)

▶ 경기지역 노동조합

- ▷ 삼화전자노동조합 (200,000 김영식위원장)
- ▷ 성신노동조합 (50,000 유진화위원장)
- ▷ 침팩코리아노동조합 (300,000 김한모위원장)
- ▷ 한국번디노동조합 (50,000 김원영위원장)
- ▷ 현대에네셀노동조합 (655,400 강장규위원장)
- ▷ 현대오토넷노동조합 (200,000 이승현위원장)

▶ 인천지역 노동조합

- ▷ 한일류브노동조합 (50,000 이현욱위원장)
- ▷ 한국사프노동조합 (100,000 현용섭위원장)
- ▷ 휴스틸노동조합 (100,000 박창욱위원장)

▶ 대전·충남지역 노동조합

- ▷ 대원전선노동조합 (50,000 배승천위원장)
- ▷ 동양강철노동조합 (50,000 오기순위원장)

▶ 충북지역 노동조합

- ▷ 빅상스코리아노동조합 (100,000 최경천위원장)
- ▷ 동성금속노동조합 (50,000 박희동위원장)
- ▷ 에넥스노동조합 (100,000 이상재위원장)
- ▷ 하이닉스반도체청주노동조합 (300,000 김준수위원장)

▶ 경남지역 노동조합

- ▷ 세일공업노동조합 (50,000 조경욱위원장)
- ▷ FAG한화베어링노동조합 (200,000 장준영위원장)
- ▷ 대동기어노동조합 (50,000 전종환위원장)
- ▷ 두원중공업노동조합 (100,000 정진용위원장)
- ▷ 세원E&T노동조합 (50,000 옥충석위원장)

▶ 울산지역 노동조합

- ▷ 다스노동조합 (50,000 홍정표위원장)
- ▷ 풍산노동조합 (300,000 손은진위원장)

▶ 대구·경북지역 노동조합

- ▷ 대철노동조합노동조합 (50,000 황성원위원장)
- ▷ 영진노동조합 (50,000 권태훈위원장)
- ▷ 평화정공노동조합 (50,000 김순창위원장)
- ▷ 평화발레오노동조합 (100,000 김동준위원장)
- ▷ 남선알미늄노동조합 (100,000 최희순위원장)
- ▷ 세원물산노동조합 (50,000 손광희위원장)

▶ 구미지역 노동조합

- ▷ LG실크론노동조합 (200,000 조성륜위원장)
- ▷ LG정보통신노동조합 (50,000 권용석위원장)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일시 : 9월 27일 늦은 2시

장소 : 대략로

주관 : "아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

통일학교 연기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로 인해 산하 사업장과 조합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화)부터 2박3일간 열릴 계획이었던 통일학교를 잠정 연기하고자 하니 산하노조에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잡히는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2003 임타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3호 2003년 9월 17일 (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전리안 hemtu@chol.com

연맹 태풍 '매미' 수해복구 지원 및 모금활동 진행

연맹은 지난 추석연휴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매미'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체계적 모금 활동 진행과 더불어 부산지역에 복구지원단을 급파하기로 하였다.

이병균 위원장은 지난 16일 연맹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금번 태풍으로 인한 수해의 원인은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치 못한 것 또한 원인이라 지적하면서, 금속연맹 조합원들의 동지애를 모아 조직적인 수재의연금 모금운동과 더불어 수해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진행중인 연맹조직강화본부의 산하조직의 피해규모를 중간 집계 해 보면 부산경남,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특히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상당수의 사업장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연맹은 9월 18~19일 피해복구지원단과 더불어 오는 9월 27일 까지 '수재의연금' 모금을 진행한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 : 30만원이상
500~1000명 이하 노동조합 : 20만원이상
500명 이하 노동조합 : 50만원 이상

한국외환은행 111-13-03324-1
예금주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사무국장회의 대전지역본부에서 19일 열려

9월 19일 대전지역본부에서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가 11시에 예정되어져 있다. 연맹은 이날 회의를 통해 태풍 '매미' 피해상황 총화와 더불어, 10월 9~10일 경기도 여주군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이하 대표자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할 것이다.

대표자체육대회는 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위원장 및 지부장, 노련 부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및 상근 임직원을 참가 대상으로 하여 치러질 계획이다. 또한 참가자는 참가비 50,000원과 운동복 규격을 소속된 지역본부에 9월 25일까지 제출해 참가신청을 마쳐야 한다.■

삼양중기·조선선제 파업 종료

◎ 삼양중기노조 타결 ◎

삼양중기노동조합(경기부천 / 이성수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9월 13일 임금총액대비 8.4%(약 91,000원)인상, 하계휴가비 5만원 인상, 2005년 까지 분사 및 하도급을 시행치 않고,

능력급제 시행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 조선선제노조 타결 ◎

조선선제노동조합(포항 / 이창호위원장)은 지난 8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9월 5일 임금 11%인상, 단협 3.1% 인상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통일 학교

- 1)대 상 : 각 단위노조 강부 및 조합원
- 2)시 기 : 9월 30일~10월2일(2박3일)
- 3)장 소 : 노동교육원
- 4)참가비 : 1인당 3만5천원

단위노동조합 노동문화활동 실태조사

연맹에서는 각 단위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패(운동, 노래, 풍물, 연극 등)현황을 파악하여 노동문화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노동조합 >문화패명 >종류 >인원 >연락처 >문화패장(책임자) >비고 의 순으로 정리하시어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연맹 여성부장 (TEL 02-864-2901 / FAX 02-864-0457)

WTO협상에 반대하며 지난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故 이경해 열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4호 2003년 9월 25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천리안 flmtu@chol.com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설립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천1공장 노동조합(위원장 천영호)이 우리연맹을 상급단체로 사천시청에 지난 22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5일 오전 신고필증이 발부되어 노조설립을 공식화 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삼성항공, 대우중공업기계, 현대정공의 항공부문이 통합해 지난 99년 출범한 방위산업체로 삼성지분이 30%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천 1공장은 삼성항공의 기존인력과 장비가 승계된 곳 이어서, 삼성무노조 약속의 관행이 이어져 오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의 설립신고 이후 사측은 노조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내부 컴퓨터의 노조홈페이지(<http://www.kaiunion.net>)접속을 차단하고, 천영호 위원장 등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노사협의회'체제로 복귀 할 것 등을 회유하고 있다.

연맹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천1공장의 노조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측의 노조설립방해공작을 사천1공장 노조와 함께 철저히 분쇄하여,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과 조직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연맹에서는 김만제 사무처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천1공장의 노조설립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있다.■

수해복구지원 및 수재의연금

모금 일정 이어져

연맹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18~19일 한국노총 수해복구지원단의 일원으로 문광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지원단을 파견하여 복구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연맹차원의 모금활동을 통해 총 4백5십여만원 정도의 의연금을 모았다.

부산 가덕도에서 18-19일 양일동안 진행된 수해복구활동은 침수로 붕괴된 가옥정비 및 마을 정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준비해간 커피연등의 수재 위문품을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였다. 한편, 우리연맹 산하 LG전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춘) 김해지부(지부장 한상대)는 돼지고기와 막걸리 등 새참을 준비하여 가덕도 수해복구현장으로 가지고 와, 한국노총 수재복구지원단과 마을주민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해 훈훈한 동지애를 느끼게 하였다.

또한, 우리연맹 이병균 위원장은 9월 23일 수해지역사업장 조합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표적 피해지역인 한국중천노동조합(최해경 위원장) 등의 마산 수출자유지역내 사업장을 순회하였으며, 부산지역에서는 연맹산하 부산지역 대표자 간담회를 가진 후 오리엔탈정공사사업장(노동조합 권동재 위원장)을

방문 피해사업장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독려했다.

모금되어진 수재의연금은 연맹산하 피해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한국노총모금활동에 동참하여 쓰여진다. 수재의연금 모금은 오는 27일 까지 이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 : 30만원이상
500~1000명 이하 노동조합 : 20만원이상
500명 이하 노동조합 : 5만원 이상
한국외환은행 111-13-03324-1
예금주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 열려 ◎

연맹은 지난 9월 19일 11시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사무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태풍 '매미' 피해 상황 총화 및 10월 9~10일 경기도 여주군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개최예정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 1회 위원장 전국대표자대회(이하 대표자체육대회)에 관한 의제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지고, 대표자체육대회에 관한 실무적인 협의를 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체육대회

일시 : 10월 9~10일

장소 : 경기도 여주군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참가신청 : 각 지역본부로

참가비 50,000과 체육복구경 통보

참가신청마감 : 9월 25일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5호 2003년 10월 2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전리안 flmtu@chol.com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연맹은 10월 9~10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산하단위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노련 부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및 상근 임직원을 참가대상으로 진행되는 금번 체육대회에 총 420여명이 참가신청을 마친 상태다. 경기종목으로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 총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각 팀별 선수등록을 마쳤다. 참가팀구성은 인원수 배정에 의해 총 6개팀(1팀 경가강원지역, 2팀 인천-안산시흥, 3팀 경남-부산, 4팀 서울-대전-충남-충북, 5팀 대구경북-전북, 6팀 구마포항-울산-광주전남)으로 결정되었다. 많은 팀이 경기를 진행하는 관계로 경기진행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참가팀별 모자색깔을 통해 구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기진행 도중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료팀을 준비하는 등 체육대회 준비에 연맹 임직원 모두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회장인 이병균 위원장은 "체육대회를 통해 산하 지역본부 및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들 간의 단결과 연대의식을 증진시켜, 연맹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살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체육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속연맹 수재의연금

70여 노동조합에서

7백여만원 모금해

지난 9월 27일까지 수재복지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태풍 '매미' 수재의 연금 모금 결과, 70여개의 노동조합(모금 노동조합은 별지 참조) 조합원들이 모금에 동참해 총 7,135,400원의 수재의연금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금액 사용처와 관련하여 연맹은 지난 한국노총수재의연금 모금에 백만원을 기탁하였고, 산하 피해사업장 10여 곳에 각 50만원씩을 수재 복구를 위해 지원하였다. 차액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수재복지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금속-화학 통합추진

큰 그림 그려져 ◎

2003년 초반부터 각 연맹의 결의로 추진되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병균)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현수)의 통합논의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양대연맹은 10월 2일 통합특보 1호를 공동 발행하여 각 산하조직에 발송하였다. 통합특보에는 △통합산별의 의의 △ 통합연맹 추진일정 △통합이후 산별의 모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통합특보는 발행된 1호를 포함하여 10-11월과 2004년 2월에 걸쳐 총4회 발행예정이다.

통합추진일정에 따르면 2003년 10월 총4회 일정으로 단위노조임원세미나를 시작으로, 11월 지역순회토론회, 2004년 2월 각 연맹별로 통합이행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결의 되어진 후, 3월 통합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 진다.

한편 양대 연맹은 통합관련소식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통합소식지 '제조노동자'를 10월 15일자로 발행하여, 금속-화학 양연맹의 통합과정과 진행사항들을 빠르게 전파하여 산하조직과 공유를 할 예정이다.■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체육대회

일 시: 10월 9일(목) 12시

~10일(금) 16시

장 소: 경기도 여주군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개회식: 10월 10일(금) 오전10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수재의연금 모금 노동조합

최종 마감(금속노련속보 제94호 별지분 목록 포함)

▶ 서울지역 노동조합

- ▷ LG전자노동조합 (300,000 장석춘위원장)
- ▷ 대우전자서비스노동조합 (50,000 오대근위원장)
- ▷ 대우일렉트로닉스노동조합 (300,000 이병균위원장)
- ▷ 대한전선노동조합 (50,000 조병철위원장)
- ▷ 롯데알미늄노동조합 (200,000 서학수위원장)
- ▷ 삼흥사노동조합 (50,000 김성춘위원장)
- ▷ 한국TOK노동조합 (50,000 도대근위원장)
- ▷ 한국특수공구노동조합 (50,000 서갑순위원장)

▶ 경기지역 노동조합

- ▷ 두산노동조합 (50,000 이성찬위원장)
- ▷ 사이스이천노동조합 (100,000 노태현위원장)
- ▷ 삼화전자노동조합 (200,000 김영식위원장)
- ▷ 성신노동조합 (50,000 유진화위원장)
- ▷ 세전전자노동조합 (300,000 문광주위원장)
- ▷ 엔젤악기노동조합 (50,000 홍재자위원장)
- ▷ 일진금속노동조합 (50,000 이웅재위원장)
- ▷ 침팩코리아노동조합 (300,000 김한모위원장)
- ▷ 한국번디노동조합 (50,000 양봉광위원장)
- ▷ 한국가구노동조합 (50,000 기상진위원장)
- ▷ 현대에네셀노동조합 (655,400 강장규위원장)
- ▷ 현대오트보트노동조합 (200,000 이승현위원장)
- ▷ 협진정밀공업노동조합 (50,000 최용웅위원장)

▶ 인천지역 노동조합

- ▷ 동국제강노동조합 (200,000 김재업위원장)
- ▷ 한일튜브노동조합 (50,000 이현욱위원장)
- ▷ 한국사프노동조합 (100,000 현용섭위원장)
- ▷ 휴스틸노동조합 (100,000 박창욱위원장)

▶ 안산시흥지역 노동조합

- ▷ T.R.W노동조합 (100,000 김경수위원장)
- ▷ 서진클러치노동조합 (100,000 김영호위원장)
- ▷ 태양금속노동조합 (50,000 이병욱위원장)

▶ 대전지역 노동조합

- ▷ 동양강철노동조합 (50,000 오기순위원장)

▶ 충남지역 노동조합

- ▷ 대원전선노동조합 (50,000 배승천위원장)
- ▷ 동부제강노동조합 (50,000 강창영위원장)
- ▷ 동원금속아산공장노동조합 (50,000 김영호위원장)

▶ 충북지역 노동조합

- ▷ LG정보통신노조청주지부 (100,000 이창훈지부장)
- ▷ 국동전선노동조합 (50,000 정석채위원장)
- ▷ 박상스코리아노동조합 (100,000 최경천위원장)
- ▷ 대성썬텍노동조합 (50,000 김한성위원장)
- ▷ 동성금속노동조합 (50,000 박희동위원장)
- ▷ 에비스노동조합 (100,000 이상재위원장)

- ▷ 하이닉스반도체청주노동조합 (300,000 김준수위원장)
- ▷ 한국아금노동조합 (100,000 왕용호위원장)

▶ 부산지역 노동조합

- ▷ 성우하이텍노동조합 (50,000 김근수위원장)

▶ 경남지역 노동조합

- ▷ 세일공업노동조합 (50,000 조경욱위원장)
- ▷ FAG한화베어링노동조합 (200,000 장준영위원장)
- ▷ 대동기어노동조합 (50,000 전종환위원장)
- ▷ 두원중공업노동조합 (100,000 정진용위원장)
- ▷ 세방전지노동조합 (50,000 정권호위원장)
- ▷ 세원ET노동조합 (50,000 옥충석위원장)
- ▷ 한국NOK이글노동조합 (50,000 장원혁위원장)

▶ 울산지역 노동조합

- ▷ 다스노동조합 (50,000 홍정표위원장)
- ▷ 동희산업노동조합 (50,000 이찬기위원장)
- ▷ 삼주기계노동조합 (50,000 문성일위원장)
- ▷ 풍산노동조합 (300,000 손은진위원장)

▶ 대구경북지역 노동조합

- ▷ 경창산업노동조합 (50,000 장지태위원장)
- ▷ 남선알미늄노동조합 (100,000 최화순위원장)
- ▷ 남선출웨어노동조합 (50,000 김순진위원장)
- ▷ 남양금속노동조합 (50,000 김종오위원장)
- ▷ 대철노동조합노동조합 (50,000 황성원위원장)
- ▷ 세원물산노동조합 (50,000 손광희위원장)
- ▷ 영진노동조합 (50,000 권태훈위원장)
- ▷ 텍스텍노동조합 (50,000 김순석위원장)
- ▷ 평화정공노동조합 (50,000 김순창위원장)
- ▷ 평화발레오노동조합 (100,000 김동준위원장)

▶ 구미지역 노동조합

- ▷ LG실트론노동조합 (200,000 조성륜위원장)
- ▷ LG정보통신노동조합 (50,000 권용석위원장)
- ▷ 태평양금속노동조합 (50,000 최창근위원장)

▶ 포항지역 노동조합

- ▷ 그린산업노동조합 (50,000 안진수위원장)

▶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

- ▷ 로케트전기노동조합 (50,000 남규현위원장)

▶ 강원지역 노동조합

- ▷ 델파이성우노동조합 (50,000 김종원위원장)
- ▷ 쌍용동해산기노동조합 (80,000 김홍배위원장)

▶ 미확인 입금분

- ▷ 입금자 - 이수경 (50,000 미확인)

● 2003 입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6호 2003년 10월 14일(화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전리안 flintu@chol.com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연맹은 지난 10월 9~10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여주군 한국노총중앙연수원에서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여섯팀 450여명의 전국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구미, 포항, 울산, 광주전남팀이 종합우승을 차지 하였다. 경기 초반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인천, 안산, 시흥팀은 추구하고 계주의 석패로 인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이병균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금속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는 알찬 단결의 장'으로서 체육대회가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참가한 전국대표자들과 후원 및 경품지원을 통해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표하였다.

한편, 경기진행을 마무리하고 코미디언 배영만의 사회로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끼와 장기를 발산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표자들의 단결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체육대회를 통해 얻어진 동지애를 바탕으로 몇몇 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제조대통합을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정책세미나

연맹은 지난 5월 2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조대통합을 위한 화학노련과의 통합추진을 결의한 것을 근거로, △주5일제 국회통과, 신노사관계 로드맵 등 당면한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투쟁방향을 모색하고 △통합추진에 대한 경로와 방향에 있어 금속화학 양 연맹의 다양한 현장요구를 모아냄으로서 제조대통합에 대한 의의를 여러 측면에서 재정리하고 조직발전 전망에 기초한 제조대통합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총 4차에 걸친 '제조대통합을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정책세미나'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또한, 10월말까지 진행될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현장의견들을 종합정리하여 11월 중순 이후 계획되어진 전지역 순회간담회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 참가대상은 각 노동조합 대표자(노조위원장, 지부장) 전원이며, 불가피할 경우 타임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다.■

“금속화학연맹 조직통합을 위한 노동조합 설문조사” 실시

연맹은 제조대통합을 위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단위 노동조합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내용은 주로 조직통합의 방법과 통합연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이다. 설문문의 답변은 조직통합의 정책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마감기한은 10월 25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맹홈페이지[http://www.metal.or.kr] 참조)■

회계처리 실무교육 지역별 실시

연맹은 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및 문서처리의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10월중 아래표와 같이 회계처리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위노조 신임 회계감사 전원과 회계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노총회관에서 당일 13시~17시(4시간)의 일정이며, 참가비는 1인당 만원씩의 교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신청마감은 14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etal.or.kr] 참조)■

시	일	시	일	시	일
서울, 경기, 강원	20(월)	노총경기중부지부	대전, 충남, 충북	21(화)	노총충남본부
대전, 충남, 충북	21(화)	노총충남본부	대구경북, 구미, 포항	22(수)	노총대구본부
대구경북, 구미, 포항	22(수)	노총대구본부	부산, 경남, 울산	23(목)	노총부산본부
부산, 경남, 울산	23(목)	노총부산본부	광주, 전남, 전북	24(금)	노총광주전남본부
광주, 전남, 전북	24(금)	노총광주전남본부	안산, 인천	27(목)	노총안산지부

차수	일정	주최권	주최본부	주최지
1차	10월14~15일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본부	유진호텔
2차	10월16~17일	수도권, 강원도	서울, 경기, 인천, 안산시흥, 강원본부	양지 파인리조트
3차	10월28~29일	영남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구미, 포항본부	경주 콩코드호텔
4차	10월30~31일	호남권	광주전남, 전북본부	지리산 한화콘도

●● 2003 임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정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7호 2003년 10월 23일(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6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천리안 kmtu@chol.com

제조대통합 가시권 진입

1,2차 개표자 세비나 열연 토론 통해 의지 모아...

‘제조대통합’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14일 충청권(14~15/대전유진호텔)을 시작으로 16일 수도권강원도(16~17/양지리조트)로 이어진 금속화학 노조대표자 세미나에서 금속화학 두 조직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통합핵심과제에 대해 공감대는 물론 대부분 의견을 통일시켜 내면서 제조대통합을 반드시 완수시켜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3개지역 본부(대전,충남,충북)가 앞장서서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연맹 통합에 앞서 지역본부부터 통합시켜 제조대통합을 현실화시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였다. 또한 수도권강원도 역시 핵심과제에 대해서 ‘조직 입장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상호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풀어나가자’, ‘이제부터는 금속화학을 분류하는 조직의식에서 벗어나 제조노동자라는 큰 틀에서 행동하자’는 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공감대를 모아냈다.

충청권세미나에서 우리연맹 이병균위원장은 3년 동안 제조연대 활동은 연맹 조직에도 활력을 제공했고, 연대를 통해 활동의 범주를 넓히므로 제조대통합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말과 함께 ‘통합에 대해 금속화학 두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현장이 화답해 줄 때’임을 지적하면서 ‘압도적 다수가 결의하고 실천하는 대통합을 만들어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2차례 세미나에서는 829근거법개악에 따른 주40시간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두 연맹은 연내 단협 갱신지침과 투쟁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004년 7월부터 시작되는 1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교육, 공동투쟁을 배치하여 집중지도관리사업장으로 정하는 등 조직역량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앞으로 두 연맹은 다음주 2차례(영남권: 28~29일, 경주콩코드호텔 / 호남권 30~31일, 지리산 한화콘도) 더 세미나를 갖고 세미나 결과를 반영한 핵심과제를 최종적으로 재정리하여 11월 17일부터 전국을 17개 지역으로 나눠 순회간담회에 들어간다.

차수	시기	대상지역	대상지역	장소
3차	10/28~29	영남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구미, 포항	경주 콩코드호텔
4차	10/30~31	호남권	광주전남, 전북	지리산 한화콘도
대상 : 단위노조 위원장, 지부장(대표자 참석이 어려울시, 임원 대리참석 필수)				

◎ 금속화학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

금속화학통합을 위한 설문조사자가 금속노련 전체 440개 본조사업장에 각2부씩 총 880부가 배포되었으며 10월 22일 현재 총 99개 설문지가 수거(수거율 11.2%) 되었다. 이번 설문조사사업은 통합에 있어 단위노조의 생각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몇몇 핵심쟁점들에 있어서는 향후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따라서 연맹 조사 통계국은 아직 작성하지 않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사업장은 조속히 작성하여 응답지를 팩스 발송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감시한은 10월 25(토)일이다.■

◎ 금속화학연맹 개최 외국인투자사업장 노동조합 워크숍 ◎

연맹은 화학노련과 함께 오는 11월 5일(수)~7일(금)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외국인투자사업장 노동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조연대 소속 금속화학 양연맹이 산하단위조합 외국인(투자)사업장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진단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와 연대의 장을 마련하는 위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문제와 대응 ▲외국자본의 국내진출과 정부의 정책(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이 제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노조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와 사례발표를 진행한 후, 마지막날 ‘제조연대 외투사업장 노조간 연대와 협력방안’을 주제로 전체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로 금속화학 양연맹산하 외국인(투자)사업장은 대략 200여개 정도이다.■

故 김주익 노동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 자동차산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관련 실문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자 중앙대 이병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의 의뢰로 자동차산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관련 실문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연맹은 15개의 부품사업장에 설문지를 20부씩 배부하였으나 10월 22일 현재까지 1개 사업장만이 설문을 작성하여 반송하였다. 이번 조사연구는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관계와 불공정 거래를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임으로 설문지를 배부받은 사업장들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연맹 조사통계국은 강조하였다. 또한 연맹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동차부품사업장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면밀하게 세울 생각이다. 마감시한은 10월 25(토)일까지이다.■

㉠ 국제금속노련 동아시아 지역위원회 회의 열려 ㉠

제8회 국제금속노련(IMF) 동아시아 지역위원회 회의가 오는 10월 31일(금)에 타워호텔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의 IMF 기맹 금속노동자들이 참석하여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작년 대만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소속단체로는 우리연맹과 민주노총의 금속산업연맹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회의에서 토론되고 결정된 ▲조직화와 노조설립 사업, ▲국내노조간 그리고 국제연대활동, ▲여성노동자의 노조참여와 노조내 지위향상 등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아울러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중국관련 이슈-사업장 이전과 노조와의 교류' 등이 집중 토론되게 된다.■

이와그 전록병 광범반개 제 2 차 범국민대회

- ▲ 일시 : 10월 25(토)일 오후3시
- ▲ 장소 : 대학로(서울,수도권집중)

노동조합! 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

연맹은 조직문화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 (이하 가이드북) 라는 제목의 노동조합활동의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연맹 통신원들과 해당지역의 추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문화혁신 프로젝트팀[김현섭(인천통신원), 김덕수(경기통신원), 김중화(서울통신원) 최경천(충북통신원) 이은길(도투각위원회) 최해경(한국중천위원회) 방영식(진로산업위원회) 유병유(신한일위원회) 김만재(연맹 사무처장) 박현미(전연맹 홍보국장)]은 2002년 9월 17일 기획회의를 시작해서 다섯차례의 공식모임과 수차례의 비공식모임을 통해 장시간 토론을 거쳐 가이드북 발간을 위한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번 발간되어진 가이드북의 취지는 "노동운동이 잘되려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같은 인식아래 잘못된 노조의 관행과 의식을 짚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 노조들의 사례가 적지 않아 먼저 소개하였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더욱 건강한 노조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조직문화혁신' 프로젝트는 기획되었다" 라고 지면을 통해 밝히고 있다.

연맹은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기점으로 관련 특보의 제작 및 토론회등을 통해 조직문화혁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속보에서도 조금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 회계처리 실무교육 진행 ㉠

연맹 총무국은 지난 20(월)일을 시작으로 회계처리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략 50여명 정도의 교육생이 교육을 통해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교육을 수료하였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	일정	장소
부산,경남,울산	23(목)	노총부산본부
광주,전남,전북	24(금)	노총광주본부
안산,인천	27(목)	노총안산지부

노동조합! 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

적절한 회의는 민주적인 절차의 시작이다. 회의자료 작성 및 배포, 회의록 기록후 사후 통보, 회의후 사후관리등은 효과적인 회의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작업들이다.

1. 조합의 모든 회의는 최소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신규노조 중에는 집행부가 자주 모여 조합활동에 대해 토의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절차나 형식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였다면 그것은 곧 상집회의이므로 정식으로 서기를 선출하여 기록하면서 토론하자. 결정된 사항은 상집회의의 공식사항이므로 집행부 전체가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2. 회의를 세심하게 준비한다.

특히 회의의 주제에 대해 참가자는 사전에 알려 참가자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 올 수 있도록 해야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상집회의에서 조합원교육을 계획한다면 과거의 교육에서 썼던 자료, 교육평가내용, 이번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예산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가이드북 24~25페이지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파견법 개악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리보장 입법쟁취

◇ 일시 : 10월 26(일) 14:00~18:00

◇ 장소 : 종묘공원
(기동행진명동상당까지)

◇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 2003 임단투 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8호 2003년 10월 28일(화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전리란 flmrtu@chol.com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총, 투쟁상황실 설치, 하반기 총력투쟁 !!

민주노총 소속 한진중공업 고 김주익지회장의 자살과 이어진 세원테크노조 이해남지회장과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의 분신기도, 현 노무현정권의 무원칙한 노동정책과 자본의 파렴치한 이윤추구는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노총은 이를 계기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일정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현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임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남순위원장이 강조했다. 또한, 향후 최대쟁점이 될 노사관계로드맵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추진할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는 물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총은 주요투쟁과제로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및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개혁투쟁 ▲회원조합 현안 해결투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가졌고, 2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국민연금개악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향후 하반기 총력투쟁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30일	산별대표자워크숍(하반기 투쟁 결의)
11월 7일(1주일간)	지역순회 하반기 투쟁 설명회
11월 20일	'정신법저지노동자대회(국회앞)
11월 23일	전국노동자대회(오후1시, 서울여의도문화마당)

제조대통합 추진을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세미나

차수	시기	대상권역	대상지역	장소
3차	10/28~29	영남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구미, 포항	경주 콩코드호텔
4차	10/30~31	호남권	광주전남, 전북	지리산 한화콘도

대상 : 단위노조 위원장, 지부장(대표자 참석이 어려울시, 임원 대리참석 필수)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방안 공동정책토론회

일시 : 10월 29일(수) 14:00~17:00
장소 : 서울시 의원회관
(시청역 하차, 덕수궁방면)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금속·화학연맹 개최 외국인투자사업장 노동조합 워크숍

- 일시 : 11월 5일(수) ~ 7일(금)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 문의 : 연맹국제국

노동조합.... 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

함께 생각하기(52p)

원칙이 흔들린다

1. 교육에 참석한다고 해서 근태를 빼졌는데 교육은 오지 않고 '딴짓'하는 조합원, 간부들이 있다.

노조가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근태처리를 하는데 노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할 때 노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 모노조에서는 위원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났다.

그런데 신임노조위원장이 노조위원장 이취임식때 전임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줬다.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노조 일상 활동 의의가 이드나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 99호 2003년 11월 5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전리안 flmtu@chol.com

제조대통합, 힘찬 출발 !!

제조산별 통합추진, 노조대표자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

권역별로 4차례 걸쳐 진행되었던 '제조대통합을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정책 세미나'가 총인원 219명에 이르는 많은 대표자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제조대통합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맹은 금번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 대다수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의견이 통합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다만 의무금·대의원배정·통합조직임원·지역본부 정비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미나 이후 과제로는 통합추진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구체화시켜 금속·화학 양연맹을 대표하는 공동추진위원회의 의견으로 발전시켜 낼 것과, 양 연맹 산하 지역본부 간 결함력 증대를 위한 사업배치 및 지도 활동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맹은 추후 세부적인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서 재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국제금속노련(IMF) 동아시아 지역위원회 한국노동현실에 관한 결의안 채택!!

지난 10월 30일(목) 국제금속노련(IMF)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워크숍'에 이어 31일(금) '제8회 국제금속노련(IMF) 동아시아 지역위원회 회의'가 서울 타워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제금속노련에는 한국에서 우리연맹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소속되어 있다.

첫날 워크숍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의 노조간부 30여명이 참석하여, 제니 홀드크로포드(국제금속노련 여성국장)의 진행으로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노조내 여성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의 노조참석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사업장의 조직화와 비정규직 조직화, 그리고 여성간부들의 육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내년 회의에서 그 방안의 실행을 점검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튿날 지역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2002년 이래의 각국 노조의 조직화와 노조건설과 국내노조(간)와 국제노조(간)였다. 더불어, 동아시아지역이 직면하고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연석회의

일시 : 2003. 11. 11(화), 11시
장소 : 연맹 회의실

있는 사업장의 중국이전과 관련하여 국제금속노련 차원에서 중국공회와 접촉하고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일본금속노련에서 제기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12월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집행위원회 회의에 각국의 입장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후, 금속노동자의 즉각 석방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단체협약권을 억압하는 사측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 연맹 사회민주당 진성당원 가입특례 ◎

연맹은 11월 한달간을 사회민주당 진성당원 가입특례 기간으로 정해 각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를 통해 적극적인 당원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맹 정치국에서는 각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선전선동학교

일 시 : 11월 12일(수) ~ 14일(금)
장 소 : 노동교육원
참가비 : 1인당 3만 5천원
문 의 : 연맹 교육국장

노사관계 로드맵 제시! 정치개혁!
비정규직 차별철폐! 국민연금 개혁저지!
11월 23일 대학로에서
만남시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조임신활동의 가이드북을 기업사정상 이번호
호 쉽니다. -연맹 홍보국

결 의 안

국제금속연맹(IMF) 가맹노조인 일본 금속연맹(IMF·JC), 한국금속연맹(FKMTU/KMW F), 홍콩금속연맹(CMIU), 대만금속연맹(IMF·ROCC) 대표단은 10월 30일·31일 서울에서 제 8 차 IMF 지역회의를 갖고,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회의 동안 우리는 3명의 노조 지도자(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 수원테크 이해남, 한국근로복지공단 이용석)와 한진중공업 노조원인 광재규 동지 또한 노동자 권익투쟁 과정에서 비극적인 자살을 선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김주익 위원장은 회사가 노조와 스무명의 개별 노조원에 대해 제소한 심각한 손해배상청구에 항의하여 한진조선소의 크레인 꼭대기에서 129일간의 연좌농성 끝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한국의 사측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단체협약권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심지어 이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측이 노조활동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방침을 한국정부가 성명서를 통해 방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총 손해배상액 가운데 400억원은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에 의해서 청구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노동자들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작년 대만에서 열렸던 제 7 차 IMF 동아시아 지역회의에서 구금된 노조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취임한 후 지난 10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노조원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옥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고, 공기업 노조와 노조원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할 것을 또한 촉구하고, 이와 같은 거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노조를 억압하려는 사측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 8 회 국제금속노련 동아시아 지역위원회 회의 참가자 일동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0호 2003년 11월 13일(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64-2901 • Fax 864-0457 • 천리안 flm100@chol.com

11.23. 금속동지들 ! 대학로에서 만납시다.

연맹은 지난 11일(화) 11시 연맹회의실에서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체육대회 결과 ▲금속화학 통합추진 경과 ▲수재인들 기 성공모금 및 집행내역 ▲신규조직 ▲노사관계 선진화이정표(로드맵)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결의사항으로는 ▲금속화학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금속화학 통합추진위원회를 임원·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하여 통합추진실무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되는 통합추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위상을 갖도록 함. ▲제조조합연맹 명칭에 관한 건 : 향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의·결정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독려의 건 : 11월 23일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①서울,경기,인천,안산시흥 지역본부는 각 500명 이상 참석 독려 ②대전,충남,충북 지역본부는 각 200명 이상 참석 독려 ③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구미,광주전남,포항,전북,강원 지역본부는 각 100명이상 참석 독려를 목표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기로 결의 ▲주40시간제 후속 지침마련 및 대응방향에 관한 건 : 금속연맹 자체의 주40시간제 요구지침을 2003년내에 작성, 1000이상 사업장을 ‘집중지도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 ▲노동자정치활동 강화에 관한 건 : 사회민주당 진성당원 가입확대 활동기간(2003.10.27~11.29)을 통해 사회민주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집중할 것을 결의 ▲가맹노조 전산화 독려에 관한 건 : 가맹노조 및 지역본부 마다 FAX 설치 및 ‘1노조 1홈페이지 갖기’를 적극 추진 등이다.

특히, 이병균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무원칙무소신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11월 23일 대학로에서 있을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의 대규모의 참석을 모아낼수 있도록 각 지역본부 및 임원들의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당부하였다.■

노사관계 로드맵 제시! 정치개혁! 비정규직 차별철폐! 국민연금 개혁저지!

11.23. 전국노동자대회

1부 : 노동문화제(13시,대학로) / 2부 : 전국노동자대회(14시)
3부 : 가두행진 및 규탄대회(탐골공원까지)

◎제조대통합을 위한 지역순회간담회 개최◎

연맹은 금속-화학 통합추진을 위한 지역순회간담회가 금속-화학 양연맹의 공동 주관으로 오는 12.8(월)일 서울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12.8(월) 서울-경기 [남·중·서·중부] / 12.9(화) 전북-광주전남 / 12.10(수) 부산-경남 / 12.11(목) 울산-포항 / 12.12(금) 대구·경북-구미 / 12.15(월) 인천-경기서부 / 12.16(화) 경기동북부-충북 / 12.17(수) 충남-대전 / 12.18(목) 강원 지역에서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예정되어져 있다.■

◎제조대통합을 위한 통합소식지 ‘제조노동자’ 발간◎

연맹은 금속-화학연맹 통합추진의 일환으로 통합소식지인 ‘제조노동자’를 화학연맹과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연맹 홍보국에서는 통합소식지 ‘제조노동자’발간을 통해 통합관련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양연맹 산하조직들의 통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금속-화학 양연맹의 현행 홈페이지 통합작업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공동으로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양 연맹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크파병철회 국민총선거

2003.11.13(토) 오후 3시 서울세검정 광장

● 2003 금속노련 지역통신원 2차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연맹은 오는 11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전 사도그레이크호텔에서 '2003 금속노련 지역통신원 2차회의 및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통신원은 지난 2001년 2월 산하 조직간 홍보네트워크구성 및 연맹과 산하조직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출범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연맹내 소식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로서 활동을 해왔다.■

●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2004년 1월 16~21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려 ●

세계경제포럼에 맞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이 인도 뭄바이에서 2004년 1월 16~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연맹 국제국에서는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비용은 1인당 약 2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IMF-JC 연수단 오는 11월 16일 출발 ●

국제금속노련산하 일본금속노협 연수단이 연맹 정일진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오는 11월 16일 출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연수일정은 11월 17(일)~22(토)일로 1주일간 예정되어져 있다.■

● IMF-ROCC 대회 오는 11월 18일 출발 ●

연맹은 오는 11월 19(수)일 제 31회 대안금속노협대회에 연맹 정창영수석부위원장, 김무호 대구경북지역본부의장을 대표로 파견하여 참석하기로 하였다.■

11.23.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동자의 총단결로 노동탄압 분쇄하자

노동조합...조직문화 혁신을 제기한다.

- 노조일상활동의 가이드북 54~55page

합계읽기

술 조직 문화에 대한 찬반토론

모연맹에서는 상집간부들 교육시 '술로 조직하는 문화'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다. 그 결과 술로 조직하는 것에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찬반논란이 팽팽했다.

반대입장

술로 조직사업을 했을 때 오래가지 않는다. 술로 천해져 조직됐다고 믿을 뿐이지 실질 조직된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나 만남 등 보다 비효율적이다. 한편으로 일상업무 후 술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개인적 피해가 상당하다.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몸도 남아 나지 않는다. 가정파탄도 일어난다. 더욱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씹힐리면 그런 문화를 더 양산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조합원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또 회사측과도 술마시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 경우 문제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술로 인한 항응문화가 전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가져온다.



찬성입장

어쩔수 없다. 그냥은 안통하는데 술로 하면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 보통때 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술자리에서는 된다. 인간적인 유대는 어느정도 술이 들어가야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술자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술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나쁜지 된다면 일정의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입에 오르기 쉽다. 지나친 술은 문제가 되지만 일정부분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는 금속연맹 홍보국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 2003 임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정취! 산별노조 건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1호 2003년 11월 19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64-2901 • Fax 864-0457 • 천리안 flmbu@chol.com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11.23.오후 1시
대학로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제 1 부 : 13시.노동문화제
제 2 부 : 14시.전국노동자대회
제 3 부 : 가두행진및규탄대회
(대학로~탑골공원)

연맹은 11월 23일 오후1시에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될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결집하기 위해 산하 가맹노조 및 지역본부의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에서의 결의대로, 각 지역본부들도 앞장서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한 현장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균위원장은 "현시기 손배소가압류와 같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구조가 여전하며,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나 여러 노동법개악음모를 지켜볼때, 이제는 노동자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밝히며, 금속노동자들의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의 대대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노동조합...조직문화 혁신을 계기한다.

- 노조입상활동의 가이드북 133page

제안 책은 권고

1. 항상 공부하는 대표자 상을 만들자

현실운동인 노동운동은 많은 부분 경험운동이기도 하다.(중략).... 과거 투쟁방식의 노동운동은 한계에 이르지 오래다. 노동관련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사회정치적 교육을 통해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을 숙지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뜻있는 대표자, 간부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부하는 지도자, 간부상을 만들어 보자
....(중략)....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보고 듣는 만큼....시대변화를 읽고.....■

"노동조합..조직문화혁신을 계기한다." 는 금속연맹 홍보국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 안산시흥 지역본부 "임원 및 부서부장 연석회의" 개최 ◎

연맹산하 안산시흥 지역본부는 19일 오전 11시 "임원 및 부서부장 연석회의"를 통하여 2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지역본부단위에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 삼화전기, 노조에 "구조조정계획" 통보 ◎

삼화전기노동조합(위원장 이철주)은 지난 11월 11일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통보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부와 기술부를 제외한 청주-충주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651(78.8%)명을 감원할 것이며, 생산은 해외공장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통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동안 그룹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보여 온 현사장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삼화컨터그룹의 실질적권한을 가진 책임자와의 노사협상을 통해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진전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삼화전기노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 2003 임타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정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2 2003년 11월 26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64-29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ol.com

노사관계로드맵저지, 국민연금법개악저지, 비정규직차별 철폐! 금속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5만여명의 조합원들의 참여로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연맹에서는 산하 가맹노조 및 지역본부에서 200여 사업장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 되었다.

오후 1시 사전문화행사와 2시 본행사로 치러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달성, ▲정부가 소위 '노사관계로드맵'을 일방추진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 결의, ▲국민연금법 개악저지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등이 강력히 주장되었다. 또한 본행사 끝마무리에 '부패정치정경유착', '노사관계로드맵', '국민연금개악', '비정규직 차별'이 쓰인 상징물에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집회에 참석한 대오는 대학로에서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제조연대 여성간부교육 진행중..◎

11월 26(수)~28(금)일 2박3일의 일정으로 금속·화학연맹 여성간부 65명을 대상으로 제조연대 여성간부교육이 대전 사또그레이트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금번 여성간부교육은 ▲21C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여성정치활동강화와 노동운동의 방향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여성 노동관련법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여성간부의 지위향상과 책임의식을 고양하여 여성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내용을 구성되어져 있어, 향후 제조연대 내 여성간부의 연대활동과 산하 노동조합간의 협력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연맹 정치국(02-864-2901)

◎지역통신원 워크숍 개최◎

연맹 홍보국에서는 오는 11월 27(목)~28(금)일 양일간에 걸쳐 금속노련 지역통신원 '2차회의 및 워크숍'을 대전 사또그레이트 호텔에서 진행한다.

지역통신원은 지난 2001년 2월 13일에 출범하여 금속연맹 내 홍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맹과 산하조직 간 정보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금번 워크숍은 ▲2003년 지역통신원 활동 평가 ▲2004년 활동계획 공유 ▲기사 실습 및 강의로 진행되어 진다.■

◎주40시간제 대비 노조간부 특별교육 실시◎

연맹에서는 오는 12월 4(목)~5(금)일 양일간에 걸쳐 용인 한화리조트(☎031-332-1122)에서 ▲1천인 이상 사업(장) ▲현재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2004년 법시행시점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장 ▲내년 주 40시간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노조 대표자 및 간부(교섭위원)를 대상으로 "주40시간제 대비 노조간부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2만5천원이며 11월 28일 까지 9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노조당 참가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금속화학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실시◎

연맹에서는 오는 12월 10(수)일, 19(금)에 1, 2차로 나누어 서울 한겨레문화센터와 구미 LG전자 러닝센터에서 각각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은 가맹노조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 운영담당자 및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담당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편한 지역을 선택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만오천원이다.■

※ 방송된 공문에 2차 교육인정이 오기되어 있습니다. 2차인정은 19(금)일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홍보국

●● 2003 입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정취! 산별노조 건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3호 2003년 12월 3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민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64-2901 • Fax 864-0467 • E-mail: fkmw@chol.com

주 40시간제 대비 노조간부교육 실시

연맹은 화학연맹과 공동주관하여 '주40시간제 대비 노조간부교육'을 12월 4~5일 양일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현재 주40시간제를 시행중인 사업장과 2004년 시행예정인 사업장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연맹 산하 16개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번교육에서 연맹은 지난 8월 29일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단협지침을 공유하고자 한다.

참고로 교육은 ▲주40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세와 대응방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주40시간제 노동부행정지침해석(노동부 근로기준국 민길수 서기관) ▲사례를 통해 본 주40시간제(금속연맹 정문주교육국장) ▲주40시간제 대응과 단협지침의 방향(화학연맹 임준택 정책국장)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40시간·주5일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 때문에 현재 교육예상인원 180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230명의 교육참가신청이 쇄도해, 교육장의 여건상 추가 교육신청은 현재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연맹 정치국(02-864-2901)

◎한국음향 노사협의회 합의◎

한국음향노동조합(위원장 노윤철)은 지난 8월 13일 사측이 단협사항인 '적정인력배치' 등의 문제를 준수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요구, 12월 1일 8차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사측은 노조에서 적정인력배치 등을 요구하자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한 라인축소로 맞대응하며 합의내용을 번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노윤철위원장이 7일간 단식농성을 하고 조합원들이 동참하여 인력감축없이 합의에 도달했다. 현재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해 노조는 전환보직을 사측은 신규채용의 형태를 주장해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합은 이번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지와 참여가 큰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오토넷 조합원 장기대회 개최◎

현대오토넷노동조합(위원장 이승현)은 조합원의 여가활용과 조직력 극대화를 위한 조합원 장기대회를 개최한다.

12월 5~9일 예선을 거쳐 10~12일 16강전과 결승전이 치러지는 이번행사는 현대오토넷노동조합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왕성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 박태우 금속경기통신원-

●기아특수강 고공농성 조사단 파견●

연맹에서는 기아특수강 해고자 이재현, 조성옥의 고공농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김만재 사무처장, 이진우 조직강화본부장)을 12월 2일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대책위와 기아특수강노조 및 사측을 방문하여 진상조사 및 실태파악을 진행하였다. ■

●지역통신원 워크숍●

2003년 지역통신원 2차회의 및 워크숍이 지난 11월 27~28일 대전 사또그레이트 호텔에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2003년 지역통신원의 활동을 보고하고, 2004년 지역통신원의 활동계획을 연맹-지역본부 홈페이지의 활성화와 지역노보의 제작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금속 화학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실시●

연맹에서는 화학연맹과 공동주관으로 오는 12월 10(수)일, 19(금)에 1, 2차로 나누어 서울 한겨레문화센터와 구미 LG전자 러닝센터에서 각각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은 가맹노조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 운영담당자 및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담당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편한 지역을 선택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만오천원이다. ■

※ 발송된 공문에 2차 교육일정이 오기 되어 있습니다. 2차일정은 19(금)일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노동조합...조직문화 혁신을 제기한다.

- 노조일상활동의 가이드북 26~27page

가이드2

대의원, 조합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토의를 활성화시킨 사례

· YH 노동조합의 경험

1단계 - 의장단(4명)이 모여 특정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문제의 내용과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 의견을 통일한다.

2단계 - 상집위원(21명)을 소집하여 의장단의 토의내용을 소개하고 토론을 하여 다시 단계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통일한다.

3단계 - 대의원(41명)을 소집하여 몇 개(9개) 그룹으로 나눈 뒤 상집위원 중에서 선발한 그룹진행위원(9명)을 각 그룹에 한명씩 들여보내 토론을 이끌게 한다. 선발되지 않은 상집위원들은 각 그룹으로 나누어 들어가 사회나 기록을 맡는 등 보조역할을 한다. 진행방법은 상집위원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한다.

4단계 - 대의원과 상집위원 중에서 그룹진행 위원(16명)을 선발하여 전 조합원을 몇 개(16개) 소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에 1명씩 참가하여 토론을 주도하게 한다. 나머지 대의원과 상집위원들 역시 토론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하게 한다.



5단계 - 모임이 끝나면 그룹 진행위원이 함께 토의진행 상황과 조합원들의 반응, 그리고 토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과 요구내용 등에 대한 조합토의를 한다.

이상과 같은 5단계의 토의방식은 전 조합원을 차례로 그룹토의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의 그룹토의는 78년 공장이전 및 폐쇄문제 등 조합전체를 움직여야 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큰 도움을 주었다. 대의원 모임은 YH노조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중추세력이 되었다. ■

“노동조합...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 는 금속연맹 홍보국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 2003 임타투승리! 주 40시간·5일제 정취! 산별노조 건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4호 2003년 12월 11일(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ol.com

제조대통합을 위한 지역순회간담회

금속화학 통합연맹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순회간담회'가 지난 12월 8일 서울지역에서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금속노련 이병균위원장과 화학노련 박헌수 위원장이 직접 지역별 산하조직 대표자들과 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벌여, 막바지에 다다른 금속-화학 대통합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제조대통합의 시발점이 될 금속-화학연맹의 통합은 지역순회간담회 이후 2004년 1월 각 연맹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2월 통합결의임시대의원대회를 치루고 3월 통합연맹 창립대회로 마무리 되어질 계획이다. ■

연월일	시간	지역	주최
12/11일 (목)	오전	울산	노총 울산본부 담당
	오후	포항	노총 포항지부 담당
12/12일 (금)	오전	대구경북	노총 대구본부 담당
	오후	구미	노총 구미지부 담당
12/15일 (월)	오전	인천	노총 인천본부 담당
	오후	경기서부	노총 안산지부 담당
12/16일 (화)	오전	경기동북부	노총 여주이천지부 담당
	오후	충북	노총 충북본부 담당
12/17일 (수)	오전	충남	노총 충남본부 담당
	오후	대전	노총 대전본부 담당
12/18일 (목)	-	-	-
	오후	강원	노총 동해지부 담당

시작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6시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연맹 정치국(02-864-2901)

◎연맹 산재조합원 지원◎

연맹은 12월 11일부터 23일까지 '산재조합원 돕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산하조직 산재조합원 16명을 장애정도·부양가족규모·재산정도·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선정, 연맹 복지사업본부의 수익금중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1999년 이후 5회를 맞이하고 있는 '산재조합원 돕기 행사'는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는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연말을 맞이하여 산재조합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동지애를 싹트게 하고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OTIS-LG노동조합 조정신청◎

OTIS-LG노동조합(위원장 최경호)은 창원공장 E/S 사업 생산중단과 관련된 고용안정의 문제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12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OTIS-LG노동조합은 사측이 엘리베이터(E/S)생산부문을 2004년 1월 1일부터 아웃소싱하고 17명 전원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맹 이병균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최경호위원장과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

●홈페이지 운영자교육 1차 마무리●

금속·화학 양연맹이 공동주관한 홈페이지운영자 1차교육이 지난 10일 서울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실시되었다.

금속·화학 양연맹 산하조직 홈페이지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교육은 애초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은 교육생들의 참가로 교육용PC가 모자라는 등 교육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가 엿보인 자리였다.

한편, 2차교육은 19(금)일 구미LG전자 러닝센터에서 예정되어져 있고, 강사가 매일노동뉴스 권차현 팀장에서 한국노총정보화사업단(PRI) 정숙연 대리로 교체되었다.■

※ 2차 교육신청마감은 12월 17(수)일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한일전기 어린이집 개원●

신한일전기노동조합(위원장 유병유)은 사측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원자녀를 보육할수 있는 어린이집을 오는 12월 12(금)일에 개원한다.

지난 1998년 단협사항 중 하나로 요구되어진 어린이집의 문제를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올해 3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정원52명의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측이 10억의 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그 이자수익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발령

경기지역본부 김덕수조직국장(소속 동회 A/C 노동조합)이 12월 8일자로 연맹 조직국장으로 파견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조직문화 혁신을 제기한다.

- 노조일상활동의 가이드북 82-83page

활개생각하기

조합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보자

작년 여름 휴가철 모노조에서 수천만원을 들어 조합원 하계휴양소를 마련했다는 보도를 읽었다. 이를 접하고 '잘했다'는 생각보다 뭔가 아쉬운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우리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좀더 의미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모노조가 노조창립 기념품 비용을 대폭 삭감해 정책과 교육사업에 배치했다는 소식에 반가움이 앞섰다. 이 노조의 경우 2~3만원대의 창립기념품 조합원 선물비용으로 연 7억 정도가 소요됐다.

그런데 요즘 선물 등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좀 의미있게 쓰자는 분위기가 있어 올 대의원대회에서 3천원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했다. 일부에서 불만이 있던 했지만 조합원 다수가 큰 불만없이 수용했다고 노조집행부는 전하고 있다.

이런 두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수년간 우리 조합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했던 기사가 떠올랐다.

노조재정운영 '비효율'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상급단체와 단위노조 재정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총 노동조합비 중 총연합단체가 쓰는 예산은 2%선에 그치며 대부분의 조합비가 단위노조에서 사용되고 있다. 총연합단체와 연맹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해 재정자원이 지나치게 적게 배분되고 있다. 단위노조가 임단협을 중심의 노동조건 개선활동에 집중한다면 더 큰 물의 정치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집중해야할 총연합단체들이 영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는 금속연맹 용보국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2003 입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쟁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5호 2003년 12월 17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lentur@chol.com

제조대통합을 위한 지역순회간담회 막바지

제조대통합을 위한 지역순회간담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2월 18일 강원지역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될 지역순회간담회는 금속연맹기준 16일 현재까지 14개 지역 240여 산하조직 대표자 및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직접 순회하고 있는 이병균 위원장은 “금속-화학의 통합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라며, “막바지에 다른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다가서는 문제들을 이해와 슬기를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순회간담회에서 개진되었던 내용들을 2004년 1월 중 예정되었던 각 연맹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시켜 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일	일	시	장	주
12/17일 (수)	오전	충남	노총 충남본부	강당
	오후	대전	노총 대전본부	강당
12/18일 (목)	-	-	-	-
	오후	강원	노총 동해지부	강당

시작시간은 오전은 10시, 오후는 15시 예정임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연맹 정치국장 김정완(02-864-2901)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신청 마감◎

금속-화학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홈페이지 운영자 2차 교육신청이 조기마감 되었다.

19일 LG전자 구미 러닝센터에서 진행예정인 이번교육은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여건상 금속-화학 양 연맹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였으나,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아진 정보교육의 열기를 반영하듯 교육신청이 넘쳐 교육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노동조합..조직문화 혁신을 제기한다.

- 노조일상활동의 가이드북 63page

열매맺기 대의원 대표제 논란

대의원조직의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대의원대표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대의원이 현장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대표를 통해서 취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대의원 회의가 근무시간외에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조직, 사조직과 비슷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의원은 집행부 견제 혹은 반대세력이라 인식하면서 대의원끼리 똘똘 뭉쳐 집행부에 부담이 되고 심지어 반조직 행위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악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의원대표를 통해 일상적으로 대화하면서 대의원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하는 것이 조직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

“노동조합..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는 금속연맹 홍보국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 2003 입단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정취! 산별노조 건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6호 2003년 12월 24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민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6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ol.com

통합추진위원회 세미나 개최

금속-화학연맹의 통합추진 점검 및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금속연맹 통합추진위원회 세미나가 2004년 1월 8(목)~ 9(금) 양일간에 걸쳐 대전 사도그레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연맹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의 노조통합사례 보고 ▲통합추진 경과 및 진로 보고 ▲명칭, 사무소, 상징물, 통합대회, 지역본부, 재정, 업종분과, 사무처 직제, 임원, 대의원, 청사진 등 14가지 실무위 차원 정리사항을 중심으로 한 통합추진 기본안에 대한 토론을 할 계획이다.

연맹은 통합추진위원회 세미나를 통해 금속-화학 통합이행 결의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함으로써 제조대통합완수를 위한 대중적인 결의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제조연대 2004년 입단투 설문조사 실시◎

연맹은 2004년 입단투 투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입단투 전략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서를 12월 24일 산하조직에 배포하고 작성 협조를 요청한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서는 작성 후 실태조사서 마지막 면 응답지만을 연맹으로 팩스(02-864-0457)송부하면 된다. 참고로, 2004년 1월 17일 까지 실태조사서를 수거하여, 2월 7일까지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문의 : 연맹기획국 한동균부장)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연맹 정치국장 김정환(02-864-2901)

◎OTIS-LG엘리베이터노동조합 전원고용승계 노사합의◎

OTIS-LG엘리베이터노동조합(위원장 최경호)은 사측의 창원공장 E/S(에스컬레이터)생산부문 아웃소싱 과정에서 발표한 인력구조조정에 맞서, 23일 최종교섭에서 전원 고용보장을 사측으로부터 이끌어 냈다.

노조는 전원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사측과 지원자에 한하여 희망퇴직을 허용하고 통상임금 4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

◎연맹 의무금 2004년부터 1000원으로 인상◎

연맹은 지난 5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대로 2004년 1월 1일부터 연맹의무금을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연맹 홈페이지 개편◎

연맹은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어온 현행 홈페이지를 개편해 2004년 1월 2일부터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개편홈페이지의 특징으로는 지역본부별 홈페이지가 마련되며, 연맹-지역본부-산하조직 간의 데이터베이스 일원화를 통해 홈페이지 상호간 유기적인 결합을 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참고로 연맹은 그간 매일노동뉴스의 도움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으나, 개편홈페이지부터는 한국노총정보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노동조합 조직문화혁신을 제기한다." 는 지면사정상 쉽다.

●● 2003 임타투승리! 주40시간·5일제 정취! 산별노조 건설! ●●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7호 2004년 1월 7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ol.com

8~9일 대전에서 금속노련 통합추진위원회 세미나 개최

금속-화학연맹의 통합추진 점검 및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금속연맹 통합추진위원회 세미나가 2004년 1월 8(목)~ 9(금) 양일간에 걸쳐 대전 사도그레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속-화학연맹의 통합을 시발로 한 제조대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금속노련 통합추진위원회 세미나는, 주로 화학노련과의 통합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대의원배정의 문제 ▲임원선출의 문제 등에 관한 금속노련의 입장을 정리한 안을 마련하여 향후 통합과정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금속화학 “2004 노동운동을 말하자” 좌담회 개최●

연맹은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지난 1월 6일 오후 2시에 화학노련회의실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의 진행으로 “2004 노동운동을 말하자”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2004년 정세전망 속에서 노동운동의 대응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 인하대 윤진호 경제학과 교수, 박승흠 매일노동뉴스 발행인(비정규직센터 이사장)의 토론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이 사회 및 진행을 맡아, 양대노총과 학계 등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 방향이 논의되었다.

향후 토론내용을 녹취문 형태로 풀어 연맹 홈페이지 및 관련 소식지에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선진 복지사회 건설! 2004 총선 승리!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www.sdpk.or.kr)

문의 : 연맹 정치국장 김정완(02-864-2901)

●동일제강 노동조합 파업결의●

동일제강노동조합(위원장 이종근)은 회사가 대협철강으로 M&A 됨에 따라 고용보장 등의 핵심쟁점 관철을 위하여, 지난 12월 18일 조합원 88.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인수자인 대협철강을 대상으로 ▲M&A에 따른 고용보장 ▲지난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갱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월 26일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맹홈페이지개편●

연맹은 2004년 1월 2일자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지난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편홈페이지는 연맹-지역본부-단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증진에 그 특징이 있으며, 더불어 단사-지역본부의 신속한 정보로 연맹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접할수 있다.■

●제조연대 2004년 입단투 전략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지난 2003년 12월 23일 우편으로 발송되어진 '제조연대 2004년 입단투 전략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오는 1월 16(금)일 마감된다. 연맹 기획국에서는 '연말연시의 바쁜 일정 속에서 진행되어진 설문이라 그런지 회수율이 낮다'며, 2004년 입단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산하조직은 꼭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연맹에 팩스(02-864-0457)로 송부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연맹 홈페이지(<http://www.metall.or.kr>) 내의 연맹알림방에서도 실태조사서와 답안지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실태조사서를 제출한 노동조합명은 다음과 같다.■

지역	노동조합명	지역	노동조합명	지역	노동조합명
강원	쌍용동해상기	대전	로움코리아	인천	영풍산업
경기	한국제인안성지부	부산	신동방	인천	태화
경기	도루코 용인지부	부산	태양금속	광주전남	포스텍 광양지부
경기	큐엔텍 부천지부	부산	부산링구	광주전남	부국산업
경기	현대오토넷	부산	동희정공	전북	K.H.E
경기	필코전자	부산	성광랜드	충남	경신전선
경남	한국동양유전	부산	유니온스틸	충남	한영철강
경남	삼한	서울	삼흥사	충북	국제
경남	덴소풍성전자	서울	대우일렉트로닉스	충북	에넥스
경남	고려상사	안산	대덕전자	충북	동성금속
경남	세신	안산	성안기계	충북	한국아금
경남	두원중공업	안산	아메리칸스탠다드	포항	유일포항지부
구미	일성기계	울산	금강공업	포항	동방금속
구미	두산전자사업부	울산	영신정공		
대구경북	세양테크	인천	경신공업인천지부		
대구경북	대한소결	인천	한국사프		
대구경북	평화발레오				

●2003년 입단협 타결 현황 조사●

연맹은 산하 가맹노조의 '2003년도 입단협 타결현황'을 오는 1월 9일 까지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이미 입단협 결과를 제출한 총 250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실시되어 진다.

참고로, 타결현황은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어진 공문(금속노련 조사통계 제217호)에 해당사항을 적시하여 연맹 팩스(02-864-0457)로 반송하면 되며, 입단협결과 제출 여부는 공문(위와 상동)에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삼화전기 노동조합 노사협의 진통●

지난해 10월 사장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삼화전기노동조합(위원장 이철주)은 이후 노사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측은 651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1차안에 이어, 청주 30% 충주 50%의 설비이전을 전제로 하는 2차안을 제시하였다. 노조는 이에 대해 2차안 중 설비이전을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분배하여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2차안이 최후의 요구안이기에 변할 수 없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1차안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그간 '삼화전기의 노사관계가 30년간 무분규 사업장이었으며,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시 노동조합이 술선수범하여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에 전폭적인 노력을 경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사측이 강행하는 것은 2002년 4월 1일 부임한 사장의 '무노조전략'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통합추진위원 세미나

일시 : 2004년 1월 8~9일
장소 : 대전 사또그레이스호텔
참가대상 : 연맹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8호 2004년 1월 14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cl.com

금속통합추진위 제조대통합결의

금속-화학노련 통합을 위한 금속노련 통합추진위원회 세미나가 지난 8~9일 양일간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합추진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통합수반제정리사항을 개별주제별로 심의하여 연맹 통합추진위원회안으로 확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명칭 :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소 : 통합직후 입주목표로 제3의 장소물색 ▲상징물(로고와 마크) : 조합원 공모 ▲통합대회 : 3월초순경 개최 예정 ▲지역본부개편안 : 경기지역 편제 재정리와 실무안 탄력적으로 조정 ▲재정 및 의무금 : 의무금 통합징수 후 지역본부 교부금 지급, 의무금 수준은 결정보류 ▲업종분과 : 총13개 ▲사무처 직제 : 5실-국-부체제 ▲초대임원 : 단일체제, 출마방식 : 위원장-사무처장 동반출마(런닝메이트-임기3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대의원 : 조합원수 200명당 1명 배정(총수 900명선)이다.

참고로 화학노련의 경우는 통합연맹의 명칭을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연맹'으로 결정하고 쟁점사항인 대의원과 임원배정방식에 관해서는 우리연맹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다.

연맹은 통합추진위원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화학노련 지도부와 의견조율을 할 예정이고,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해서는 화학노련통합추진위원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 등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맹, 사민당 강화에 총력

연맹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사회민주당(대표 장기표)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LG전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춘), 대우일렉트로닉스노동조합(위원장 이병균), 휴스틸노동조합(위원장 박창욱), 성신노동조합(위원장 유진화), 세진전자노동조합(위원장 문광주), 유니온스틸노동조합(위원장 주해식) 등 산하조합원들의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가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13일 경남의 두원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정진용)에서는 임시총회를 통해 전조합원 242명이 진성당원으로 가입하고 1년치 당비 7,260,000원을 선납하여 노련 산하조합들이 단체당원가입으로 이어지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본부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1차 목표로 이달말까지 500여명의 진성당원 확보를 결의했다.

연맹은 한국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7대 총선지원을 위해 연맹상간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담당자를 선정하여 오는 1월 말까지 진성당원을 연맹 전체조합원의 10%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주력 할 것이며, 이후 연맹-지역본부-단조의 결의를 모아 노련산하의 전략조직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2004년 1월 현재 1,000여명의 산하조합원들이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

◎2003년 임단투 현황◎

200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연맹으로 보고된 268개 산하노조의 임단투 집계현황에 따르면 기본급대비 11.88%의 요구를 하였고, 8.14%의 임금인상타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협 및 기타요구사항으로는 주 40시간(내지 주 42시간) 노동, 고용안정, 복리후생, 성과급지급,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분석결과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지난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이 개악된 이후에 단위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노동제 도입이 급증하였고, 일부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쟁취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연맹 산하노동조합 중 법정 노동시간(주44시간) 미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수는 81개로 집계되었다.■

◎지역본부 홈페이지 본격 운영◎

연맹은 지난 1월 2일 연맹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으로 12(월)일 연맹 산하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공식적으로 개설하였다.

현재 16개 지역본부 중 서울지역본부와 강원지역본부를 제외한 14개 지역본부의 조직현황 등의 기초자료가 게재되었고, 인천지역본부를 비롯한 8개 지역본부에서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지역본부 홈페이지의 경우 연맹소식 및 산하노조의 소식이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금속노련산하의 홈페이지 간 네트워크를 실현할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연맹 산하조합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다.(오른쪽 표는 지역본부 홈페이지의 주소)■

선진 복지사회 건설! 2004 총선 승리!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www.sdpk.or.kr)

문의 : 연맹 정치국장 김정완(02-864-2901)

◎인도 뭄바이에서 '대안적 세계화' 난장에서 줄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대항해 조직된 '세계사회포럼'이 4회째로, 인도 뭄바이에서 오는 16~21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포럼은 이례적으로 한국참가단이 300여명이나 참여하며, 전세계적으로는 5만명의 참가신청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주요의제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 ▲국제금융기구 민주화 등이며 특히 올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는 '9·11 테러이후 지구적 관심사가 된 반전문제와 미국 제국주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연맹에서는 세계사회포럼의 정신에 동감하며 한동균 국제부장이 참석한다.

지역본부 홈페이지 주소

서울지역본부	http://seoulmetallor.kr
경기지역본부	http://kgmetallor.kr
인천지역본부	http://icmetallor.kr
안산 시흥지역본부	http://asmetallor.kr
대전지역본부	http://djmetallor.kr
충남지역본부	http://cnmetallor.kr
충북지역본부	http://cbmetallor.kr
부산지역본부	http://busanmetallor.kr
울산지역본부	http://ulsanmetallor.kr
경남지역본부	http://knmetallor.kr
대구 경북지역본부	http://tkmetallor.kr
구미지역본부	http://kumimetallor.kr
포항지역본부	http://pohangmetallor.kr
경주 전남지역본부	http://kjmetallor.kr
전북지역본부	http://jbmetallor.kr
강원지역본부	http://kwmetallor.kr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일시 : 2004년 1월 15일

장소 : 용산구민회관

문의 : 연맹 조직강화본부 (tel : 864-2901)

●● 2004 시민당강화!! 입단투승리!!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정취!!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09호 2004년 1월 28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lmbu@chdl.com

한국사회민주당 강화로 노동자가 국회로 간다!!

2004년 4월 15일에 예정되어진 제17대 총선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사회민주당 강화를 통한 원내진출을 지난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였다.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은 ▲각 산별 조합원 10%이상 당원 가입(2월 15일까지), ▲특별정치기금 조합원 1인당 3천원 납부[납부계좌 - 외환은행(예금주:금속노조) : 111-13-03324-1],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는 1인 이상 한국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결의, ▲총선지원기획단을 구성(각 산별은 1인 이상 TF팀으로 파견) 위 4가지이다.

연맹은 '금속노련정치제10호' 공문을 통해 결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산하 각 조직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특별정치기금 납부를 결의 할 것 ▲10% 이상 당원 가입하여 연맹 정치국으로 송부 할 것을 시달하였다. 또한, 세부시행계획(금속노련정치제14호 참조)으로 조직과 교육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병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시대적 대세이며, 올해 기필코 한국사회민주당을 통해 노동자의 원내진출을 이루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 며 총선지원체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www.sdpk.or.kr)

문의 : 연맹 정치국장 김정원(02-864-2901)

금속노련 한국사회민주당 당원가입현황

서울지역	38	총 당원 : 1010명
경기지역	225	
인천지역	84	
대전지역	4	
충남지역	6	
충북지역	35	
부산지역	64	
울산지역	62	
경남지역	372	
대구지역	19	
경북지역	77	
광주지역	6	
전남지역	12	
전북지역	1	
강원지역	3	
기 타	2	

◎ 연맹, 산하노조 정보화에 박차◎

연맹은 2004년 들어 연맹 산하 지역본부의 홈페이지를 개설함과 아울러, 각 본부 별 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오는 2월 2일까지 연맹으로 통보하여 줄 것(금속노련홍보제4호 참조)을 시달하는 한편, 각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의 정보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금속노련정보화실태조사' (금속노련홍보제12호 참조)를 오는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

향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자우편 사용 및 홈페이지 활용을 적극 유도하여, 연맹-지역본부-단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 2004 시민당강화!! 제조대통합!! 입단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0호 2004년 2월 4일(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ol.com

제 135 차 중앙위원회 및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2004년 2월 10일(화) 오후 2시 우리노련 회의실에서 2004년 임무 정책 수립을 주요안건으로 “제 135 차 중앙위원회 및 제 5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금번 중앙위원회 주요안건으로는 ▲주요 업무 보고 ▲2004년 임무 정책 수립의 건 ▲4.15 총선 대책 활동의 건 ▲금속-화학 통합 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수립의 건 ▲예산항목 전용 승인 및 예산 편성의 건 등이다.

참가 대의원 명단은 연맹 홈페이지(<http://www.metall.or.kr>)에 있으며,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금속노련총무 제13호’ 공문에 첨부된 위임장을 2월 7일(토) 까지 연맹 총무국으로 팩스(02-864-0457) 송신 하면 된다.■

● 무료 안전진단 사업장 신청 받아 ●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2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한 무료안전진단이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연맹 산업안전국은 산하노조 사업장에서,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3일(금)까지 산하조직의 신청을 받아 ‘노총 산업안전본부’의 협력 하에 일정을 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민주당 진성당원을 모집합니다.

(www.sdpk.or.kr)

문의 : 연맹 정치국장 김정환(02-864-2901)

◎ 금속노동자, 시민당 강화에 나서◎

오는 4.15총선에서 한국사회민주당의 원내진출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연맹 및 산하 지역본부, 단위조합의 움직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부산지역본부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총선에서 시민당의 승리를 위해 총 매진’ 할 것을 밝혔으며, 타지역본부와 단위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의 진성당원 가입이 줄을 잇는 등 그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연맹은 오는 10일(화)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금속노동자의 결의와 실천의지를 모아낼 예정이다.

◎ 금속·화학, 법률학교 개설 ◎

연맹은 화학노련과 더불어, 2004년 2월 11일(수)~13일(금) 2박3일의 일정으로, 노동법에 대한 접근과 활용원칙이해를 높이고 노동상담 등의 실무력 향상을 목적으로 법률학교를 개설한다. 오는 7일(금)까지 50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노동법 이해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신청자들이 넘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교육참가비는 1인당 3만 5천 원이다.■

연맹 의무금이 2003년 800원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1,00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04 사민당강화!! 제조대통합!! 임타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1호 2004년 2월 11일 (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dl.com

임금인상요구를 12% 15%확정

2004년 2월 10일(화) 오후 2시에 우리노련 회의실에서 “제 134 차 중앙위원회 및 제 5 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이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04년도 임금인상요구를 21.7%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제조연대 ‘2004임금실태조사서’에서 적정임금인상요구액으로 제시된 110,045원에 가장 근접한 표준생계비 92%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대비 12.0%(110,506원)의 임금인상 요구와, 업

종별기업별 실정반영 차원에서 12.0%를 기준으로 $\pm 1.5\%$ 의 범위율을 결정하였다.

또한, 단협갱신시에 필수요구협약사항으로 ▶주 40시간제 ▶고용안정협약을, 우선요구협약사항으로 ▶비정규직 ▶산업안전 ▶경영참가협약을 결의했다.

더불어, 업종별 주요단협요구와 교섭시기 집중을 핵심으로 2004년 임단투 제조연대의 전략과 전술을 확정하였다.

참고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맹 홈페이지(<http://www.metall.or.kr>)의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만재 사무처장 4.15총선 출마!

경기이천 한국사회민주당 후보로 추대..

연맹은 이날 회의를 통해 4.15총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1.15일 한국노총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합원 10%이상 당원가입 ▶특별정치기금 조합원 1인당 3천원납부 ▶회원조합 및 시도 지역본부 1인 이상 노총 출신 후보 출마 결의 등을 재결의하고, 이와 별도로 사민당 후보로 가맹조직 조합원이 출마한 경우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금속노동자의 사민당후보 출마에 대한 인적·물적자원을 총력지원하기 위해, 연맹과 가맹조직의 정치자금 모금기준을 마련하여 총 45,000,000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맹 임직원의 경우 직급체제에 따라 1,620,000원 모금하고, 가맹조직은 조합원수에 따라 44,750,000원을 모금(아래표 참조)하기로 결의하였다.

조합원수	노조수	모금액
100명 미만	227개	11,350,000원
100~250명	138개	13,800,000원
251~500명	46개	9,200,000원
501~1000명	17개	5,100,000원
1001~3000명	7개	2,800,000원
3001~5000명	3개	1,500,000원
5001명 이상	1개	1,000,000원

또한, 김만재 사무처장이 지난 9일 노총 이천·여주지부(지부장 김영철)의 긴급노조대표자회의를 통하여 한국사회민주당 이천지역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이날 회의를 통해 금속노련 후보로 재추대하고, 4.15총선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2면 첨부)하였다. 향후 연맹은 금속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산하조직에 전달할 방침이다.■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정치의 해, 2004년 총선을 맞이하면서 비참한 심경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개혁을 다투어 부르짖는 보수정당과 부패한 정치권은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정쟁만을 일삼으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

노사불이, 상생의 노사관계를 외치며 2만 달러 시대를 향해 허리띠 조여 매자던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은폐하고 보수정치권에 헌납하는 정경유착을 통해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희망을 잃은 채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위기의 공포시대로 향하고 있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세상을 움직이고 사회를 지탱해온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흠치고 속이는 낡고 부패한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가진 자를 위한 가진 자와 결탁한 더러운 정치를 통해 배불리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보수정치권에 준엄한 심판을 시작하자!

이에 우리는 4.15총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따라서 금속노동자는 노동자 서민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주체로 자리잡는 새날 창조를 위하여 한국노총과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선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우리 금속노동자는 강력한 당원배가운동을 통해 조합원과 노동가족의 사회민주당 당원화에 앞장선다.

1. 우리 금속노동자는 4.15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의 원내진출과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총력 매진하며 노동자 진보세력의 당선운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거둬들이는 낡은 정치의 장본인 보수정당에 심판을 가하기 위하여 4월 총선에서 전 조직역량을 동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2004. 2. 1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 134 차 중앙위원회 및 제 5 차 중앙집행위원회

●● 2004 시민당강화!! 제조대통합!! 입단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2호 2004년 2월 18일 (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E-mail: fkmtr@chol.com

시민당 당원가입 이어져!!

“ 한국노총과 함께 ! 시민당과 함께 ! 4.15 총선승리를 ! ”

연맹차원의 활발한 한국사회민주당 강화활동과 더불어, 그린산업노동조합(위원장 안진수)·일성기계노동조합(위원장 손진명) 등 산하노조의 진성당원 가입과 특별당비의 납부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지난 ‘제 134 차 중앙위원회 및 제 4 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속노련 한국사회민주당 후보로 결의한 김만재(금속노련 사무처장) 여주이천지역 출마예상자는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참고로 연락처는 ☎031-630-3980(~1), FAX 031-636-3994 이다.

노총은 오는 2월 22(일)일 늦은 2시에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시민당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회원조합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모아내어 총선승리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이에 연맹은 이날 결의대회에 산하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원확보와 특별당비납부독려를 할 계획이다.■

● 일본금속노협(IMF-JC)

‘일본자본 투자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연맹은 일본금속노협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사업장에 대한 노사분쟁 예방의 일환으로 ‘일본자본 투자사업장 실태조사’를 오는 2월 27(금)일 까지 실시한다. 일본 투자사업장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2004 입단투 승리를 위한

단체교섭위원 교육 실시◎

연맹은 산하노조의 입단투 준비지원을 위한 교섭위원 교육을 총 2차에 걸쳐 한국노동교육원에서 화학노련과 함께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차 : 2월 24(화)~26(목)일
▶2차 : 3월 3(수)~5(금)로 진행되어, ‘노동정세와 임금인상요구안 작성법’ 등 총 8강의 강의로 단위노조 교섭위원 각 90명의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근로기준법의 개악에 따라, 주40시간제 시행과 더불어, 단협개정과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맞물린 상황속에서 산하노조 교섭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 삼화전기 노조, 노사협상 승리 ◎

지난 4개월 동안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노사대립을 지속해 오던 삼화전기의 노사대립이 전격 대타협되었다.

노동조합(위원장 이철주)과 사측은 향후 5년간 전원 고용유지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를 통해 경영정상화와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조는 임금동결과 각종 행사를 유보 및 매일 10분 더 일하기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2004 시민당강화!! 제조대통합!! 임단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3호 2004년 2월 25일 (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E-mail: fkimtu@chol.com

녹색사민당 공식출범 한국사회민주당 녹색평화당 통합전당대회개최!

진성당원 2만명 돌파! 4.15 총선승리 결의다져!!

지난 2월 22일(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녹색사민당 총선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사회민주당과 녹색평화당의 통합전당대회를 겸한 이번 총선 승리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이천 여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치러졌다.

결의대회에서, 사민당 장기표 사민당 대표가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 연맹 이병균위원장 등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진성당원 2만명이 넘는 것을 자축하고, 녹색사민당 후보들의 결의발언이 이어진 후, 새정치를 갈망하는 희망을 배를 띄우는 순으로 결의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참고로, 우리 연맹에서는 녹색사민당 후보로 김만재 현 사무처장이 여주이천지역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날 결의발언을 통해 당원들의 연호를 받았다■

● LG전자노동조합 조합원 천오백명 사민당 입당●

LG전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춘) 조합원 천오백여명이 지난 2월 23일 녹색사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특별정치자금 이천만원(1차분)을 납부하였다. 녹색사민당 진성당원이 이만 명을 넘어서 가운데, 금속노동자의 녹색사민당 당원수도 사천명을 초과하였다.

이병균 위원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녹색사민당의 원내진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금속후보로 현 김만재 사무처장이 여주이천지역에 출마하였으니, 연맹의 힘을 모을 시기"라며, 산하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연맹 정치국에서는 금속후보인 김만재 사무처장 뿐 아니라 향후 출마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정치자금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하조합의 조속한 특별당비납부를 요청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맹 홈페이지(<http://www.metal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조연대 2004 임단투 지침 배부◎

한국노총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고무, 금속, 출판, 화학노련-이하 제조연대)는 지난 몇 달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2004 임단투 지침'(주 40시간 쟁취 원년의 해-이하 임투 지침)을 발간하였다.

이번 임투지침은 정세 경제 산업을 중심으로 2004년을 전망하고, 제조연대 차원의 주40시간제 단협 지침과 2004 제조연대 임단투의 목표 및 전략과 전술 등을 담고 있으며, 후반에 모범 단체협약(안)을 실고 있다. 연맹은 지난 제 134차 중앙위원회(2004.2.10)에서 임투지침을 확정 한 바 있다.

참고로, 2월 24(화)일 각 지역본부로 발송되었으며, 단위조합(지부)은 해당 지역본부에서 수령하면 된다. 더불어, 연맹홈페이지(<http://www.Metall.or.kr>) 자료실에 원고자 첨부되어져 있다.■

노동문와 한국노총	
지도자 양성교육 산재보상학교	
일시 3월10(수)-12(금)	3월17(수)-19(금)
장소 한국노총중앙교육원	한국노총중앙교육원
문의 연맹 여성국	연맹 산안국

●● 2004 시민당강화!! 재조대통합!! 입단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4호 2004년 3월 4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kmktu@chol.com

녹색사민당 김만재후보 여주·이천 선거사무실개소

지난 2월 27일(금) 오후 4시에 여주이천지역 녹색사민당후보로 출마하는 김만재(금속노련 사무처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김만재 후보 선거사무실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연맹 문광주 부위원장과 노총 유계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내외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4.15총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고, 김만재 후보의 당선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지를 모아냈다.

김만재후보는 선거사무실 개소식 인사를 통해 “금속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만큼, 오랜 숙원이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녹색사민당은 지난 3월 2일 제2차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김만재 여주이천지역 후보자를 당 청년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연맹 정치국에서는 연맹 차원이 아닌 노총 전체 차원에서 경기도 여주이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조합원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김만재 후보 선거사무실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01-3 명동타운 2층]이며, 전화 031-636-3980~81 / Fax :031-636-3994 이다. 더불어, 김만재 후보에 대한 후원은 농협중앙회 [144-12-293811 예금주 김만재]의 계좌로 하면 된다.■

	노동문와	한국노총
일시	지도자 양성교육 3월10(수)-12(금)	산재보상학교 3월17(수)-19(금)
장소	한국노총중앙교육원	한국노총중앙교육원
문의	연맹 여성국	연맹 산안국

◎ 노총 2004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노총은 지난 2월 25~26일 이틀에 걸쳐 2004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6일 본회의를 통해 2004년 사업계획과 규약개정 등을 논의·확정하였다.

개정되어진 규약의 중요사항을 보면, ▶제 4 조 [목적과 사업]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이 추가되고, 제 23 조 [대의원 배정기준]에서 30%의 여성할당제가 2006년 2월 노총 정기대의원대회부터 도입되며, ▶제 5 조 [가맹단위]를 현행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확대하여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직업별 노동조합과 지역일반 노동조합’을 일정기간 동안 가맹단위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의원대회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 24 조 [분과위원회] 규정을 조정하여 분과위원회를 본회의 개최이전에 안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현행 12개에서 7개의 분과로 축소하였으며, ▶정치활동에 관한 결의기구를 기존 중앙위원회(제 30 조 [기능] 1-3 삭제)에서 대의원대회(제 25 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5 추가 신설)로 변경하였다.

이외에 노동자 통일기금 조성과 17대 총선과 관련 ▶조합원 10% 시민당 가입 ▶정치기금 모금 등 지난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4.15 총선과 입단투승리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 연맹, 녹색사민당 지원 특별정치자금 납부내역 공개◎

연맹은 산하가맹조직들의 4.15총선 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및 금속노련 특별정치자금의 모금내역(2004.3.3일 현재) 다음과 같다.■

금속노련 특별정치자금 납부내역 (금속후보지지 모금 / 조직규모별[금속노련정치28호])

사업장명(노동조합)	납 부 금 액
동희 A.C.S	100,000
코리아휠	100,000
세방전지	200,000
롯데알마늄	300,000
세광알마늄	100,000
이화다이하운드	200,000
경신전선	50,000
평화정공	100,000
평화발레오	200,000
미주금속	50,000
호 성 기 계	100,000
대 원 전 선	100,000
삼 목 강 업	50,000
쌍용동해산기	50,000
동양강철	100,000
동국제강	300,000
동해전장	100,000
팬택&큐리텔	200,000
일진경금속	50,000
풍산	400,000
태양금속	200,000
동양사	80,000
동양정밀	50,000
한국특수공구	50,000
대한주택종합관리	50,000
신화실업	50,000
성신	100,000
서구산업	100,000
대한소결금속	100,000
엔 젤 약 기	50,000
F.A.G베어링	300,000
한 국 야 금	100,000
그 린 산 업	100,000
대 성 쉘 틱	50,000
삼성정밀공업	50,000
케이피이아이	50,000
협진정밀	50,000
하이닉스(이천)	500,000
한국시그네틱스	50,000
대우일렉트로닉스	400,000
현대에너지	200,000
세진전자	200,000
일진전기	50,000
한국가구	50,000
하나모들	50,000
범양냉방	100,000
세일공업	50,000
대기오토모티브	100,000
한국중천	100,000

한국노총 특별정치자금 납부내역 (임차대의원대화결의 / 조합원1인당 3000원모금)

사업장명(노동조합)	금 액
현대오토넷	1,692,000
LG 실트론	1,000,000
영 신 정 공	900,000
성신	636,000
세아특수강	375,000
서 구 산 업	450,000
남선홀웨어	45,000
세광알마늄	300,000
성우오토모티브청주	285,000
엔젤악기	180,000
평화정공	1,584,000
선일다이하스	330,000
삼목강업	210,000
하이닉스(이천)	9,000,000
동양강철	1,260,000
대우일렉트로닉스	6,000,000
대한전선	330,000
연합철강	2,001,000
일진경금속	180,000
한국특수공구	150,000
한국중천	375,000
T. R. W	453,000
아메리칸스탠다드	210,000
대성셀틱	159,000
대원전선	200,000
엠이엠씨코리아	200,000
한일튜브	200,000
대한소결금속	330,000
삼화전자	1,140,000
두레에어메탈	630,000
평화발레오	924,000
그린산업	600,000
협진정밀	291,000
LG전자	20,000,000
쌍용동해산기	237,000
LG필립스LCD	10,000,000
동 국 제 강	33,000
세 진 전 자	600,000
코 리 아 휠	630,000
한국코트렐	100,000
동 양 정 밀	291,000
대한주택종합관리	250,000

특별정치자금 모금안내

한국노총 특별정치자금 111-13-03324-1
(외환은행 / 금속노조)
금속노련 특별정치자금 376-10-002561
(제일은행 / 금속노조)

●● 2004 시민당강화!! 제20대총합!! 입당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5호 2004년 3월 11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kimu@chol.com

4.15총선 35일 남아 녹색사민당 적극 지원 할때

노동자의 원내진출로 정치세력화의 교두보가 될 4.15총선이 35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병균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건설한 녹색사민당의 원내진출은 꼭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며, “이제 35일여 남은 총선에서 조합원들의 당원가입과, 더불어 노총과 연맹에 특별당비납부를 적극 독려하여, 노총과 금속의 온힘을 모아낼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연맹은 이천여 주지역 녹색사민당 후보로 출마 할 김만재 금속후보(현 사무처장)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총결집하여 지원” 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연맹 정치국은 지난 한국노총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합원 1인당 3,000원의 특별정치자금 납부현황(3.10일 현재 : 78,296,000원)과 김만재 금속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맹특별정치자금 납부현황(3.10일 현재 : 9,580,000원)을 첨부된 뒷면과 같이 공개하고, 금속조합원의 녹색사민당 당원가입이 3월 10일 현재 6,000여명이라 밝혔다. 이병균 위원장은 산하조직조합원들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정치자금의 납부와 당원가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김만재 후보 선거사무실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01-3 명동타운 2층]이며, 전화 031-636-3980~81 / Fax : 031-636-3994 이다.■

한국노총 산재보상학교

일시: 3월 17(수)~19(금) / 장소: 한국노총중앙교육원
문의: 김용봉 노사대협본부장 ☎(02)864-2901

◎ 기아특수강 노조,

M&A에 따른 위로금 지급 투쟁 ◎

기아특수강노동조합(위원장 하현준)은 지난 2003년 11월 10일 M&A에 따른 위로금 지급 요구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97년 기아그룹의 부도이후, 회사를 살려 보겠다는 일념으로 임금동결 및 상여금반납, 단협의 복지성 부분까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반납하였다”고 밝히며, “세아자본에 의한 M&A로 인해 현재 확보된 수익을 분배하지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라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사측과의 두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노조는 준법투쟁을 결의하고, 차츰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 지난 3월 8일 새벽 세아본사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항의서한문을 전달하였다.■

◎ 팬택&큐리텔 노조,

박덕규위원장 평등상 수상 ◎

지난 3월 8일 “38세계여서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팬택&큐리텔 노동조합 박덕규위원장이, 2004년 임금교섭시 남녀차별의 근본인 임금차별을 동일직위 동일임금을 쟁취하는 등 남녀평등을 실현한 공로로 평등상을 수상하였다.■

◎ 로케트전기, 진상조사단파견 ◎

로케트전기의 최근 생산직 여성노동자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불법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연맹은 최용길 지도위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추후 노조(위원장 남규현)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속노련 특별정치자금 납부내역(2004.3.10.현재)
(금속후보지지 모금 / 조직규모별[금속노련정치28호])

사 업 장 명	납 부 금 액	사 업 장 명	납 부 금 액
동회 A.C.S	100,000	대우일렉트로닉스	400,000
코 리 아 휠	100,000	세 진 전 자	200,000
세 방 전 지	200,000	일 진 전 기	50,000
롯데알미늄	300,000	한 국 가 구	50,000
세광알미늄	100,000	풍 산	400,000
이화다이아몬드	200,000	태 양 금 속	200,000
경 신 전 선	50,000	동 양 사	80,000
평 화 정 공	100,000	동 양 정 밀	50,000
평화발레오	200,000	한국특수공구	50,000
미 주 금 속	50,000	대한주택종합관리	50,000
효 성 기 계	100,000	대 동 금 속	50,000
대 원 전 선	100,000	넥상스코리아	100,000
삼 목 강 업	50,000	서진클러치	100,000
쌍용동해산기	50,000	다 스	300,000
동 양 강 철	100,000	대 덕 전 자	200,000
동 국 제 강	300,000	삼 성 공 조	200,000
동 해 전 장	100,000	대우전자서비스	200,000
팬택&큐리텔	200,000	삼 성 제 침	200,000
일진경금속	50,000	하 나 모 들	50,000
신 화 실 업	50,000	범 양 냉 방	100,000
성 신	100,000	세 일 공 업	50,000
서 구 산 업	100,000	대기오토모티브	100,000
대한소결금속	100,000	한 국 중 천	100,000
엔 젤 약 기	50,000	그로웰메탈	50,000
F.A.G베어링	300,000	남 양 금 속	100,000
한 국 야 금	100,000	LG넛꼬동제련	200,000
그 린 산 업	100,000	유 일	50,000
대 성 셀 텍	50,000	대 철	100,000
삼성정밀공업	50,000	평 화 산 업	200,000
케이피이아이	50,000	LG필립스LCD	500,000
협 진 정 밀	50,000	삼 양 중 기	50,000
하이닉스(이천)	500,000	칩팩코리아	400,000
한국시그네텍스	50,000	현대에너지셀	200,000

특별정치자금 모금안내

한국노총 특별정치자금 111-13-03324-1 (외환은행 / 금속노조)

;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조합원 1인당 3.000원 납부)

금속노련 특별정치자금 376-10-002561 (제일은행 / 금속노조)

; 금속노련 중앙위원회 및 중집 연석회의 결의사항 (조직규모별 정액납부)

한국노총 특별정치자금 납부내역(2004.3.10.현재) (임시대의원대회결의 / 조합원1인당 3,000원모금)

사 업 장 명	금 액	사 업 장 명	금 액
현대오토넷	1,692,000	T. R. W	453,000
LG 실트론	1,000,000	아메리칸스탠다드	210,000
영 신 정 공	900,000	대 성 셀 텍	159,000
성 신	636,000	대 원 전 선	200,000
세아특수강	375,000	엠이엠씨코리아	200,000
서 구 산 업	450,000	한 일 튜 브	200,000
남산홈웨어	45,000	대한소결금속	330,000
세광알미늄	300,000	삼 화 전 자	1,140,000
성우오토모티브청주	285,000	두레에어메탈	630,000
엔 젤 약 기	180,000	평화발레오	924,000
평 화 정 공	1,584,000	그 린 산 업	600,000
선일다이파스	330,000	협 진 정 밀	291,000
삼 목 강 업	210,000	L G 전 자	20,000,000
하이닉스(이천)	9,000,000	쌍용동해산기	237,000
동 양 강 철	1,260,000	LG필립스LCD	10,000,000
대우일렉트로닉스	6,000,000	동 국 제 강	33,000
대 한 전 선	330,000	세 진 전 자	600,000
연 합 철 강	2,001,000	코 리 아 휠	# 630,000
일진경금속	180,000	한국코트렐	100,000
한국특수공구	150,000	동 양 정 밀	291,000
한 국 중 천	375,000	대한주택종합관리	250,000
대 동 금 속	276,000	동 방 금 속	78,000
유 일	270,000	대 철	435,000
삼 성 공 조	306,000	텍 스 텍	120,000
대우전자서비스	1,200,000	LG필립스디스플레이	5,000,000
칩 팩 코 리 아	3,480,000	풍 산	3,000,000

특별정치자금 모금 및 당원가입 독려

제 5 차 중앙집행위원회

연맹 및 노총 특별정치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산
하조직은 조속한 납부를 당부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와 녹색사민당의 원내진출을 가져옵니다.

일시 : 2004년 3월 25일 13시

장소 : 한국노총 이천여주 지역지부

문의 : 연맹 총무국

(☎ 02-864-2901)

●● 2004 시민당강화!! 제조대통합!! 임단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6호 2004년 3월 26일 (금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ol.com

금속노련 정기대의원 대회 5월 20일 개최 확정

25일 제 5 차 중앙집행위원회 이천에서 개최 해..

지난 25일 한국노총 이천여주지부 회의실에서 '제 5 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적위원 85명 중 67명(위임 15명)의 참석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케트전기 조합원 해고의 건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로케트전기 노동조합에 성실한 교섭 통해 복직요망 공문발송) ▲기아특수강 해고자 고공농성의 건 ▲2004년도 노총 장학생 배정내용 보고(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67,820.000원을 배정받아 고교생 64명·2년제 대학생 1명·4년제 대학생 1명에게 배정) ▲맹비 장기체납 노동조합 권리제한조치 결과보고(노련맹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노동조합에 권리제한 조치)을 주요업무로 보고 하였다.

또한,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오는 5월 20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장소는 지역본부에서 신청하는 장소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대의원배정을 위한 맹비납부 마감일은 4월 17일(토)이며, 대회상정안건은 대회 1주일 전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이병균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4.15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난 중앙위원회의 결의대로 연맹의 모든 물적·인적 자원을 금속후보인 김만재 녹색사민당 이천·여주지역 후보의 선거활동에 '지원' 할 것이며, 또한, 녹색사민당의 원내진출에 중앙집행위원들이 금속조직의 온힘을 모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이날 회의 이후에 녹색사민당 장상원 실장이 개정된 선거법을 설명하였다.■

'4.15총선승리 및 2004년 임단투승리'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 전국순회 이병균위원장 순회일정

3월 29일	경기	현대에너지노조 / 화성지역
3월 31일	전북	기아특수강노조 / 파츠믹노조 / KHE노동조합
4월 1일	광주	한국차량노조 / LG이노텍노조 / 화천기공노조
4월 2일	경남	FAG한화메아리노조 / 세방전지노조 / 덴소풍성노조

◎ 주40시간제 노조 교섭위원 집중교육 ◎

주 40시간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연맹은 단위노조 교섭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근로조건 저하없는 시간단축을 쟁취해 내기 위한 집중교육을 오는 4월 7(수)~8(목)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여주 031-884-0676[~9])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단위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섭위원 및 노조간부 약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1인당 3만5천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조직은 '금속노련조사통계 제62호'의 공문을 참조하여, 오는 30(화)일까지 연맹으로 팩스(02-864-0457)로 신청하면된다. ■

녹색사민당 정강정책 TV·라디오 연설회

녹색사민당은 대국민을 상대로 녹색사민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TV·라디오 정강정책 연설회"를 실시합니다.

1차 : 29일 월요일 오전 7시 46분부터 10분간
MBC라디오 FM 95.9MHz 순석회의 시선집중
2차 : 29일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10분간
KBS1 텔레비전 9시 뉴스 직후

● 2004 시민당강화!! 제조대통령!! 임단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7호 2004년 4월 1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E-mail: fkmmtu@chol.com

금속노련! 이천으로 간다!!

4.15총선 녹색사민당 이천·여주 김만재후보 지원위해 연맹본부 4월 2일부터 이천에서 선거운동지원 돌입!!

노동자 국회의원의 탄생을 예고된 4.15 총선 선거운동기간이 4월 2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맹은 그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건설된 녹색사민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결의하고, 당원확보와 특별정치자금모금에 총력을 기했으며, 또한 지난 1월 15일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김만재 사무처장을 이천·여주 녹색사민당 후보로 추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선봉에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병균 위원장은 “4.15 총선은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천·여주 녹색사민당 김만재 후보 당선에 연맹본부 뿐 아니라 산하조직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병균 위원장은 “오는 4월 2일 부터는 사무처에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기고, 나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김만재 녹색사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4.15총선 선거운동기간동안 이천·여주에서 선거운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사민당 비례대표 후보 순위 4번으로 한국중견노동조합 최해경 위원장이 배정되었다. ■

‘4.15총선승리 및 2004년 임단투승리’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 전국순회 이병균위원장 순회일정

4월 1일	광주	한국차량노조 / LG이노텍노조 / 화전기공노조
4월 2일	경남	FAG한화베아링노조 / 세방전지노조 / 덴소풍성노조

◎ 주5일제 교섭진행 상황 점검 ◎

주 40시간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됨에 따라,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주5일제 교섭지도와 효율적인 투쟁지원을 위해, 주5일제 교섭 진행 중인 사업장과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노동시간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과 주40시간제 도입시 임금노동조건·작업형태의 변동여부와 변동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당사업장 노동조합에서는, 추후 발송공문과 홈페이지(<http://www.metall.or.kr>)를 참조해 연맹 조사통계부로 팩스(02-864-0457)나 E-mail(fkmtu@chol.com)로 보고하면 된다. ■

녹색사민당 TV 방송광고 일정

4월	2일(금)	오후	8시 54분 MBC 뉴스데스크 앞
	3일(토)		7시 54분 MBC 주말연속극 앞
	4일(일)		8시 55분 SBS 주말극장 앞
	5일(월)		8시 54분 MBC 뉴스데스크 앞
	7일(수)		8시 54분 MBC 뉴스데스크 앞
	12일(월)		9시 00분 SBS 일일시트콤 앞
	13일(화)		7시 05분 SBS 소문난TV독점 7시 앞
4월	14일(수)		8시 54분 MBC 뉴스데스크 앞
			11시 15분 SBS 뉴스추적 앞

※ KBS는 4월 1일 주침을 통해 결정됩니다.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8호 2004년 4월 8일 (목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63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901 • Fax 864-0457 • E-mail: fkimtu@chol.com

4.15 총선 D-7

정당투표는 11번, 이천·여주는 4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신기원을 열어 낸 4.15 총선이 만 일주일여 남았다. 28개 지역에 출마한 녹색사민당의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잡기에 매진하고 있고, 강성천 자동차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비례대표들과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병균 금속노련 위원장 등은 전국을 누비며 녹색사민당에 정당투표를 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금속노동자후보로 추대된 김만재후보(이천·여주, 녹색사민당)의 선거본부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유권자들의 호감과 지지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금속노련 지역본부 의장단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의 금속조합원들의 지지방문과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고무되어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4월 7일에 기념방송(지역방송)이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만재 후보는 “진정한 노동자농민·서민후보이기에 이천·여주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대변” 할 것이라 밝히며,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천·여주지역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천·여주선거구 국회의원후보

김만재 후원회

국원문명 : 230101-04-053833

(여금주 : 허정우[김만재 토론회])

통 합 : 183-01-300361(여금주 : 허정우)

정치자금 10만원은 연말에 세액공제됩니다.

● 녹색사민당 정당투표는 11번 ●

17대 총선부터 도입되는 ‘1인 2표제’ 투표방식에 따라, 유권자는 1표를 지역구후보에게 투표하고, 또 1표를 자신의 지지정당에 투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중심되어 만든 녹색사민당은 지역구대표 28명과 비례대표 6명(>강성천[63세, 1번, 자동차노련위원장]>이동률[63세, 2번, 대한약사회정책위원]>정영숙[46세, 3번, 한국노총평등사업본부장]>최해경[37, 4번, 한국중천노조위원장]>이휴상[58, 5번,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여경미[35, 6번, 로마교황청 움대 준박사])을 선출하였고, 투표율에 따라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유효투표 중 3% 이상의 정당지지를 얻으면 녹색사민당의 비례대표는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

이병균위원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지역구에서 선전하는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고, 정당투표에 있어서는 기호11번 녹색사민당에 투표를 해, 녹색사민당의 비례대표를 원내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 연맹 상근임원 및 사무처

이천 선거사무실에서 선거 지원 해●

연맹은 이병균 위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정창영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상근임원과 사무직원들은 이천의 김만재후보 선거사무실에 상주하며 선거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4월15일! 노동자가 국회로 간다.

정당투표는 녹색사민당, 11번!

●..2004 시민당강화!! 제조대통합!! 입단투승리!!



WWW.METALL.OR.KR

금속노련속보

제119호 2004년 4월 14일 (수요일)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이병균 • 편집인: 김만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864-2301 • Fax 864-0457 • E-mail: flmtu@chol.com

4.15 투표하러 갑시다!! 정당기호 11 번 녹색사민당 !

지역구도 녹색사민당 후보에게... 이천·여주는 기호 4 번 김만재

이천·여주선거구 국회의원후보 김만재 후원회

국민은행 : 230101-04-053833 (예금주 : 허정우[김만재 후원회])

농협 : 183-01-300361 (예금주 : 허정우)

정치자금 10만원은 연말에 세액공제됩니다.

완수 ! 제조대통합 / 저지 ! 노동법 개악

제조노동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51-899) 서울시관악구신림1동1570-2
☎ (02) 864-2301 FAX: (02) 864-0457
http://www.metal.or.kr mailto:fmku@chd.com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150-805) 서울시영등포구영선동4가 32-100 석창B/D 2층
☎ (02) 761-8251 FAX: (02) 761-8255
http://www.fkcu.or.kr mailto:fkcu@fkcu.or.kr

준비 1 호 ▷발행일 : 어병관, 박철수 ▷편집장 : 김한세, 김시형

11월 23일. 전국노동자대회 대학로에서 만남시다.

제조대통합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화학·금속 통합연맹 추진을 위한 전국지역순회 간담회가 양 조직 공동주관으로 12.8일(월) 10시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2주間に 걸쳐 실시된다.<표 참조>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4차에 걸친 제조산업 통합추진 권역별 세미나에 이어 17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통합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조직통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합실무팀과 더불어 양 조직의 연맹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직접 전체일정에 합류할 계획이다.■

제조대통합을 위한 노조대표자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지난 10월 1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제조대통합을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정책세미나"가 총인원 219명에 이르는 많은 대표자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금속-화학연맹을 시발로 하는 제조대통합에 대한 조직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속-화학실무추진위는 권역별세미나를 통해 대다수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의견이 금속-화학실무추진위에서 마련한 통합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정리하였다. 다만, ▲의무금 ▲대의원배정 ▲통합조직임원 ▲지역본부장비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 일	시 역	장 소
12/8일 (월)	오전	서울 노총 서울본부 강당
	오후	경기(남부,중서부,중부) 노총 경기본부 강당
12/9일 (화)	오전	전북 노총 군산지부 강당
	오후	광주전남 노총 광주전남본부 강당
12/10일 (수)	오전	부산 노총 부산본부 강당
	오후	경남 노총 경남본부 강당
12/11일 (목)	오전	울산 노총 울산본부 강당
	오후	포항 노총 포항지부 강당
12/12일 (금)	오전	대구경북 노총 대구본부 강당
	오후	구미 노총 구미지부 강당
12/15일 (월)	오전	인천 노총 인천본부 강당
	오후	경기서부 노총 안산지부 강당
12/16일 (화)	오전	경기동북부 노총 여주이천지부 강당
	오후	충북 노총 충북본부 강당
12/17일 (수)	오전	충남 노총 충남본부 강당
	오후	대전 노총 대전본부 강당
12/18일 (목)	-	-
	오후	강원 노총 동해지부 강당

시작시간은 오전은 10시, 오후는 15시 예정임

양 조직간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무소위원회는 지난 11.7일(금) 7차회의를 끝내고 다음주경 8차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7차회의에서는 설문, 사례연구 등의 조사연구활동과 통합소식지, 홈페이지 등의 진행정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통합조직의 규약(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단위노조와 지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다음주경 분석완료하고 통합사례보고서 역시 다음 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통합소식지와 홈페이지 접속 화면 공동사용 등은 금주내로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규약(안) 검토안건에서는 전체 규약안을 검토한 후 대의원배정, 임원, 회의기구 등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양연맹 각 3인으로 구성된 공동실무소위원회로는 금속노련의 김만재 사무처장, 이진우 조직강화본부장, 정문주 교육국장이, 화학노련에서는 김시원 사무처장, 이준희 조직국장, 임준택 정책교육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노동자"는 제조대통합을 위한 금속-화학연맹의 통합추진뉴스를 위해 공동발행 됩니다.

사이버상의 통합 첫걸음 내딛어...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양조직이 홈페이지 상의 초기접속 화면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이버상의 통합 첫걸음을 내딛었다. 초기접속 화면 공동사용은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단계로 양조직의 기존 홈페이지 주소는 유지하되, 기존 홈페이지 접속 이전에 초기접속화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초기접속 화면에는 양조직간의 통합이유와 추진일정, 향후 통합조직의 위상 등에 대해 통합조직의 위상 등에 대해 지난 10월 배포한 바 있는 특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양연맹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기능을 설정해 두고 있다.

한편 실질적인 홈페이지 통합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통합대의원대회 시기를 즈음하여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Q & A

①통합조직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통합된 산별연맹은 조합원수 20만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연맹이 됩니다.

연맹 상근자는 30여명으로 현재인원의 배가되며, 새롭게 채용된 활동가를 지역본부마다 배치하여 중앙과 지역을 포함하여 총50여명의 상근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이는 통합조직의 정책력과 조직력, 투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단위노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은 물론 그동안 인원과 재정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제도개선에 매진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004년 통합연맹 출범과 2005년 조직안정성을 확보하여 2007년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금지 등의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2010년대 노동대오의 통일을 목표로 두면서 노동운동의 희망으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②지금까지의 논의정도는 어디까지 왔나요?

③단위노조에서 달라지는 것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A란은 조직통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관입니다

노조간 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추세이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범람하면서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감소로 귀결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몰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노동조합운동의 선택은 노조간 통합이라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국내외 노조 통합사례의 원인과 유형을 시리즈로 연재하여 금속·화학 두조직의 통합 추진의 방향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 노조 통합사례 - 독일

2. 영국·호주 / 3. 국제노동단체 / 4. 일본 - 미젠션
5. 일본 - 기간노련 / 6. 국내 - 금속산업연맹 / 7. 국내 - 공공연맹
8. 국내 - 민주화실연맹

독일노총(DGB)에서는 1996. 11월 개혁회의를 설치하여 16개 산별조직을 6개로 개편할 것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독일노총은 급강하는 조합규모(91년 약 1200만명 → 96년 900만명)하였는데 원인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생산시설이 옮겨졌고, 통독 이후 민영화로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IT 산업이 증가하였으나 조직률은 5%미만에 그치고, 유럽통합의 영향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노동조합운동은 조직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금속노조(IG-Metall)를 중심으로한 제조부문, 화학·광산·에너지 노조(IG BCE)을 중심으로 2차산업부문, 공공운수를 대표하는 베르디로 통합되어 2001년까지 6개 노조로 재편하는데 성공한다.

독일 노동조합의 통합 유형을 보면 제조업은 대표하는 IG-Metall(금속노조) 경우 당시 세계최대규모 노조로서 섬유, 목재노조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베르디(공공운수노조)는 교육과학, 체신, 매체 등의 공공운수 성격과 제3매체가 통합하여 IG-Metall을 밀어내고 조합원 300만명의 최대규모노조로 발돋움하게 된다.

1994	1998	2001
건설·농업·환경 광산·화학·에너지 철도 교육·과학 상업·은행·보험 조경·농림 매체 금속 독재·합성수지 음·식료·숙박 공공·운수·교통 경찰 체신 섬유·의복 → 이상 16개 산별노조 조합원수 9,768,373명	건설·농업·환경 광산·화학·에너지 철도 교육·과학 상업·은행·보험 매체 금속 독재·합성수지* 음·식료·숙박 공공·운수·교통 경찰 체신 → 이상 11개 산별노조 조합원수 8,310,783명	건설·농업·환경 광산·화학·에너지 철도 금속 음·식료·숙박 공공·운수·교통 경찰 → 이상 7개 산별노조 조합원수 약 800만명

완수 ! 제조대통합 / 저지 ! 노동법개혁

제조노동자

준비 2 호 ▷발행인 : 이병관, 박철수 ▷편집인 : 김판제, 김서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51-889) 서울시관악구신림1동1570-2
☎ (02) 864-2301 FAX (02) 864-0457
http://www.metal.or.kr mailto:cfklu@cfklu.com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150-805)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4가 32-100 석창B/D 2층 ☎
(02) 761-8251 FAX (02) 761-8255
http://www.fkcu.or.kr mailto:fkcu@fkcu.or.kr

지역순회간담회 개최

통합연맹추진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화학·금속 통합연맹 추진을 위한 전국지역순회 간담회가 양조직 공동주관으로 12.8일(월) 10시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17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통합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조직 통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합실무팀과 더불어 양 조직의 연맹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직접 전체일정에 합류할 예정이며 통합의 주체로 우뚝서기 위한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지축을 울린 5만의 함성

금속·화학노동자 8천여명 투쟁선봉

한국노총은 지난 11.23일 13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5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 생존권사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선언과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정치개혁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40시간제 쟁취 ▲국민연금 개악저지 ▲공공부문 자율권보장 등을 결의하였으며 특히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화학노련과 금속노련에서 8,00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하며 투쟁의 선봉에 섰다.

주40시간제 대비 노조간부교육 실시

내년부터 주40시간제가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조의 대응지침을 공유하기 위한 노조간부 특별교육이 오는 12.4일(목)-5일(금) 양일간에 걸쳐 금속·화학연맹 공동주관으로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실시된다.

양 조직간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무소위원회는 지난 11.7일의 7차회의 이후 양조직의 일정상 8차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순회간담회가 끝나는대로 8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순회간담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통합조직 규약안과 세부적인 향후 통합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에 있다.

일시	지역	장소
12/8일 (월)	오전 서울	노총 서울본부 강당
	오후 경기(남부,중서부,중부)	노총 경기본부 강당
12/9일 (화)	오전 전북	노총 군산지부 강당
	오후 광주전남	노총 광주전남본부 강당
12/10일 (수)	오전 부산	노총 부산본부 강당
	오후 경남	노총 경남본부 강당
12/11일 (목)	오전 울산	노총 울산본부 강당
	오후 포항	노총 포항지부 강당
12/12일 (금)	오전 대구경북	노총 대구본부 강당
	오후 구미	노총 구미지부 강당
12/15일 (월)	오전 인천	노총 인천본부 강당
	오후 경기서부	노총 안산지부 강당
12/16일 (화)	오전 경기동북부	노총 여주·천지부 강당
	오후 충북	노총 충북본부 강당
12/17일 (수)	오전 충남	노총 충남본부 강당
	오후 대전	노총 대전본부 강당
12/18일 (목)	-	-
	오후 강원	노총 동해지부 강당

시작시간은 오전은 10시, 오후는 15시 예정임

여성간부교육 실시...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여성동지들을 한자리에 모은 여성간부 교육이 지난 11.26일-28일, 2박3일에 걸쳐 대전에서 진행됐다.

65명의 여성동지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정치활동 강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간부의식 고취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

Q & A

②지금까지 논의의 정도는 어디까지 왔나요?

2000년 8월, 화학노련과 금속노련은 공동연대활동을 선언했다. 이후 양조직은 2001년 출범한 제조연대의 기간을 이루었으며 제조연대 활동을 거치면서 연대활동은 더욱 무르익게 되었다. 올해 초부터 양 조직은 대의원 대회 등의 결의기구를 통해 서로간의 조직을 통합하여 노동운동의 새지평을 열 것을 결의했다.

양 조직은 이후 산별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무소위원회(실무추진위)를 구성하여 현재 실무추진위는 7차까지의 회의를 진행했다. 실무추진위에서는 통합조직 규약안을 비롯한 제정, 조직개편 등의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각 연맹의 통합결의 임시대의원대회와 3월로 예정된 통합연맹 창립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월경에는 완성된 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직부면에서는 이미 양연맹이 별도의 순회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12.8일부터는 양연맹 위원장이 직접 참가한 가운데 공동으로 전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공동기자회견, 양연맹 합동워크숍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면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현재도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홍보부면은 지난 11월부터 통합소식지인 '제조노동자'를 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초기접속화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통합추진을 알리는 특보2호가 금주중 발송될 예정이며 비정기 간행물로 잡지형태의 통합관련 자료집을 1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①통합조직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③단위노조에서 달라지는 것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A란은 조직통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란입니다

2. 해외노조통합사례 - 영국 호주

1. 독일 / 3. 국제노동단체 / 4. 일본 - 미전선
5. 일본 - 기간노련 / 6. 국내 - 금속산업연맹 / 7. 국내 - 공공연맹
8. 국내 - 민주화선연맹

영국의 노조 통합은 70년대 보수당 정권 집권기부터 시작되어 90년대를 접어들면서 본격화된다. 최근의 통합으로는 1993년 7월에 출범한 유니슨(UNISON)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UNISON은 영국의 보건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공공노조가 통합한 것으로 130만 조합원을 포괄하여 영국내 최대 조직이 되었다.

통합노조의 명칭인 유니슨(UNISON)은 대부분 노조들이 명칭이 머릿글자를 조합하거나 전통적으로 산별의 특징을 나타냈던 것을 탈피하여 조합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명칭을 선택하였고 그 뜻은 통합정신과 단결을 상징하는 '조화', '화합'을 뜻한다. UNISON은 통합의 이유는 영국 보수당 정권의 신지유주의에 따른 노동조합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통합한 것이며, 조합원수의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 상태의 악화때문이다.

한편, 최근(1999년 5월)에 유니피(U.N.I.F)라는 금융부문의 단일노조가 결성되었다. 통합의 배경에는 1990년대 초 영국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소매금융부문에서 급격한 고용감소와 파트타임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해졌다는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통합조직에 대한 시도는 1990년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고용이 급감해지던 1990년대 중반 이후 각 노조의 지도부 교체와 통합을 원수시켰다.

1980년 이후 호주의 통합 사례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이 노조의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추진된 것과는 달리 호주는 정부와 노총(ACTU)이 적극적으로 노조 통합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정부와 노총은 전국수준에서 노동조합의 분산과 기업 및 사업장 수준에서의 복수노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조간 통합을 적극 장려하였다.

1980년의 경우 호주 노동조합의 숫자는 316개였다. 이중 96%는 5만명 미만이었으며, 80%는 1만명 미만이었다. 대부분이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26개 노동조합, 운수부문에서는 56개 노동조합이 존재했다.

호주의 경우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의 노동운동 혁신의 주요 의제로 조직통합과 정비 문제가 제기되었다. 1987년 호주 노총(ACTU)과 무역발전위원회(TDC)는 공동으로 구리파를 방문한 후 '호주재건'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호주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노동조합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노동운동의 개편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300개가 넘는 노조를 2년안에 20개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호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미래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1987년 총회에 승인하고 1989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그 결과 1989년 총회때에는 300개가 넘는 가맹 조직수가 80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 도 자 료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연 락 처 : 공동집행위원장 김시원 (전화: 761-8251)

김호규 (전화: 712-4252)

노동시간단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재협상 결과에 따라 6월 전국적인 제조업 총파업 돌입!

●● 5월 14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현재 노동시간단축 국회재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제조공투본)는 재협상이 노동자서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수년간 공전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것과 재협상 결과가 국회계류중인 정부입법안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써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이어질 경우 6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5월 14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 계획이다.

지난해 9월 18일 한국노총 산하 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섬유유통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민주화학섬유연맹은 제조공투본을 결성한 이래 노동시간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왔다.

특히 지난 1월 22일 제조공투본은 국회 계류중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전제로 한 재협상을 요구하여 2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수용하는 재협상 추진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4월23일부터 양노총과 경총간에 국회 재협상이 열리고 있다.

따라서 제조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명령의 과제인 노동시간단축을 위하여 제조공투본 산하 1800개 노동조합이 단협갱신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다른 한편 재협상에 최대한 협력하여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단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재협상이 양대노총의 합리적인 요구가 무시된채 공전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일관될 경우 제조공투본은 더 이상 협상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6월 전국적인 제조업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국회재협상에서 경총이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채 시간끌기식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한다면 제조공투본은 우선적으로 경총해체를 불사한 옹정투쟁에 들어갈 것이고, 국회 역시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려 든다면 제조공투본은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를 악법생산공장으로 규정하고 6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전국적으로 생산을 멈추고 전 조합원이 상경하는 투쟁을 조직할것이며 더 나아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민의의 심판을 가하는 단호한 투쟁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2003. 5. 13

한국노총 · 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금속산업연맹·민주화학섬유연맹·섬유유통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http://www.metall.or.kr>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http://www.FKCU.or.kr>

금속·화학 조직통합에 박차를 가한다

“통합소식지 발행과 홈페이지 접속화면 공동사용 시작”

내년 3월 조직통합을 앞두고 있는 화학노련(위원장 박현수)과 금속노련(위원장 이병균)이 오늘(11.13일)부터 통합소식지를 발행하고 홈페이지 초기접속화면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양연맹간의 조직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소식지 '제조노동자'는 통합관련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연맹의 단신기사와 통합관련 Q&A, 통합사례 등을 연재기사로 싣고 있다. 11.13일자로 1호를 발행한 '제조노동자'는 ▲통합추진을 위한 지역간담회 개최 ▲사이버상의 통합 첫걸음 ▲통합추진 실무위 활동보고 ▲Q&A ①통합조직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타조직 통합사례 ▲11.2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격주간을 원칙으로 발행될 통합소식지인 '제조노동자'와는 별도로 기존의 양 연맹에서 발행하던 팩스소식지인 금속노련 속보와 주간화학노련은 당분간 계속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상의 통합 첫걸음인 홈페이지 초기접속화면 공동사용은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단계로 양조직의 기존 홈페이지 주소는 유지하되, 기존 홈페이지 접속 이전에 초기접속화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초기접속 화면에는 양조직간의 통합이유와 추진일정, 향후 통합조직의 위상 등에 대해 지난 10월 배포한 바 있는 특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양연맹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기능을 설정해 두고 있다. 실질적인 홈페이지 통합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통합대의원대회 시기를 즈음하여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2003년 11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2003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 산별노조 토대 구축!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ID:FKMTU(천) 인터넷홈페이지www.metall.or.kr

성명서

조흥은행노동자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참여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우리연맹)은 조흥은행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파업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직적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의 헐값매각에 반대하면서 민족은행을 사수하기 위한 조흥은행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금융산업노조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대화를 통해 조흥은행 매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조흥은행 독자생존과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닌 노동조합의 참여하는 재실사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있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공적자금회수라는 미명 하에 일괄 매각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다. 더욱이 조흥은행 매각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면서 친미 사대외교정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말았다.

우리 연맹은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을 강경대응하는 대립적 노정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촉구한다.

정부는 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 지부 간부 16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흥은행 파업을 불법행위로 몰아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역시 사법처리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정부는 7천여 조흥은행지부 조합원들의 농성투쟁을 해산하고 탄압하기 위한 과거 독재정권과 같은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의 원인이 분명히 정부정책이 혼란과 문제 속에서 야기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조흥은행 파업이 공권력을 동원하는 강경대응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의 신호탄으로서 이후 노사, 노정관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져 질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3년 6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병균



●●● 2003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 산별노조 토대 구축!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ID:FKMTU(천) 인터넷홈페이지www.metall.or.kr

성명서

미국은 경제패권 장악을 위한 하이닉스 고사작전을 중단하라! 美 상무부의 하이닉스 45%관세 결정은 참여정부의 천미시대 외교정책이 부른 결과

미국은 급기야 하이닉스 44.7%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리므로써 경제적 패권전략의 음모를 만 천하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 2001년 11월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한국산 D램 제소를 통해 시작된 미국의 하이닉스 고사작전은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반도체 생산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미국정부의 비열한 막가파식 경제 테러가 아닐 수 없다.

美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한국정부로부터 채권은행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97년 구제금융사태이후 한국의 관치금융은 사라졌으며,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의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 의한 합법적인 금융조치에 의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정부는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미국계 시티은행의 역할과 정부 소유지분이 전혀 없는 한국 민간은행의 참여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하므로써 객관성을 잃고 말았다.

미국이 있는 곳에 약탈과 범죄뿐이다. 우리연맹은 세계를 군사력과 자본을 앞세워 힘의 논리로 장악하고 기술과 품질, 정당한 경제원리를 벗어나 정글의 법칙으로 군림하려는 미국정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미국대사관 항의 집회를 시발로 하여 범 국민적인 반미운동과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국제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미국정부의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들은 회사정상화를 위해 고진감래하며 묵묵히 생산에 힘을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미관계를 대등한 외교로 풀어나갈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 하지만 지난 대미 정상회담에서 민족자주권을 훼손하면서 까지 한국경제의 중요한 향배가 걸린 하이닉스 상계관세 건은 주요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우리 경제의 효자역할을 해온 반도체산업 1위의 주체국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굴욕적 천미시대외교정책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강변하기 전에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정부차원에 역할을 전개해야한다. 따라서 우리연맹은 참여정부가 친미사대 외교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국민의 이익과 경제를 살리는 대등한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만약 정부차원에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미국 앞에 또다시 굴복하고 방관하는 정부가 된다면 우리는 부득이 참여정부를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6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병 균



● • 2003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 산별노조 토대 구축!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ID:FKMTU(천) 인터넷홈페이지www.metall.or.kr

성명서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노무현정부는 인수위 시절 약속을 이행하여,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우리연맹)은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파업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직적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노무현정부의 인수위시절 약속인 직업상담원의 정규직화,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주요골자로 진행중인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노동부가 현 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협협상 집중교섭 요구마저 묵살하고 파업자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이것은 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정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1,800여 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부 내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등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용잡급 신분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

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혁파하고,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비교해 70% 수준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적 투쟁이다. 따라서, 직업상담원노조의 파업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신노조 투쟁이며,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적 기본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연맹은 다시한번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노동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12만 금속노동자의 이름으로 연대투쟁을 통해 노동부 및 각 지방관서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10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2003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 산별노조 토대 구축!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899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ID:FKMTU(천) 인터넷홈페이지www.metal.or.kr

성명서

㉠ 故 김주익 노동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 한진중공업 지회장 故 김주익 노동해방 열사의 유서문 중 일부

지난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지회장의 자살소식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회사측의 성실한 입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129일의 긴 시간동안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여오던 김지회장이 끝내 한진중공업 경영진들이 노동자의 피를 원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노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였다 한다.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한진제철이 지난 91년부터 노조활동을 빌미로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고, 노조간부의 임금, 주택과 노동조합비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자행하였을뿐 아니라, 이 때문에 일어난 파업에 대해 15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모든 현안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밀어 부쳐 악랄한 노조탄압을 자행하였다 한다. 이러한 한진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를 인정치 않는 전근대적 노사관이 장기파업을 조성하였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았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고인의 주검은 노동자탄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릴 수 없다는 김주익열사대책위의 방침에 따라 ‘크레인 83호’에 안치되어 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위원장의 분신자살을 겪으며 출범한 현 노무현정부가 손배소와 가압류, 노동자구속, 비정규직 양산 등 강경한 노동탄압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 내었음을 통감하고 고인의 영정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함이 마땅하다. 또한 김주익 지회장의 자살을 만든 어讎 직접적 원인인 한진중공업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과도한 가압류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을 함과 아울러, 정부의 공권력 행사과정에 있어 과잉진압이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이땅에서 나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12만 금속노동자의 참담한 심정을 담아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3년 10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병균

하나로 단결하여 미래도 뚝뚝하자!



제조연맹 통합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왜 우리는 하나되어야 하는가?

노동조합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운동의 대응은 분산·고립되어 있어 그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날로 침해되고 있다. 노동조건 또한 더욱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본은 노동운동에 마지막 쐐기를 박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악',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도적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과 노동자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갈길은 무엇인가?

현재의 고립 분산적인 조직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강화시켜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제조업노동조합의 선봉인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이 먼저 하나로 통합하여 단위 노동조합의 결집을 이룩내고 나아가 전 제조업 노동조합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시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총자본의 공세에 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다.



통합연맹 추진 일정

- 2003. 2. 18 화학노련 임시 대의원대회 제조산업간 통합추진 결의
- 2003. 5. 22 금속노련 정기 대의원대회 화학노련과의 통합추진 결의
- 2003. 10월중 통합산별을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세미나
- 2003. 11월중 통합산별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 2004. 2. 통합결의 임시대의원대회(각 연맹)
- 2004. 3. 통합대의원 대회

하나로 단결된 통합산별의 모습

하나로 통합된 산별연맹은 조합원 20만명의 우리나라 최대산별이 된다. 연맹본부 상근자는 30여명으로 배가되며, 지역본부마다 전문활동가를 배치하여 중앙과 지역 포함 50여명 정도의 상근자가 전국의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통합산별연맹의 조직력과 정책력, 투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산하조직 지원 강화는 물론 노동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본의 대공세를 20만 조합원의 힘으로 막아내게 되고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에 큰 힘이 된다. 노동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개혁세력으로서의 통합연맹은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중앙과 지역, 중앙과 업종이 유기적인 구조 속에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는 통합연맹.
우리가 하나될 때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은 한껏 열릴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우리 화학노련과 금속노련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맞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노동대오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양 조직간의 통합추진을 결의하고 새시평의 역사를 향해 한걸음씩 달려가고 있다.

이제 희망의 빛이 발하는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자.
중앙과 지역, 간부와 조합원, 생산직과 사무직, 우리 모두가 통합의 주체로서
우뚝 설 때 노동운동의 희망은 더욱 찬란할 것이다.

권어온 길

화학·금속 공동 연대 활동선언(2000. 6. 18)
제조연대 출범 및 공동활동(2001. 1. 16 -)

임시대외원대(화학), 2.18)
임원, 지역본부의장 정책세미나(금속, 3.25-26)
임원, 총집회원, 업종회장 정책세미나(화학, 4.8-9)
신별통합 추진위원의 구성(화학, 5.13)
중앙위원회(금속, 5.19)
청기대외원대(금속, 5.22)
중앙위원회 및 상급통합추진위 정책세미나(화학, 5.29-30)
통합추진 실무위 1차(5.17)
통합추진 실무위 4차 및 워크숍(5-6)
지방본부별 간담회(화학, 9.17-10.1)
통합추진 실무위 5차(9.29)
합동 지역별대표자세미나(10.14-31)
통합추진 실무위 7차(11.7)
통합추진위 구성(금속, 11.11)
임원, 총집회원, 업종회장 정책세미나(화학, 11.25-26)
합동 지역별간담회(12.8-18)

각연맹 통합협의 임시대외원대(2004.2)
통합대의원대회(2004.3)

제조통합연맹 추진을 위한 전국 지역순회간담회 일정

일 정	지 역	장 소
12.8일 (화) 오전	서울	노총 서울본부 간담
오후	경기(남부, 중서부, 동부)	노총 경기본부 간담
12.9일 (화) 오전	전북	노총 군산본부 간담
오후	광주전남	노총 광주전남본부 간담
12.10일 (수) 오전	부산	노총 부산본부 간담
오후	전남	노총 전남본부 간담
12.11일 (목) 오전	울산	노총 울산본부 간담
오후	포항	노총 포항지부 간담
12.12일 (금) 오전	대구경북	노총 대구본부 간담
오후	구미	노총 구미지부 간담
12.13일 (토) 오전	인천	노총 인천본부 간담
오후	경기서부	노총 안산지부 간담
12.14일 (토) 오전	경기동북부	노총 여주이천지부 간담
오후	충북	노총 충북본부 간담
12.17일 (수) 오전	충남	노총 충남본부 간담
오후	대전	노총 대전본부 간담
12.18일 (목) 오후	경남	노총 통영지부 간담

시작시간은 오전은 10시, 오후는 15시 예정임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http://www.fkcw.or.kr>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http://www.metall.or.kr>

여성문화활동

1장. 여성간부교육

2장. 조사활동

1. 취학전 자녀양육실태조사

2. 여성간부현황조사

3. 2003년 여성위원 추천명단

3장. 3.8 세계여성의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4장. 회의활동 및 기타활동

5장. 노동문화활동

1장. 여성간부 교육

1. 교육 목적

- 1) 여성노동운동방향 모색 및 여성간부의 역할
- 2) 여성간부의 책임의식 고양과 자세 확립
- 3) 여성노동관련법을 통한 고용평등 실현 확립
- 4) 노동조합간의 연대 및 협력구축

2. 일정 및 장소

- 1) 교육일정 : 2003. 11. 26 - 28(2 박 3 일)
- 2) 교육장소 : 대전 사또그레이스 호텔
- 3) 참석인원 : 금속노련 덴소풍성 부위원장의외 42명, 화학노련 18명

3. 주관 : 금속, 화학노련 공동주관

4. 교육내용

- 1) 여성노동관련법 및 모성보호법 해설(120분)
- 2) 여성노동운동과 정치활동 (120분)
- 3)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및 간부의 역할 (120분)
- 4)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120분)
- 5) 현장사례발표 (120분)
- 6) 그룹별 토의
- 7) 현장방문

5. 분임토의 내용

각 교육생을 4개조로 나누어 현재 사업장내의 여성문제인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직장내 성차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뿐만아니라 각 팀별 구호와 노가바(노래가사바꾸기)를 해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제 1 조 : 분임원 15명

주제 :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팀명 : 쟁취

팀 구호 : 남녀차별 타파하여 양성평등 실현하자
노가바

“남을 위한 행진곡”

남자도 여자도 성차별 구분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여성의 외침
평등은 간데없고 차별만 판을 쳐
양성평등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여성은 안다
태어나서 외치는 여성의 함성
여성이 끝으니 남자여 따르라
남녀차별없이 양성평등 실현하자

<문제점>

- 1) 조합에 대한 의식의 결여
- 2) 의식 개혁 필요
- 3) 노조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 4) 얻은것보다 손해 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조합원)
- 5) 현실을 너무 모른다

<해결방안>

- 1) 조합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자
- 2) 여성간부의 할당제 실시
- 3) 여성조합원 교육실시
- 4) 여성조합원들의 자주성 부여(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 확대)
- 5) 자기능력개발

제 2 조 : 분임원 14명

주제 : 직장내 성차별 어떻게 해소할것인가?

팀명 : 여왕벌

팀 구호 : 투쟁 투쟁 단결투쟁

성차별 노동착취
몽치자 투쟁이다.
몽치자 투쟁이다. 투쟁!

노가바

“파업가”

대한민국 여성들 우리모두 함께 나서자
남녀평등 되는 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싸우려다 여성의 권리 해골두쪽 나도 지킨다.
양성평등 아래 몽친우리 권력 ~ 성차별 물리친 우리
한땀 한땀으로 몽친우리 성공깃발 아래 나선다.

<문제점>

- 1) 일의 능력에 관계없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진급은 많이 느리고 진급하는 여성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 2) 직장상사 뿐만아니라 많은 동료 남성들도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3) 학위 차이로 인한 인격 무시가 심하다.
- 4) 자질구려한 일들은 여성의 일이라는 잘못된 남성들의 인식

<해결방안>

- 1) 논리적인 의견제시
- 2) 여성의 지식습득
- 3) 자기가 많은 일에서는 프로가 되도록 노력한다.
- 4) 단결된 연대

제 3 조 : 분임원 15명

주 제 :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팀 명 : 시너지

팀 구호 : 여성노동자 총단결로 고용평등 이겨내자

노가바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태어나서 많이도 운다지만

여성들은 또-한번 평등을 위해운다
끝없는 차별속에 우리눈물 흘러가도
머리띠를 묶으면 다시 또 단결이다.
노동자 가는길에 청춘일랑 없구나
오늘은 투쟁이다 내일은 해방!

<문제점>

- 1) 적극성, 참여성 부족
⇒ 소극적이고 남성에 비해 적극적 참여부족하다.
- 2) 교육 및 홍보부족
⇒ 홍보부족으로 인한 교육부족
- 3) 참여성 부족
- 4) 자체적으로 교육부족
⇒ 노동교육 및 율동 교육부족

<해결방안>

- 1)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
- 2) 교육의 참여활성화
⇒ 간부이외의 조합원들 교육참여, 꾸준한 노력으로 신뢰받는 간부
: 간부자신부터 자기개발(문화교육실시 : 노동가, 율동교육실시)

제 4 조 : 분임원 15명

주제 : 직장내 성차별 어떻게 해소할것인가?

팀명 : 우먼파워

팀구호 :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노가바

“ 바뀌 바뀌 ”

바뀌 바뀌 바뀌 여성의 힘으로

바뀌 바뀌 세상을 다바뀌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문제점>

- 1) 각 사업장의 마다 성격에 따른 남.녀 사원의 업무수행능력

2) 하고자하는 의식 부족

<해결방안>

- 1)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직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
- 2)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의식을 향상

교육평가서

◇ 교육과정 평가

문항	평가점수					보완·발전사항
	5	4	3	2	1	
교육내용의 실용성 (업무 및 자기계발 관련)	28	27	1			
교육인원수의 적절성	23	22	11			
교육기간의 적절성	31	15	9		1	
본과정에서 부적절한 교과목은?						여성노동운동과 정치활동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
향후 추가하고 싶은 교과목은?						간부역할을 구체적으로 여성리더쉽, 언어전달능력, 여성 노동운동과 역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수 있는내용

◇ 교육환경

구분	평가점수					보완·발전사항
	5	4	3	2	1	
강의장	27	17	10	2		많이 추움, 의자가 불편, 너무 어둡다
식단(메뉴)	31	13	10	1	1	
숙소	16	16	19	4	1	
기타 (교육시설 및 환경)	15	13	16	1		객실과 소모품배치나 거울, 실 내전등이 노후

◇강의 평가

구분		평점					비고
여성관련법 및 모성보호 (이공희 노무사)	30	15	9	2			
여성노동운동의 방향과 간부의 자세 (정영숙 본부장)	39	15	2				
직장내 성희롱 방지 (문강분 노무사)	32	20	4				
현장체험 사례발표 (최해경 위원장)	35	17	4				
여성노동운동과 정치활동 (이종복 총장)	23	16	17				

◇교육과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의견이나 제안 또는 수료소감은?

- 여성간부 교육기회(횟수)를 늘렸으면한다.
- 여성보다도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
- 교육참석전에 강의내용을 미리 숙지할수 있었으면한다.
- 장소나 교통이 편리한곳이라 좋았다.
-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활용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생각으로 알던 것을 체계적으로 들으니 마음에 닿는다.
- 노동가와 울동교육도 추가했으면

2장. 조사활동

1. 취학전 자녀양육실태조사

1) 목적

-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취학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함.

2) 조사기간

- 2003년 6월 - 8월

3)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취학전 자녀(0-7세)를 둔 한국노총 남녀조합원 1,096명(남 335명, 여 754명-금속 152명).
-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 * 신뢰수준 95%, 오차범위±3%

4) 조사결과

(1) 직장과의 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

- “결혼후 직장생활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83.0%가 ‘자녀양육’이라고 응답해 자녀양육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85.7%로 남성의 77%보다 높았음.
-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자녀양육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자녀를 돌봐줄 적절한 사람(보육시설)이 없어서’가 35.0%로 가장 많았음.

(2) 보육비용 및 시설

-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84.8%의 응답자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직장으로부터의 지원은 12.8%,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0.8%에 불과해 공식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육시설을 찾을 때 주변의 보육시설 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62.9%가 불충분하다고 답해 응답자들은 보육비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불충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보육시설별 자녀양육 실태

- 응답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육방식은 가정탁아모·가족 및 친지 등 개인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놀이방, 어린이집 등 사보육시설이 44.1%인 반면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탁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3.2%와 1.8%로 극히 낮아 대부분의 보육이 개인이나 사립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었음.

① 보육시설 이용자

- 아동 및 교사 수 : 보육시설의 총 아동 수는 51명 이상이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1-30명 22.5%, 11-20명 17.7%, 31-50명 16.2%의 순이었음.
- 이용시간 : 평일 보육시설의 정규 이용시간은 10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시

간-10시간 미만 28.7%, 7시간 미만 26.0%로 나타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육기관이 시간을 연장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53.5%가 '연장해 주는 편'이라 하였고 38.5%는 '연장해 주지 않는 편'이라 답했음.

-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 '자신이나 배우자중 한 사람이 일찍 귀가한다'가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척 친지가 잠시 맡아준다' 29.0%, '보육시설에 양해를 구해 시간을 연장한다' 13.6%로 나타남.
- 보육비용 : 자녀 1인이 1달간 현재의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비용은 11만-20만원이 42.8%로 가장 많았으나 오전반 및 종일반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화시키기 어려움.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79.7%의 응답자가 '부담된다'고 답해 보육비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급식 : 응답자의 96.3%가 보육시설에서 급식이 제공된다고 응답했으나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65.6%로, 높지 않았음.
- 안전사고 : 26.6%의 응답자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횟수는 1회가 46.9%로 가장 많았고 2회가 26.6%, 3회 이상이 18.2%로 나타남.
-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영시간, 내부환경 등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안전과 비용 등으로 나타남.

② 가정탁아모/가족·친지이용자

- 양육자 : 비동거(외)조부모 38.8%, 동거(외)조부모 21.4%로, 총 60.2%의 응답자가(외)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맡기고 있었음. 다음으로는 비동거친인척(9.8%), 동거친인척(7.4%), 탁아모(6.4%), 친지(6.2%)의 순이었으며, 파출부나 가정부는 1.7%로 적었음.
- 양육시간 : 하루 평균 자녀를 맡기는 시간은 12시간 이상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11시간 21.6%, 7시간 이하 10.1%, 8-9시간 9.9%로 나타났음. 1주일 평균 자녀를 맡기는 기간은 5일 30.1%, 6일 26.5%, 7일 10.4%, 4일 이하 3.4%의 순이었음.
- 양육비용 : 자녀 1인에 대해 31-50만원이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30만원 23.7%, 51만원 이상 19.5%이었음. 이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부담되는 편'이라 답해 보육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 : 자녀를 맡기고 있던 중에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7.4%였음.

(4) 현행 보육제도에 대한 문제점·개선방향

① 육아휴직

- 제도의 실효성 : 절반이 넘는 52.5%의 응답자가 현실적으로 출산후가 이후 육아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 '상사·동료의 눈치'가 3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원금액이 적어서' 33.4%, '원직복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30.3%, '복직시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워' 20.3%, '주위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16.1%,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15.8%의 순으로 조사됨(중복응답 분석).
- 육아휴직 정착방안 : '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직장분위기'(44.3%)와 '육아휴직급여 인상'(43.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직복직 보장'과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 확보'가 각각 38.6%와 30.8%를 차지하였음(중복응답 분석).
- 육아휴직급여 : 현재 월 30만원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월 50만원 지급이 4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월 60만원 33.8%였음.
- 적절한 육아휴직 기간 및 범위 : 적절한 육아휴직기간은 2년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27.0%, 1년 6개월 10.6%, 취학전 연령까지 8.1%의 순이었음. 적절한 육아휴직 범위는 '3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가 38.3%로 가장 많았음.

②보육제도

-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 37.6%의 응답자가 '보육시설 부족'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보육비 지원부족' 29.3%, '보육시설 설치기준 미흡' 10.1%, '보육교사 자격기준 미흡' 4.6%의 순으로 나타남.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 기준 : 현재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는 '상시남녀노동자 1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5%로 가장 많았음.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확대' 32.2%,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전환' 13.0%,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12.5% 등의 순이었음(중복응답 분석).
- 보육시설 개선방안 :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이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료 인하' 37.1%, '운영시간 연장' 33.9%, '보육프로그램의 질 향상' 31.7%로 나타남(중복응답 분석).
- 보육정책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8.7%, 보육비용

지원 27.7%, 직장보육시설 확충 25.5% 순으로 나타남. 육아휴직제도 정착과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는 각각 16.7%와 7.6%였음.

- 적절한 보육료 수준 : 절반이 넘는 52.6%의 응답자가 10% 이하라고 답했고, 이어 11-20%(28.1%), 21-30%(10.4%)의 순으로 나타남.
- 24시간 보육시설 수요 : 응답자의 58.0%가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4시간 보육시설 활성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5) 결론 및 제언

① 육아휴직제도 정착

-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현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휴직기간 연장(3년) 및 대상 확대(3세 미만 아동)
-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② 보육제도 개선

- 직장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현행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남녀노동자 1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의무설치 대상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 국공립 보육시설 : 현재 전체보육시설의 6%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함.
- 특수보육시설 : 24시간 보육시설, 영아전담, 방과후전담, 방과후혼합, 시간연장형, 휴일보육시설 등 세분화된 형태의 특수보육시설을 활성화해야 함.

③ 보육기관의 질적 서비스 제고

- 영유아보육법상 2세 미만 1:5, 2세 1:7, 3세 이상 1:20 이하로 되어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점차 낮춰가야 함.
- 연장, 휴일근로에 대비하여 보육시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급식, 의료·간호요원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강화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함.

④ 보육비 지원 확대

- 자녀양육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자세한 보고서는 연맹 홈페이지(www.metall.or.kr)의 자료실에 등록되었음.

2. 여성간부 현황조사

1) 조사목적

한국노총에서는 2004년 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를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2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하기로 한 여성할당제를 위하여 여성간부현황을 파악하여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활동을 강화하기위한 여성간부현황을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 연맹은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3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의원수는 2.8%에 불과하고 있다. 중앙위원수는 3.3%에 불과하며 임원은 2.2%에 불과하다.
전체간부수를 보면 전임,비전임 포함해서 여성간부는 13.2%에 해당한다.

[금속연맹 여성간부현황]

(단위: 명)

조합원수				대의원수		중앙위원수	
남성	여성	전체	비율	전체	여성	전체	여성
77,195	23,655	100,850	30.6%	354	10(2.8%)	120	4(3.3%)

전체간부수(금속노련)							임원수						
전 임			비 전 임			총 계	전임			비전임			총 계
남	녀	비율	남	녀	소계		남	녀	소계	남	녀	소계	
13	3	23%	54	6	11.1%	76	4	1	25%	40	1	2.5%	45

[2004년 현재]

▶ 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여성조합원비율 30.6%인데 여성간부는 18.4%를 차지하고 있다. 대의원 및 임원현황을 보면 여성위원장 총 431개의 사업장중 6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0명 대의원 89명에 불과하다.

[단위노조 여성간부현황]

[2003년 현재]

여성간부현황			대의원 및 임원현황		
간부수	여성간부	여성간부비율	위원장 (지부장)	부위원장 (부지부장)	대의원
1,846	326	17.7%	6	14	89

3. 2003년 여성위원 추천명단

번호	노동조합명	성명	직위	비고
1	한국중천	최해경	위원장	
2	동양사	이장옥	위원장	
3	엔젤악기	홍재자	위원장	
4	신우전자	임은숙	위원장	
5	유진전장	강환영	위원장	
6	하이닉스이천	윤자심	부위원장	
7	칩팩코리아	송선미	부위원장	
8	대우일렉트로닉스	김은주	여성부장	
9	풍산	김미정	여성부장	
10	현대오토넷	모경님	부위원장	
11	하이닉스반도체청주	김재경	여성부장	
12	경창산업	고영숙	여성부장	
13	신한일전기	최정숙	여성국장	
14	팬택	박지영	부위원장	
15	텔파이성우	유지연	복지부장	
16	이수세라믹	백옥현	여성부장	
17	한일튜브	이순	사무국장	
18	맥스텔레콤	김성숙	부위원장	

3장 3·8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1. 행사명 : 제96주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2. 대회슬로건 : “ 여성노동자 정치세력화 ”
3. 대회이슈 : - 모성보호 강화
 - 직장과 가정의 양립실현
 - 양성평등 실현
 - 비정규직 차별철폐
4. 대회일시 : 2004년 3월 8일(월) (14:00-17:00)
5. 대회장소 : 종로구민회관
6. 평등상 : 박덕규위원장 수상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제 96주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가 21세기 정치세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여성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이땅에서 차별 받는 7백만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잡은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보수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투쟁의서막이다. 여성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실현, 양성평등의식 제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의 물갈이와 판갈이를 위해서 녹색사민당을 중심으로 전 조직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바 있다. 정채 유권자의 51%인 우리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치세력화 없이는 이같은 결의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여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녹색 사민당의 원내교두보 확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고 여성의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여성이 주인 되는 세상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당면한 시대적 요구를 다시한번 직시하는 한편 4.15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1. 우리는 지난 2월 26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녹색사민당의

4.15 총선방침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4.15 총선에서 여성노동자의 원내 진출과 정치기반을 확보하는데 총력 매진하며 여성후보에 대한 당선운동을 적극 경주한다.

1. 우리는 정정유착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부패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4.15 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낙천낙선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1. 우리는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강력한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여성간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굴하여 조직확대강화에 적극 기여한다.

1. 우리는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금지하고 여성, 장애인, 고령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 차별해소를 위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확립등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3. 8.

제 9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제9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04년 여성노동 4대요구

요구 1.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련

요구 2. 산전후 휴가 90일 비용 전액 사회분담화

요구 3. 국공립 보육 및 방과후 시설확대

요구 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강화, 폭언폭행 규제

*** 여성노동연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4장. 회의활동 및 기타활동

1. 회의활동

1) 여성할당제 순회간담회 실시

- 한국노총은 지난 1998년도 노총 전국대의원대회시 여성할당제가 연구과제로 제시된 이래 할당제 도입을 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이같은 움직임은 2002년 본격화되어 2002년 7월 출범한 ‘한국노총개혁특별위원회’의 제4분과 ‘의식 및 관행’ 분과에서 여성할당제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한국노총 여성간부 현황 및 여성할당제 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2003년 2월 노총 전국대의원대회에 여성할당제 관련 규약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여성할당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함.

- 이에 2004년 2월 노총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04년 여성할당제 실시”를 내용으로 한 규약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회원조합 순회간담회를 실시, 여성간부 확대의 필요성과 여성간부 할당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정보통신, 금속, 화학, 연합, 공공서비스, 관광, 채신, 전력, 정투, 자동차, 담배인삼, 외기 등 12개 산별 방문

■ 순회결과

▷ 할당제에 대한 의견

- 할당제를 30%로 확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별 대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의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성을 특별대의원 15%, 대의원 15%로, 여성대의원이 30% 될 때까지 단계별로 추진

- 노총 개혁특위에 상정된 할당제(30%) 안건을 수정 없이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여성조합원이 많은 산별의 경우 할당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국노총의 할당제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협조하겠으나 점진적으로 실시하였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대의원, 중앙위원과 같은 결의기구에 여성을 점진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현재는 남성간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노총규약 개정에 의해 할당제가 도입되

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

- 여성조합원이 많은산별에 자율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2월 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6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 노총 및 여성계에 대한 건의

- 각급 조직에서 여성대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함.
- 할당제에 대한 홍보기능 및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함.
- 여성이 조직인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2004년 2월 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6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2) 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3년 6월 12일 14: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 건 : - 한국노총 여성할당제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건
- 기타사항

3)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3년 8월 21일(목) 14: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 건 : -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조사 토론회 건
-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교육실시
- 기타사항

4) 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3년 9월 23일(화) 14: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 건 : - 새하늘 새땅을 여는 대한민국 여성축제
- 한국노총 조합원 걷기 대회 계획
- 기타사항

5) 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3년 11월 25일(화) 14: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 건 :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여성간부 워크샵에 관한사항

- ICFTU-APRO 후원 워크샵에 관한 사항
- 2004년도 여성사업계획에 관한사항
- 2003년도 여성사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6) 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3년 12월 24일(목) 14: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 건 : - 2003 여성사업평가에 관한사항
- 2004년 여성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7) 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4. 1. 28(수) 11시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 건 :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관한건
- 여성할당제
- 기타 토의

8) 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4. 2. 6 (14:3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 건 : - 3. 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관한건
- 기타 토의

9) 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4년 2월 13일 (10: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회의실
- ③ 안 건 : - 제 9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관한건
- 포스터, 평등상에 관한
- 기타토의

10) 노총 여성본부 회의

- ① 일 시 : 2004년 3월 3일 (14: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회의실
- ③ 안 건 :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관한건

- 기타토의

11) 노총 여성본부회의

- ① 일 시 : 2004년 3월 23일 (10: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 건 : - 3.8 세계여성의 날 96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결과보고 건
- 여성간부 지도력 강화교육
- 기타토의

2. 교육 및 기타활동

1) 여성할당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방안모색을 위한 여성간부 워크숍

① 일시·때·참석자

- 2003. 5. 29(목) ~ 30(금)
- 강원도 설악산 현대콘도
- 회원조합 여성간부 및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15명

② 주요내용

- (1) 강의: 한국노총 여성할당제 도입 및 정착 방안 =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여성위원회의 중요성
 - 여성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여성정책을 결정하고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임
 - 여성조합원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며 집행부로부터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위상을 달리 함.
 - 여성들을 노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여성간부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여성 할당제 도입을 앞두고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함.
 - 각 회원조합 여성위원회 설치 시급, 현재 여성위원회가 설치된 회원조합은 전력, 화학, 금속, 연합, 체신 등 5곳
- (2) 토론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및 사이버 토론회 평가
 - 참여율: 예년에 비해 많은 조합원이 참여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

로 평가 됨.

- 실무 추진위원 구성 여성간들이 행사장준비, 등록 및 안내등의 역할을 맡아 줌으로써 참여 의식을 높였음.
- 희망의 배가 행사장소에 비해 너무 컸고 물결친 때문에 배출항식이 일부에게 보이지 않았음.
-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노총여성활동 사진이 충분하지 못해 민노총 단위노조 투쟁사진이 많이 사용되어 다음부터는 사진자료를 많이 확보

2) IMF 동아시아 여성노동자 워크숍

① 일시 . 장소.

- 일시 : 2003. 10. 30(목)
- 장소 : 타워호텔
 -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노조내 대표성 획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공식화함
 - 여성노동자의 조지고하에 대한 행동프로그램(중점사업)에 대한 이해를 현장단위의 조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남성/여성지도부를 대상으로 증진시킴
 -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를 담당하는 남녀 활동가를 동아시아 지역간에 네트워크함
 - 여성금속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내 연대증진
 - 동아시아지역 또는 국가수준에서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이후(Follow-up)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회원조합의 요구파악
 - 노조내 그리고 지도부내 여성노동자의 대표지위 획득을 위한 지역내 타켓 설정
 - 여성이 노조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여성조직화의 관점에서 그들의 약점을 규명

3) 한국노총 여성간부워크숍

① 일시 . 장소

- 2003년 12월 3일(수) ~ 4일(목)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한국노총 여성참여 및 여성간부 확대 방안
 - 여성위원회와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 정영숙(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여성간부 리더쉽 제고 방안/ 이주환(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기획국장)
- 여성노동자 정치 세력화 방안 / 박영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4) 모성보호 강화와 성희롱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동워크숍

① 일시 . 장소.

- 일시 : 2003. 12. 17(수)~19(금) (2박3일)
- 장소 : 아카데미하우스
- 참석자 : 한국노총 민주노총 간부 및 조합원 25명
- 후원 : ICFTU-APRO / ILO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② 강의

- 모성보호 강화방안 : 정진주(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및 명예훼손죄 남용문제
최미숙(공인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법률위원)
-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강남식 (성공회대 교수)
- 여성관련 ILO협약 및 ICFTU-APRO 성희롱 정책 : 송경진 (ICTTU-APRO 여성국장)

③ 분임토의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의 양립 실현 방안]

▶ 노동조합의 역할

- 모성보호를 여성업무로 제한하지 말고 건강권 차원에서 산업안전문제로 확대
-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지 말고, 의식변화를 통해 권리 확보
- 남성을 대상으로 모성보호교육 실시
- 모니터링 등 실태조사 실시
- 단협체결시 모성보호 관련 사항을 타협대상으로 삼지 말 것

▶ 사용자에게 대한 요구

- 대체인력 확보
-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시 휴직기간을 근무평가에서 제외

▶ 정부에 대한 요구(관련법 개정, 법의 이행 및 감시 감독 등)

- 유산, 사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에서 3년으로)

-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보장(처벌조항 강화)
- 모성보호 업종별로 근무형태를 파악하여 임신부 보호 규정 마련
- 직장 보육시설 설치 법 개정(남녀노동자 상시 15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임신부 검진시 남성도 검진휴가 사용하도록 강제
- 근로감독 강화
- 육아, 양육, 모성보건 사항을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 지원, 초등학교전 무상교육 실시

[직장내 성희롱 근절 방안]

▶ 개인적 대응

-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 표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록
-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주위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도와줌

▶ 노동조합의 역할

- 남녀 공동 교육 실시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피해자 보호(비밀유지, 가해자로부터 격리)
- 발생시 조직적으로 대응(법적)
- 단협에 성희롱금지 조항을 삽입
- 가해자 정신개조 프로그램을 실시

▶ 제도적 보안

- 법 개정 (성희롱 정의, 제3차 처벌조항 신설 등)
- TV광고를 통해 성희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5조 특례조항 폐지
- 노동법원 설립

[모성보호 확대와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동조합 요구현장]

▶ 모성보호 확대

-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확대
- 산전후휴가 확대 : 최소 ILO 기준인 14주 이상
- 육아휴직 현실화 ; 급여 인상, 기간 확대(3년 이상), 남성 육아휴직 부여 조치 방안 마련 등

- 유사산후가, 가족간호휴가, 태아검진휴가, 배우자출산간호휴직제 등 신설
- 출산, 아동수당 신설
- 대체인력 확보 : 정규직 확보, 퇴직자 인력뱅크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비정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
- 유해위험 금지 위한 방안 강구(건강권 확보)
- 교육·보육 공공성 확보 : 부처와 법 정비, 공적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확대, 국공립지원 시설 확대, 직장보육시설 확대(시설 요건 완화와 지원 확대)

▶ 성희롱 근절

- 성희롱 개념 전환 : 성적인 괴롭힘 즉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강간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전환
-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제
- 피해자 입증주의가 아닌 가해자 입증주의
- 법적 처벌, 예방 요건 강화 : 성희롱 가해자와 사업주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맞고소와 손배가압류를 불이익 조치로 법에 명시,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한 부처 창구 일원화

5) 직장가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3. 9. 16(화)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목적 : 한국노총이 실시한 조합원 자녀양육 실태조사에 기초해 직장가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6) 영유아. 교육. 보육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3년 10월 29일(수)
- 장소 : 서울시 의회회관
- 목적 : 자녀양육문제 해결을 통한 직장가 가정의 양립 실현은 실제 수요자, 아동, 교사들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정책수립과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견조정을 통해 가능함.

5장. 노동문화활동

1. 문화패 현황조사

1) 목적

노동조합의 단결과 조합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각 단위조합에서 활동하는 문화패(울동, 노래, 풍물, 연극등) 현황을 조사함.

2) 조사 기간 : 2003년 8월 27일 - 9월 6일

3) 대 상 : 전 사업장

4) 문화패 조사 결과

번호	노동조합명	문화패명	종류	인원	책임자
1	삼화전자	디딤돌	울동	9	박천덕
2	도투락인천	아울아지	풍물	8	박창희
3	대덕전자	해말	노래	7	김종현
4	“	마루	풍물	5	심재갑
5	“	질풍	울동	2	최영민
6	엠이엠씨코리아	새벽소리	노래	9	윤태진
7	경신전선		울동	6	심언신
8	“		풍물	5	추장진
9	유니크	한둥지	울동	5	박용건
10			노래	3	“
11	한국TDK	불나비	울동	8	지효선
12	풍산 안강지부	울림과 어울림	풍물	8	유철선
13	동원정공	충남노동자	풍물	3	이회복
14	동원정공	문선대	울동	2	이광인

2. 기타활동

1) 노동탄압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 ① 일시 : 2003년 11월 23일 13시
- ② 장소 : 대학로
- ③ 참석 : 풍산노동조합 안강지부 풍물패 지원

2) 노총 문화국 회의 참석

- ① 일시 : 2004년 2월 13일(금) 15시
- ② 장소 : 노총 3층 회의실
- ③ 안건 : - 2004 한국노총 총선투쟁지침 및 비디오상영
- 2004년 문화사업계획
- 노동문화교육일정관련
- 각급조직 문화패 파악건
- 노동문화 홈페이지 개편관련
- 문화단체 연대사업
- 기타토의

3) 노총 노동문화교육 참석

- ① 일시 : 2004년 3월 23일 - 25일(2박 3일)
- ②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③ 내용 : - 노동가 및 율동 교육

4) 단위노조 노동가 및 율동교육지원

대 외 협 력 활 동

· 기간활동 총괄평가 및 과제

1. 회의 및 기타활동

** 참고자료

△ 정치관계법 개정내용

△ 노동자 통일순례단 참가자현황

평가와 반성

2003년은 한국사회에 몰아 닦친 변화와 개혁이 정치권의 부패청산과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더불어 1년 내내 한국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화두는 녹색사민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제18차 중앙정치위원회(2003,12,29)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즉 한국노총 조합원의 10% 당원가입, 조합원 3000원의 특별정치기금 납부, 회원조합 및 시도지부는 각 1인 이상의 후보를 발굴하며 각 조직은 노총총선거획단에 1인을 파견하며 2004.1.15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총정치방침에 대한 힘찬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한국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최초의 원내진입 성공을 위해 조직적 결의를 모아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04.4.15 총선 결과 0.5%의 저조한 결과로 노총의 위기에 봉착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통일된 진로를 모색하고 변화와 개혁을 완수할 새로운 체제를 맞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대의협력활동을 살펴보면 2003년도는 6.15남북공동선언이후 한국노총의 노동자 통일운동과 남북노동자간 자주교류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한 해였다. 조직적으로 제1기 통일순례단이 발족되어 8월 한달 동안 전국을 통일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으며 2003년도 연대사업은 크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와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 등으로 대표되는 반세계화, 반전평화투쟁의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대외협력사업의 방향은 단연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사회의 광범위한 중도세력과의 연대전선 형성과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계급적, 계층적, 사회적 요구를 전 사회적 의제로 확대시킬 때만이 노동운동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외협력사업의 기초를 잡아 나가는데 있어서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연대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 회의 및 기타활동

1) 한국사회민주당 입주식 및 현판식

- 일 시 : 2003년4월10일(목)10:00
- 장 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 동성빌딩 6층

2) 한국사회민주당 창당기념 사회민주주의 대토론회

- 일 시 : 2003년 4월28일(월) 오후2시 - 6시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대강당
- 내 용 : 왜 사회민주주의인가?
사회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

3) 한국노총 정치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3년6월12일(목)15시
- 장 소 : 노총 3층 회의실
- 내 용 : 가, 2003년 정치 활동 보고(상반기)
나, 2003년 4월 24일 재선거 평가
다, 사회민주당 활성화 방안 및 하반기 정치활동 방향
라, 기타 토의사항

4) 사민당 주최 산별 간부 초청 간담회

- 일 시 : 2003년 6월17일(화) 17시
- 장 소 : 당사 회의실(6층)
- 참 석 : 산별 노조 간부.
- 내 용 : 가, 당의 정책,사업,전망에 대한 설명
나, 당에 대한 의견 제시
다, 기타사항

5) 선진노사 관계 및 사민주의 견학 연수

- 일 시 : 2003년 8월 31(일) - 9월7일(일)
- 방문단체: 독일 사민당, 독일 노총, 스웨덴 사민당, 스웨덴 노총
프랑스 사회당
- 참석자: 정창영 상임 부위원장

6) 한국사회민주당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3년 7월 25일(금) 10시
- 장 소 : 노총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특위 위원
- 내 용: 한국사회민주당 활성화 지원 방안 등

7) 한국노총 제17차 중앙정치위원회

- 일 시 : 2003년 8월 22일(금) 14시
- 장 소 :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3층
- 안 건: 가, 상반기 정치활동 평가
나, 한국사회민주당 활성화 지원 대책
다, 2004년 총선 전략
라, 기타 토의사항

8) 한국사회민주당 제1기 사민주의 시민아카데미

- 일 시 : 2003년 9월23일부터 10월16일까지(주2회:화,목) 오후7시
- 장 소 : 당 대회의실

9) 한국노총 제18차 중앙정치위원회

-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16시
- 장 소 : 여의도 “외백”
- 안 건 : - 사민당 현안 및 2004년 총선에 관한 건
- 기타 토의

10) 산별 정치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4년 1월30일(금) 14시
- 장 소 : 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4.15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토의사항

11) 제17대 총선관련 T/F팀 1차 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4년 2월 5일(목) 10시
- 장 소 : 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T/F팀 운영에 관한 건
- 위촉장 수여
- 기타 토의사항

12) KBS 편파.불공정 보도 항의 집회

- 일 시 : 2004년 2월11일(수)14:00 - 15:30
- 장 소 : KBS정문 앞

13) 사민당 총선승리 결의대회

- 일 시 : 2004년 2월 22일(일) 14:00
- 장 소 : 올림픽 역도 경기장

14) 사민당 전당대회

- 일 시 : 2004년 2월 18일 오후3시
- 장 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강당
- 안 건 ; - 녹색평화당과의 합당 결의에 관한 건
-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구성에 관한 건

15) 산별 및 시도본부 통일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3년 4월 14일(월) 오후2시
- 장 소 : 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5.1절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평양 방북 건

- 통일위원회 구성 건
- 남북노동자 서로돕기운동의 건(통일기금조성)

16) 산별 통일위원회 간사 회의

- 일 시 : 2004년4월29일(화)오후3시
- 장 소 : 노총 3층 회의실
- 내 용 :- 5.1절 통일대회 무기 연기와 관련 참가비 반환여부 등 향후 대책
 - 노총통일기금 조성운동 활성화 대책
 - 기타 안건

17) 산별 통일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3년5월29일(목)오후3시
- 장 소 : 노총3층회의실
- 안 건 :- 5.1절 통일대회 무기연기 이후 사후 진행사항 보고 및
 - 향후 대책
 - 노총 통일기금조성운동 활성화 대책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활동
 - 기타 안건

18)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및 “국제평화대회”

- 일 시 : 2003년 6월15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
- 장 소 : 백범기념관 및 도라산역

19) 산별 통일위원회 간사 회의

- 일 시 : 2003년7월10일(목)오후2시
- 장 소 : 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8.15 민족 공동 행사 실무접촉 결과 보고
 - 제1기 한국노총 노동자 통일순례단 추진 계획 논의

20)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 일 시 : 2003년 8월14일(목) - 17일(일) 3박4일간

- 장 소 : 평양
- 참가규모 : 총300명(노동부문 26명)

21) 산별 통일위원회 간사 회의

- 일 시 : 2003년7월25일(금) 오전11시
- 장 소 : 한국노총 2층 소회의실
- 안 건 : - 제1기 한국노총 통일순례단 관련
 - 노총 통일기금 모금 활성화 대책
 - 양대 노총 8.15노동자 통일대회(서울)개최에 관한 건

22) 반전평화,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2003년 통일염원 노동자대회

- 일 시 : 2003년 8월15일(금)오후3시
- 장 소 : 종각 4거리

23) 통일단체 지도자 교육

- 일 시 : 2003년10월13일(월) - 15일(수)
- 장 소 : 통일교육원 교육관

24) 산별 통일 . 대외협력 담당자 연석 회의

- 일 시 : 2003년 10월8일(수) 오후2시
- 장 소 : 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 노동자 통일대회 연기 관련
 - 제1기 한국노총 통일순례단 활동 평가
 -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국민행동 활동
 - 노총통일기금 조성운동 경과보고 및 향후 모금 활성화대책
 - 각급 조직 통일위원회 활성화 대책
 - 기타 안건

25) 2003년 통일순례단 전체 워크샵

- 일 시 : 2003년11월6일(목) - 7일(금)
- 장 소 : 강원도 속초 한전연수원
- 안 건 : - 2003년도 제1기 통일순례단 전체 평가

- 2004년도 한국노총 통일사업기조 및 제2기 통일순례단 활동
기조 토론

26)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 일 시 : 2004년 3월1일(월) 15:00
- 장 소 : 탑골공원

27)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노동조합 심포지움

- 일 시 : 2004년 2월 26일(목) 오후4시
-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
- 주 제 : 한반도 위기의 실상과 전망

28) 산별 통일위원회 간사 회의

- 일 시 : 2004년3월2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노총 3층 회의실
- 안 건 : -2004년 남북노동자 5.1절통일대회에 관한 건
 - 노동자통일기금 조성에 관한 건(못자라용 비닐보내기운동)
 - 산하조직 통일위원회 활성화 논의

29) 남북노동자 5.1절 기념행사 방북단 추천

- 일 시 : 2004년4월30일(금) - 5월3일(월) 3박4일
- 장 소 : 평 양
- 참석인원 : 10명

2004. 3. 9.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선거법

구분	기존안	개정안	조항
투표방식	1인1표제	1인2표제(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	146조
사전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신설>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후 명함배부, E-메일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허용	60조 2항
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	지역구마다 2회	폐지	75조~77조
축.부의금	1만5천원이하의 축부의금 제공가능	상시 전면금지	113조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선거기간중 금지	선거일90일전부터 금지	111조
선거비용 보전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반환(항목별)	유효투표수 10-15% 득표시 50% 보전, 15%이상 득표시 전액보전(총액기준)	122조 2항
선거비용지출	<신설>	1회 2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 등 사용 의무화	127조
선거비용 제한제재 강화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 초과지출로 징역형 받은 때 당선무효	300만원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263조
유권자 과태료 부과	<신설>	경미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자는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261조
선거기간 단축	17일	14일	33조
국회의원 정수	273명(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	21조

구분	기존안	개정안	조항
지구당폐지	유지	폐지, 시·도당을 5개이상 두되 법정 당원수는 1천인 이상으로 함	3조, 27조
입당, 탈당	서명날인한 입당 원서 제출	인터넷을 통한 입당, 탈당 허용	20조, 23조
중앙당 유급사무원수 제한	중앙당 150명 제한	중앙당 100명, 시도당 5명 이내	30조 2항
여성비례대표수 명시	<신설>	여성비례대표 50% 공천 의무화	31조
지역구 30% 여성후보 추천시 보조금 지급	<신설>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여성후보를 추천할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17조 2항

* 정당법

* 정치자금법

구분	기존안	개정안	조항
후원회 폐지	중앙당, 시도지부, 개인 후원회 설치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 2년후 폐지 국회의원 후원회 유지 예비후보자(국회의원, 당 대표, 대선후보 경선 참여자) 후원회 신설	6조
지점의 후원금 기부금지	연간 2억5천만원까지 기부 가능	중앙당, 시도지부, 개인후원회에 대한 기 업, 단체 명의 후원금 기부 금지	12조
개인의 후원금 제공한도	연간 1억2천만원 1회 익명 기부한도 100만원	연간 2천만원(중앙당 1천만원, 시도당 및 개인 500만원) 1회 익명기부한도 10만원	6조 2항
후원회 후원금 모금한도	중앙당 300억원 국회의원 3억원	중앙당 50억원, 시도당 5억원 개인 1억5천만원 (선거있는 해 2배)	5조, 6조3항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기준	기부자 공개금지	중앙당 연간 500만원 초과 개인, 시도당: 연간 120만원 초과	24조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신설>	1회 100만원이상 기부, 50만원 이상 지출 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2조
정치자금 세액공 제	정치자금 소득공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소득공제	27조

[2004. 3. 9] 개정된 정당법 주요내용

1. 법정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도록 함(제3조).
2. 현행 서면에 의한 입·탈당 방법 외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입·탈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의기관의 결의를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23조 및 제29조의2).
3.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회계검사를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제29조제2항).
4.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5.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은 100인 이내로, 시·도당은 5인 이내로 축소 변경함(제30조의2제1항).
6.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제31조제2항 및 제3항).
7.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4항 및 제6항).
8.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투·개표사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4 신설).
9.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6 신설).

10.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등을 훼손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연설·방송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신설).

11. 당내경선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및 현행범으로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제56조 신설).

[2004. 3.9]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주요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2.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선거기간중의 대담·토론회 및 선거기간전의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도록 함(제8조의7 신설).

3. 선거부정감시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선거일전 120일부터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함(제10조의2).

4.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을 선거일전 120일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5.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는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제18조제1항제3호).

6.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함(제21조제1항).

7.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한 국회의원 정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할 수 있게 함(제25조 단서 신설).
8.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당적을 가진 자와 국회의원은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원내정당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제24조제2항, 제3항, 제7항 신설).
9.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함(제33조제1항제2호).
10.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하였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학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제49조제4항제4호).
1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도록 함(제49조제13항).
12. 기탁금 반환시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50%를 반환토록 함(제57조제1항).
1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3호 신설).
14.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이내 설치,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한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명함형인쇄물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의2 신설).
15. 정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의2).
16.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함(제

68조제2항).

17.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항제2호 신설).

18.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함(제75조 내지 제78조 삭제).

1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서만 연설·대담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1인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79조 제8항 및 제11항)

20.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기간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선거기간전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제82조의2, 제82조의3 신설).

21.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제82조의4 및 제82조의5 신설).

22.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82조의6 신설).

23.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구역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기로 함(제86조제3항 신설).

24.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도록 함(제103조제4항 신설).

25.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기로 함(제111조제1항).

26. 기부행위는 현행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던 것을 상시 금지하도록 하되,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등은 허용하기로 함(제112조).
27.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을 항목별 산정에서 총액산정으로 변경하기로 함(제121조 신설).
28. 선거비용은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12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29.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4조제1항 및 제2항).
30. 정당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이내의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7조제1항제1호).
31. 정당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이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7조의2 제1항제1호).
32. 확대당직자회의를 폐지하기로 함(제142조 삭제).
33.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현행 오후 6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함(제155조제1항).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제189조).
35. 선거범죄에 있어서 행위자 이외에 정당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확대적용하기로 함(제260조).
36. 형사소송법에 의한 현행범 및 준현행범이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한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1조제1항제2호).

37. 경미한 금품수수 등에 있어서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1조제4항 신설).

38. 선거범죄 신고자등의 신상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등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62조의2 신설).

39.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기로 함(제263조제1항).

40.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되는 형의 요건을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범죄의 종류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추가하였으며, 연대책임대상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후보자와 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이 3분의 1이상 지출한 자를 포함하며,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제265조).

41.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제265조의2 신설).

42.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확정판결전 사직한 자는 당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함(제266조제2항).

43. 선거일후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행위시부터 6월로 하되,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선거일후 3년으로 함(제268조제1항).

44. 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결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0조의2 신설).

4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종전에는 금품·향응제공 선거범죄의 경우에만 증거물품 수거,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선거범죄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되,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일후에만 출석 또는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72조의2 제2항 및 제4항).

46.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아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72조의3 신설).

제1기 한국노총 노동자통일순례단 참가 현황

No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참가기간	참가지역
1	금속노련	부위원장	정일진	02-864-2901	8/1-8/3	대구.경북
2	금속노련	홍보차장	정길채	02-864-2901	8/1-8/3	대구.경북
3	도투락	위원장	이운길	032.757.4797	8/1-8/3	대구.경북
4	도투락	교선부장	박순광	032.757.4797	8/1-8/3	대구.경북
5	금속노련	정치국장	김정완	02-864-2901	8/4-8/6	창원.부산.울산
6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만재	02-864-2901	8/7-8/11	광주.전주 천안. 경기
7	금속노련	기획부장	한동균	02-864-2901	8/12-8/15	강원.인천.서울
8	LG전자	지부장	박준수	055.260.3145	8/11-8/13	강원.인천.서울
9	LG전자	총무부장	홍경우	055.260.3145	8/11-8/13	강원.인천.서울
10	LG전자	쟁의부장	장경문	055.260.3145	8/11-8/13	강원.인천.서울
11	LG전자	문화부장	허형도	055.260.3145	8/11-8/13	강원.인천.서울
12	금속인천	의 장	손종홍	032.437.8505	8/9-8/11	대전,천안.경기
13	삼양감속기	위원장	최인석	032.816.3671	8/9-8/11	대전,천안.경기
14	우진기계공업	위원장	심정권	032.817.2279	8/9-8/11	대전,천안.경기
15	루 보	위원장	문봉인	032.821.9505	8/9-8/11	대전,천안.경기
16						